

博士學位論文

제주 지명어의 형태·음운론적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文 德 燦

2005 年 12 月

제주 지명어의 형태·음운론적 연구

指導教授 金 光 雄

文 德 燦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2月



文德燦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5年 12月

A Study on Morphology and Phonology
of Jeju place Name Words

Moon, Deok-chan
(Supervised by Professor Kim, Kwang-wo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DEPARTMENT OF KOREA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DECEMBER 2005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사 개관	2
3. 연구 방법	5
II. 지명어의 후부요소 분석	7
1. 후부요소 분석	7
가. 골[谷]系	10
나. 길[路]系	12
다. 논[畚]系	15
라. 돌[石]系	16
마. 동굴(洞窟)系	20
바. 들[野]系	21
사. 마을[洞]系	25
아. 머들[磊]系	32
자. 물[水]系	34
차. 바다[海岸]系	38
카. 밭[田]系	52
타. 분묘(墳墓)系	59
파. 숲[藪]系	60
하. 언덕[丘]系	61
거. 오름[岳]系	63
너. 위치[方位]系	66
2. 후부요소의 형태적 특성	72

III. 지명어의 형태론적 고찰	78
1. 지명어의 합성 구조	80
2. 지명어의 파생 구조	111
3. 형태 구조적 특성	114
IV. 지명어의 음운론적 고찰	115
1. 자음의 음운 현상	116
2. 모음의 음운 현상	138
V. 결론	151
參考 文獻	157
부 록	165
<Abstract>	239



표 차 례

<표 1> 제주 지명어의 후부요소 및 분포수	9
<표 2> 골[谷]系 후부요소	10
<표 3> 길[路]系 후부요소	12
<표 4> 논[畓]系 후부요소	15
<표 5> 돌[石]系 후부요소	16
<표 6> 동굴(洞窟)系 후부요소	20
<표 7> 들[野]系 후부요소	21
<표 8> 마을[洞]系 후부요소	25
<표 9> 머들[磊]系 후부요소	32
<표 10> 물[水]系 후부요소	34
<표 11> 바다[海岸]系 후부요소(1)	38
<표 12> 바다[海岸]系 후부요소(2)	38
<표 13> 밭[田]系 후부요소(1)	52
<표 14> 밭[田]系 후부요소(2)	52
<표 15> 분묘(墳墓)系 후부요소	59
<표 16> 숲[藪]系 후부요소	60
<표 17> 언덕[丘]系 후부요소	61
<표 18> 오름[岳]系 후부요소	33
<표 19> 위치[方位]系 후부요소	66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지명은 살아 숨쉬는 언어의 보고(寶庫)이다. 수많은 말들이 생성, 변화, 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라져가지만 예부터 내려오는 지명은 삶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 이 땅의 역사와 삶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옛 지명은 땅과 함께 살아온 선인들의 삶과 지혜와 문화가 생생히 살아있어서, 간직해야 할 소중한 문화재이자 국어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다.

단순히 숫자로 표시되는 산과 전(田), 그리고 마을의 번지, 대부분 한자어화한 마을 이름이나 행정구역명은 획일적 구분을 위한 지명이나 숫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옛 지명은 산과 계곡, 논밭과 하천, 들판과 마을, 심지어는 바위 하나 하나에도 그 나름의 고유한 이름이 있다. 이러한 이름에는 땅의 형세와 모양이 있고, 인간의 삶의 모습과 역사가 있다.

그리고 지명은 토착성과 보수성이 강한 유기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이름이 한번 정해지면 그 생명이 오래간다. 그 결과 우리 문자가 없었던 매우 오랜 옛날부터 부르던 옛 지명이 오늘날까지도 대부분 변하지 않고 살아남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찍이 땅에 사람이 들어와 살고 생활 터전을 마련하면서 이름지어졌던 옛 지명 또한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산과 계곡이 평지가 되어 도시를 형성하면서 많은 옛 지명들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명이 땅과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이름지어진다면 이처럼 삭막한 세상도 없을 것이다. 개발로 인해 지명이 사라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운 마을 지명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1동, 2동, 3동 하는 식으로 지어진다면 땅의 역사와 그 땅과 함께 하는 삶의 역사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옛 지명의 발굴 및 연구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비롯된다. 게다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식 한자어로 바뀌기 시작한

행정구역 지명이 오늘날 많이 퍼져 있어 옛 지명의 발굴 및 계승에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는 옛 지명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특이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행정구역 지명만 한자어화했을 뿐 대부분 지명이 고유 지명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아마도 조선시대에 문서 기록을 위해 속지명(俗地名)을 한자로 바꾸어 개명했던 육지 지역과는 달리 제주 지명은 일부 제주역사 관련 문헌이나 족보에 기록하기 위해 음과 뜻을 빌려 한자로 기록했을 뿐 고유지명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오름과 골짜기, 숲과 들, 밭과 마을, 물¹⁾과 내, 바다와 바다밭, 심지어는 돌 하나 하나에도 고유의 지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 지명어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고어형 지명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매우 다양하고 특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연구의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명어 중 후부요소의 형태 분석을 통하여 의미 관련성을 지닌 것끼리 분류하여 체계화하고, 지명어의 형태소 분석을 통하여 조어 형성 과정을 밝히며, 제주 지명어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음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여 제주 지명어의 형태, 음운론적인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2. 연구사 개관

이희승(1932) 이후 지명 연구나 지명어 연구에 대한 모든 분야를 다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지명학>誌 창간호(1998)에 실린 강병륜의 『지명어 연구사』에 대부분의 분야와 업적을 개관하고 있기에, 여기서는 국어학적으로 연구한 논저들을 중심으로 고유지명어의 연구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다.

국어학적 연구로서의 지명어 연구는 1970년대에서 지명어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지명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지명학은 아직 체계적인 방법론이나 이론을 제시한 입문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 ‘물’은 넓은 의미의 물이 아닌 제주지명에서 나타나는 물, 즉 용천수를 뜻한다.

지명언어학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한 논고로는 이철수(1980, 1982)가 있고, 연구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이철수(1980, 1982, 1983a)와 김윤학(1983a, 1985b), 김영태(1983) 등을 들 수 있다.

조사 연구는 지명자료의 수집과,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고 체계를 세우는 학문 분야로 나누어진다. 먼저 지명자료의 수집으로는 1966년부터 1986년까지 20여 년에 걸쳐 추진해 온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을 들 수 있다. 그 후 지방별로 지명자료집이 속속 출간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지명자료는 <남국의 지명유래>, <제주 토속지명 사전>,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서귀포시 지명유래집>, <남제주군고유지명>, <제주시옛지명> 등이 있다.

국어학적 연구로서의 지명어 연구 영역은 어휘론적 연구, 형태론적 연구, 음운론적 연구, 응용언어학적 연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구분에 따라 연구 흐름을 살펴보겠다.

강병륜(1997)이 199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 업적을 분야별로 기술하였는데, 어휘론적 연구에서 지명어 語種構成을 다룬 것으로 이돈주(1966a), 정철(1973a), 신경순(1975), 이용주(1977), 배대운(1979), 성광수(1980), 김윤학(1980) 등이 있고, 소재 유형과 유연성에 관한 연구로 이돈주(1966a, 1971), 신경순(1973, 1975), 정철(1973b), 이용주(1976, 1977), 김윤학(1980, 1983b) 등이 있다. 지명어의 命名기반과 유연성의 유형 분류는 이돈주(1971)와 김윤학(1980)의 분류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전자가 자연적인 소재를 강조했다면 이돈주의 분류방법을 이어받고 있음에 반하여, 1980년대의 연구는 김윤학의 분류를 답습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명어의 전접 요소를 중심으로 의미유형을 고찰한 것으로 이창섭(1973)이 있고, 소지명을 중심으로 語意 내지 語源을 파악해 보고자 한 연구로 김준영(1973, 1977, 1985, 1986)과 성광수(1980)가 있다고 했다.

형태론적 연구는 어형성과 지명 후부요소에 관한 연구로 압축된다. 어형성을 언급한 연구로 형태론적 구성형식을 파생법에 국한하여 검토한 이돈주(1965a, 1966a)와 김해 지명 205개를 합성법과 파생법에 의해 분석한 박대권(1973), 지명어 구조를 ‘修飾語素+根幹語素’로 공식화한 심여택(1975), 地名語辭 내부의 각 형태소를 분석 추출하는 방식으로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로 나눈 신경순(1977) 등이 있고, 이들의 방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명

어의 내부적 구성관계를 직접구성요소(IC, Immediate Constituent)로 분석을 시도한 김윤학(1983a)이 있다. 김윤학(1986)에서는 지명어의 짜임새를 살펴 지명어 語構成의 원리와 一般語辭와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지명어 후부요소에 관한 연구는 이돈주(1965b)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돈주는 전남지역의 지명에 등장하는 지명 접미사 30개를 추출하여 고지명과의 비교를 통하여 어원, 의미 등을 추적하였고, 유재영(1971)은 전북지방의 지명어에 나타나는 지명 후부요소 30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공주군 자연부락명의 후부요소 121개를 분류 제시한 이창섭(1973)과 충북지역의 지명 후부요소 55개 항목으로 분류한 신경순(1973)의 연구도 있다. 이들 외에도 문제시되고 있는 지명 후부요소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최범훈(1973)과 이근규(1976a, 1976b), 김홍식(1978) 등이 있다.

음운론적 분야의 연구 업적을 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적은데, 이돈주(1965a), 정철(1973a), 신경순(1977), 김윤학(1980, 1983a)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형태 음운론적 입장에서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을 언급하고 있다.

응용언어학적인 면에서 표기법과 지명정책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표기법에 관한 연구로 유재영(1971)과 최범훈(1973), 김윤학(1980, 1983b, 1984, 1986, 1987) 등이 있다. 유재영은 전북지방의 전래지명을 중심으로 한자화 과정을 살폈으며, 최범훈은 한자지명에 나타나는 이두, 한국식 造字를 탐색하였다. 김윤학의 일련의 논문에서는 맞춤법 관계에 있는 땅이름을 논하면서 고유지명과 한자지명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한자지명에 관한 연구로는 이돈주(1966b, 1968)가 있는데 이돈주(1966b)에서는 전남지역의 행정지명을, 이돈주(1968)에서는 한국의 행정지명을 대상으로 한자를 통계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지명이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시 이루어진 지명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선조의 命名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지명정책에 관한 연구는 김종훈(1964)과 김윤학(1984)이 있어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도시가 생겨나고 거주지가 확대 일로에 있

으며,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상의 변화가 심한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새 지명의 命名을 다루는 지명정책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제주 지명어의 음운론적 연구는 거의 없고, 어휘, 형태론적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정도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휘, 형태론적 연구는 심여택(1972, 1975)이 제주도 지명을 지형과 이용, 포괄 지명 등으로 분류하고, 그 특성과 어원을 살폈으며, 지명어의 형성을 근간 요소와 수식 요소로 나누어진다고 밝혔다. 그 후 김홍식(1978, 1985, 1986)은 지명 접미사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제주도의 특이한 지명 접미사 ‘-가름, -드르, -개, -므르/므를, -다라/다리, -도, -코지’ 등 7가지 지명 접미사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어원을 고대국어 및 중세국어와 알타이어계 언어와 비교하며 분석, 고구(考究)하였다. 다음으로 송하진(1987)은 지명어를 한정소(전접 요소)와 보편소(후부요소)로 나누고, 제주 지명어 보편소 17가지를 추출하고 의미, 형태론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박용후(1992)는 제주 지명어에 나타나는 후부요소를 중심으로 40가지의 지명어 후부요소를 지명어 제시와 함께 언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는 제주 지명어의 국어학적 연구의 일부일 뿐 제주 지명어의 전반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하지 못했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명어 중 후부요소의 형태 분석을 통하여 관련성을 지닌 것끼리 분류하여 체계화하고, 지명어의 형태소 분석을 통하여 조어 형성 과정을 살피며, 제주 지명어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음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여 제주 지명어의 형태, 음운론적인 특징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고에 사용된 지명어 분석 자료는 주로 『제주시 옛 지명』²⁾, 『남제주군 고유지명』³⁾, 『서귀포시 지명유래집』⁴⁾에 실린 8,000여 개이다.

2) 제주시·제주문화원(1996), 『제주시 옛 지명』, 제주문화원.

3) 남제주군(1996), 『남제주군 고유지명』, 경신인쇄사.

4) 서귀포시(1999), 『서귀포시 지명 유래집』, 정아기획.

연구 방법 및 절차는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명어 어휘 분석을 시도하여, 지명어의 후부요소를 추출하고,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끼리 분류하였다.

후부요소 분석에서는 제주 지명어의 후부요소들의 의미를 밝히고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끼리 분류하고 체계화하고자 한다.

분류 기준은 첫째, 의미상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둘째, 지역적으로 동일 지역 내 분포하거나, 셋째, 지형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따라서, 제주 지명어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끼리 분류하면서, 개개의 후부요소의 의미와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형태론적인 고찰에서는 7,830개의 분석된 자료 중 남제주군⁵⁾을 제외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료를 형태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형태 분석을 통하여 지명어의 후부요소 추출이 된 제주시와 서귀포시 약 5,000여 개의 지명어 중 지명어의 형태소를 밝힐 수 있는 3,070개를 대상으로 단어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 지명어의 단어 구성을 국어 단어 형태 구조 유형에 따라 분석하여 제주 지명어의 단어 구성 형태를 파악하고, 형태 구조적 특징을 살펴 볼 것이다.

제주 지명어의 단어 구조 분석은 지명어를 직접구성성분의 유에 따라 묶고 또 각 요소의 품사별로 단어 구조를 추출하였다. 또, 형태소의 수가 3개 이상 될 때에는 결합의 선후 관계를 밝히고, 그에 따른 각 요소의 품사별로 단어 구조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는 ‘구럼비’와 같은 일반 명사이거나, ‘믄루’와 같은 후부요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논외로 한다.

그리고 음운론적 고찰 방법은 분석된 7,800여 개의 제주 지명어 중에서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지명어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의 양상에 대해 밝히고 이 지역의 고유지명을 자료로 하여 고유지명에 나타나는 음운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런 변화가 ‘어떤 환경에서 일어났는가? 또 왜 일어났는가?’를 일반 음운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5) 남제주군 자료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게재한 지명어가 지역별로 이형태가 매우 많고 부정확한 자료들이 대다수였기에 형태소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I. 지명어의 후부요소 분석

1. 후부요소 분석

지명어는 보통명사가 고유명사가 되었거나, 어원을 알 수 없는 고유지명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접 요소+후부요소’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강병륜(1997)은 전접 요소는 지명어 생성의 유연성에 따른 성격을 규명해 주고 있는 반면, 후부요소는 지명의 구성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명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어원 규명이 용이하고 분포 상황도 쉽게 알 수 있어 지명어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명어의 후부요소에 대한 명칭은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돈주(1965)·박태근(1973)·최범훈(1973,1976)·이근규(1976)·김홍식(1978)은 ‘접미사’로, 김준영(1973)은 ‘후부’로, 심여택(1972, 1975)은 ‘근간 요소’로, 신경순(1975)은 ‘후부요소’로, 신경순(1977)은 ‘후부사’로, 유재영(1971)·이창섭(1973, 1981)은 ‘접미어’로, 김형주(1981)는 ‘형태소’로, 김윤학(1986)은 ‘땡이름 형태소’로, 이철수(1982)는 ‘분류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차이는 ‘개, 머리, 고개, 내’ 등과 같은 형태소를 자립형태로 보느냐, 아니면 이들이 일반 어사에서는 자립 형태임이 분명하지만 지명어에서는 주의미 범주를 벗어나 쓰인다는 점에서 의존 형태로 보느냐 하는 입장의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하였다.

송하진(1987)에 의하면 지명어는 두 개의 직접 구성 요소(直接構成成分 Immediate Constituent)로 이루어지는데, 대개 맨 마지막 최소 자립 형식에 의미의 중심을 두고 그에 선행하는 언어 형식이 한정(수식)적인 기능을 갖는 종속 합성어의 형식을 취한다고 했다. 그래서 선행 요소를 지명 한정소, 최소 자립 형식인 후행 요소를 지명 보편소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과거 지명에 대한 논의에서 지명 보편소를 지명 접미사라 한 경우가 있다 했는데, 이를 지명 접미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지명어에는 후행 요소인 지

명 보편소가 자립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 지명어의 후부요소에서는 지명의 후부에만 접미하여 지명 특유의 형태도 사용되고 있을 뿐 독립된 의미를 갖지 못하는 형태소(-가름, -케, -털, -소, -통 등)와 단독형만으로도 독립된 의미를 갖고 아무 제약 없이 사용되고 있는 형태소(-드리, -, 돌, -올레, -샘 등 대부분의 지명어의 후부요소)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까지도 접미사로 처리함은 이론상 불합리하며, 그렇다고 후부요소를 단어와 접미사로 나누어 별도로 처리한다면 지명어의 후부요소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언급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후부요소라고 부르기로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후부’ 또는 ‘후부요소’라 하는 것과 송하진(1987)이 ‘지명 보편소’라는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명칭이기에 후부요소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제주 지명어의 후부요소들의 의미를 밝히고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끼리 분류하고 체계화하고자 한다.

분류 기준은 첫째, 의미상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둘째, 지역적으로 동일 지역 내 분포하거나, 셋째, 지형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제주 지명어는 육지와는 다른 형태들이 많이 눈에 띈다. 전접요소도 그러하지만 지명어의 후부요소에서 특히 그러한데, 본장에서는 제주 지명어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끼리 분류하면서, 개개의 후부요소의 의미와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제주의 고유 지명어의 후부요소를 관계된 것끼리 분류하고 그 분포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⁶⁾

6) 이하 ‘지명어의 후부요소’를 줄여 ‘후부요소’로 쓴다.

<표 1> 제주 지명어의 후부요소 및 분포수

분류	후부요소	분포수
골[谷]系	골/굴, 골생이, 골새, 구릉/구령, 흙/콍/코미(5개)	209
길[路]系	길/질, 다리/드리, 도, 목/목이, 올레(5개)	365
논[畓]系	논, 답(2개)	40
돌[石]系	담, 돌, 바위, 빌레, 잣, 팡(6개)	207
동굴(洞窟)系	굴, 궤/괴야(2개)	84
들[野]系	굴/굴, 드르, 버덕/버데기, 벵딕, 케, 털(6개)	220
마을[洞]系	가름/카름, 거리/커리, 골/굴, 골목, 다리, 당(堂), 동(洞), 동네, 마을/므을/므슬, 미, 이, 집/칩, 터/집터(13개)	826
머들[磊]系	머들/모들/므들, 머세/머체, 머을/머흙, 케(4개)	114
물[水]系	내/나리, 못, 물, 샘/새미, 소, 통(6개)	1171
바다[海岸]系	개, 걸, 궤, 기정, 깍, 늪, 당(堂), 덕, 돌, 머리, 모살, 물, 미, 바당, 바위, 밧/왓, 불덕, 빌레, 섬, 알, 여, 원, 창/개창/성창, 코지/콧, 통 (25개)	1309
밭[田]系	골/굴, 달이, 답단이, 드르/드루, 밧/왓/팻, 새왓, 산전(山田), 우영, 전(田), 캐(10개)	1709
분묘(墳墓)系	무덤(1개)	13
숲[藪]系	곶/코지, 술/술(2개)	97
언덕[丘]系	동산, 므르/므루(2개)	1151
오름[岳]系	뫼/메/미, 봉, 산, 오름(4개)	219
위치[方位]系	구석, 깍, 뒤, 밧, 알, 앞(6개)	96
계(99개)		7,830

가. 골[谷]系

골[谷]계는 주로 골짜기, 움푹 들어간 곳 등을 뜻하는 후부요소들을 모아 분류하였다. 제주 고유 지명어⁷⁾ 중 약 209곳(2.7%)이 분포되어 있는데, ‘골/굴/꼴/꼴’, ‘구릉/구령’, ‘흙’, ‘콤/코미’, ‘골새’, ‘골생이/골챙이’, ‘측/칭’, ‘굴치’, ‘케’, ‘엿’ 등 다양한 후부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표 2> 골[谷]系 후부요소

골/굴	골새	골생이/골챙이	구릉	흙/콤/코미	기타	계
139	4	4	30	15	17	209

1) 골/굴

‘골/굴’은 제주 지명에서는 골짜기[谷], 골[洞], 밭 등의 뜻을 지닌 후부요소로 나타난다. ‘골’의 기원은 고구려어의 ‘忽’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만주어 /holo/[山, 谷]와 대응한다(김홍식, 1985:35~38). /holo/가 후음의 후설음화를 겪어 /kolo/가 되고, 어말모음의 탈락으로 /kol/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후부요소 ‘골/굴’ 중 ‘골짜기[谷]’를 의미하는 것은 51% (139/273곳) 나타나고 있다.

(1) 감낭골	서귀 토평	상안이골	안덕 창천
소낭골	표선 표선	진새미골	남원 태흥
용작골	제주 화북	장석골	제주 삼양
중통골	안덕 동광	측낭골	표선 표선
낭꼴	제주 도두	매꼴	성산 삼달

2) 골새

‘골새’는 ‘골’의 변이형으로 골짜기를 뜻하지만, 해안지명에서는 바다 바깥쪽 난바다로 어부들의 어장이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7) 본고는 『남제주군고유지명』(3,000여 곳), 『서귀포시지명유래집』(2,000여 곳), 『제주시옛지명』(3,000여 곳)에 나타난 지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뒷골새	표선 표선	드름골새	성산 오조
섯골새	남원 위미	앞골새	남원 신흥

3) 골쟁이/골챙이

‘골창’, ‘고랑창’ 등 고어 잔존 형태에서 온 ‘골쟁이/골챙이’는 ‘움푹 패인 곳’의 뜻을 가진 후부요소이다.

(3) 골창에 낙슈 맞는 대쪽(隔漏)(漢淸 9:76)
고랑 견 : 畎(훈몽 上4)

(4) 말물골챙이	서귀 색달	앞내골챙이	서귀 대포
자운당골챙이	서귀 중문	하원골쟁이	서귀 호근

4) 구릉/구룡/구렁

‘굴형’은 ‘골짜기[壑]’를 뜻하는 중세국어 어휘로써 ‘굴형>굴엇>구렁>구룡’으로 음운이 변화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며, ‘구룡/구렁’의 의미는 ‘골짜기[谷]’, ‘우물’, ‘웅덩이’ 등 다양하다.⁸⁾

(5) 굴허에 믯룰 디내샤(深巷過馬)<龍 48>,
굴형을 눈화<杜初 八 44>
굴형에 멧귀여 주구리라 호매(欲填溝壑)<杜初 七 3>
문허진 다리와 굴엇진 길을 슈보호고<敬信 72>
구렁 학 : 壑 <兒學上 3>

제주 지명에서는 ‘구룡’, ‘구릉’, ‘구렁’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퀘여구룡	제주 연동	베락구룡	제주 노형
생구룡	제주 도련	소왕구룡	제주 노형

8) 박상규(1989), “제주도 지명에 나타난 한 어학적 요소에 관한 小考”, <제주도연구 제6집>, p. 169.

연미구릉	제주 오라	자구리구릉	제주 연동
함백이구릉	제주 노형	메구렁	성산 난산

5) 흙/콍/코미

‘흙, 콍/코미’는 ‘물이 잘 괴는 움푹 들어간 곳이나 구멍’을 뜻하는 후부요소로서 제주 지명에만 나타난다.

(7) 균지흙	제주 월평	미내기흙	제주 용강
베락흙	제주 월평	양안리흙	안덕 창천
오록흙	남원 위미	은물흙	제주 아라
제환지흙	제주 월평	오로콍	제주 월평
한지내콍	서귀 하효	오로코미	대정 신도

6) 기타

그 외 특이한 형태로 ‘굴층/굴칭’, ‘굴치/글치’, ‘엉’, ‘케’, ‘귀[邱]’ 등이 나타난다.



(8) 들렁귀(登瀛丘)	제주 오라	돛굽는엉	제주 용강
동글치	제주 아라	섯굴치	제주 아라
녹디굴-칭/층	제주 연동	밤남굴-칭/층	제주 연동
연디굴-칭/층	제주 연동	흑동이물케	제주 해안

나. 길[路]系

길[路]系는 ‘다리/뜨리’, ‘도/또’, ‘목/목이’, ‘길/질’, ‘올레’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3> 길[路]系 후부요소

길/질	다리/뜨리	도/또	목/목이	올레	기타	계
117	21	135	78	7	7	365

1) 길/질

‘길’은 제주어 음운의 특징 중 하나인 구개음화가 일어나 ‘질’로 대부분 실현된다. 후부요소 ‘길’로 사용된 경우는 단 2곳 지명뿐이며, 117곳의 지명 중 115곳이 후부요소 ‘질’로 나타나고 있다.

(9) 제실잇길	제주 외도	천서동길	서귀 천서
구린질	서귀 대포	구석질	서귀 중문
나륙질	표선 표선	답단이질	서귀 월평
동카름질	제주 내도	묵은질	제주 오라
물질	안덕 감산	선반질	제주 도련
선반질	제주 삼양	연지질	제주 도두
정드르질	제주 용담	한질	서귀 토평

2) 다리/드리

‘다리[橋]’는 그 고어형이 ‘드리’로서 제주어의 특징인 고어형을 유지한 형태로 많이 실현된다. ‘다리’로 실현된 경우가 7곳, ‘드리’로 14곳이 나타나고 있다.

(10) 가문다리	서귀 상호	고린다리	대정 신평
곶은다리	제주 도두	돌다리	안덕 동광
메누리다리	성산 오조	배고픈다리	제주 용담
조순다리	안덕 감산	동산드리	제주 오라
서문드리	제주 삼도	오등드리	제주 이도
조노케드리	서귀 보목	토산드리	표선 토산
한넛다리	제주 오라	한넛드리	제주 용담

3) 도[入口]

‘도’는 접미 지명이 갖는 지형적 환경의 특징으로 대개의 경우 통로, 입구 및 건널목 등에 위치하는 곳의 지명에 흔히 사용되었다고 본다.

또 제주 지역어에서 이 ‘도’ 語辭는 원어민간의 담화에서도 共時態로 실현

되고 있는 것으로, 대개 ‘통로’, ‘출입구’, ‘건널목’ 등의 뜻으로 쓰인다.

(11) 도를 막다(통로를 막다).

도 막은 밭(출입구가 막힌 밭)

도에 앓지 말라(통로에 앓지 말라).

(11)에서 보면 ‘도’는 원래 자립명사로서 ‘통로’, ‘출입구’, ‘건널목’ 등의 의미를 갖는 語辭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도’형 지명에서 보면 ‘도’가 갖는 원래의 뜻과 대응하는 地名例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단순한 地境, 村落 등의 의미와 대응됨을 알 수가 있으니, 지명에서의 이 ‘도’는 거의 접미사화하여 지경 또는 村, 里에 대응되는 단순한 지명접미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⁹⁾

(12) 가시남도	안덕 감산	가죽물도	표선 성읍
고른잣도	표선 성읍	곶은장도	대정 신도
난쟁이도	서귀 강정	물물도	남원 남원
살체기도	대정 신도	삼밭도	제주 해안
새모살도	서귀 용흥	정도	서귀 용흥
큰넛도	제주 노형	한질도	남원 남원
허문도	제주 노형	영또	서귀 월산

4) 목/목이

‘목’은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한 길의 좁은 곳’을 뜻하는 제주어이다. 또한 一般語辭 ‘목(項)’이 후부요소로 전용된 것으로, ‘좁다란 산협이나 물 속을 가로지르는 길목’이나, ‘통로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가리킨다고 했다(강병륜, 1997:111).

그리고 충북지역에서는 ‘목’, ‘목이’, ‘모기’, ‘메기’, ‘매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 지명에서는 ‘목’, ‘목이’ 두 가지로만 나타난다.

9) 金洪植(1985), “濟州島地方의 地名語彙攷(I)”, <논문집> 21, 제주대. pp. 4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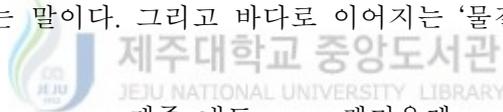
(13) 개목	성산 성산	미나리목	남원 한남
살채기목	대정 하모	장간목	대정 하모
츠남목	대정 무릉	터진목	성산 성산
곶은목이	대정 구억	구명목이	대정 일과
담배목이	제주 내도	종경목이	대정 일과
진발목이	대정 신도	허문목이	서귀 상예

그 외 ‘목지’, ‘목통’이 나타난다.

(14) 삼동낭목지	서귀 하예	광전동알목통	제주 도두
소동알목통	제주 도두	중부락알목통	제주 도두

5) 올레

‘올레’는 ‘거릿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바다로 이어지는 ‘물길’을 뜻하기도 한다.



(15) 개올레	제주 내도	퀘기올레	제주 도두
막상올레 ¹⁰⁾	표선 표선	양풍언올레	대정 무릉
옥생이올레	서귀 하예	용궁올레	성산 신평
진올레	서귀 법환		

다. 논[畓]系

<표 4> 논[畓]系 후부요소

논	답	계
33	7	40

제주 지명어에서 논系가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논이 별로 없는 제주

10) 남제주군고유지명에는 ‘올레’가 ‘올래’로 기록된 것이 많은데 제주어사전 표기에 의해 ‘올레’로 통일함.

지역의 특성을 잘 말해 주는 경우다.

1) 논

논은 제주의 지형상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물이 흐르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논 형성이 되지 않아 그렇다. 밭系 지명이 1685/7830곳(21.5%)에 비하여 논[畓]계 지명은 40/7830곳(0.5%)이 나타나고 있어 제주가 밭 중심의 농사를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잘 말해 준다.

(16) 구시논	서귀 강정	납세밧논	제주 외도
담안논	서귀 강정	당논	대정 동일
동녘논	서귀 월평	모슬논	서귀 호근
배엄논	대정 신평	뱅아리논	대정 일과
서칩논	서귀 강정	알골논	서귀 강정
원상봉이논	서귀 강정	정지논	대정 상모
큰밭논	대정 신평	흐렁논	서귀 월평



2) 답(畓)

(17) 검은답	성산 삼달	관답	서귀 강정
관답	서귀 서흥	구답	서귀 강정
덕지답	제주 이호	태답	표선 하천

라. 돌[石]系

<표 5> 돌[石]系 후부요소

담	돌	바위	빌레	잣	팡	기타	계
9	61	6	80	10	10	31	207

돌과 관련된 후부요소는 제주도 지형의 특성상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위의 후부요소 외에도 후부요소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이한 형태가 많다.

1) 담[牆]

제주도의 특징인 ‘돌로 쌓은 담’이다.

(18) 성담	서귀 대포	원담	남원 신례
жат담	서귀 토평	켓담	서귀 천지
켓담	서귀 강정	켓담	서귀 토평

2) 돌

‘돌’이 후부요소로 쓰이는 것은 돌이 많은 제주도의 특징으로 다양한 돌 모양으로 지명을 대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9) 고냉이돌	대정 영락	귤돌	대정 일과
귤돌	성산 온평	구덕찬돌	서귀 신호
네나는돌	제주 영평	징경돌	성산 성산
막개돌	남원 신흥	망보는돌	서귀 보목
매안진돌	대정 상모	귤돌	서귀 신호
선돌	성산 신양	수리아진돌	제주 해안
애기엮은돌	제주 화북	용돌	서귀 토평
장시돌	제주 건입	진누룩돌	대정 상모

3) 바위

‘바위’ 후부요소가 육지에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¹¹⁾ 제주 지명에는 돌이 많은 지역임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육지부에서 ‘바위’로 실현되는 지명 대신에 제주에서는 대부분 ‘돌’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20) 각시바위	서귀 호근	거북바위	성산 신양
-----------	-------	------	-------

11) 강병륜(1997:114)에 의하면 충북 지명에서 ‘바위’라는 후부요소를 가진 지명은 1,224 곳 나타난다.

고녕이바위	제주 내도	선녀바위	성산 신앙
선바위	서귀 호근	서근바우	제주 도두

4) 빌레[巖盤]

제주도는 암반이 많은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후부요소로 취하는 형태가 매우 많다. ‘빌레(너럭바위)’는 ‘지면에 평평하고 넓적하게 묻혀진 돌(암반)’이라는 뜻을 가진 제주어로서 화산 분출로 인한 용암이 많은 척박한 제주 지형에서 후부요소로 많이 사용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¹²⁾

(21) 검은빌레	대정 신평	납작빌레	남원 위미
넷빌레	성산 온평	너벅빌레	서귀 강정
넙은빌레	대정 일과	노른빌레	서귀 월평
노린빌레	서귀 호근	광대빌레	제주 연동
생이빌레	제주 영평	쇠빌레	대정 신도
알빌레	제주 노형	췌기빌레	제주 화북
쥐빌레	제주 아라	진빌레	제주 도두
즈피빌레	대정 무릉	튼빌레	대정 하모
프래빌레	성산 신앙	희신이빌레	제주 회천

5) 잣[城]

‘잣’은 중세국어에서 성(城)을 뜻하는 어휘였는데, 제주지역어에서는 ‘잣’은 ‘한 사람이 그 위를 걸을 만한 너비로 넓게 쌓은 성’을 일컫는다. 그런데 후부요소 ‘잣’은 전접 요소(상, 중, 하)와의 결합이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

(22) 城은 자시라(月印釋譜 1:6)

12) 송하진(1987)은 ‘빌레’의 어원을 ‘빌+래’로 분석하고, ‘빌’은 ‘별’, 또는 ‘비레[벼락 崖]’로 보았는데, ‘지표에 평평하게 깔린 암반’이라는 뜻과는 거리가 있는 듯 하다.
 13) ‘잣’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상·중·하 세 개의 잣이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 각 지역에서 두루 나타나는 지명이라 할 수 있다.

막대를 지혀 외로윈 자술 도라셔쇼라 : 倚杖背孤城(杜詩諺解 3:44)

(23) 상жат	서귀 토평	상жат	서귀 호근
중жат	서귀 서흥	중жат	서귀 토평
중жат	서귀 호근	하жат	서귀 동흥
하жат	서귀 서흥	하жат	서귀 호근

6) 팡

‘팡’은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적에 대(臺)가 되게끔 넓직한 큰 돌 따위가 놓인 것’이란 의미의 제주지역어로서 ‘팡’은 ‘넓직한 돌이 놓여 있는 곳’이란 뜻을 지닌 후부요소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24) 너븐팡	서귀 동흥	너븐팡	서귀 서흥
넙은팡	제주 삼양	넙은팡	제주 아라
넙은팡	표선 표선	동소름팡	남원 남원
모팡	서귀 상호	서소름팡	남원 남원
쉬는팡	서귀 우남	쉬는팡	성산 신평

7) 기타

‘혹/혹’은 ‘돌로 된 확[臼]’을 뜻하는 후부요소이며 ‘(엉)덕’이나 ‘두둑’은 둔덕을 의미한다. ‘툑’은 ‘평평한 곳에 조금 높이 된 자리’라는 제주지역어로 지명에서는 암반 지대를 의미하는 지명어의 후부요소로 쓰이고 있다.

(25) 검은툑	안툑 대평	깨두둑	표선 표선
당두둑	표선 표선	오부장엉툑	표선 표선
알지방툑	대정 신평	웃지방툑	대정 신평
지방툑	제주 건입	돌혹	서귀 호근
돌혹	성산 온평	방애혹	남원 한남

마. 동굴(洞窟)系

<표 6> 동굴(洞窟)系 후부요소

굴	퀘/괴야	기타	계
25	52	7	84

1) 굴(窟)

‘굴’은 천연동굴이나 인공동굴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일반적인 동굴의 뜻을 지닌 후부요소로 많이 나타난다.

(26) 굽박굴	남원 위미	퀘성이굴	안덕 서광
녹동굴	표선 세화	동큰굴	서귀 신호
물힌굴	제주 오등	미친굴	제주 도남
부계굴	제주 용강	석굴	제주 봉개
성산굴	제주 용강	양토굴	표선 성읍
엄동굴	제주 용강	짐이방굴	제주 오등

2) 퀘/괴야[窟]

‘퀘’는 ‘위로 큰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려지고, 땅 속으로 깊숙하게 패이어 들어간 굴’이란 의미의 후부요소이다.

(27) 가시남퀘	안덕 광평	구레기퀘	성산 수산
납퀘	제주 용강	내한이퀘	제주 이도
부그리퀘	남원 한남	서낭당퀘	제주 오등
오찬이퀘	대정 무릉	큰너퀘	안덕 동광
학헌이퀘	제주 아라	허릿당퀘	제주 연동
목지괴야	표선 가시	썸텐괴야	표선 가시

3) 기타

그 외 ‘동굴’, ‘귀’, ‘도’, ‘구멍’, ‘곶지/곶지’ 등이 굴을 뜻하는 후부요소로 나

타나고 있다.

(28) 들렁귀	제주 오등	저승문구멍	서귀 월평
제이동굴	대정 무릉	제일동굴	대정 무릉
제한이곱지	남원 한남	콧쿰/콧구멍	서귀 법환
큰항문이도	서귀 법환	팔개뽑지	표선 세화

바. 들[野]系

<표 7> 들[野]系 후부요소

골/굴	드르/들	버덕/버데기	뱅디	계	털/틀	기타	계
7	54	7	67	28	8	49	220

‘들’과 관련한 후부요소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후부요소가 5곳 이상 나타난 경우만 제시하였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1) 골/굴

들을 나타내는 지명에 후부요소 ‘골/굴’이 사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야초지대나 들판 이름으로 쓰이긴 했으나 아마도 ‘골/굴[谷]’과 관련이 있기에 불려진 이름인 듯 싶다.

(29) 물골	서귀 동홍	민앵이주골	서귀 우남
춘댕이골	성산 삼달	매밭진골	표선 토산
앞마궁골	안덕 대평	큰다리골	서귀 동홍

2) 드르/들

‘드르’는 ‘들[野]’의 고어형으로 15세기 이후의 문헌에 많이 나타난다. 제주 지명에서 후부요소 ‘들’로 실현된 경우는 6곳 뿐이며 49곳은 ‘드르’로 나타나고 있다. 송하진(1987:138)은 한국지명총람 지명 자료를 인용하여 ‘드르’의 뜻을 지닌 후부요소로 ‘털레’(6곳)도 ‘드르’(54곳) 못지 않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

였으나, 남제주군 동부 지역에서만 일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들’의 이형태인 ‘덜’과 제주지역어의 특수 처격 형태소 ‘레’와 결합되어 쓰이다가 문법소의 기능을 망각한 채 의미부에 붙어 단독형으로 고착된 것으로 보이며, ‘드레’와 같은 후부요소는 ‘들’과 처격조사 ‘에’의 결합형으로 보인다.

(30) 강챙이드르	서귀 서호	고개드르	서귀 호근
구미드르	대정 일과	난드르	서귀 호근
넓은들	성산 시흥	넙은드르	제주 노형
도끼드르	서귀 우남	돈드르	남원 하례
뜯드르	서귀 하예	생빛드르	성산 온평
선물드르	제주 해안	알드르	대정 하모
한드르	남원 위미	거옥대들	표선 성읍
문애주근들	서귀 우남	밤밭들	남원 위미
쇠순이들	제주 해안	짓군들	성산 삼달
죽은드레	제주 오라	큰드레	제주 오라
장기덜레	표선 토산	진밭도레	제주 내도

3) 버둑/버덕/버데기

‘버둑/버덕’은 ‘버데기’ 등과 아울러 ‘밋밋한 평지의 그리 넓지 않은 들판’을 일컫는 제주지역어로, ‘지표면 바로 밑에 암반이 깔려 있어 울창한 숲이나 경작지로 조성하지 못하는 평지 초원’을 일컫는다.

(31) 윤낭버둑	남원 신례	큰산버둑	남원 위미
첻대버덕	성산 신평	군질버데기	표선 세화
버데기	표선 하천	버데기	성산 삼달
한지버데기	표선 세화		

4) 뽕디/뽕디/뽕뒤/뽕디/뽕뒤

‘뽕디’는 ‘평평하고 널따란 벌판’을 뜻을 가진 제주 지역어이다. 송하진(1987:146)은 ‘벌다’의 관형형 ‘뽕’에 장소를 나타내는 ‘디’가 결합하여 ‘뽕디>

벤디>병디(ㄴ-ㅇ 교체)’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형에 근거한 형태로 파악하여 특별히 가파르지도 않고 널리 트인 지형으로, 들판이 높낮이가 없이 널따랗게 펼쳐진 경우를 형용한다고 하였다. 제주도 지역은 대부분 ‘벵디’로 실현되고 있고, 남제주군, 서귀포 지역은 ‘벵디’, ‘벵뒤’, ‘병디’, ‘병뒤’ 등 다양한 이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서귀포, 남제주군 지역은 읍면별 지역 조사자가 개별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검증할 거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32) 대물벵디	제주 도련	섭시벵디	제주 삼양
알벵디	제주 삼양	벵디	제주 삼양
뒷벵디	성산 신산	셋벵디	남원 위미
소벵디	서귀 호근	심돌벵디	성산 온평
허씨벵디	안덕 상창	아쟁이벵뒤	남원 남원
뒤벵뒤	대정 영락	신산뒷병디	표선 토산
못병디	서귀 강정	셋병디	대정 무릉
안병디	표선 성읍	탈왓병뒤	표선 성읍



5) 케

‘케’는 ‘어떤 풀이나 나무가 자라고 있는 초원 지대의 들’을 뜻하는 어휘인데 제주도 특유의 후부요소이다.¹⁴⁾

(33) 간장케	서귀 도순	강오장케	표선 세화
부사리케	대정 신도	서리물케	제주 노형
셋케	제주 해안	안케	남원 위미
어음케	서귀 상예	잘리케	제주 연동
쿤낭케	서귀 군남	큰케	서귀 월산
하논케	서귀 서흥	향아진케	대정 신도

14) 박용후(1992), 우리말 옛 땅이름 연구, 제주문화사. p.128.

6) 털/틀

‘털’은 ‘산(山)과 평지로 구분되는 경계’의 뜻을 지닌 후부요소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서귀포시(1999)와 남제주군(1996)에는 ‘털’을 숲과 같은 의미로 숲지대를 나타내는 제주어로 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숲지대가 아니라 산과 평지의 경계인 곳에 숲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틀’도 또한 남제주군(1996)에서는 ‘들’의 이형태로 보고 있지만 ‘털’의 이형태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34) 납개털	서귀 회수	새미털	제주 아라
서털	대정 신평	웃털	대정 일과
잠방이털	안덕 사계	동산틀	서귀 도순
도런틀	남원 남원		

7) 기타

(35) 강다리[江達伊]	성산 온평	거머리[巨頭員]	성산 온평
구석다리	제주 삼양	남천이이맹이	남원 신례
넛바랑	안덕 창천	넙은테역	제주 도런
당머리	표선 토산	대구통	제주 해안
들메기	대정 상모	독대남코	제주 오등
못버득	서귀 상호	물징거	성산 시흥
물세운이맹이	남원 신례	보섭코지	제주 아라
보섭코지	제주 영평	보섭코지	제주 화북
불미거	성산 신흥	불미저/불미꺼	성산 하천
사랑이거	성산 난산	사오기구석	서귀 동홍
알강다리	성산 온평	장테코	제주 용강
정드머르	대정 하모	죽쟁이구석	서귀 가가
진저거	성산 난산	진행이통	제주 해안
질매톡	안덕 대평	홍안이통	제주 해안
흰머체	표선 토산		

사. 마을[洞]系

마을계 지명에는 마을 안에 위치한 지명을 모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표 8> 마을[洞]系 후부요소

가름/ 카름	거리/ 커리	골/굴	골목	달이	당	동	동네	마을	미	이	집/첩	터/ 집터	통	기타	계
104	67	95	9	5	93	35	87	21	11	26	11	190	5	72	826

1) 가름/카름

‘가름’은 마을 안에서 다시 일정한 거주 지역을 구분하여 부르는 비교적 소규모의 취락 단위를 일컫는 제주어이다. 김홍식(1978:87)은 “가름의 어원을 방언 어휘 ‘갈르다[分]’란 동사의 어간 ‘갈르’에 명사형성 접미사 ‘口’이 접미되어 명사화하는 과정에서 제1음절 말음 ‘ㄹ’음이 탈락되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가름’이 왜 마을의 뜻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료하지 않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고지명에 나오는 ‘加羅, 加良, 加洛, 加耶, ...’ 등이 ‘가르, 가’의 한자 借記로 보고 ‘가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어쨌든 ‘가름/카름’은 제주만의 고유한 후부요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의 지명은 받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마을이 없어진 후 그대로 지명이 남아 사용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36) 관가름	성산 오조	동산가름	제주 봉개
못가름	제주 노형	묵은가름	남원 수망
묵은가름	표선 하천	뱅디가름	안덕 감산
빌레가름	남원 한남	세가름	제주 회천
오름가름	제주 오라	주승가름	제주 용강
첻대가름	제주 도두	큰가름	안덕 창천
구가름	서귀 법환	당가름	제주 도련
동가름	제주 도련	물가름	제주 삼양
새카름	성산 오조	새카름	성산 오조
서카름	대정 상모	안카름	남원 위미

안카름	표선 세화	알카름	제주 삼양
영카름	제주 내도	웃카름	표선 가시

2) 거리/커리

‘거리’는 단지 數詞와 함께 쓰일 경우는 도로의 분기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후부요소로서의 ‘거리/커리’는 일부 수사와 함께 결합하여 도로의 분기점으로 표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마을의 일정한 구역을 일컫는 후부요소로 실현되고 있다.

(37) 굽은돌거리	대정 일과	굿밭거리	서귀 호근
동산거리	제주 노형	들물거리	제주 삼도
모시왓거리	제주 일도	백거리	제주 아라
비석거리	대정 하모	앞거리	서귀 중문
왕돌거리	제주 해안	자리거리	제주 영평
장판거리	남원 의귀	폭낭거리	성산 신산
네커리	서귀 토평	동네커리	서귀 토평
식커리	제주 해안	알섯네커리	서귀 토평
영커리	서귀 용흥	해사커리	제주 도남

3) 골/굴[洞]

‘골/굴[洞]’은 동네를 뜻하는 말로서 육지부와 함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후부요소이다. 중세국어에서 ‘골’은 ‘洞, 고을[州, 邑, 縣], 谷’ 등의 의미를 지니며, 제주지명에서는 골짜기[谷]를 뜻하는 후부요소와 함께 마을 속의 작은 동네를 지칭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38) 고양골	서귀 상호	논짓골	대정 상모
대낭골	대정 상모	덕수골	안덕 사계
동문골	제주 일도	문드르골	대정 하모
서당골	성산 난산	신나물골	남원 남원
안골	성산 오조	알생깃골	제주 일도

여근이골	서귀 서홍	우럭골	서귀 서호
운주당골	제주 일도	장골	서귀 월평
창신골	제주 일도	폭낭골	남원 한남
누룩낭골	대정 영락	보리낭골	제주 일도
살장골	남원 태홍	성제숫골	대정 무릉
안중정골	남원 위미	옹기골	대정 구억
왓골	대정 무릉	추숫골	제주 삼도

4) 골목

‘골목’은 일반 명사의 의미와 동일하게 ‘동네 가운데 좁은 길’을 뜻하면서 일정한 구역을 지칭할 때 나타난다.

(39) 당칩골목	제주 화북	당팃골목	서귀 동홍
서녀방골목	서귀 서홍	성당골목	서귀 서홍
안골목	제주 삼양	안골목	표선 세화
안우녕골목	서귀 서홍	웃성골목	서귀 서홍



5) 다리/달이

박용후(1992:81)는 ‘다리’는 ‘달(達)’의 뒷가지 ‘이’가 붙은 것인데 ‘달’은 양달 응달의 ‘달’과 같은 것이며 또 산을 뜻하기도 한다고 했다. 제주도 땅이름에 나타난 ‘달’을 살펴보면 햇별이 잘 드는 곳 또는 비탈 등 양달과 응달의 땅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40) 가문다리	서귀 상예	막은다리(막은골)	서귀 색달
망다리	서귀 법환	붉은달이	대정 일과
오다리(吳達이)	서귀 법환		

6) 당(堂)

‘당’은 ‘신을 모셔놓고 위하는 장소’의 뜻을 지닌 말로 대부분 마을마다 당이 있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점요소가 따라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후부요

소가 되어 지명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41) 각시당	제주 삼도	곶당	표선 토산
ㄱ시락당	제주 용담	곶미당	제주 영평
내왓당	제주 용담	도노밋당	제주 오라
문수물당	대정 하모	바당당	서귀 송산
비지낭캐웃당	대정 신도	석신당	표선 하천
손당	대정 무릉	여드렛당	서귀 보목
운지당	제주 일도	일레당	남원 위미
일레당	대정 영락	큰당	서귀 하효

7) 동(洞)

‘마을’을 뜻하는 후부요소로 ‘동(洞)’(35곳)은 ‘곶/곶’(95곳)에 비해 육지 지방보다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제주도가 속지명이 한자어화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2) 가시송물동	남원 태흥	국기동	제주 연동
서동(西洞)	성산 수산	수정동	제주 외도
어은동/영은동	안덕 화순	예즈동	성산 시흥
용마동	제주 용담	월산동(月山洞)	남원 남원
주수동	제주 연동	주어동	서귀 남성
중동	제주 도두	평지동(平地洞)	대정 무릉

8) 동네

‘동네’는 육지에서는 일반명사로는 사용되지만 지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제주도는 후부요소 ‘동네’가 되어 앞의 전접 요소와 결합하여 지명이 된 경우가 매우 많다. 그리고 ‘동네’는 ‘가름’보다는 큰 단위의 마을 구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43) 개웃동네	서귀 하예	골마금동네	서귀 대포
-----------	-------	-------	-------

구릉동네	제주 아라	구중동네	제주 일도
늦개동네	성산 시흥	동산동네	제주 건입
망꽂동네	서귀 하예	모살왓동네	대정 신도
못동네	제주 도남	물쫂동네	대정 동일
벼락밭동네	서귀 상예	비즈낭동네	대정 신도
사장동네	남원 위미	성알동네	서귀 하예
소열동네	서귀 회수	식물동네	대정 신평
알동네	서귀 법환	이다릿동네	대정 상모
큰웃동네	대정 안성	한동네	성산 신천

9) 마을/믈/믈슬

‘마을’은 일반적으로 15세기 중세국어 어휘 ‘믈슬’에서 ‘믈>믈>마을’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제주어에서는 ‘믈실, 믈슬’ 등으로 받침 ‘ㄹ’으로 약화되거나, 탈락하지 않고 유지해 온 경우가 꽤 있다. 물론 후부요소에서 ‘마을’로 실현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고어형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옛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44) 대동/대촌마을	대정 상모	더데오름마을	서귀 가가
물뵈기새마을	제주 오라	백개동마을	제주 이호
사라마울	제주 도평	신산마을	제주 도평
염돈마을	서귀 염돈	절물마을	제주 외도
가령믈	제주 이도	남새믈	제주 오라
강그모슬	서귀 강정	건주믈실	제주 도련
구성믈	서귀 신희	면내믈	서귀 중문
새믈	성산 난산	올래모슬	서귀 염돈

10) 미

‘미’는 어떤 특징을 지닌 마을을 뜻하는 후부요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박용후(1992:39)는 ‘오름’을 의미하는 후부요소 ‘미, 메’는 ‘모리>모이>뫼>메>미’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메’에서 ‘미’에 까지 이른 것은 제

주어의 특징인 전설모음이 되는 경향이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김홍식(1985)은 ‘미’를 현재 나타나는 지명에서는 대부분 ‘村, 部落, 洞’의 뜻을 지닌 접미사로 보고 있으나, 그 기원을 보면 고구려어 ‘買·米’가 ‘水·井·川’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고 ‘산’과 대응하는 고유어 지명의 마을 이름으로 보아, ‘되[山]’가 변하여 ‘미’음으로 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미’는 산이나 물과 관련된 마을을 지칭하는 후부요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5) 동도노미	제주 오라	말캐미	표선 표선
무그레미	서귀 월평	물뒀/물미/물메	성산 수산
연미(淵味洞)	제주 오라	오미	성산 신평
웃말캐미	표선 표선	윗뒀미(상위미)	남원 위미
셋뒀미	남원 위미	뒀미	남원 위미

11) 이

‘이’는 ‘마을’을 뜻하는 후부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난/논다리[飛月洞]’, ‘외소낭이[孤松洞]’, ‘삼동이[三童洞]’, ‘드르생이[野生洞]’, ‘새베리(새+별+이)’ 등으로 표기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46) 거리생이	제주 아라	난다리[飛月洞]	제주 오라
논다리[飛月洞]	제주 연동	늘용이	제주 용강
덕생이	제주 회천	돌로리(도남동)	제주 도남
동한두기	제주 용담	드르생이(야생동)	제주 회천
먹돌생이	제주 오라	문정어(문쟁어)	제주 노형
붉은달이	대정 일과	삼동이(삼동동)	제주 연동
새비리/새베리	제주 노형	서한두기	제주 용담
외소낭이	대정 영락	탑바리[塔洞]	제주 삼도
해산이(회산이)	제주 오라	협산이	대정 무릉

12) 집/칩[宅]

‘집’은 제주 지명어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후부요소라 할 수 있다. 아마도 마

을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거주했거나 소문난 집을 지명으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47) 굴집/굴칩	표선 표선	동칩	서귀 신호
서펜한집	성산 온평	성안집	서귀 토평
이문집	서귀 토평	돌개칩	성산 온평
배칩	서귀 호근	왕대칩	서귀 신호

13) 터[址]/집터

제주지명어 후부요소로 ‘터[址]/집터’가 상당수(167/23곳) 나타나는데 터나 집터가 지명이 되는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 하겠다.

(48) 강충의터	제주 아라	대비터	제주 영평
동현터	대정 보성	새그남터	서귀 강정
서당터	대정 안성	섯집터	제주 도남
숫굴터	대정 무릉	연못터	서귀 용흥
가막놈집터	대정 신도	고계집터	제주 영평
굴집터	성산 난산	묵은집터	성산 신산
영길이집터	제주 월평	오공방집터	제주 이호
우계집터	제주 아라	지애집터	제주 도남

14) 기타

‘홀’, ‘답단지’, ‘어귀’, ‘어음/에음’, ‘날외’, ‘웃귀’ 등 마을의 특정한 곳을 지칭하는 후부요소들이다.

(49) 곤홀	제주 화북	날외	대정 일과
답다니	제주 봉개	답단지	대정 보성
답단지	성산 온평	답단지	안덕 감산
먼홀	표선 표선	돌막에음	성산 수산
물통어귀	안덕 광평	새홀	대정 무릉

셋곤홀	제주 화북	서옷귀(西衣洞)	남원 남원
안곤홀	제주 화북	알날외/동날외	대정 동일
알어음/남어음	남원 신흥	웃날외/웃날래	대정 신평
웃어음	남원 신흥	챗망어음(천망동)	안덕 상천

아. 머들[磊]系

‘머들’은 제주에서만 나타나는 지명으로 ‘돌무더기가 있는 곳’을 말한다. 이것에는 ‘머들/모들’, ‘머세/머체’, ‘멀/머을/머홀’, ‘케’ 등이 있다. 그 밖에 ‘뽑지’, ‘설덕’, ‘머덕’, ‘서덕’, ‘수덕’, ‘설체’, ‘작지’ 등이 있다.

<표 9> 머들[磊]系 후부요소

머들/모들	머세/머체	멀/머을/머홀	케	기타	계
41	36	7	11	19	114

1) 머들/모들

머들은 ‘머들’은 돌무더기를 뜻하는 제주어이다. ‘머들’은 돌이 많은 제주 지역이 특성을 나타내는 후부요소라 하겠다. 이형태로 ‘모들’이 있다.¹⁵⁾

(50) 가마귀머들	제주 건입	거른머들	서귀 호근
고상머들	서귀 강정	놀안머들	남원 남원
동거문머들	대정 상모	소승머들	제주 도두
용베기머들	표선 표선	제반머들	성산 신산
죽은디머들	성산 신평	통머들	서귀 서호
해나머들	안덕 서광	흰머들	제주 일도
산쟁이모들	서귀 하예	주냉이모들	남원 신례

15) 송하진(1987:136)은 머들을 동사 어간 ‘뎡-/뎡-’ 파생접미사 ‘을’이 결합하여 ‘뎡+을>머들’, ‘뎡+을>머홀’이 된 것으로 보았는데, 중세국어에서 ‘뎡다’의 의미는 ‘긋다, 훑다’가 되기에 어간이 ‘뎡-’으로 나타나야 하지 ‘뎡-’, ‘뎡-’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중세국어에서 ‘머홀다’의 의미가 ‘힘하다, 긋다’의 의미를 띠지만 동사 어간을 ‘뎡-’만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좁백이모들	남원 위미	나니모들	서귀 상예
저바니모들	남원 남원	조개모들	서귀 하예
산쟁이모들	서귀 하예		

2) 머세/머체

‘머세’나 ‘머체’는 ‘머들’의 이형태이다.

(51) ㄱ레머세	제주 화북	대섬머세	성산 시흥
덕산이머세	제주 영평	두무니머세	제주 일도
송장머세	제주 영평	싱곶머세	성산 오조
장은머세	제주 이도	끝머체	표선 가시
당남머체	서귀 동홍	산신머체	표선 가시
산신머체	표선 하천	새새미머체	제주 아라

3) 머을/머흘

‘머을’은 ‘머흘’이 ‘ㅎ’ 탈락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52) 귀머을	제주 도련	앞머을	표선 표선
셋머흘	제주 용강	진머흘	서귀 서호
진머흘	표선 표선	호근머흘	서귀 호근

4) 케

‘케’란 아주 넓게 가시덤불과 돌무지가 엉기성기 되어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제주어이다.

(53) 가시왓케	제주 회천	넙은케	제주 봉개
동케	제주 도련	새케	제주 오등
셋케	제주 봉개	서케	제주 도련
선반케	제주 회천	안케	제주 회천
자굴왓케	제주 회천	제동산케	제주 영평

5) 기타

그 외에도 머들과 비슷한 뜻을 지닌 특이한 후부요소로는 ‘꼭지’, ‘설덕’, ‘머덕’, ‘셔덕’, ‘수덕’, ‘설체’, ‘작지’ 등이 있다.

(54) 잣꼭지	표선 표선	곶인설덕	대정 신평
솔피난머덕	서귀 회수	도깨비서덕	제주 오라
ㄱ래머들수덕	대정 무릉	돛박낭수덕	제주 회천
양해물수덕	제주 연동	콧이설체	제주 오라
붉은작지	성산 삼달	붉은작지	표선 세화
넙작지	서귀 동홍		

자. 물[水]系

물과 관련된 후부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10> 물[水]系 후부요소

내	못	물	샘/새미	소	통	기타	계
130	164	501	60	139	109	68	1171

기타로는 ‘내끼/내끝’, ‘걸매’, ‘구멍’ 등이 나타난다. 화산 폭발로 형성된 지대로 돌이 많고 물이 귀한 제주지역의 특성상 물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지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1) 내/나리[川]

‘내’는 하천을 뜻한다. 제주지역의 지형적 특성상 대부분 건천이다. ‘내’의 이형태로 일부 고어형인 ‘나리’로도 실현된다.

(55) 가린내	제주 아라	노린물내	남원 위미
돛박내	제주 회천	산물어위내	서귀 동홍
서곶내/소곶내	서귀 동홍	섯내	제주 아라

세밋내	제주 이호	소용내[小龍川]	제주 삼도
아시내	제주 노형	알숨반내	서귀 천지
압내	제주 이도	애린내	서귀 중앙
오등내	제주 오등	올리소내	제주 해안
웃무드내	제주 용강	조로방내	대정 신평
큰내	서귀 상예	닥그나리	제주 도평
베엌나리	제주 노형	숨비나리	안덕 동광

2) 못

‘못’은 연못을 뜻한다.

(56) 갈마못/갈피못	표선 성읍	고타리못	성산 신천
깡나못	제주 오등	노루못[麕泉]	제주 건입
농남못	대정 상모	닭은못	남원 위미
덤불이못	대정 무릉	빌레못	대정 영락
상경못	제주 삼도	큰못	남원 태홍
홍백못	표선 하천	화단못	성산 신평

3) 물

‘물’은 주로 비가 많이 오면 솟는 물을 일컫는다. 제주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해안선을 중심으로 솟는 물이 많다.

(57) 개죽은물	대정 인성	고내물	대정 상모
구시물	제주 회천	넙계물	안덕 서광
댁물	남원 하례	도래물	서귀 회수
돛숫물	제주 삼도	미납굴물	제주 해안
박물	제주 도남	봉태물	서귀 토평
섬비물	대정 마라	시금물	남원 위미
조개물	서귀 상호	조물이물	안덕 사계
창터진물	제주 봉개	큰물/큰서림물	대정 일과

큰옹진물	대정 가파	할망물	서귀 강정
함백이물	서귀 강정	허릿당물	제주 연동

4) 새미/샘[泉]

‘샘’은 ‘물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 곳’을 뜻하는데, 주로 바위 틈에서 솟는 경우가 많다. ‘새미’로 실현되기도 한다.

(58) 거순새미	서귀 호근	거순세미	제주 연동
공새미[貢泉味]	남원 신례	군지새미	제주 봉개
늑단새미	표선 토산	당남새미	서귀 상예
들레새미	제주 월평	종가샘이	대정 신평
도고샘	안덕 감산	도옥샘	서귀 대포
돛고리샘	서귀 보목	만지샘	서귀 중문
버드낭샘	서귀 강정	일뢰샘/일레샘	서귀 회수
종남샘/쫑남샘	서귀 하원	푼채샘	서귀 서홍



5) 소(沼)

‘소’는 땅바닥이 둘러싸이고 물이 깊게 된 곳을 이르는 후부요소이다. 이형태로 ‘수’가 있다. 바다 속에도 ‘소’가 있다.

(59) 개소	서귀 대포	검은-소	제주 도평
고냉이소	남원 태홍	덤방-소	제주 내도
돛소	서귀 호근	동수	서귀 대포
동해수	표선 토산	떼무소	제주 아라
병풍소	제주 화북	원지소	대정 일과
정둥이소	제주 화북	진소	남원 하례
할애비소	서귀 강정	행기소	안덕 광평
고래수	안덕 대평	소왕수	서귀 상예
웃수/상소(上沼)	남원 위미	행기수	표선 세화

6) 통

‘통’은 지형적으로 물이 잘 고이는 움푹 들어간 곳을 뜻하는 후부요소이다. 주로 암반에 고인 물을 뜻한다.

(60) 구늬통	대정 일과	든물통	제주 아라
무남통	서귀 보목	물통	서귀 토평
물장통	성산 수산	수리아진돌통	제주 해안
스나이통	성산 시흥	어계통	성산 신양
은계통	서귀 강정	차구남통	제주 회천
자귀남통	제주 영평	흑통	제주 화북

7) 기타

그 외 물과 관련된 후부요소에는 ‘내끼’, ‘결매’, ‘골’, ‘곶지’, ‘곶/곶’, ‘구멍’, ‘코’, ‘천(川)’, ‘내창’, ‘어위’, ‘지’, ‘미’, ‘보’, ‘우룻’ 등이 나타나고 있다.

(61) 셋내끼[新川里]	성산 신천	내끼/내끝	표선 하천
웃내끼[上川尾]	성산 신평	결매	서귀 남성
웃결매	서귀 남성	알결매	서귀 남성
함백이골	서귀 강정	도채비골	서귀 강정
삼내나뭇골	제주 삼도	아골창	성산 신천
서개곶지	서귀 동홍	소나물곶	서귀 하효
통곶	서귀 상호	천제연구명	서귀 중문
알구멍	서귀 상호	천흑군/천흑곶	안덕 광평
뚝내코/돈내코	서귀 상호	장태코	서귀 도순
장태코	서귀 회수	쉐머리코	제주 내도
마흘천	서귀 강정	운랑천	서귀 엽돈
비대천	서귀 중문	색달천	서귀 색달
원두내창	제주 화북	어위내창[御危川]	남원 신흥
구시물넷창	제주 해안	베락맞은넷창	제주 외도
임금내창	안덕 감산	정소암	표선 성읍

산물어위	서귀 동홍	금장지	안덕 대평
거승지	안덕 광평	웃번지	성산 온평
망고장통물	제주 삼양	보리무굴	제주 용강
골개미/골기미	제주 삼양	알미	제주 연동
스눈물미	성산 삼달	웃보	대정 신평
천년의보	대정 무릉	장정의보	성산 오조
안보물	제주 도련	봉우룻	대정 보성

(61)에서 ‘골개미’의 ‘골’은 골짜기를, ‘개’는 ‘개[浦]’를, ‘미’는 물[水]을 뜻하는 고어(古語)로 해석된다. 바닷가에 위치한 물이 나는 골짜기란 뜻이 된다. 그리고 ‘내끼’는 ‘내끝[川尾]’를 의미한다.

차. 바다[海岸]系

바다와 관련된 후부요소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제주 지역이 바다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옛날부터 생활의 터전이 바다와 발이 전부였기에 바다와 관련된 후부요소가 무척 발달해 있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표 11> 바다[海岸]系 후부요소(1)

개	걸	퀘	기정	깍	늪	당	덕	돌	머리	모살	물	미	바당	바위
161	18	8	7	21	10	7	54	33	7	8	37	6	11	10

<표 12> 바다[海岸]系 후부요소(2)

밧/왓	불턱	빌레	섬	알	여	원	창	코지/곶	통	기타	계
12	14	17	12	6	381	82	16	96	28	247	1309

1) 개

제주시·제주문화원(1996:486)에 ‘개’는 조수가 드나드는 후미진 곳을 뜻한다고 했다. 이런 곳에 포구(浦口)와 원(垣)이 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포

구와 원을 달리 말하기도 하고 그대로 ‘개’로 말하기도 한다. 이형태로 ‘갯’이 있다.

(62) 거우대개	안덕 사계	굽은개	안덕 사계
굽은개	제주 도두	구진개[寇進浦]	성산 신천
독개	대정 가과	동물개	서귀 월평
모살갯	성산 성산	문들개	서귀 월평
방엿갯	성산 오조	보말개[保末洞]	남원 신흥
셋개	성산 성산	안갯	성산 성산
오깃개	서귀 중문	웃모슬개	대정 상모
잉개	대정 가과	자갈갯	성산 성산
족은양개	제주 외도	지셋개	제주 용담
초상개	서귀 중문	큰개[大浦]	성산 신흥
큰양개	제주 외도	한양개/훈양개	대정 일과
할매개	남원 신례	황개	남원 하례



2) 걸

바닷가에서부터 수심 20~40미터까지 암반이나 돌무더기, 그리고 모래가 깔려 있는 바다를 뜻한다. 이형태로 ‘깃’이 있다.

(63) 너른걸	서귀 강정	동걸	제주 삼양
머리난걸	제주 용담	물동산걸	제주 용담
밭걸	대정 마라	삼양난걸	제주 화북
섯걸	제주 화북	앞걸	서귀 보목
허정장걸	대정 가과	눈미것	제주 도두
새배것	제주 도두	큰오름것	제주 도두

3) 궤

‘궤’는 바위굴을 뜻하는데, 대개 위는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려지고 땅 속으로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굴을 말한다. 바다와 관련된 후부요소 ‘궤’는 바다

에 위치한 것들을 따로 구분했다.

(64) 고낭궤	제주 도두	고망궤	서귀 중문
들렁궤/다람쥐궤	서귀 색달	벙이궤	서귀 대포
생이궤	서귀 중문	제베낭궤	서귀 대포

4) 기정

‘기정’은 절벽을 뜻한 제주어로서 바다에 위치한 것만 따로 분류하였다. ‘기정’의 이형태로 ‘그정’이 나타난다.

(65) 셋기정	서귀 정방	큰기정	서귀 월평
대왓기정	안덕 대평	비진기정	안덕 감산
물느리는그정	대정 마라	모시그정	서귀 중문

5) 각

‘각’은 ‘꼴찌’나 ‘끝’을 의미하는 제주어로서 후부요소로 사용되는 경우는 방향의 따른 이름이 된다. 따라서 ‘넛각’은 바다로 내달리던 ‘내’가 실제로 끝나는 지점이 된다. 바다에 위치한 것만 따로 분류하였다.

(66) 가메솔각	서귀 대포	가시물소각	서귀 강정
갯각	서귀 상예	공물각	서귀 법환
넛각	제주 건입	넛각/용수각	제주 용담
대물각	제주 이호	드러물불턱각	서귀 강정
돈물각	대정 가과	미통각	서귀 강정
빌레각	제주 용담	성곶내각	서귀 대포
속골각	서귀 서호	주거물각	서귀 법환

6) 늪

‘늪’은 보통 땅이 우묵하게 두려빠지고 늘 물이 괴는 곳을 뜻하지만 제주에 서는 바다 속 우묵하게 패여 들어간 물웅덩이를 뜻하는 후부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67) 갯늪	표선 표선	넙은늪	대정 동일
모도리수늪	대정 동일	모살늪	대정 일과
부개늪[浮漁水]	성산 온평	안개늪	표선 표선
알늪	대정 동일	코생이늪	표선 표선
큰늪	대정 일과	히는늪	대정 동일

7) 당

‘당’은 ‘신을 모셔놓고 위하는 장소’의 뜻을 지닌 말로 대부분 마을마다 당이 있었는데 바다에 위치한 것을 따로 구분했다

(68) 감낭하르방당	제주 삼양	ㄱ랭잇당	제주 도두
영물당	제주 도두	영물머리당	제주 화북
좁너당	서귀 대포	큰갯당	서귀 대포



8) 덕

‘덕’은 바닷가 높직한 바위들을 뜻하는 후부요소이다.

(69) 거문머리덕	대정 무릉	고초간덕	서귀 서홍
높은덕	표선 토산	높은살래덕	대정 마라
도라간덕	서귀 호근	박선덕/박수덕	서귀 중문
복쟁이덕	서귀 중문	부군덕	대정 마라
봉에덕	서귀 월평	빛개덕	서귀 월평
새끼덕	서귀 월평	수리덕	서귀 강정
알남덕	대정 마라	연이덕	대정 일과
외개덕	서귀 중문	웁이덕	대정 하모
이개덕	대정 가파	치권이덕	대정 마라

9) 돌

바닷가 바위에 사용된 후부요소이다.

(70) 고망난돌	서귀 보목	꼬장돌	서귀 색달
네성제돌	서귀 송산	방석돌	서귀 하원
베락맞인돌	제주 삼양	사계왕돌	대정 가파
생이돌	서귀 하효	섯꼬장돌	서귀 대포
시리돌	대정 마라	시리돌	서귀 색달
오니돌/오녀돌	제주 도두	옷아즌돌	서귀 하예

10) 머리[旨]

‘머리’는 포구의 머리를 뜻하는 후부요소로 나타난다. 이형태로 ‘모리’가 있다.

(71) 당머리	성산 오조	들렁머리[擧龍旨]	남원 태홍
배개머리	서귀 보목	뱃머리	성산 온평
뱃머리/뱃모리	제주 내도	안캐머리	성산 온평

11) 모살

모래밭을 뜻하며, 모래가 깔린 갯가에 사용된 후부요소이다.

(72) 가문모살	제주 이호	너른모살	성산 성산
셋모살	표선 하천	조른모살	서귀 색달
중이모살	대정 하모	진모살	서귀 색달

12) 물

바닷가에 솟는 물(湧泉水)을 뜻한다.

(73) 가막작깃물	제주 삼양	거슨물	서귀 대포
------------	-------	-----	-------

대명물	제주 화북	동개알물	서귀 대포
똥낭물	서귀 대포	머구낭물	제주 용담
산짓물	제주 건입	섯드러물	서귀 강정
싱거물/신거물	서귀 중문	영물	제주 삼양
영물	제주 외도	영물	제주 화북
저승물	제주 삼양	태양물	제주 내도

13) 미(尾)

포구의 꼬트머리(꼬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74) 구두미	남원 위미	구두미	서귀 보목
구분지미	남원 신례	새기미	성산 신천
양지미	남원 위미		

14) 바당

‘바당’은 ‘바닥에 모래나 펄이 깔린 펄바다밭’이란 뜻의 후부요소이다.

(75) 갈치바당	제주 건입	동바당	대정 마라
밭지름바당	제주 이호	서바당	대정 마라
안지름바당	제주 이호	작지끝바당	대정 마라
지름바당	제주 건입	지름바당	제주 이호
코바당	제주 화북	후릿바당	대정 하모

15) 바위

돌과 같이 바닷가 바위에 사용된 후부요소이다. 이형태로 ‘바우’가 있다.

(76) 강시기바위	서귀 하효	거북바위	서귀 중문
동바위	대정 가과	들렁궤동바위	서귀 색달
막바위	제주 도두	맨막바위	제주 도두
벙풍바위	서귀 중문	벗롬바위	대정 가과

장군바위	대정 마라	팽풍바위	제주 외도
걸바우	제주 삼양	막바우	제주 도두

16) 맞/왓

해산물이 나는 바다밭을 뜻한다. 대부분 ‘왓’으로 실현되고 있다.

(77) 개왓	서귀 보목	구쟁이왓	제주 내도
뿔조개왓	제주 화북	북쟁이왓	제주 이호
솔대왓	안덕 화순	아애리왓	제주 이호
어캐왓	성산 온평	오징애왓	제주 도두
오징애왓	제주 이호	질랭이왓	성산 오조
조개왓	제주 도두	저우릿밭	제주 도두

17) 불턱

해녀들이 무자맥질해서 작업하다가 언 몸을 따뜻이 하기 위하여 마련해 간 뿔감으로 불을 지펴서 쪼는, 바닷가 바위 위 바람막이에 돌담을 둥그스럼하게 에워싼 곳을 뜻하며, 바닷가 바위의 자연적 됴됨이를 활용하여 꾸며지기도 하며, 해녀들의 탈의장으로도 이용되었다. 앞에 전접 요소와 결합하지 않고 ‘불턱’ 후부요소만으로도 지명어가 된 경우가 있다.

(78) 너븐물불턱	서귀 강정	높은불턱	대정 일과
당불턱	서귀 대포	드리물불턱	서귀 강정
모살부리불턱	제주 화북	불턱	제주 도두
불턱	제주 삼양	불턱	제주 외도
불턱	제주 외도	새벨불턱	서귀 강정
코지불턱	서귀 강정	큰불턱	서귀 대포
큰불턱	성산 신산	툰돈지불턱	서귀 강정

18) 빌레

빌레는 ‘평평한 바닥돌’을 뜻하는데, 땅에서도 실현되지만 바닷가에도 빌레

가 있다.

(79) 광대코지앞석은빌레	제주 건입
넙빌레	제주 용담
뒤원빌레	제주 도두
뒷빌레	제주 외도
등대알석은빌레	제주 건입
소금빌레	제주 외도
소금빌레	제주 용담
소금빌레	제주 용담
앞빌레	제주 삼양
연대코지소금빌레	제주 외도
진빌레	제주 도두
팽풍지경소금빌레	제주 외도

19) 섬[島]



(80) 굴애기섬	안덕 사계	더우섬[加波島]	대정 가파
문섬/똥섬	서귀 송산	문섬새끼섬	서귀 송산
범섬	서귀 법환	새끼섬	서귀 법환
새섬	서귀 송산	설피섬	표선 표선
쉴섬[森島]	서귀 보목	어깨이섬	성산 성산
한섬	대정 하모	홀에미섬	대정 하모

20) 알

‘갯가’ 중에서 ‘아래’라는 뜻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바다밭 이름이다.

(81) 너당알	제주 화북	독방알	제주 삼양
원당알	제주 삼양	자살터알	제주 화북
장상알	제주 삼양	탑알	제주 건입

21) 여[礁]

걸바다밭 중에 바위를 말한다. 이형태로 ‘녀’가 있다. 후부요소 ‘밭/왓/팻’(1376/7803곳), ‘동산’(839/7803곳) 다음으로 많이(381/7803곳) 나타나는 후부요소이다.

(82) 감수여	서귀 색달	거끄리여	대정 하모
군여	안덕 사계	너른여	대정 마라
넙은여	대정 마라	높은여	대정 마라
누에여	제주 용담	대섬굴여	서귀 보목
동진여	성산 신평	두리여	대정 가파
뒤시여	대정 가파	먼여	서귀 송산
목그차진여	대정 가파	목즈른여	대정 마라
베곁여	제주 화북	빗석은여	제주 건입
불낙여	제주 삼양	생이여	성산 온평
섬오난여	제주 화북	쇠머리여	서귀 호근
어랭이개튼여	서귀 보목	웃아진여	제주 삼양
조근방에여/셋녀	서귀 색달	진여	서귀 송산
즈진여	성산 삼달	즌반지여	제주 건입
코곁여	성산 온평	큰방에여	서귀 색달
호근여	성산 신산	홍합여	서귀 법환

22) 원

‘원’은 갯가 후미진 곳에 담을 쌓아 놓고 밀물 따라 몰려든 고기떼들을 썰물이 되면 그 안에 가둬 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을 뜻하는 후부요소이다.

(83) 너븐물원	서귀 강정	농에원	대정 일과
대명원	제주 화북	돈돌기원	제주 화북
동착원	제주 용담	드리물원	서귀 강정
든물각원	서귀 강정	모살원	서귀 강정

물씻원	서귀 보목	배튼개원	서귀 대포
버렁원	제주 삼양	비린대원	대정 동일
산이물원	대정 동일	새벨원	서귀 강정
새원	제주 이호	새원/곰추는원	대정 동일
서착원	제주 용담	스만이원	제주 내도
안강정원	서귀 강정	앙아지개원	제주 내도
앞원	제주 화북	운진이원	대정 하모
죽은개창원	대정 하모	죽은원	제주 외도
큰개창원	대정 하모	큰원	제주 외도

23) 통

‘통’은 지형적으로 물이 잘 고이는 움푹 들어간 곳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갯가 바다 속 움푹 들어간 곳을 나타내는 후부요소로 따로 분류했다.

(84) 동드랭이안통	서귀 강정	독통	제주 삼양
뜯통/탄통	서귀 월평	멍감통	제주 용담
반지리통	제주 용담	백모래통	서귀 하효
서문의안통	서귀 강정	셋드리통	서귀 토평
숨통	제주 용담	조기통	대정 마라
췌기통	제주 외도	큰드리통	서귀 토평
테우리통	서귀 하효	툰돈지통	서귀 강정

24) 창/개창/성창

‘성창’은 중세국어 ‘선창>성창’으로 변한 말로서 표준어로 선창(船倉)이다. 제주지역어로 암반과 바위로 에워싼 포구 혹은 갯가를 ‘성창’이라고 한다. 또 밑바닥을 일컫는 말도 ‘창’이다. 여기에서는 두 의미가 다 내포되었다. ‘창’은 ‘성창’의 준말이다. ‘개창’은 포구(浦口)를 뜻하는 후부요소 ‘개’에 ‘성창’의 준말인 ‘창’이 결합된 형태이다. ‘개창’은 전접 요소 없이 후부요소만으로도 지명어가 되고 있다.

(85) 개창	안덕 화순	개창	제주 도두
곤흘성창	제주 화북	동카름성창	제주 삼양
막은개창	대정 신도	성창	대정 마라
앞개성창	제주 삼양	용다리창	대정 상모
코지갯창	서귀 대포	큰개창	대정 하모
황개창	대정 가파	황개창	서귀 송산

25) 코지/곶/코[串]

‘코지/곶/코’은 갯가 바다밭¹⁶⁾ 중 바다로 쭉 내민 암반 줄기를 뜻한다.

(86) 개엄주리코지	대정 가파	개우지코지	서귀 하효
구녕물코지	대정 신도	고지곶	제주 삼양
남당머리곶	제주 화북	다끄네곶	제주 용담
돈돌기곶	제주 화북	드렁곶	제주 화북
생이곶	서귀 법환	하르비곶	제주 삼양
물가는코지	서귀 송산	봉용코지	표선 토산
불낙여코지	제주 용담	상두낭술코지	서귀 강정
설코지/섯코지	대정 동일	속골각코지	서귀 호근
신우지코지	남원 위미	안마곶코지	제주 이호
용머리코지	표선 표선	제빌레코지	서귀 보목
지셋개코지	제주 용담	쇠코	서귀 월평

26) 기타

기타 바다에 관련된 후부요소는 무척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가 생활 터전이 바다이고 보면 바다밭에 대한 후부요소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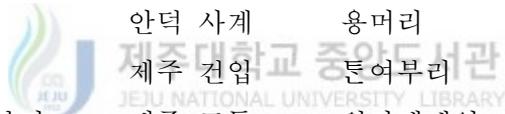
그런데 땅에서 나타나는 후부요소가 바다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꼭지/뿔지’, ‘거리’, ‘구석’, ‘소/수’, ‘캐’, ‘굴/궤’, ‘머들/머흘’, ‘통’,

16) 바다밭은 『제주시옛지명』(1996)에서 사용된 용어로 바다를 삶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밭이란 뜻이며, 바다밭을 수심에 따라 갯가, 걸바다, 걸곶, 펄바다 등으로 구분했다.

‘므루’, ‘도’ 등 땅에서 불리는 형태와 같은 후부요소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바르/바득’, ‘개맛’, ‘수눌’, ‘에움’, ‘지겹’, ‘덕’ 등이 나타난다. 그리고 생업과 관련된 ‘소금막’이나 바위 모습이 용머리 같다고 하여 ‘용머리’라는 후부요소가 독립적으로 지명어가 되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도 제주 지명어의 특징이 아닌가 한다.

(87) 들물꼭지	서귀 보목	모살꼭지	서귀 법환
찬물거리	표선 토산	넙거리	제주 도두
터우매어난디	제주 이호	물맞는디	제주 내도
허벅두드리는디	제주 내도	우무수	제주 삼양
독수	제주 외도	몰수놉	서귀 하원
씨을	서귀 법환	넉거리안	서귀 강정
돛부리암	서귀 강정	동애기	서귀 보목
당뒤어리	표선 표선	감태옹텡이	대정 하모
우금	남원 하례	물우정	서귀 호근
쇠일레	서귀 상예	고븐절	서귀 용흥
큰주애	서귀 중문	조근주외	서귀 색달
작지줄	제주 용담	드릿줄	제주 도두
당캐	안덕 대평	공몰캐	안덕 감산
당캐	표선 표선	양노케	서귀 하예
영록캐	대정 일과	장택코	대정 가파
쇠코	서귀 색달	당쿨/당클	안덕 대평
후릿터	제주 화북	장수무털	대정 영락
질허리	성산 신양	흙치	서귀 강정
칼도리	서귀 대포	모살부리	제주 화북
난보리즈베기	제주 도두	숨은보리즈베기	제주 도두
돈지개	제주 도두	앙아지개	제주 내도
개금/기금	서귀 하예	동곤홀	제주 화북
밭곤홀	제주 화북	가운디곤홀	제주 화북
안곤홀	제주 화북	골새	대정 마라

등독돌	대정 동일	갯봉오지	표선 하천
연디밀	서귀 대포	도릿발	서귀 대포
괴기난덕봉오지	서귀 대포	홍합봉우지	서귀 강정
막봉우지	서귀 강정	구릉곶	제주 건입
실내구석	제주 화북	펼낭	제주 도두
닷디	제주 도두	굼부리	제주 도두
알목고망	서귀 대포	속골	서귀 호근
마궁굴	안덕 대평	즈근굴	서귀 보목
짚은굴	제주 화북	연디궤	서귀 대포
셋거리	제주 용담	개올레	제주 내도
돌드리	제주 삼양	창곰	성산 성산
창곰돌레	제주 용담	큰드렁	제주 삼양
뒗드렁	제주 삼양	고래등	제주 용담
용머리	성산 온평	용머리	성산 신평
용머리	안덕 사계	용머리	제주 용담
즌반지	제주 건입	튼여부리	제주 도두
뱃튼여부리	제주 도두	원아래세일	제주 삼양
큰세일	제주 삼양	족은세일	제주 삼양
건난세일	제주 삼양	굼숙애	제주 삼양
진작지	제주 삼양	팽풍지경	제주 외도
갯갯지미	제주 용담	뱃들락통	제주 용담
가매팡	제주 건입	넙은팡	제주 도두
물나는굴	제주 건입	큰궤우	제주 도두
전복통	제주 외도	거북이동산	제주 화북
섬등얼	서귀 보목	지름개	제주 삼양
족은고래집	제주 화북	큰고래집	제주 화북
도그내개맛	제주 외도	용수개맛	제주 용담
날콤구석	안덕 사계	논구석	서귀 강정
점뱅이구석	서귀 하예	너리	서귀 강정
웃너리	서귀 강정	알너리	서귀 강정



너른널	서귀 강정	선널	서귀 강정
소금막/염막	성산 고성	소금막	안덕 화순
소금막	안덕 사계	소금막	성산 오조
소금막	서귀 하효	우말	대정 신도
성멸	대정 마라	개말	남원 신례
오갱이머들	성산 성산	거른머들	서귀 대포
쇠머리	대정 하모	뒷머흘	서귀 강정
너른머흘	서귀 강정	홀근머흘	서귀 색달
진멸	성산 신산	강이바득	제주 내도
넛바르	표선 토산	앞바르	서귀 법환
섯바르	서귀 색달	족은번새	표선 표선
큰번새	표선 표선	앞벌랭이	안덕 대평
석은베기	제주 삼양	생이보리	남원 남원
도리뿌리	성산 신천	동앞뿌리	표선 하천
섯앞뿌리	표선 하천	산과우	제주 내도
족은새배	제주 도두	난새배	제주 도두
숨은새배	제주 도두	숨은새배	제주 이호
소금밭	표선 표선	빈너코지소금밭	서귀 강정
드러물소금밭	서귀 강정	모도리수늘	대정 하모
진수늘	남원 태홍	굴체에움	서귀 보목
퀘기올레	제주 도두	대섬굴앞작지	서귀 보목
존작지	서귀 서홍	동물작지	서귀 강정
존작지	서귀 강정	신지미	제주 외도
산짓내	제주 건입	홀내	제주 도두
도그내	제주 외도	그물치믄루	성산 성산
앞믄루	제주 건입	믄루	제주 도두
가운디몰리	서귀 보목	우렁설치	서귀 강정
소록설치	제주 삼양	누에여앙댕이	제주 용담
진여앙댕이	제주 용담	아홉선반앙댕이	제주 용담
굴체웅댕이	제주 도두	빌레앞	서귀 강정

옷똥앞	서귀 하원	넙개/넙개우치	대정 가파
동갯갯	제주 내도	어랭이갯도	서귀 보목
허멀도	서귀 대포	황우지목	서귀 서흥
큰엇도	서귀 대포	셋도	서귀 대포
셋도	서귀 대포	셋지겹	서귀 강정
동지겹	서귀 강정	나이룽지겹	서귀 강정
동검은덕	제주 도두	셋검은덕	제주 도두

카. 밭[田]系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밭系 지명어는 제주 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무척 많이 나타난다.

<표 13> 밭[田]系 후부요소(1)

골/굴	다리	답단지	도루/드루/드르/돌래/들레	밭/왓/팻
96	33	14	72	1376

<표 14> 밭[田]系 후부요소(2)

새왓	산전	우영	진	캐/케왓	계
20	13	55	15	15	1709

‘골/굴’, ‘다리’, ‘답단지’, ‘도루/드루’, ‘돌래’, ‘바령’, ‘바리’, ‘밭/왓/팻’, ‘새왓’, ‘우영’, ‘진’, ‘캐’, ‘산전’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1) 골/굴

여기서 ‘골/굴’은 밭을 의미하는 후부요소가 아니라 과거 ‘골/굴’이었는데 현재 경작지가 된 경우를 말한다.

(88) 갑작골	서귀 강정	문드리골	대정 상모
오목골	제주 이호	즌골	서귀 월평

고내미굴	표선 성읍	냉이굴	대정 일과
서장굴	대정 상모	시영굴	대정 상모
염소굴	대정 상모	희미니굴	제주 회천

2) 달이/다리

경작지 이름을 뜻하는 후부요소이다. ‘달+이’의 형태로 보인다. 이 형태는 마을 이름에도 나타난다.

(89) 논다리	제주 오라	독만다리	대정 상모
백다리	성산 고성	만다리	안덕 사계
오근달이	성산 신양	식은달이	표선 하천
인다라	제주 아라		

3) 답단이

제주시·제주문화원(1996:320)은 “‘답단이(답단이)’는 ‘답’은 큰돌로 좀 너르고 둥그렇게 높이 쌓아 올린 담을 뜻하는 제주어”라 했다. 여기서는 그러한 것이 있는 밭을 뜻하는 지명어이다. ‘단이’는 ‘다-’(돌담 등을 쌓다)의 관형사형 ‘단’에 명사형성접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90) 답다니	남원 위미, 서귀 상호/월평/토평/하예 성산 수산/신평, 제주 도남/연동/영평 표선 가시/세화/토산/표선
----------	--

4) 드르/드루/드로/도르/도루/도로/돌래/돌래/다로/다루

송하진(1987:130)은 중세국어 둘다(달다:縣)의 어간 ‘둘’에 접미사 ‘-오’가 결합되어 ‘드로’가 되었다고 보았으나, 제주시·제주문화원(1996)에 나타난 ‘드르’의 뜻은 ‘집 주위에 있는 자그마한 밭’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드로깡이’가 집 주위에 있는 자그마한 밭을 의미하는 제주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이어서 육지의 층계논인 ‘다랑이(들+양+이)’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한다. 앞으로 ‘드르’의 뜻은 정확하지 않기에 연구 대상이라고 본다. 그리고

제주시 지역은 대부분 ‘드르’로 실현되고 있지만 서귀포시, 남제주군 지역에서는 ‘드루/도로/도르/도루/다로/다루/돌래/돌래’ 등으로 상당히 많은 이형태를 지니고 있다.

(91) 녹이드르	제주 회천	몰죽은드르	제주 영평
베염드르	제주 회천	소남드르	제주 아라
절드르	제주 봉개	중드르	제주 외도
호생이드르	제주 연동	선반드루	제주 삼도
연만이드루	제주 도두	가시나몰드로	제주 연동
설체드로	제주 도남	승굴드로	제주 노형
지끈드로	제주 도두	가막도르	서귀 서홍
확새도르	서귀 하원	가시낭도루	대정 영락
담도루	서귀 강정	옥도루	서귀 강정
일곱도루	대정 보성	장기도루	서귀 중문
진도루	서귀 강정	평풍도루	대정 보성
남창도루	안덕 사계	객주리돌래	성산 오조
조조기돌래	남원 신례	도새기돌래	성산 오조
비상지돌래	남원 신례	장기돌래	성산 오조
당다로	대정 구억	장기다루	성산 은평

5) 뱃/왓/왓

제주 후부요소 ‘뱃’은 두 가지 이형태를 지닌다. 하나는 ‘ㅂ’이 탈락하여 ‘왓’으로 실현되며, 또 하나는 유기음화되어 ‘왓’으로 나타난다. 앞에 나오는 지명 전접 요소의 발음의 음운 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왓’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전접 요소의 발음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전접 요소의 발음이 ‘ㄹ’음인 경우도 대부분 ‘왓’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왓’으로 실현되는 조건은 전접 요소의 발음이 음운론적으로 유성자음과 모음 간, 형태론적으로 명사+명사의 결합 환경에서만 나타나고 있다.(송하진, 1987:129)

(92)a.감낭밭	서귀 하효	내중난밭	서귀 남성
넙은밭	표선 토산	닥밭	서귀 서홍
담밭	서귀 남성	당아진밭	서귀 용홍
대병밭	서귀 하효	돌록밭	서귀 강정
물곱는밭	서귀 서홍	물진밭	서귀 토평
배남밭	안덕 화순	배릿돌안진밭	안덕 사계
브롬진밭	안덕 사계	사장밭	서귀 토평
새가름밭	제주 해안	소금밭	서귀 강정
왕돌앉인밭	대정 하모	이장의밭	대정 신평
장쾌아진밭	제주 노형	진밭	표선 표선
질곱은밭	대정 하모	짓단짓밭	대정 가파
큰초낭밭	서귀 용홍	흑구밭	표선 세화
b.가매왓	대정 상모	골챙이왓	제주 삼양
굴왓	제주 연동	괘물왓	제주 연동
무구왓	남원 위미	무대기왓	남원 위미
바오왓	남원 남원	불미왓	제주 도련
산이왓	남원 위미	선반질왓	제주 아라
성두왓	남원 남원	큰개왓	남원 남원
활대왓	제주 도련	활대왓	제주 삼양
c.관팻	표선 토산	구렁팻	제주 삼양
글팻	제주 영평	내팻	서귀 남성
당팻	서귀 보목	당팻	제주 봉개
당팻	제주 삼양	망팻	서귀 강정
망팻	서귀 법환	머흘팻	서귀 강정
뭍팻	제주 외도	새구릉팻	제주 영평
송대장팻	제주 영평	우영팻	제주 삼양

6) 새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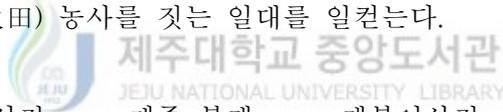
‘새’는 산과 들에서 자라는 띠나 억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제주에

서는 초가지붕을 이는 데 사용한다. 새왓은 새가 자라는 밭이다. 제주는 중산간 들판에 새왓이 많다. ‘왓’은 ‘밭’이 ‘ㅂ’ 탈락한 형태다.

(93) 거새왓	안덕 동광	계새왓	제주 도두
고모새왓	제주 도두	곽새왓	성산 삼달
넛새왓	서귀 서홍	넛새왓	서귀 천서
뒷새왓	제주 아라	밭새왓	제주 봉개
새왓	서귀 강정	소새왓	성산 난산
오중새왓	제주 도련	오중새왓	제주 삼양
젧새왓	제주 아라	큰새왓	서귀 동홍
큰새왓	제주 아라	큰새왓	제주 이호
한질새왓	안덕 서광	한질새왓	제주 봉개

7) 산전(山田)

산전은 화전(火田) 농사를 짓는 일대를 일컫는다.



(94) 강서복산전	제주 봉개	계복이산전	서귀 도순
고븐산전	서귀 보목	과원산전	서귀 서홍
막은산전	성산 수산	물진산전	표선 표선
방구산전	남원 신례	뱃데기산전	표선 성읍
불래낭산전	서귀 서홍	애머산전	제주 아라
진산전	남원 수망	펜안산전	제주 용강

8) 우영

‘우영’이란 집 울타리 안에 있는 ‘터알’을 뜻하는 제주어다. ‘알’은 ‘밭’이 음운변동이 일어난 것이다.(터밭>터알) 이형태로 ‘우녕’과 ‘우연’이 있다.

(95) 감낭우영	제주 영평	권당장우영	제주 영평
돛박남우영	제주 영평	드로방우영	제주 월평
사당우영	제주 오등	섯가름우영	제주 도남

안우영	제주 영평	영만이우영	제주 회천
왕돌우영	제주 연동	조방장우영	제주 영평
큰우영	제주 아라	허당장우영	제주 월평
고부장우녕	서귀 서홍	들쇠우녕	서귀 상예
셋짓우녕	서귀 서홍	평대기우연	표선 표선
당남우연	표선 가시	안우연	표선 가시
와개우연	표선 가시	웅갱이우연	표선 가시
이개우연	표선 가시	큰우연	표선 세화
풍예우연	표선 가시	한대장우연	표선 가시

9) 전(田)

‘전’은 ‘밭’의 한자어로 관청과 관계가 있거나, 공공기관의 소유하는 밭을 의미할 때 한자어 ‘전’을 쓴 듯하다.

(96) 관전	서귀 서홍	관전(官田)	성산 신산
당전	표선 정읍	등계전	제주 회천
막좌전(幕坐田)	대정 무릉	성전(城田)	성산 수산
수전	성산 오조	양묘전[梁墓田]	제주 용담
연못전	제주 영평	영전	제주 삼양
하운전	제주 봉개	향교전	제주 영평

10) कै

‘캐/캐왓’은 여러 종류의 나무나 풀들이 자라고 있는 들판의 일정한 지대를 뜻하는 제주어이다. 이런 지대에 밭을 개간한 경우다.

(97) 가시밭캐	서귀 서호	너베기캐	서귀 중문
당팻캐	서귀 도순	물외운캐	표선 하천
불목캐	서귀 중문	상청밭캐	서귀 월평
새청캐	서귀 강정	은물캐	제주 오라
중어니캐	서귀 서호	청캐	서귀 강정

큰케	제주 연동	흑담밭케	제주 오라
큰자릿케왓	제주 노형	동고랑케왓	제주 오라
새케왓	제주 연동	양해물케왓	제주 연동
질난케왓	제주 오라		

11) 기타

그 외 밭을 뜻하는 후부요소에는 ‘골내미’가 있는데 제주시·제주문화원(1996)에서 조사한 지명 분석은 ‘골 + 내미’로 분석했다. ‘골’은 ‘골짜기[谷]’의 뜻이고, ‘내미’는 ‘넘-[越] + -이’의 구성으로 보인다. 곧 골짜기를 넘는 곳(밭)이라는 뜻이다.

‘바령/바랑’은 농사를 지을 때 해를 걸러 소나 말을 일정한 밭에 풀어놓아 똥, 오줌을 싸게 하여서 그것을 퇴비 삼아 농사 짓는 밭으로, 이 때 소나 말들이 돌아다니며 똥, 오줌을 싸게 하는 행위를 ‘바령’, ‘바랑’이라 하며 ‘바랑질’이라 표현한다.

‘고지기’는 ‘고지기’ 곧 거름용 해초(海草)를 갖다 놓고 밭 기운을 돋운 밭이라는 데서 연유한 후부요소이다.

밭을 뜻하는 특이한 지명어로 ‘논파니’가 있는데 이는 모양이 논뚝기처럼 반듯하다는 데서 연유한다. ‘파니’는 뚝기를 말하는데, 밭이나 논을 셀 때 쓰는 말이다.

(98) 골내미/골냄이	제주 해안	웃거	표선 토산
불미저	표선 세화	노룽고지	대정 하모
큰고지기	제주 삼양	족은고지기	제주 삼양
물개등	제주 연동	불칸디	제주 도두
섯서월리	서귀 호근	동서월리	서귀 호근
뒷목/뒷못	성산 고성	갈못	제주 회천
큰바랑	서귀 강정	써금바령	서귀 신희
적은바리	표선 세화	적은바리	표선 세화
바짓가달	제주 노형	서구남	대정 일과
도공당	제주 화북	섯더움	대정 일과

아홉쇠지기	대정 상모	돌미	대정 일과
돌피	대정 일과	개미/개미동	대정 신평
능당벵딤	제주 연동	진벵딤	제주 노형
동벵딤	제주 해안	고승이	제주 노형
남들이/남다리	제주 노형	굴멍이	표선 성읍
방칭이	안덕 대평	송개외장	제주 도두
막은장	제주 용담	진군지	제주 노형
물래물지경	제주 용담	군지창	표선 표선
선반층	제주 영평	새왓침	서귀 서호
돌코지	제주 도련	밭태왓	제주 봉개
안태왓	제주 봉개	제터	제주 삼도
염생이털	제주 오라	안새통	제주 회천
중남통	제주 용강	정갱이통	제주 내도
삼밭툰	서귀 우남	머들툰	서귀 강정
논파니	제주 영평	등돌왓흙	서귀 도순
돈물흙	제주 연동	진밭흙	제주 연동
전뱅이드루	대정 일과	지방특	제주 도남

타. 분묘(墳墓)系

<표 15> 분묘(墳墓)系 후부요소

무덤	기타	계
7	6	13

1) 무덤

동산이나 들, 밭에 무덤이 많은 제주 지역은 ‘무덤17’이 후부요소가 되어 지

17) 이 분묘계의 후부요소에 ‘불미’가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불미’는 대장간을 뜻한다. 그런데 남제주군(1996)은 성산 수산의 ‘납선불미’, ‘석곽불미’, 성산 난산의 ‘박좌수불미’, 표선 표선의 ‘고장낭불미’ 등을 분묘라 하고 있다. 확인된 바가 없어서 분묘계의 기타로 처리하였다.

명을 형성하고 있다.

(99) 고덕이무덤	제주 외도	고승이무덤	제주 내도
돌캐무덤	대정 신평	여무덤	서귀 강정
장서방무덤	대정 신평	존무덤	서귀 서호

과. 숲[藪]系

<표 16> 숲[藪]系 후부요소

꽃/코지	술/수울	기타	계
36	44	17	97

숲系 후부요소에는 ‘꽃/코지’, ‘구석’, ‘디’, ‘빠’, ‘서들/서덕’, ‘송이/송이’, ‘술/술’, ‘얼’, ‘케’, ‘풀림’, ‘지슴’ 등이 있다.

1) 꽃/코지[藪]



‘꽃’은 ‘고지’라고도 하는데 산기슭이나 깊은 들판의 숲이 우거진 지대를 일컫는 제주어다.

(100)고막꽃	서귀 하효	기상꽃	대정 하모
남초꽃/남추꽃	표선 표선	뒷꽃	제주 화북
드랑꽃(月郎)	제주 노형	산물꽃	대정 신평
새배낭꽃	대정 신도	소롱꽃	제주 아라
송이꽃	대정 영락	족은꽃/작은꽃	대정 보성
팡꽃/팡꽃	대정 상모	광대코지	남원 의귀
굴묵코지	대정 신평	굽정코지	대정 영락
돛박낭코지	남원 위미	들레코지	대정 구역
룽코/룽코지	남원 남원	벌러니코지	남원 위미
서코지	대정 구역	서코지	표선 세화

소롱코/소롱코지 남원 남원 제낭코지 서귀 토평

2) 술/술[藪]

수풀을 뜻하는 후부요소이다. ‘수풀>수불>수울>술’로 음운 변동이 일어난 형태다. 이형태로 ‘술’이 있다.

(101)곰베술	제주 연동	괘이술	제주 노형
넙은술/넙은술	제주 노형	능술	제주 월평
다가리술	남원 신흥	당술	제주 오등
도랭이술	남원 위미	동이술	표선 세화
뒗술	제주 봉개	들기술	표선 표선
무적다가리술	남원 신흥	바개술	남원 위미
보리술	서귀 상예	옷매미술	성산 신흥
옷술/옷술	제주 노형	죽은드술	대정 무릉
진술	제주 월평		



하. 언덕[丘]系

<표 17> 언덕[丘]系 후부요소

동산	믄루/믄르	기타	계
839	288	24	1151

언덕계 후부요소는 동산과 ‘믄루/믄르’, 그 외 ‘거지’, ‘구럼비’, ‘골/굴’, ‘턱’ 등이 나타난다. ‘동산’은 후부요소 중 두 번째(839/7830곳)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제주 지형의 특성을 잘 말해주는 후부요소라 할 수 있다.

1) 동산

‘동산’은 육지 후부요소 중 ‘고개’에 해당하는 후부요소로 제주 지명어의 10.8%에 해당한다. ‘밭’(1376/7830곳)이 17.6%로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지형이 경사가 심한 곳이므로 나타나는 결과라 하겠다.

(102)개갱이동산	대정 구역	평망동산	남원 태홍
동골동산	대정 하모	마폴림동산	남원 위미
머귀낭동산	서귀 월평	메역쉬동산	대정 하모
므르왓동산	제주 이호	비에비왓동산	제주 해안
세미동산	제주 노형	수루막동산	서귀 보목
연기므루동산	서귀 상호	웨왓동산	제주 연동
임지왓동산	제주 노형	조가동산	제주 내도
치도리동산	서귀 중문	하동굴동산	대정 신평

2) 므르/모루

‘므르’는 중세국어 ‘므르[宗]’에서 온 말로 ‘등성이 진 곳’이란 뜻을 지닌 후 부요소이다. 이형태로 ‘므루’, ‘므르’, ‘므를’, ‘머르’, ‘모루’, ‘머리’ 등 다양한 이형태가 존재한다.



(103)개장므루	성산 오조	거육므루	대정 하모
뒷므루	대정 안성	매므루	대정 보성
상피므루	남원 남원	섯밭므루	성산 시흥
신산므루	남원 신흥	우중므루	대정 하모
자구나므루	표선 하천	진므루	대정 구역
퀵남므루	남원 신흥	고냉이므르	제주 아라
고완이므르	제주 회천	움부리므르	제주 아라
웃상장므르	제주 회천	ㄱ으니므를	제주 건입
높은므를	제주 용강	동왕주므를	제주 용강
두를므를	제주 오등	앞므를	제주 오라
농남머르	성산 수산	대머르	성산 신평
문이머르	성산 신천	진머르	성산 시흥
들렁모루	서귀 서홍	매모루	서귀 서홍

맹이모루	서귀 법환	영수모루	서귀 서홍
가시머리	서귀 동홍	개사린머리	대정 구역
걸머리	제주 아라	먼머리	제주 삼양
콧대머리	안덕 사계	흰돌머리	안덕 감산

3) 기타

그 외 언덕을 뜻하는 후부요소라 할만 한 것들은 ‘거제/거지’, ‘고개’, ‘구럼비’, ‘등얼’, ‘머드레기’, ‘엉덕’, ‘재’ 등이 있는데, 2~4개 정도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104)구럼비	남원 남원	괘등얼	대정 무릉
높은송이	제주 도두	머드레기	표선 표선
뽕루재/신우재	남원 위미	석근이	서귀 상호
설갱이머물	성산 난산	섯거지	서귀 호근
소고개턱	성산 신산	쇠질고개	표선 세화
쉬는산	서귀 토평	알누러이	제주 화북
양근이	서귀 상호	어캐	남원 하례
엉덕	제주 삼양	왕대코지	서귀 신희
웃거지	서귀 호근	웃칫등얼	성산 오조
조근구럼비	서귀 강정	질매턱	서귀 남성
통물메기	표선 세화	하논거제	서귀 호근
하논동거제	서귀 서홍	해숫굴	제주 도두

가. 오름系

<표 18> 오름系 후부요소

외/메/미	봉	산	오름	기타	계
6	6	6	183	18	219

오름계 후부요소는 육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제주 특유의 ‘오름’ 후부요소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 외 ‘뫼/메/미’, ‘봉’, ‘산’ 등이 있고, 매우 드문 후부요소이지만 특이한 형태로 ‘굼부리’, ‘영아리’, ‘장오리’, ‘개오리’, ‘대나’ 등이 나타나고 있다.

1) 뫼/메/미

산(山)을 뜻한 우리말로써 적은 분포지만 ‘뫼/메/미’ 후부요소가 실현되고 있다.

(105)드라뫼/드라미	서귀 신호	면물뫼	성산 신앙
염통뫼	제주 연동	왕이뫼/왕이메	안덕 광평
죽은물뫼	성산 신앙	큰물뫼/큰물미	성산 고성

2) 봉(峯)

‘봉’은 제주에서는 ‘오름’과 같이 사용되고 있으나 매우 적게 나타난다. 육지에서 나타나는 ‘봉’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생화산 ‘오름’과 함께 일부 ‘봉’으로 표현된다. 이는 문헌 기록상 한자로 표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하겠다.

(106)노적봉	제주 도두	달산봉/당산봉	표선 하천
도들봉	제주 도두	방일봉(方日峯)	제주 노형
사라봉	제주 건입	원당봉	제주 삼양

3) 산

‘산(山)’은 ‘오름’과 병행하여 나타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봉(峯)’처럼 문헌 기록상 한자로 표기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107)군산	서귀 상예	금산	제주 삼양
금산	제주 화북	산방산	안덕 사계
양호산	표선 세화	영주산	표선 성읍

4) 오름

오름은 기생화산을 이르는 말로서 ‘오름’은 제주 특유의 후부요소이다. ‘오르다’에 명사형전성어미 ‘-口’이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108)거린오름	남원 한남	논오름	제주 삼양
동알오름	대정 상모	모라리오름	서귀 색달
베두리오름	제주 연동	벨도오름	제주 화북
봉아오름	제주 봉개	불근오름	서귀 서호
솔오름	서귀 동홍	쇠개오름	남원 수망
알오름	서귀 중문	알오름	제주 화북
앞오름	제주 화북	지세오름	제주 삼양
침오름	남원 신례	코오름	서귀 보목

5) 기타

특이한 형태로 ‘굼부리’, ‘영아리’, ‘장오리’, ‘개오리’, ‘대나’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2~3개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후부요소로 보기는 무리가 따른다.

(109)굼부리	표선 세화	굼버리/굼부리	서귀 서호
구두리	표선 가시	여문영아리	표선 가시
물영아리	남원 수망	구산망	서귀 하원
족은개오리	제주 봉개	셋개오리	제주 봉개
나부기	제주 삼양	족은대나	제주 봉개
큰대나	제주 봉개	반송이	대정 상모
거린사슴	서귀 대포	노리생이	제주 오라
괘랑	제주 오라	뒤구부니	성산 수산
큰사슴이	표선 가시	테역장오리	제주 봉개
물장오리	제주 봉개	쌀쫂장오리	제주 월평

나. 위치[方位]系

<표 19> 위치[方位]系 후부요소

구석	각	뒤	밧	알	앞	기타	계
6	16	15	6	25	12	16	96

위치계는 후부요소가 방향을 의미하는 경우에 분류하였으며, 주로 바다밭과는 구분하여 땅에서 형성된 것만을 분류하였다.

1) 구석

‘구석’은 ‘구석진 곳’을 뜻하는 후부요소이다.

(115)개다리구석	대정 상모	무낭구석	대정 신평
삼가름구석	대정 무릉	삼밭구석	서귀 상예
서구석	대정 신평	웃구석	대정 신평

2) 각

‘각’은 맨 마지막 부분, 즉 ‘꼬리[尾]’를 일컫는 후부요소이며, ‘내각’은 바다와 만나는 지점 즉 내[川]의 끄트머리를 의미하는 후부요소이다.

(110)거린내각	남원 신례	내각	남원 신례
내각	성산 신천	내각	제주 건입
농각	대정 동일	돛고리샘각	서귀 보목
물이찌각	표선 표선	산물각	제주 월평
쇠소각	서귀 하효	진여각	서귀 송산
큰통각	대정 가파		

3) 뒤[北]

방향을 나타내는 후부요소로 뒤[北]를 말한다.

(111)당뒤	서귀 하예	당뒤	제주 외도
대뒤	제주 회천	망뒤	표선 토산
망뒤	표선 하천	물피뒤	성산 고성
북문뒤	대정 보성	새섬뒤	서귀 송산
성뒤	성산 고성	성뒤	성산 오조
진방뒤	성산 신양	푸성뒤	제주 아라

4) 밋[下]¹⁸⁾

방향을 나타내는 후부요소로 아래[下]를 뜻한다.

(112)각귀밋	성산 시흥	영청밋	표선 표선
연두밋/연디밋	성산 오조	연뒤밋	성산 시흥
연디밋	제주 화북	흔돌밋	서귀 법환

5) 알[下]

‘알’은 아래의 제주어로서 ‘알’은 ‘밋’과 같이 ‘아래’를 뜻하는 후부요소이다. ‘밋’과 ‘알’의 차이는 분명치 않다.

(113)논알	표선 표선	당알	대정 신도
도구리알	대정 신도	동용알/동녕알	성산 성산
망알	대정 동일	매알(응봉하)	표선 표선
목광알	대정 구역	성알	제주 화북
아이무덤알	성산 성산	영알	서귀 월산
제배낭알	서귀 상호	폭낭알	제주 도남

18) 제주도(1995)에 의하면 ‘밑’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모두 ‘밋’으로만 실현되는데, 제주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자들이 잘못 기록하여 ‘밑’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모두 ‘밋’으로 표기한다.

6) 앞[前]

방향을 뜻하는 후부요소이다.

(114)가매앞	대정 무릉	당앞	서귀 법환
당앞	표선 세화	당앞	표선 토산
망앞	서귀 서흥	망앞	표선 하천
서가름앞	서귀 보목	서생이앞	남원 남원
소장앞	서귀 법환	수울앞/술앞	서귀 호근
영앞	성산 삼달	온돌앞	대정 가파

7) 기타

기타 ‘머리’, ‘굽’, ‘꼭지/꼭지/뿔지’, ‘끗’, ‘룻’, ‘끝’, ‘밭’, ‘안’, ‘착의’ 등이 나타나는데 ‘새끼섬알밭’은 ‘알’은 아래, ‘밭’은 밭치의 뜻이다. ‘동착의’의 ‘착’은 쪽이라는 방향을 뜻한다.

(116)소남머리	서귀 송산	곶머리	제주 연동
첻대굽	제주 도두	묵은털꼭지	제주 아라
절꼭지	서귀 호근	세갓꼭지	서귀 가가
새당뿔지	서귀 서호	새나끗(新川洞)	제주 일도
왕피동끝	성산 수산	새끼섬알밭	서귀 법환
새끼섬섯밭	서귀 법환	토성안	성산 성산
성안	성산 오조	진올래안	제주 오라
동착의	제주 건입	서착의	제주 건입
한질끗	제주 도남		

지금까지 제주 지명어의 후부요소 99개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것끼리 모아 16개 系로 분류하고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 보았다. 이에 따라 분류된 후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골[谷]系 : 골/굴, 골새, 골생이, 구룽/구렁, 흙/콍/코미, 등 5개, 2) 길[路]系 : 길/질, 다리/드리, 도, 목/목이, 올레 등 5개, 3) 논[沓]系 : 논, 답 등 2개,

4) 돌[石]系 : 담, 돌, 바위, 빌레, 잣, 팡 등 6개, 5) 동굴(洞窟)系 : 굴, 궤/괴야 등 2개, 6) 들[野]系 : 골/골, 드르, 버덕/버데기, 벙디, 케, 털 등 6개, 7) 마을[洞]系 : 가름/카름, 거리/커리, 골/굴, 골목, 다리, 당(堂), 동(洞), 동네, 마을/므을/므슬, 미, 이, 집/칩, 터/집터 등 13개, 8) 머들[磊]系 : 머들/모들/므들, 머세/머채, 머을/머흘, 케 등 4개, 9) 물[水]系 : 내/나리, 못, 물, 샘/새미, 소, 통 등 6개, 10) 바다[海岸]系 : 개, 걸, 궤, 기정, 깝, 늣, 당(堂), 덕, 돌, 머리, 모살, 물, 미, 바당, 바위, 밧/왓, 불덕, 빌레, 섬, 알, 여, 원, 창/개창/성창, 코지/콧, 통 등 25개, 11) 밧[田]系 : 골/굴, 달이, 답단이, 드르/드루, 밧/왓/팻, 새왓, 산전(山田), 우영, 전(田), 캐 등 10개, 12) 분묘(墳墓)系 : 무덤 1개, 13) 숲[藪]系 : 콧/코지, 솔/솔 등 2개, 14) 언덕[丘]系 : 동산, 므르/므루 등 2개, 15) 오름系 : 뵤/뵤/미, 봉, 산, 오름 등 4개, 16) 위치[方位]系 : 구석, 깝, 뒤, 밧, 알, 앞 등 6개 총 99개의 후부요소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후부요소의 분포수를 많이 나타나는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밧/왓/팻[田]	1376	동산[丘]	839
물[水]	501	여[海岸]	381
므루/므르[丘]	288	터/집터[洞]	190
오름[岳]	183	못[水]	164
개[海岸]	161	골/굴[谷]	139
소[水]	139	도/또[路]	135
내[水]	130	질/길[路]	117
통[水]	109	가름/카름[洞]	104
코지/콧	96	골/굴[田]	96
골/굴[洞]	95	당[洞]	93
동네[洞]	87	원[海岸]	82
빌레[石]	80	목/목이[路]	78
드르/드루[田]	72	기타[水]	68
벙디[野]	67	거리/커리[洞]	67
돌[石]	61	새미/샘[水]	60

우영[田]	55	들/드르[野]	54
덕[海岸]	54	퀘/퀘야[窟]	52
술/수울[藪]	44	머들/모들[磊]	41
물[海岸]	37	곶/코지[藪]	36
머세/머채[磊]	36	동(洞)	35
돌[海岸]	33	논[沓]	33
다리[田]	33	구릉[谷]	30
통[海岸]	28	캐[野]	28
이[洞]	26	굴[窟]	25
알[方位]	25	각[海岸]	21
다리/드리[路]	21	마을[洞]	21
새왓[田]	20	걸[海岸]	18
빌레[海岸]	17	창[海岸]	16
각[方位]	16	흙/콍/코미[谷]	15
캐/캐왓[田]	15	전[田]	15
담단이[田]	14	불턱[海岸]	14
산전[田]	13	섬[海岸]	12
밭/왓[海岸]	12	앞[方位]	12
집/집[宅]	11	미[洞]	11
바당[海岸]	11	캐[磊]	11
늪[海岸]	10	팡[石]	10
잣[石]	10	바위[海岸]	10
담[石]	9	골목[洞]	9
퀘[海岸]	8	털/틀[野]	8
모살[海岸]	8	머리[海岸]	7
버덕/버데기[野]	7	무덤[墳墓]	7
굴/굴[野]	7	머흘/머을[磊]	7
올레[路]	7	답[沓]	7
기정[海岸]	7	당[海岸]	7
바위[石]	6	피/메/미[岳]	6



구석[方位]	6	산[岳]	6
미[海岸]	6	알[海岸]	6
봉[岳]	6	밧[方位]	6
뒤[方位]	5	달이[洞]	5
골생이/골챙이[谷]	4		

99개의 후부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분포된 것부터 보면 1) 밧/왓/팻[田] 1376곳 2) 동산[丘] 839곳 3) 물[水] 501곳 4) 여[礁] 381곳 5) 므루/므르[宗] 288곳 등의 순이었다. 이 사실은 제주 지역이 후부요소 분포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 및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육지 지명어와 비교하여 후부요소의 형태가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제주 지역이 고어형태의 후부요소를 많이 간직하고 있으며, 생활 환경과 풍토가 육지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16개 상위 후부요소 중에 [墳墓] 6, [海岸] 247, [洞] 72, [野] 49, [石] 31, [丘] 24, [磊] 19, [岳] 18, [谷] 17, [藪] 17, [方位] 16, [路] 7, [窟] 7개 등 527개 후부요소의 분포수가 2~3 곳 정도 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아 기타로 처리하였다.

2. 후부요소의 형태적 특성

가. 다양한 이형태

1) 첨가로 인한 이형태

가) 가름/카름

‘가름/카름’의 경우는 ‘가름’을 기본형으로 보고, ‘ㅎ’이 첨가되어 이형태 ‘카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ㅎ’이 첨가되는지는 일정한 규칙이 없다.

‘동산가름(제주 봉개)’, ‘못가름(제주 노형)’, ‘세가름(제주 회천)’, ‘오름가름(제주 오라)’, ‘주승가름(제주 용강)’, ‘헛대가름(제주 도두)’ 등은 ‘가름’으로 실

현되고, ‘구카름(서귀 법환)’, ‘당카름(제주 도련)’, ‘동카름(제주 도련)’, ‘물카름(제주 삼양)’, ‘알카름(제주 삼양)’, ‘엥카름(제주 내도)’ 등은 ‘카름’으로 실현된다.

나) 거리/커리

‘거리/커리’의 경우도 ‘가름/카름’과 같이 ‘거리’를 기본형으로 보고, ‘ㅎ’이 첨가되어 이형태 ‘커리’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거리/커리’도 어떤 경우에 ‘ㅎ’이 첨가되는지는 일정한 규칙이 없다.

‘맞거리(서귀 호근)’, ‘동산거리(제주 노형)’, ‘들물거리(제주 삼도)’, ‘모시왓거리(제주 일도)’, ‘백거리(제주 아라)’, ‘앞거리(서귀 중문)’, ‘자리거리(제주 영평)’, ‘왕돌거리(제주 해안)’ 등은 ‘거리’으로 실현되고, ‘엥커리(서귀 용흥)’, ‘해사커리(제주 도남)’ 등은 ‘커리’로 실현된다.

다) 콤/코미

‘콤’은 음운 첨가로 인한 ‘코미’을 이형태로 가지고 있다.

‘오로코미(대정 신도)’는 ‘코미’로, ‘오로콤(제주 월평)’, ‘한지내콤(서귀 하효)’ 등은 ‘콤’으로 실현되고 있다.

라) 콧/코지

‘콧(콧)’은 음운의 첨가로 인하여 ‘코지’로도 실현된다.

‘개우지코지(서귀 하효)’, ‘물가는코지(서귀 송산)’, ‘불낙여코지(제주 용담)’, ‘상두낭술코지(서귀 강정)’, ‘숙골각코지(서귀 호근)’, 안마께코지(제주 이호)’, ‘제빌레코지(서귀 보목)’, ‘지셋개코지(제주 용담)’ 등은 ‘코지’로, ‘고지콧(제주 삼양)’, ‘남당머리콧(제주 화북)’, ‘다끄네콧(제주 용담)’, ‘돈돌기콧(제주 화북)’, ‘드렁콧(제주 화북)’, ‘생이콧(서귀 법환)’, ‘하르비콧(제주 삼양)’ 등은 ‘콧’으로 실현된다.

마) 새미/쌈

‘쌈’은 ‘물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 곳’을 뜻하는데, 주로 바위 틈에서 솟는 경우가 많다. ‘새미’로 실현되기도 한다.

‘도육쌈(서귀 대포)’, ‘뚝고리쌈(서귀 보목)’, ‘만지쌈(서귀 중문)’, ‘머드낭쌈(서귀 강정)’, ‘일뢰쌈/일레쌈(서귀 회수)’, ‘종남쌈/쫑남쌈(서귀 하원)’, ‘푼채쌈(서귀 서흥)’ 등은 ‘쌈’으로, ‘거슨새미(서귀 호근)’, ‘거슨세미(제주 연동)’, ‘군지새미(제주 봉개)’, ‘당남새미(서귀 상예)’, ‘들레새미(제주 월평)’ 등은 ‘새미’로 실현된다.

바) 집/칩/чит

‘집’의 이형태들 중 기본형을 ‘집’으로 잡는다. ‘칩’은 ‘집’의 앞에 ‘히’가 첨가된 형태이며, ‘чит’은 ‘칩’에서 음운 교체가 일어난 형태이다.

‘성안집(서귀 토평)’, ‘이문집(서귀 토평)’ 등은 ‘집’으로, ‘동칩(서귀 신호)’, ‘배칩(서귀 호근)’, ‘왕대칩(서귀 신호)’ 등은 ‘칩’으로, ‘가멧чит밧(제주 회천)’은 ‘чит’으로 실현되고 있다.

2) 교체로 인한 이형태

가) 골/굴

‘골/굴’은 제주 지명에서는 ‘谷, 洞, 밭’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골/굴’은 음운의 교체로 인한 이형태인데, 교체의 원인은 알 수 없다.

‘감낭골(서귀 토평)’, ‘갑작골(서귀 강정)’, ‘고양골(서귀 상호)’, ‘도채비골(서귀 강정)’, ‘동문골(제주 일도)’, ‘물골(서귀 동흥)’, ‘민앵이주골(서귀 우남)’, ‘알생깃골(제주 일도)’, ‘오목골(제주 이호)’, ‘우럭골(서귀 서호)’, ‘운주당골(제주 일도)’, ‘장골(서귀 월평)’, ‘준골(서귀 월평)’, ‘창신골(제주 일도)’, ‘함백이골(서귀 강정)’ 등은 ‘골’로 실현되고, ‘보리낭골(제주 일도)’, ‘용작골(제주 화북)’, ‘장석골(제주 삼양)’, ‘추숫골(제주 삼도)’, ‘큰다리골(서귀 동흥)’, ‘희미니골(제주 회천)’ 등은 ‘굴’로 실현된다.

나) 골생이/골챙이

‘골챙이/골생이’는 ‘옴푹 패인 곳’의 뜻을 가진 후부요소로, 음운 교체에 의한 이형태이다.

‘하원골생이(서귀 호근)’는 ‘골생이’로 실현되는 경우이고, ‘앞내골챙이(서귀 대포)’, ‘말물골챙이(서귀 색달)’, ‘자운당골챙이(서귀 중문)’는 ‘골챙이’가 실현된 경우이다.

3) 탈락으로 인한 이형태

가) 구렁/구릉/구릉

‘구릉/구렁’은 ‘굴형>굴영>구렁>구릉’으로 음운이 탈락·변화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굴형’을 15세기 고어형으로 본다면, ‘구렁, 구릉, 구릉’ 등을 이형태로 볼 수 있다.

‘메구렁(성산 난산)’은 ‘구렁’으로 실현되며, ‘생구릉(제주 도련)’, ‘연미구릉(제주 오라)’ 등은 ‘구릉’으로, ‘궤여구릉(제주 연동)’, ‘베락구릉(제주 노형)’, ‘소왕구릉(제주 노형)’, ‘자구리구릉(제주 연동)’, ‘함백이구릉(제주 노형)’ 등은 ‘구릉’으로 실현된다.

나) 머물/머흘

‘머울’은 ‘머흘’이 ‘ㅎ’ 탈락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셋머흘(제주 용강)’, ‘진머흘(서귀 서호)’, ‘호근머흘(서귀 호근)’ 등은 ‘머흘’로 실현되고, ‘귀머울(제주 도련)’, ‘머울왓(제주 아라/회천, 서귀 회수)’ 등은 ‘머울’로 실현되고 있다.

다) 뫼/메/미



‘뫼/메/미’는 ‘모리>모이>뫼>메>미’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드라뫼(서귀 신호)’, ‘물뫼(성산 수산)’, ‘염통뫼(제주 연동)’ 등은 ‘뫼’로 실현되고, ‘물메(성산 수산)’는 ‘메’로 실현되며, ‘도노미(제주 오라)’, ‘무그레미(서귀 월평)’, ‘연미(제주 오라)’, ‘드라미(서귀 신호)’ 등은 ‘미’로 실현되고 있다.

라) 콧/코

‘콧’은 ‘코’로 탈락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쉐머리코(제주 내도)’, ‘돈내코(서귀 영천)’, ‘쇠코(서귀 월평)’ 등은 음운 탈락으로 인해 ‘코’로 실현된다.

4) 탈락 및 첨가로 인한 이형태

가) 밧/왓/팻

제주 후부요소 ‘밧’은 두 가지 이형태를 지닌다. 하나는 ‘ㅂ’이 탈락하여 ‘왓’으로 실현되며, 또 하나는 유기음화되어 ‘팻’으로 나타난다. 앞에 나오는 지명 전접요소의 말음의 음운 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왓’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전접요소의 발음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전접요소의 발음이 ‘ㄹ’음인 경우도 대부분 ‘왓’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팻’으로 실현되는 조건은 전접요소의 발음이 음운론적으로 유성자음과 모음 간, 형태론적으로 명사+명사의 결합 환경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감낭뱃(서귀 하효)’, ‘내중낭뱃(서귀 남성)’, ‘닥뱃(서귀 서흥)’, ‘담뱃(서귀 남성)’, ‘당아진뱃(서귀 용흥)’, ‘대병뱃(서귀 하효)’, ‘돌록뱃(서귀 강정)’, ‘물곱는뱃(서귀 서흥)’, ‘물진뱃(서귀 토평)’, ‘사장뱃(서귀 토평)’, ‘새가름뱃(제주 해안)’, ‘소금뱃(서귀 강정)’, ‘장귀아진뱃(제주 노형)’, ‘큰초낭뱃(서귀 용흥)’ 등은 ‘뱃’으로, ‘골챙이왓(제주 삼양)’, ‘굴왓(제주 연동)’, ‘괘물왓(제주 연동)’, ‘불미왓(제주 도련)’, ‘선반질왓(제주 아라)’, ‘활대왓(제주 도련)’, ‘활대왓(제주 삼양)’ 등은 ‘왓’으로, ‘구렁팻(제주 삼양)’, ‘글팻(제주 영평)’, ‘내팻(서귀 남성)’, ‘당팻(서귀 보목)’, ‘당팻(제주 봉개)’, ‘당팻(제주 삼양)’, ‘망팻(서귀 강정)’, ‘망팻(서귀 법환)’, ‘머흘팻(서귀 강정)’, ‘뭍팻(제주 외도)’, ‘새구렁팻(제주 영평)’, ‘송대장팻(제주 영평)’, ‘우영팻(제주 삼양)’ 등은 ‘팻’으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바다에도 ‘왓, 뱃’이 있는데, 해산물이 나는 바다맡을 뜻한다.

‘개왓(서귀 보목)’, ‘구쟁이왓(제주 내도)’, ‘뭍조개왓(제주 화북)’, ‘복쟁이왓(제주 이호)’, ‘솔대왓(안덕 화순)’, ‘아애리왓(제주 이호)’, ‘어깨왓(성산 온평)’, ‘오징애왓(제주 도두)’, ‘오징애왓(제주 이호)’, ‘저우렛뱃(제주 도두)’, ‘조개왓(제주 도두)’, ‘질랭이왓(성산 오조)’ 등 대부분 ‘왓’으로 실현되고 있다.

나. 고어 형태와 신 형태의 공존

1) 내/나리

‘내’는 하천을 뜻한다. ‘내’의 이형태로 일부 ‘나리’로도 실현된다. 약학계범에 실린 고려가요 動動¹⁹⁾에 ‘나리’가 ‘내[川]’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고어형과 신형이 공존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가린내(제주 아라)’, ‘노린물내(남원 위미)’, ‘돛박내(제주 회천)’, ‘산물어위내(서귀 동흥)’, ‘서곶내/소곶내(서귀 동흥)’, ‘섯내(제주 아라)’, ‘세밋내(제주 이호)’, ‘소용내(小龍川)(제주 삼도)’, ‘아시내(제주 노형)’, ‘알숨반내(서귀 천지),

19) 正月스 나릿뜨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압내(제주 이도)’, ‘애린내(서귀 중앙)’, ‘오등내(제주 오등)’, ‘올리소내(제주 해안)’, ‘웃무드내(제주 용강)’, ‘조로방내(대정 신평)’, ‘큰내(서귀 상예)’ 등은 ‘내’로 실현되며, ‘닥그나리(제주 도평)’, ‘베염나리(제주 노형)’ 등은 ‘나리’로 실현된다.

2) 다리/드리

‘다리[橋]’는 그 고어형이 ‘드리’로서 제주어의 특징인 고어형을 유지한 형태로 많이 실현된다.

‘가문다리(서귀 상호)’, ‘곶은다리(제주 도두)’, ‘배고픈다리(제주 용담)’ 등은 ‘다리’로 실현되며, ‘동산드리(제주 오라)’, ‘서문드리(제주 삼도)’, ‘오등드리(제주 이도)’, ‘조노케드리(서귀 보목)’, ‘한넛드리(제주 오라)’, ‘한넛드리(제주 용담)’ 등은 고어형인 ‘드리’로 실현된다.

3) 마을/므을/므슬

‘마을/므을/므슬’은 ‘므슬>므을>마을’의 변천 과정을 겪은 어휘로서, 제주 지역어에서는 이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제주 이호의 ‘백개동마을/백개서마을/백개중마을’은 ‘마을’로 실현되고, ‘구성므슬(서귀 신평)’, ‘모슬논(므슬논)(서귀 호근)’, ‘먼내모슬(서귀 중문)’, ‘웃므실질(제주 삼양)’, ‘므실거리(제주 도평)’은 ‘므슬/므실’로 실현되며, ‘가령므을(제주 이도)’, ‘남새므을(제주 오라)’은 ‘므을’로 실현된다.

4) 거리/커리

‘세[三]’의 15세기 형태는 ‘세ㅎ’이다. 이 ‘세ㅎ’가 ‘거리’와 결합하면, ‘세ㅎ’의 ‘ㅎ’이 ‘거리’에 영향을 끼쳐 ‘세커리’가 된다.

‘동가름세거리(서귀 서흥)’, ‘안가름세거리(서귀 서흥)’, ‘지장샘세거리(서귀 서흥)’와 ‘세커리(제주 해안)’는 신 형태와 고어 형태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뫼/메/미

‘뫼/메/미’는 ‘모리>모이>뫼>메>미’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드라피(서귀 신호), ‘물피(성산 수산), ‘염통피(제주 연동)’ 등은 ‘피’로 실현되고, ‘물메(성산 수산)’ 는 ‘메’로 실현되며, ‘도노미(제주 오라), ‘무그레미(서귀 월평), ‘연미(제주 오라), ‘드라미(서귀 신호)’ 등은 ‘미’로 실현되어 고어형과 신 형태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15세기 형태와 신 형태가 공존하는 현상도 제주 지명어의 특징 중 하나이다.

6) 므르/므루

‘므르’는 ‘마루[宗]’를 뜻하는 중세국어 ‘등성이 진 곳’이란 뜻을 지닌 제주 지명 후부요소이다. 이형태로 ‘므루, 므를, 모루, 머르, 머리, 멀’ 등 다양한 이 형태가 존재한다.

‘고냉이므르(제주 아라), ‘고완이므르(제주 회천), ‘움부리므르(제주 아라), ‘웃상장므르(제주 회천)’ 등은 ‘므르’로 실현되고, ‘신산므루(남원 신흥)’는 ‘므루’로, ‘곶머리(제주 아라), ‘먼머리(제주 삼양)’ 등은 ‘머리’로, ‘ㄱ으니므를(제주 건입), ‘높은므를(제주 용강), ‘동왕주므를(제주 용강), ‘두를므를(제주 오등), ‘앞므를(제주 오라)’ 등은 ‘므를’로, ‘들령모루(서귀 서흥), ‘매모루(서귀 서흥), ‘맹이모루(서귀 법환), ‘영수모루(서귀 서흥)’ 등은 ‘모루’로 실현되고 있다.

II. 지명어의 형태론적 고찰

일반적으로 형태론(morphology)은 형태에 대한 연구(the study of form)이고, 통어론(syntax)은 짜맞추기(putting together)에 대한 연구이다. 원칙적으로 문법에서 형태(form)라고 하면 단어 형태를 뜻하고, 따라서 짜맞추기의 단위, 즉 문장(sentence)으로 통합되는 단위는 단어가 된다. 그러므로 형태론은 단어의 내부 구조를 다루고 통어론은 문에서 단어의 결합을 지배하는 법칙을 다룬다.²⁰⁾

그러므로 형태론을 최소의미단위인 형태소(morpheme)와 형태소의 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 구성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으며, 국어의 단어 구성에 관한 연구는 국어 어휘의 총체적인 모습을 그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어의 단어 구성에 관한 논의에서 지명어(地名語)는 제외되어 왔다.²¹⁾ 지명어는 국어의 어휘, 특히 명사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며, 그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여러 대에 걸쳐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주민들 사이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명어의 단어 구성에 대한 논의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어 단어 구성을 다룬 대부분의 논의들은 대체로 지명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명어의 단어 구성을 언급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고 있다. 지명어에 대한 형태론적인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유연성²²⁾에 따른 지명어의 단순한 단어 구성 형태만을 다루고 있을 뿐, 국어의 단어 형태 구조 유형에 따른 분석이 시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 지명어의 단어 구성을 국어 단어 형태 구조 유형에 따라 분석하여 제주 지명어의 단어 구성 형태를 파악하고, 형태 구조적

20) 이석주(1989), 국어형태론, 한샘. p.5.

21) 강병륜(1997), 고유 지명어 연구, 박이정. p.168

22) 여기서 유연성이라 함은 지명어의 전접요소나 후부요소를 분류할 때 연관이 있는 것끼리 묶어 설명하는 경우, ‘연관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²³⁾

단어 구성 형태를 분석한 지명어 자료는 형태 분석이 가능한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 지역의 지명어 3070개이다.²⁴⁾

제주 지명어의 단어 구조 분석은 지명어를 직접구성성분(IC)의 유에 따라 묶고 또 각 요소의 품사별로 단어 구조를 추출하였다.²⁵⁾ 또, 형태소의 수가 3개 이상 될 때에는 결합의 선후 관계를 밝히고, 그에 따른 각 요소의 품사별로 단어 구조를 추출하였다.²⁶⁾ 그리고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는 ‘구림비’와 같은 일반 명사이거나, ‘므루’와 같은 후부요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논외로 한다.²⁷⁾

23) 일반 명사의 단어 구조는 이석주(1989)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용어의 사용은 complex를 복합어로, compound를 합성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이석주(1989)를 인용할 때, 직접 인용인 경우에는 compound를 복합어로, 간접 인용인 경우에는 compound를 합성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24)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명어 중 의미가 분명치 않은 것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왜냐 하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분석하게 되면 오분석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의미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5) 강병륜(1997)은 지명어의 형태를 분석하면서, ‘방울미[鈴山]’ ‘미[山]’를 접미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는 ‘되’에서 ‘그’가 탈락한 형태이지 접미사는 아니다. 즉 ‘미’의 경우에는 명사로 보아야 한다. 이런 예들이 많다. ‘늘티, 갈티(葛峙)’의 ‘티’는 ‘치(峙, 언덕)’이고, ‘새뜸, 옷뜸’의 ‘뜸’은 ‘큰 마을 가까이’에 따라 몇 집씩으로 이루어진 작은 동네’라는 명사이다.

26)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다음과 같다.

형태소 : M	체언 : N	용언 : V	명사 : n	수사 : nu
동사 : v	형용사 : a	부사 : ad	관형어 : ap	관형사 : d
접두사 : p	접미사 : s	어근 : r	어미 : e	조사 : aw

27) 단일형태소로 된 지명어는 3070개 중 다음의 28개였다. 구림비(서귀 강정), 꿈장이(서귀 강정), 너리(1, 2, 3)(서귀 강정), 던드리(제주 외도), 도로목(서귀 서흥), 머레기(서귀 호근), 머체(제주 삼양, 노형), 머흘(제주 용강), 모루(서귀 호근), 무그레미(서귀 월평), 무죽시(서귀 동흥), 뽕티(제주 도평, 삼양, 삼양), 술대(서귀 강정), 수두리(제주 도평, 외도), 엉덕(제주 삼양), 자구리(서귀 송산), 지미(서귀 강정), 짐떡(서귀 월평), 코지(서귀 호근), 황우지(서귀 서흥), 므루(제주 이호), 즈각(제주 아라)

1. 지명어의 합성 구조

일반 국어의 단어 형태 구조 유형 가운데 명사의 구조는 합성어의 경우 ‘체언 + 체언(N + N)’, ‘관형어 + 체언(D+N)’, ‘용언의 어근 + 체언(Vr+N)’의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파생어의 경우에는 ‘접두사 + 체언(p+N)’과 ‘체언 + 접미사(N+s)’의 두 가지가 있다. 제주 지명어에서도 이와 같은 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결합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국어학적 형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명어를 분석을 하면서 형태소가 3개 이상인 지명어의 경우는 결합의 선후 관계를 따져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제주 지명어를 국어 단어 형태 구조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가. 체언+체언(N+N)

제주 지명어에서 ‘체언 + 체언’의 단어 형태 구조는 ‘명사 + 명사’의 결합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명사 + 명사’ 합성의 선후 관계를 보면,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에는 ‘(MM)M’형이 8개 구조, ‘M(MM)’형이 7개 구조가 있다. 4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에는 ‘((MM)M)M’형이 15개 구조, ‘(M(MM))M’형이 3개 구조, ‘(MM)(MM)’형이 6개 구조, ‘M((MM)M)’형이 6개 구조, ‘M(M(MM))’형이 2개 구조가 있다. 5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에는 ‘(((MM)M)M)M’형이 5개 구조, ‘((MM)(MM))M’형이 3개 구조, ‘(M((MM)M))M’형이 1개 구조, ‘M(((MM)M)M)’형이 1개 구조가 있다. 6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에는 ‘((((MM)M)M)M)M’형이 1개 구조, ‘(((MM)(MM))M)M’형이 2개 구조, ‘((MM)M)((MM)M)’형이 1개 구조가 있다. 7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에는 ‘((((((MM)M)M)M)M)M)M’형 1개 구조가 있다.

먼저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의 구조를 살펴보자.

(1) [n+n]n (1448/3070)²⁸⁾

가매왓[釜田]

서귀 하원

[[가매]n+[왓]n]²⁹⁾

갈못[渴池]	제주 도련/회천	[[갈]n+[못]n]n
감태여[甘苔礮]	서귀 중문	[[감태]n+[여]n]n
말질[馬路]	서귀 강정/색달/회수/하원/서홍	[[말]n+[질]n]n
통물[桶泉]	서귀 강정/도순/월평/하원/호근, 제주 외도	[[통]n+[물]n]n
영물[匣泉]	제주 내도/도두/도두/삼양/외도	[[영]n+[물]n]n
함내[合川]	서귀 서홍	[[합]n+[내]n]n

가마귀동산(제주 영평/용담), 가마귀왓(서귀 수전/염돈), 가메물(제주 도련/회천), 가시물(서귀 강정/중문), 갈치바당(제주 건입), 고녕이소(서귀 동홍/서홍/우남/월평/하원), 고망물(제주 외도/이호/해안), 구명물(서귀 대포/도순/영천, 제주 외도/이호), 구시물(서귀 상예/서홍/호근, 제주 내도/연동/해안/회천), 동산밭(서귀 상예/용흥, 제주 삼양/아라/용담/회천)……



‘갈못, 함내’ 등은 ‘한자+우리말’의 형태를 취한 것들이다. ‘갈못’의 경우는 ‘渴+못’이고, ‘함내’의 경우는 ‘合+내’인 것이다.

(2) [nu+n]n (3/3070)

네커리[四枝路]	서귀 토평, 제주 이호	[[네]nu+[거리]n]n
식커리[三枝路]	제주 해안	[[식]nu+[거리]n]n

‘네커리’와 ‘식커리’는 수사가 쓰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15세기 국어에서

28) () 안의 숫자는 (빈도수/지명어총수)를 나타낸다.

29) 실례를 들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지명어[意味] 시(市) 동(洞) [분석 내용]

그리고 같은 지명어가 여러 동네에서 나타날 때는 기호(/)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예, 제주 내도/해안).

‘네ㅎ[四]’와 ‘세ㅎ[三]’는 ㅎ곡용어이다. 이것이 ‘거리’와 결합하면서 ‘ㅎ’이 나타난 경우이다. 이도 일반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면에서 제주 지명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MM)M’형이다.

(3) [[ar+n]n+n]n (6/3070)

둥돌왓흙[圓凹田]	서귀 도순	[[[둥돌]ar+[왓]n]n+[흙]n]n
무드내[無頭川]	제주 용강	[[[무]ar+[드]n]n+[내]n]n
무주왓[無主田]	서귀 토평	[[[무]ar+[주]n]n+[왓]n]n
하논거제[多沓堤]	서귀 호근	[[[하]ar+[논]n]n+[거제]n]n
하논케[多沓域]	서귀 서흥	[[[하]ar+[논]n]n+[케]n]n
소도릿도[小橋入口]	서귀 강정	[[[소]ar+[도리]n]n+[도]n]n

(4) [[ar+s]n+n]n (4/3070)

납작이내[平川]	제주 삼양	[[[납작]ar+[이]s]n+[내]n]n
너벅빌레[廣坪]	제주 화북	[[[넙]ar+[억]s]n+[빌레]n]n
너베기왓[廣田]	제주 연동	[[[넙]ar+[어기]s]n+[왓]n]n
빌채기왓[濕田]	제주 영평	[[[빌착]ar+[이]s]n+[왓]n]n

(5) [[d+n]n+n]n (32/3070)

두내틈[兩川間]	서귀 호근	[[[두]d+[내]n]n+[틈]n]n
새여통[新礁桶]	서귀 강정	[[[새]d+[여]n]n+[통]n]n
아홉굴왓[九窟田]	제주 오라	[[[아홉]d+[굴]n]n+[왓]n]n
튼깃우영[異宅垆田]	제주 화북	[[[튼]d+[깃]n]n+[우영]n]n
흔착밭[隻田]	서귀 강정	[[[흔]d+[착]n]n+[밭]n]n

네성제돌(서귀 서귀), 두돌왓(서귀 상예), 맨막바위(제주 이호), 벨진모루(서귀 호근), 새벨동산(제주 도평), 새새미머채(제주 아라), 새새미왓(제주 회천), 새새미질(제주 회천), 새소왓(제주 용강), 아홉선반양덩이(제주 용담), 아홉선반여(제주 용담)……

(6) [[n+n]n+n]n (542/3070)

감남(낭)밭[柿木田]

서귀 서귀/하효/호근, 제주 연동/아라/영평/월평/이호

[[[감]n+[남(낭)]n]n+[밭]n]n

평망동산[雉望丘]

서귀 강정/색달/중문/하원, 제주 영평/회천

[[[평]n+[망]n]n+[동산]n]n

소낭(남)밭[松田]

서귀 강정/대포/월평, 제주 이호/아라

[[[솔]n+[낭(남)]n]n+[밭]n]n

숨골(굴)왓[水穴田]

서귀 상예, 제주 노형/도련/연동/오라/외도/해안

[[[숨]n+[골(굴)]n]n+[왓]n]n

츠남(낭)동산[採木丘] 제주 노형/삼양/아라/봉개/회천

[[[츠]n+[남(낭)]n]n+[동산]n]n

가매(메)물내(제주 용강/봉개), 가시밭(왓)케(서귀 호근, 제주 회천), 감낭골(굴)(서귀 토평, 제주 아라), 개남(낭)밭(서귀 대포/강정/호근), 고장남밭(서귀 서흥/호근, 제주 아라/화북/봉개), 노리물동산(서귀 호근), 담머리코지(서귀 서귀), 대설밭(서귀 보목/서흥), 대추남(낭)밭(제주 외도/이호, 서귀 강정)……

(7) [[n+s]n+n]n (66/3070)

갓바치동산[冠匠丘]

제주 봉개 [[[갓]n+[바치]s]n+[동산]n]n

갓쟁이밭(왓)[冠匠田] 서귀 호근, 제주 오라

[[[갓]n+[쟁이]s]n+[왓]n]n

보름이땅[風地]

서귀 하원 [[[보름]n+[이]s]n+[땅]n]n

소동이터[少童址]

서귀 대포 [[[소동]n+[이]s]n+[터]n]n

총쟁이머들[獵匠林]

서귀 중문 [[[총]n+[쟁이]s]n+[머들]n]n

갑살이동산(서귀 중문), 강만이왓(제주 봉개), 골챙이왓(제주 삼양), 구멍이왓(제주 영평), 녹이드르(제주 회천), 덕덜이왓(서귀 도순), 막산이왓(제주 노형), 만근이왓(제주 화북), 몽데기터(서귀 호근), 문안이왓(서귀 중문), 박가밭(서귀 중문), 버드리못(제주 용강/회천), 복돌

이밭(서귀 중문), 산쟁이모들(서귀 하예)……

(8) [[p+n]n+n]n (3/3070)

백모래통[白沙桶]	서귀 하효	[[[백]p+[모래]n]n+[통]n]n
군물동산[加泉丘]	서귀 중문	[[[군]p+[물]n]n+[동산]n]n
외돌개[隻石海岸]	서귀 서홍	[[[외]p+[돌]n]n+[개]n]n

(9) [[vr+n]n+n]n (5/3070)

들물꼭지[滿潮串]	서귀 보목	[[[들]vr+[물]n]n+[꼭지]n]n
봉개오름[奉蓋岳]	서귀 봉개	[[[봉]vr+[개]n]n+[오름]n]n
주거물[駐車泉]	서귀 호근	[[[주]vr+[거]n]n+[물]n]n
함내골[合川洞]	서귀 서홍/호근	[[[함]vr+[내]n]n+[골]n]n

(10) [[vr+s]n+n]n (4/3070)

도리물[廻水]	제주 외도	[[[돌]vr+[이]s]n+[물]n]n
막쉬므르[曷宗]	제주 봉개	[[[막]vr+[쉬]s]n+[므르]n]n
모레기도[啞入口]	서귀 영천	[[[모레]vr+[기]s]n+[도]n]n
모로기터[啞址]	제주 영평	[[[모로]vr+[기]s]n+[터]n]n

다음은 M(MM)형이다.

(11) [n+[ar+s]n]n (1/3070)

질지슴[路茂盛]	서귀 하예	[[질]n+[[짓]ar+[음]s]n]n
----------	-------	-----------------------

‘질지슴’은 ‘풀 따위가 무성하다’는 뜻의 형용사 어간 ‘짓-’에 명사화 접미사 ‘-口’이 결합하고 다시 앞에 도로(道路)를 뜻하는 명사 ‘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즉 ‘길에 풀이 무성함’을 뜻한다. 특이한 점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지명어로 쓰였다는 것이다. 흔히 볼 수 없는 경우이다.

(12) [n+[d+n]n]n (4/3070)

동녁새 집[東新屋]	서귀 토평	[[동녁]n+[[새]d+[집]n]n]
앞튼여[前異礁]	서귀 토평	[[앞]n+[[튼]d+[여]n]n]
섯새여[西新礁]	제주 외도	[[서]n+[[새]d+[여]n]n]
웃새물[上新泉]	서귀 서흥	[[우]n+[[새]d+[물]n]n]

(13) [n+[n+n]n]n (63/3070)

동/서배우못[西配泉]	서귀 우남	[[동/서]n+[[배우]n+[물]n]n]
동정도[東柱入口]	서귀 강정	[[동]n+[[정]n+[도]n]n]
밭새미오름[外泉岳]	제주 봉개	[[밭]n+[[새미]n+[오름]n]n]
알갓물[下邊水]	서귀 강정	[[알]n+[[갓]n+[물]n]n]
알선반질[下懸盤路]	제주 화북/회천	[[알]n+[[선반]n+[질]n]n]
동갯갓[東浦海岸]	제주 내도	[[동]n+[[갯]n+[갓]n]n]
동구쟁잇여[東螺礁]	제주 삼양	[[동]n+[[구쟁이]n+[여]n]n]
알생깃골[下鄉校洞]	제주 일도	[[알]n+[[생기]n+[골]n]n]

앞뒷빌레[前後巖盤] 서귀 토평
 구남당(제주 아라), 동/서상장마르(제주 삼양), 동접밭(제주 오등), 동
 착원(제주 용담), 동태왓(제주 도련), 서접밭(제주 오등), 안가막솔(제
 주 아라), 안고상여(서귀 서귀), 안마께코지(제주 이호), 안/밭불낙여
 (제주 도두), 안새미오름(제주 봉개), 안주여(제주 이호), 안태왓(제주
 봉개), 안팽상여(제주 이호), 자필막거리(서귀 상예)……

‘앞뒷빌레’의 경우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빌레’란 의미로 생각하기 쉬
 우나, ‘[[앞]n+[[뒤]n+[s]i]ap+[빌레]n]n’의 구조로서 ‘앞에 있는 뒷빌레’라는
 의미이다.

(14) [n+[nu+n]n]n (1/3070)

동네커리[東四枝路]	서귀 토평	[[동]n+[[네]nu+[거리]n]n]
------------	-------	-----------------------

(15) [n+[p+n]n]n (6/3070)

동한마르[東大宗]	제주 월평	[[동]n+[[한]p+[마르]n]n]
동한길[東大路]	제주 삼양	[[동]n+[[한]p+[길]n]n]
무기한길[戊己大路]	서귀 호근	[[무기]n+[[한]p+[길]n]n]
앞한길[前大路]	서귀 월평	[[앞]n+[[한]p+[길]n]n]
섯한마르[西大宗]	제주 월평	[[서]n+[[한]p+[마르]n]n]
섯한길[間大路]	서귀 서홍	[[새]n+[[한]p+[길]n]n]

(16) [n+[vr+s]n]n (1/3070)

굴체에움[畚輪]	서귀 보복	[[굴체]n+[[에우]vr+[口]e]n]n
----------	-------	-------------------------

‘굴체에움’은 ‘들러싸다’를 뜻하는 동사의 어간 ‘에우-’에 명사화 접미사 ‘-口’이 결합하고, 앞에 삼태기를 뜻하는 ‘굴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형태이다. 즉 ‘삼태기의 테두리’를 뜻하는데, ‘삼태기의 테두리’처럼 생긴 갯가의 지명이다.



(17) [n+[vr+n]n]n (1/3070)

동들락개[東湓浦]	서귀 대포	[[동]n+[[들락]vr+[개]n]n]
-----------	-------	-----------------------

‘동들락개’의 경우도 특이하다. 동사 ‘들락거리다’의 어간 ‘들락-’에 포구를 뜻하는 명사 ‘개’가 결합하고, 앞에 ‘동(東)’이 결합한 형태이다. 즉 ‘동쪽에 있는, 파도가 조금만 쳐도 안으로 물이 넘치는 포구’라는 뜻이다. 역시 형태론적 합성어³⁰⁾이다.

다음은 네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으로 ((MM)M)M형이다.

(18) [[[ar+e]ap+n]n+n]n (92/3070)

굽은자왓[曲尺田]	제주 도남/아라/영평/용강/월평/화북/이호/연동
-----------	----------------------------

30) 이석주(1989), pp.26~31. 통어론적 합성어는 통어론적 구조에서의 단어 연결 방식과 같은 것이고, 형태론적 합성어는 통어론적 구조에서의 단어 연결 방식과 다른 것이다.

[[[[곱]ar+[은]e]ap+[자]n]+[왓]n]n
 너븐물불턱[闊泉爐] 서귀 강정
 [[[[넙]ar+[은]e]ap+[물]n]+[불턱]n]n
 진소각[長湫垠] 서귀 강정
 [[[[질]ar+[ㄴ]e]ap+[소]n]+[각]n]n
 큰굴왓[大穴田] 서귀 호근, 제주 영평/해안
 [[[[크]ar+[ㄴ]e]ap+[굴]n]+[왓]n]n
 큰방에여[大確礁] 서귀 색달
 [[[[크]ar+[ㄴ]e]ap+[방에]n]+[여]n]n
 거린내왓(서귀 보목), 검은물도(제주 월평), 곤흘성창(제주 화북), 너
 븐왕돌(서귀 상예/중문), 다끄내물(제주 용담), 먼내모슬(서귀 중문),
 무근집터(서귀 강정), 묵은털곡지(제주 아라), 불근덕기정(서귀 중문),
 조근방에여(서귀 색달), 진밭도레(제주 내도), 진밭질(제주 삼양/내
 도), 흰돌밑(서귀 호근), 촌물질(제주 삼도)……

(19) [[ar+e]ap+n]n+n]n (6/3070)

감은이므르[黑宗] 제주 월평
 [[[[감]ar+[은]e]ap+[이]n]+[므르]n]n
 늙은이터[老人址] 제주 아라/화북
 [[[[늙]ar+[은]e]ap+[이]n]+[터]n]n
 욱은이므르[黠者宗] 제주 영평
 [[[[으 ㄱ]ar+[은]e]ap+[이]n]+[므르]n]n
 죽은이빌레[小巖盤] 제주 화북
 [[[[죽]ar+[은]e]ap+[이]n]+[빌레]n]n
 붉은이내[先曉川] 제주 도련
 [[[[붉]ar+[은]e]ap+[이]n]+[내]n]n

(20) [[ar+vr]n+n]n+n]n (1/3070)

넙거리안통[廣分(礁)內桶] 서귀 호근
 [[[[넙]ar+[거리]vr]n+[안]n]+[통]n]n

(21) [[[d+n]n+n]n+n]n (2/3070)

세치방목[三枝方入口] 서귀 신호

[[[[세]d+[치]n]n+[방]n]n+[목]n]n]

튼개머리어[異浦頭礁] 서귀 보목

[[[[튼]d+[개]n]n+[머리]n]n+[여]n]n]

(22) [[[d+n]n+s]n+n]n (1/3070)

넉동짜리왓[二百疋田] 제주 외도

[[[[넉]d+[동]n]n+[짜리]s]n+[왓]n]n]

(23) [[[n+n]n+n]n+n]n (39/3070)

가시나물동산[棘木泉丘] 제주 연동

[[[[가시]n+[남]n]n+[물]n]n+[동산]n]n]

검봉낭앞밭[楡木科木前田] 서귀 영천

[[[[검]n+[봉]n]n+[낭]n]n+[앞]n]n+[밭]n]n]

동박낭모생이물[冬栢木隈泉] 서귀 서흥

[[[[동]n+[박]n]n+[낭]n]n+[모생이]n]n+[물]n]n]

신남밋당[神木下堂] 서귀 보목

[[[[신]n+[남]n]n+[밋]n]n+[당]n]n]

흑담밭물[土墻田泉] 제주 오라

[[[[흑]n+[담]n]n+[밭]n]n+[물]n]n]

가메솔각물(서귀 대포), 구낭케질(서귀 색달), 대섬굴여(서귀 보목), 덕지물동산(제주 이호), 망다리알여(서귀 호근), 먹돌왓동산(서귀 상예), 밤남굴칭(제주 연동), 빈동낭머체(서귀 보목), 산지목골(제주 일도), 상두낭술코지(서귀 강정), 소왕남므르질(서귀 보목), 영물각코지(제주 외도), 영물머리개(제주 화북)……

(24) [[[n+n]n+s]n+n]n (8/3070)

베두리오름[星月岳] 제주 연동

[[[[벨]n+[돌]n]+[이]s]n+[오름]n]n
 베염주리물[蛇索泉] 서귀 호근
 [[[[베염]n+[줄]n]+[이]s]n+[물]n]n
 선대기동산[玄宅丘] 서귀 보목
 [[[[현]n+[댁]n]+[이]s]n+[동산]n]n
 성모기왓[城入口田] 서귀 보목
 [[[[성]n+[목]n]+[이]s]n+[왓]n]n
 성바깥디밭[城外田] 제주 삼양
 [[[[성]n+[바깥]n]+[디]s]n+[밭]n]n
 덕산이머새(제주 영평), 베두리동산(제주 연동), 종념이소(제주 아라)

(25) [[n+s]n+n]n (6/3070)

오즈미골물[尿谷泉] 서귀 색달
 [[[[오즘]n+[이]s]n+[골]n+[물]n]n
 고개집터[高哥屋址] 제주 영평
 [[[[고]n+[가]s]n+[집]n+[터]n]n
 부개집터[夫哥屋址] 제주 이호
 [[[[부]n+[가]s]n+[집]n+[터]n]n
 송개집터[宋哥屋址] 제주 회천
 [[[[송]n+[가]s]n+[집]n+[터]n]n
 우개집터[禹哥屋址] 제주 아라
 [[[[우]n+[가]s]n+[집]n+[터]n]n
 황개터동산[黃哥址丘] 제주 노형
 [[[[황]n+[가]s]n+[터]n+[동산]n]n

(26) [[n+vr]ap+n]n (1/3070)

오래물동산[午來泉丘] 제주 도두
 [[[[오]n+[래]vr]ap+[물]n+[동산]n]n

(27) [[[n+vr]ap+s]n+n]n (7/3070)

섬들이왓[島入田] 서귀 하효
 [[[[섬]n+[들]vr]ap+[이]s]n+[왓]n]n
 애기업계돌[保姆石] 서귀 상예/신효
 [[[[애기]n+[업]vr]ap+[계]s]n+[돌]n]n
 골내미동산[谷越丘] 제주 해안
 [[[[골]n+[넘]vr]ap+[이]s]n+[동산]n]n
 골내미통[谷越桶] 제주 해안
 [[[[골]n+[넘]vr]ap+[이]s]n+[통]n]n
 해맞이동산[日迎丘] 제주 노형
 [[[[해]n+[맞]vr]ap+[이]s]n+[동산]n]n

(28) [[[p+n]n+n]n+n]n (2/3070)

한내동카름[大川東洞] 제주 오라
 [[[[한]p+[내]n]n+[동]n]n+[카름]n]n
 한내서카름[大川西洞] 제주 오라
 [[[[한]p+[내]n]n+[서]n]n+[카름]n]n

(29) [[[p+n]n+s]n+n]n (1/3070)

생들이왓[生石田] 제주 영평
 [[[[생]p+[돌]n]n+[이]s]n+[왓]n]n
 한두깃물[大甕泉] 제주 용담
 [[[[한]p+[독]n]n+[이]s]n+[물]n]n

(30) [[[vr+e]ap+n]n+n]n (21/3070)

등(뜸)돌거리[擧石路] 제주 도두/용담/화북
 [[[[들]vr+[口]e]ap+[돌]n]n+[거리]n]n
 먹는물도[食水入口] 서귀 도순
 [[[[먹]vr+[는]e]ap+[물]n]n+[도]n]n
 선돌왓[立石田] 제주 오등/이호

$[[[서]vr+[ㄴ]e]ap+[돌]n]n+[왓]n]n$
 솔대왓[射臺田] 제주 삼양/아라/월평
 $[[[소]vr+[ㄹ]e]ap+[대]n]n+[왓]n]n$
 푼채샘[箕泉] 서귀 서흥
 $[[[푸]vr+[ㄴ]e]ap+[채]n]n+[샘]n]n$
 가린내왓(제주 아라), 든물건지(제주 화북), 든물여(제주 이호), 마근
 골동네(서귀 도순), 산물어위(서귀 동흥), 선돌동산(서귀 대포), 선독
 굴(제주 삼양), 선므르왓(제주 회천), 올림은어통(서귀 강정), 은물캐
 (제주 오라), 친밭당(서귀 가가)

(31) $[[[vr+e]a+s]n+n]n$ (1/3070)

막은이굴[塞谷] 제주 연동
 $[[[막]vr+[은]e]a+[이]s]n+[굴]n]n$

(32) $[[[vr+n]n+n]n+n]n$ (1/3070)

주거물각[駐車泉峴] 서귀 호근
 $[[[주]vr+[거]n]n+[물]n]n+[각]n]n$

다음은 (M(MM))M형이다.

(33) $[[ar+[n+n]n]n+n]n$ (1/3070)

장자굴왓동산[長草田丘] 제주 오등
 $[[[장]ar+[[자]n]n+[왓]n]n]n+[동산]n]n$

(34) $[d+[n+n]n]n+n]n$ (2/3070)

새산전내[新火田川] 제주 아라
 $[[새]d+[[산]n+[전]n]n]n+[내]n]n$
 웨소남밭[隻松田] 제주 아라
 $[[웨]d+[[솔]n+[남]n]n]n+[밭]n]n$

(35) [n+[n+n]n]n+n]n (1/3070)

골목돌방애터[埗碾子磨址] 제주 용담
[[골목]n+[[돌]n+[방애]n]n]n+[터]n]n

다음은 (MM)(MM)형이다.

(36) [ar+n]n+[n+n]n (1/3070)

하논동거제[多沓東丘] 서귀 서흥
[[하]ar+[논]n]n+[[동]n+[거제]n]n

(37) [n+n]n+[d+n]n (4/3070)

동가름세거리[東洞三路] 서귀 서흥
[[동]n+[가름]n]n+[[세]d+[거리]n]n

어랭이개튼여[農魚科魚浦異礁] 서귀 보목
[[어랭이]n+[개]n]n+[[튼]d+[여]n]n

지장샘세거리[池藏泉三路] 서귀 서흥
[[지장]n+[샘]n]n+[[세]d+[거리]n]n

(38) [n+n]n+[n+n]n (9/3070)

나그네왓구명물[巫田雨時泉] 서귀 중문
[[나그네]n+[왓]n]n+[[구명]n+[물]n]n

동착할망여[東向祖母礁] 제주 외도
[[동]n+[착]n]n+[[할망]n+[여]n]n

밭고랑논고랑[田谷沓谷] 서귀 강정
[[밭]n+[고랑]n]n+[[논]n+[고랑]n]n

빈녀코지소금밭[簪串鹽田] 서귀 강정
[[빈녀]n+[코지]n]n+[[소금]n+[밭]n]n

팽풍지경소금빌레[屏風境鹽巖盤] 제주 외도
[[팽풍]n+[지경]n]n+[[소금]n+[빌레]n]n

나그네왓구명물(서귀 중문), 백개동마을(제주 이호), 백개서마을(제주

이호), 백개중마을(제주 이호), 연대코지소금빌레(제주 외도)

(39) [n+n]n+[p+n]n (1/3070)

동문한길[東門大路] 제주 일도 [[동]n+[문]n]n+[[한]p+[길]n]n

(40) [n+s]n+[n+n]n (1/3070)

박가갓도[朴哥城入口] 서귀 호근 [[박]n+[가]s]n+[[갓]n+[도]n]n

(41) [p+n]n+[n+n]n (2/3070)

한질새왓[大路茅田] 제주 봉개/용담 [[한]p+[질]n]n+[[새]n+[왓]n]n

다음은 M((MM)M)형이다.

(42) [n+[[ar+e]ap+n]n]n (22/3070)

동(서)검은다리[東(西)黑橋]	제주 봉개
	[[동(서)]n+[[[검]ar+[은]e]ap+[다리]n]n]n
동언새미[東凍泉]	서귀 호근
	[[동]n+[[[얼]ar+[ㄴ]e]ap+[새미]n]n]n
셋거른여[間黑礁]	서귀 색달
	[[새]n+[[[검]ar+[은]e]ap+[여]n]n]n
셋검은덕[西黑石丘]	제주 이호
	[[서]n+[[[검]ar+[은]e]ap+[덕]n]n]n
셋언새미[西凍泉]	서귀 호근
	[[서]n+[[[얼]ar+[ㄴ]e]ap+[새미]n]n]n
안큰집[內大宅]	서귀 동홍
	[[안]n+[[[크]ar+[ㄴ]e]ap+[집]n]n]n
알막은굴[下塞谷]	제주 용강/해안
	[[알]n+[[[막]ar+[은]e]ap+[굴]n]n]n
알진동산[下長丘]	서귀 대포
	[[알]n+[[[질]ar+[ㄴ]e]ap+[동산]n]n]n

웃난여[上出礁]

서귀 호근

[[우]n+[[나]ar+[-]e]ap+[여]n]n

가운디곤홀(제주 화북), 동검은덕(제주 이호), 동곤홀(제주 화북), 동
너븐덕(서귀 서흥), 동너븐밭(서귀 강정), 동진믄루(서귀 영천), 동큰
굴(서귀 신호), 밧곤홀(제주 화북), 서큰굴(서귀 신호), 안곤홀(제주
화북), 알난여(서귀 호근), 셋거믄너(서귀 색달), 셋검은덕(제주 이호),
셋언새미(서귀 호근), 웃난여(서귀 호근)

(43) [n+[[ar+n]n+n]n]n (1/3070)

웃무드내[上無頭川]

서귀 색달

[[우]n+[[무]ar+[두]n]n+[내]n]n

(44) [n+[[d+n]n+n]n]n (1/3070)

밧튼여부리[外異礁喙] 서귀 토평

[[밧]n+[[튼]d+[여]n]n+[부리]n]n

(45) [n+[[n+n]n+n]n]n (5/3070)

동개알물[東浦下泉]

서귀 대포

[[동]n+[[개]n+[알]n]n+[물]n]n

뭇소낭밧[洞松木田]

서귀 하예

[[뭇]n+[[솔]n+[낭]n]n+[밧]n]n

셋떡밧돌[西餅片石]

서귀 대포

[[서]n+[[떡]n+[밧]n]n+[돌]n]n

웃뒗빌레못[上後巖盤池]

서귀 토평

[[우]n+[[뒗]n+[빌레]n]n+[못]n]n

웃중남소[上齊墩果沼]

서귀 대포

[[우]n+[[중]n+[남]n]n+[소]n]n

(46) [n+[[p+n]n+s]n]n (2/3070)

동한두기[東大甕]

제주 용담

[[동]n+[[한]p+[독]n]n+[이]s]n]n

서한두기[西大甕] 제주 용담
 [[서]n+[[한]p+[독]n]+[이]s]n]n

(47) [n+[[vr+e]ap+n]n]n (2/3070)

서막은굴[西塞谷] 제주 영평
 [[서]n+[[막]vr+[은]e]ap+[굴]n]n]n

웃막은굴[上塞谷] 제주 용강
 [[우]n+[[막]vr+[은]e]ap+[굴]n]n]n

다음은 M(M(MM))형이다.

(48) [n+[n+[nu+n]n]n]n (1/3070)

알섯네커리[下西四路] 서귀 토평
 [[알]n+[[서]n+[[네]nu+[거리]n]n]n]n

(49) [n+[n+[vr+n]n]n]n (1/3070)

동고랑캐왓[東畝雜田] 제주 오라
 [[동]n+[[고랑]n+[[캐]vr+[왓]n]n]n]n

다음은 5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로 (((MM)M)M)M형이다.

(50) [[[[ar+e]ap+n]n+n]n]n (7/3070)

다끈내동카름[修川東洞] 제주 용담
 [[[[[다]ar+[ㄴ]e]ap+[내]n]n]+[동]n]+[카름]n]n

든물각원[甘水垵石罔] 서귀 강정
 [[[[[들]ar+[ㄴ]e]ap+[물]n]n]+[각]n]+[원]n]n

산물넛도[生水川入口] 서귀 도순
 [[[[[살]ar+[ㄴ]e]ap+[물]n]n]+[내]n]+[도]n]n

산물이멩이동산[生水額丘] 서귀 하원
 [[[[[살]ar+[ㄴ]e]ap+[물]n]n]+[이]멩이]n]+[동산]n]n

큰낭구릉길[大木溝路] 제주 회천

[[[[[크]ar+[ㄴ]e]ap+[낭]n]+[구릉]n]+[길]n]n

큰츠낭밭[大楸木田] 서귀 용흥

[[[[[크]ar+[ㄴ]e]ap+[츠]n]+[낭]n]+[밭]n]n

흰돌앞밭[白石前田] 서귀 호근

[[[[[희]ar+[ㄴ]e]ap+[돌]n]+[앞]n]+[밭]n]n

흰빛돌왓[白碑石田] 제주 회천

[[[[[희]ar+[ㄴ]e]ap+[비]n]+[돌]n]+[왓]n]n

(51) [[[[n+vr]vr+e]ap+n]n+n]n (7/3070)

괴기난덕봉오지[魚生巖峰] 서귀 대포

[[[[[괴기]n+[나]vr]vr+[ㄴ]e]ap+[덕]n]+[봉오지]n]n

불칸디오름[火災處岳] 제주 월평

[[[[[불]n+[카]vr]vr+[ㄴ]e]ap+[디]n]+[오름]n]n

살쫄디왓[矢射處田] 제주 화북

[[[[[살]n+[쫄]vr]vr+[ㄴ]e]ap+[디]n]+[왓]n]n

쉐멍는물여[牛飲水礁] 서귀 대포

[[[[[쉐]n+[먹]vr]vr+[는]e]ap+[물]n]+[여]n]n

성산땃뺑디[城立後野] 제주 도평

[[[[[성]n+[사]vr]v+[ㄴ]e]ap+[땃]n]+[뺑디]n]n

애기난갯도[兒産浦入口] 서귀 영천

[[[[[애기]n+[나]vr]vr+[ㄴ]e]ap+[갯]n]+[도]n]n

차리거리는새여[小鯛捕間礁] 서귀 대포

[[[[[차리]n+[거리]vr]vr+[는]e]ap+[새]n]+[여]n]n

(52) [[[[n+vr]vr+e]ap+s]n+n]n (2/3070)

답다니길[積塔路] 서귀 월평

[[[[[답]n+[다]vr]vr+[ㄴ]e]ap+[]s]n]+[길]n]n

회구미동산[炙膾丘] 서귀 신호

[[[[[회]n+[굽]vr]vr+[ㅁ]e]ap+[]s]n]+[동산]n]n

(53) [[[[n+vr]ap+s]n+e]n+n]n (1/3070)

마풀림동산[解霖丘] 서귀 호근

[[[[[마]n+[풀]vr]ap+[리]s]v+[口]e]n+[동산]n]n

(54) [[[[vr+e]ap+n]n+n]n+n]n (2/3070)

산물어위내[生水邊川] 서귀 동홍

[[[[[살]vr+[ㄴ]e]ap+[물]n]n+[어위]n]n+[내]n]n

다음은 ((MM)(MM))M형이다.

(55) [[[ar+e]ap+[n+n]n]n+n]n (2/3070)

존소남밭[麼松木田] 제주 아라

[[[[[줄]ar+[ㄴ]e]ap+[[술]n+[남]n]n]n+[밭]n]n

큰풍낭밭[大朴木田] 제주 봉개

[[[[[크]ar+[ㄴ]e]ap+[[폭]n+[낭]n]n]n+[밭]n]n

(56) [[n+n]n+[[ar+e]ap+n]n]n (1/3070)

물각먼여[水垠遠礁] 서귀 호근

[[[물]n+[각]n]n+[[[멀]ar+[ㄴ]e]ap+[여]n]n]n

(57) [[n+n]n+[[vr+e]ap+n]n]n (1/3070)

등대알석은빌레[燈臺下腐巖盤] 제주 건입

[[[등대]n+[알]n]n+[[[석]vr+[은]e]ap+[빌레]n]n]n

다음은 (M((MM)M))M형이다.

(58) [[n+[[p+n]n+s]n]n+n]n (1/3070)

서한두깃물[西大甕泉] 제주 용담

[[[서]n+[[[한]p+[독]n]n+[이]s]n]n+[물]n]n

다음은 ‘M(((MM)M)M)’형이다.

(59) [n+[[[n+n]n+n]n+n]n (1/3070)

셋가메숫각물[西釜鼎垠水] 서귀 대포

[[서]n+[[[가메]n+[숫]n+[각]n]+[물]n]n]n

다음은 (((MM)M)M)M형으로 6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이다.

(60) [[[[n+n]n+s]n+s]n+n]n+n]n (1/3070)

정집이네앞밭[鄭宅等前田] 서귀 토평

[[[[[정]n+[집]n+[이]s]n+[네]s]n+[앞]n+[밭]n]n]

다음은 (((MM)(MM))M)M형이다.

(61) [[[[ar+e]ap+[ar+e]ap]ap+n]n+n]n (1/3070)

진진내물[長長川水] 서귀 서흥

[[[[[질]ar+[ㄴ]e]ap+[[질]ar+[ㄴ]e]ap]ap+[내]n]n+[물]n]n]

(62) [[[[ar+e]ap+[n+n]n]n+n]n+n]n (1/3070)

큰집장이집터[大金掌議屋址] 서귀 영천

[[[[[크]ar+[ㄴ]e]ap+[[집]n+[장이]n]n+[집]n+[터]n]n]

다음은 ((MM)M)((MM)M)형이다.

(63) [[[n+n]n+n]n+[[vr+e]ap+n]n]n (1/3070)

광대코지앞석은빌레[顴串前腐巖盤] 제주 건입

[[[[광대]n+[코지]n]n+[앞]n]n+[[[석]vr+[은]e]ap+[빌레]n]n]n]

다음은 (((((MM)M)M)M)M)M)M형으로 7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이

다.

(64) [[[[[[[**n**+vr]vr+e]vr+vr]vr+e]ap+n]n+n]n]n (1/3070)

물터진굴왓[水濫谷田] 제주 이도

[[[[[[[[**물**]n+[**트**]vr]vr+[**어**]e]vr+[**지**]vr]vr+[**ㄴ**]e]ap+[**굴**]n+[**왓**]n]n]n

나. 관형어 + 체언(D+N)

‘관형어 + 명사’의 경우 ‘관형사 + 명사(d+n)’, ‘형용사의 관형형 + 명사(ar+e+n)’, ‘동사의 관형형 + 명사(vr+e+n)’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관형사 + 명사(d+n)

‘관형사 + 명사’ 합성의 선후 관계를 보면, 3개의 형태소에 ‘M(MM)’형이 2개 구조가 있다.



(1) [d+n]n (31/3070)

새가름[新澗] 제주 해안/내도, 서귀 영천/회천
[[새]d+[가름]n]n

새물[新泉] 서귀 서흥 [[새]d+[물]n]n

새여[新礁]
서귀 대포/강정(2), 제주 건입/도두/외도/이호/화북
[[새]d+[여]n]n

여무덤[古墳] 서귀 강정 [[여]d+[무덤]n]n

튼동산[異丘] 제주 오등 [[튼]d+[동산]n]n

가막물(제주 외도), 가물개(제주 삼양), 뚝통(서귀 월평), 새구릉(제주 도두), 새동네(제주 도두/용담), 새못(제주 도련), 새새미(제주 아라/회천), 새원(제주 이호), 새통(서귀 신호), 여무덤(서귀 강정), 튼돈지(서귀 강정), 튼여(서귀 강정/강정, 제주 도두/외도/외도)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는 ‘M(MM)’형 2개 구조만 있다.

(2) [d+[n+n]n]n (5/3070)

구물래물[舊沙水]	제주 도두	[[구]d+[[물래]n+[물]n]n]n
새구릉밭[新溝田]	제주 회천	[[새]d+[[구릉]n+[밭]n]n]n
새구릉밭[新溝田]	제주 영평	[[새]d+[[구릉]n+[밭]n]n]n
새성안[新城內]	제주 삼도	[[새]d+[[성]n+[안]n]n]n
새출왓[新芻田]	제주 삼양	[[새]d+[[출]n+[왓]n]n]n

(3) [d+[n+s]n]n (1/3070)

튼이성이[異此生]	제주 용담	[[튼]d+[[이성]n+[이]s]n]n
-----------	-------	-----------------------

2) 관형형 어미 + 명사(De+n)

가) 형용사의 관형형 + 명사((ar+e)+n)

‘형용사의 관형형 + 명사’ 합성의 선후 관계를 보면,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에는 ‘(MM)M’형이 1개 구조가 있다. 4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에는 ‘((MM)M)M’형이 2개 구조, ‘(MM)(MM)’형이 3개 구조가 있다. 5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에는 ‘((MM)(MM))M’형이 1개 구조, ‘(MM)((MM)M)’형이 3개 구조, ‘(MM)(M(MM))’형이 1개 구조가 있다. ‘(((MM)M)M)M’형은 6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이다.

먼저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를 보면, 결합 구조상 합성의 선후 관계는 ‘(MM)M’형 한 경우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

(1) [[ar+e]ap+n]n (235/3070)

거린내[分川]	서귀 도순/보목	[[[거리]ar+[ㄴ]e]ap+[내]n]n
구린길[分路]	서귀 대포/용흥/하원, 제주 삼양/외도	[[[구리]ar+[ㄴ]e]ap+[길]n]n
너븐밭[廣田]		

서귀 강정/대포/중문, 제주 도두/연동/영평/오등/해안/화북

코석은여(제주 이호)

다음은 ‘(MM)(MM)’형이다.

(4) [[ar+e]ap+[d+n]n]n (2/3070)

작은튼여[小異礁] 제주 화북
[[작]ar+[은]e]ap+[[튼]d+[여]n]n

큰튼여[大異礁] 제주 화북
[[크]ar+[ㄴ]e]ap+[[튼]d+[여]n]n

(5) [[ar+e]ap+[n+n]n]n (27/3070)

거린춘남[分枝採] 서귀 보목
[[거리]ar+[ㄴ]e]ap+[[춘]n+[남]n]n

작은갱이들래[小蟹田] 서귀 보목
[[작]ar+[은]e]ap+[[갱이]n+[들래]n]n

큰당밭[大堂田] 제주 삼양/화북
[[크]ar+[ㄴ]e]ap+[[당]n+[밭]n]n

큰새왓[大茅田] 서귀 동흥/서흥, 제주 아라/이호
[[크]ar+[ㄴ]e]ap+[[새]n+[왓]n]n

큰태역밭[大蓼田] 서귀 용흥
[[크]ar+[ㄴ]e]ap+[[태역]n+[밭]n]n

곱은성굽(제주 건입), 목은바령밭(제주 이호), 조른제목(서귀 호근),
족은소로기동산(제주 용담), 족은송곳여(제주 용담), 즈근대여(서귀
강정), 즈근속동개(서귀 강정), 큰강정물(서귀 강정), 큰갱이들래(서귀
보목), 큰망동산(제주 아라), 큰머들왓(제주 오라), 큰바령밭(제주 노
형/이호), 큰상통여(제주 도두)……

(6) [ar+e]ap+[p+n]n (1/3070)

무근한질[久大路] 서귀 용흥
[[목]ar+[은]e]ap+[[한]p+[질]n]n

다음은 다섯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로, ‘((MM)(MM))M’형이다.

(7) [[ar+e]ar+[ar+e]ap]ap+n]n (2/3070)

진진내[長長川] 서귀 서흥/호근

[[[질]ar+[ㄴ]e]ar+[질]ar+[ㄴ]e]ap]ap+[내]n]n

다음은 ‘(MM)((MM)M)’형이다.

(8) [[ar+e]ap+[[ar+e]ap+n]n]n (2/3070)

조근거른여[小黒礁] 서귀 색달

[[[죽]ar+[은]e]ap+[[[검]ar+[은]e]ap+[여]n]n]n

큰거른여[大黒礁] 서귀 색달

[[[크]ar+[ㄴ]e]ap+[[[검]ar+[은]e]ap+[여]n]n]n

(9) [[ar+e]ap+[[n+n]n]n+n]n (1/3070)

큰강정물동산[大江汀水丘] 서귀 강정

[[[크]ar+[ㄴ]e]ap+[[[강정]n+[물]n]n+[동산]n]n

(10) [[ar+e]ap+[[n+s]n+n]n]n (2/3070)

조근항문이도[小肛門入口] 서귀 호근

[[[죽]ar+[은]e]ap+[[[항문]n+[이]s]n+[도]n]n]n

큰항문이도[大肛門入口] 서귀 호근

[[[크]ar+[ㄴ]e]ap+[[[항문]n+[이]s]n+[도]n]n]n

다음은 ‘(MM)(M(MM))’형이다.

(11) [[ar+e]ap+[n+[n+n]n]n]n (1/3070)

먼안강정여[遠內江汀礁] 서귀 강정

[[[멀]ar+[ㄴ]e]ap+[[[안]n+[[강정]n+[여]n]n]n]n

다음은 여섯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로, ‘ap+n’의 합성은 다음의 ‘(((MM)M)M)M’형 하나 뿐이다.

(12) [[[[[n+n]n+n]n+ar]ar+e]ap+n]n (1/3070)

공물각면여[貢物峴遠礁] 서귀 호근
 [[[[[공]n+[물]n]n+[각]n]n+[면]ar]ar+[여]e]ap+[여]n]n

3) 동사의 관형형 + 명사((vr + De) + n)

‘동사의 관형형 + 명사’ 합성의 선후 관계를 보면,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에는 ‘(MM)M’형이 1개 구조가 있다. 4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에는 ‘((MM)M)M’형이 3개 구조, ‘(MM)(MM)’형이 1개 구조가 있다. 5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에는 ‘(((MM)M)M)M’형만 있는데, 5개 구조가 있다. 여섯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의 구조는 ‘((((MM)M)M)M)M’형만 세 개의 구조가 있다. ‘((MM)(((MM)M)M))M’형은 일곱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인데 1개 구조만 있다. 8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는 ‘((((MM)M)((MMM)M))M’형 1개 구조가 있다.

먼저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를 보면, 결합 구조상 합성의 선후 관계는 ‘(MM)M’형 한 경우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

(1) [[vr+e]ap+n]n (42/3070)

거스물[逆水]	서귀 대포/상예	[[[거슬]vr+[ㄴ]e]ap+[물]n]n
거스새미[逆泉]	서귀 호근, 제주 연동	[[[거슬]vr+[ㄴ]e]ap+[새미]n]n
문드린돌[漏石]	서귀 보목	[[[문드리]vr+[ㄴ]e]ap+[돌]n]n
수문여[隱礁]	서귀 대포, 제주 용담	[[[숨]vr+[은]e]ap+[여]n]n
허문도[壞入口]	제주 노형/연동/해안	[[[허물]vr+[ㄴ]e]ap+[도]n]n

가린내(제주 아라), 고른참(서귀 호근), 낙근소(서귀 천서), 난드르(서

귀 하예), 든드르(서귀 하예), 마근물(서귀 영천), 망보는돌(서귀 보
 목), 미끄러지는여(제주 용담), 벌러진여(제주 삼양), 봉근여(제주 삼
 도), 사농친밭(제주 월평), 쉬는팡(서귀 우남), 아즌덕(서귀 중문), 오
 른질(제주 도남), 튀는여(제주 삼양)……

다음은 네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로, ‘((MM)M)M’형이다.

(2) [[[ad+vr]vr+e]ap+n]n (1/3070)

고초간덕[直去岸] 서귀 서흥

[[[[고초]ad+[가]vr]vr+[ㄴ]e]ap+[덕]n]n

(3) [[[n+vr]vr+e]ap+n]n (108/3070)

닥굴동산[楮炙丘] 서귀 하효

[[[[닥]n+[굽]vr]vr+[ㄴ]e]ap+[동산]n]n

배부른동산[腹飽滿丘] 제주 삼도/일도

[[[[배]n+[부르]vr]vr+[ㄴ]e]ap+[동산]n]n

벨진밭[星落田] 제주 도남/삼양/회천

[[[[벨]n+[지]vr]vr+[ㄴ]e]ap+[밭]n]n

쉐멍는물[牛飲水] 서귀 대포/색달

[[[[쉐]n+[먹]vr]vr+[는]e]ap+[물]n]n

웃아즌돌[鴨坐石] 서귀 대포/색달/하예

[[[[웃]n+[앉]vr]vr+[은]e]ap+[돌]n]n

거욱대산밭(서귀 중문), 구들논동산(제주 영평), 네나는돌(제주 영평),
 돛굽는엉(제주 용강), 매아진들(서귀 호근), 뿔든통(서귀 서흥), 몰망
 올리는디(서귀 서흥), 물굽는밭(제주 이호), 물터진개(서귀 강정), 물
 터진골(서귀 보목), 벼락맞은내(제주 외도), 창터진물(제주 봉개), 툃
 진밭(제주 영평), 휘싼거리(제주 화북)……

‘닥굴동산’의 경우도 특이하다. 여기에서 ‘닥’은 ‘닥나무’이고, ‘굴’은 ‘굽[炙]+
 큰’이다. 부체구조형의 합성어³¹⁾ 중 ‘용언+명사’형 합성어들이 대체로 관형사

형 전성어미 중 ‘-ㄴ/-은/-는’을 취한다. 그렇게 본다면 ‘닥굴동산’은 ‘닥군동산’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ㄴ/을/를’을 취하여 ‘닥굴동산’이 된 것이다. ‘-ㄴ’이 관형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지만 참으로 특이한 경우이다.

(4) [[[vr+s]vr+e]ap+n]n (1/3070)

물힌굴[埋窟]

제주 오등

[[[물]vr+[히]s]vr+[ㄴ]e]ap+[굴]n]n

다음은 ‘(MM)(MM)’형이다.

(5) [vr+e]ap+[n+n]n (2/3070)

난보리즈베기[見麥雲頭餅]

제주 도두

[[나]vr+[ㄴ]e]ap+[[보리]n+[즈베기]n]n

숨은보리즈베기[隱麥雲頭餅]

제주 도두

[[숨]vr+[은]e]ap+[[보리]n+[즈베기]n]n

다섯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는 ‘(((MM)M)M)M’형만 나타난다.

(6) [[[[d+n]n+vr]vr+e]ap+n]n (1/3070)

새담넌밭[新牆粧田]

제주 영평

[[[[새]d+[담]n]n+[내]vr]vr+[ㄴ]e]ap+[밭]n]n

(7) [[[[n+n]n+vr]vr+e]ap+n]n (4/3070)

고냉이머들아즌밭[猫形石坐田]

서귀 강정

[[[[고냉이]n+[머들]n]n+[앗]vr]vr+[은]e]ap+[밭]n]n

막개남산밭[立棍木田]

서귀 중문

[[[[막개]n+[남]n]n+[사]vr]vr+[ㄴ]e]ap+[밭]n]n

바농오름난여[針岳出礁]

제주 건입

31) 이석주(1989) pp.144~157.

[[[[[바눔]n+[오름]n]+[나]vr]vr+[ㄴ]e]ap+[여]n]n
 통물아진밭[桶泉坐田] 제주 삼도
 [[[[[통]n+[물]n]+[앗]vr]vr+[인]e]ap+[밭]n]n

(8) [[[[[n+s]n+vr]vr+e]ap+n]n (1/3070)
 상순이봉근여[人名拾礫] 서귀 월평
 [[[[[상순]n+[이]s]n+[봉그]vr]vr+[ㄴ]e]ap+[여]n]n

(9) [[[[[n+vr]vr+s]vr+e]ap+n]n (1/3070)
 말들인머세[馬入雜野] 제주 도두
 [[[[[말]n+[들]vr]vr+[이]s]vr+[ㄴ]e]ap+[머세]n]n³²⁾

(10) [[[[[vr+e]vr+vr]vr+e]ap+n]n (4/3070)
 ㄸ· ㄹ 아진여[藉(被)礫] 제주 도두
 [[[[[ㄸ· ㄹ]vr+[아]e]vr+[지]vr]vr+[ㄴ]e]ap+[여]n]n
 도라간덕[迂廻巖壁] 서귀 호근
 [[[[[돌]vr+[아]e]vr+[가]vr]vr+[ㄴ]e]ap+[덕]n]n
 버서진임댕이[禿頭] 서귀 동흥
 [[[[[벗]vr+[어]e]vr+[지]vr]vr+[ㄴ]e]ap+[임댕이]n]n
 벌러진밭[破(被)田] 서귀 서흥
 [[[[[벌르]vr+[어]e]vr+[지]vr]vr+[ㄴ]e]ap+[밭]n]n

다음은 6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로 ‘((((MM)M)M)M)’형이다.

(11) [[[[[n+vr]vr+e]ad+vr]vr+e]ap+n]n (3/3070)
 굽드러진여[底擧礫] 서귀 중문

32) '말들인머세'의 경우 '[말들이]vr+[ㄴ]e]ap+[머세]n'로 분석이 되는데, '-이'는 접미사이다. 여기에서 '-이'는 사동 접미사로서 사람의 이름 뒤에 붙는 '-이'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말들이'를 명사가 아닌 동사로 분석한 것이다. 이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동 접미사와 피동 접미사는 품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굽]n+[들]vr]vr+[어]e]ad+[지]vr]vr+[ㄴ]e]ap+[여]n]n
 송장사라난빌레[火葬址巖盤] 서귀 서흥
 [[[[[송장]n+[술]vr]vr+[아]e]ad+[나]vr]vr+[ㄴ]e]ap+[빌레]n]n
 터우매어난디[查舶處] 제주 이호
 [[[[[터우]n+[매]vr]vr+[어]e]ad+[나]vr]vr+[ㄴ]e]ap+[디]n]n

(12) [[[[[p+n]n+n]n+vr]vr+e]ap+n]n (1/3070)
 외소낭아즌밭[隻松坐田] 서귀 상예
 [[[[[외]p+[솔]n]n+[낭]n]n+[앗]vr]vr+[은]e]ap+[밭]n]n

(13) [[[[[vr+e]ap+n]n+vr]vr+e]ap+n]n (1/3070)
 선돌선밭[立石立田] 제주 월평
 [[[[[서]vr+[ㄴ]e]ap+[돌]n]n+[서]vr]vr+[ㄴ]e]ap+[밭]n]n

‘((MM)((MM)M)M)’형은 7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이다.



(14) [[[[n+n]n+[[[vr+e]vr+vr]vr+e]ap]ap]ap+n]n (1/3070)
 산태물러진도[山沙汰壤入口] 제주 아라
 [[[[산]n+[태]n]n+[[[물르]vr+[어]e]vr+[지]vr]vr+[ㄴ]e]ap]ap]ap+[도]n]n

‘(((MM)M)((MMM)M)M)’형은 8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지명어인데, ‘흰비석세운밭’의 한 경우만 나타난다.

(15) [[[[ar+e]ap+n]n+[vr+s+s]vr+e]]ap+n]n (1/3070)
 흰비석세운밭[白碑石立田] 제주 회천
 [[[[[회]a+[ㄴ]e]ap+[비석]n]n+[[[서]vr+[이]s+[우]s]vr+[ㄴ]e]]ap+[밭]e]n

다. 용언의 어근 + 명사(Vr + n)

‘용언의 어근 + 명사’로 결합된 지명어는 ‘형용사의 어근 + 명사(ar+n)’, ‘동사의 어근 + 명사(vr+n)’의 두 가지 구조가 있다. 그리고 ‘부사’가 용언은 아니지만 ‘부사의 어근 + 명사’의 구조도 이 항목에 포함시켰다.

1) 형용사 어근 + 명사(ar + n)

(1) [ar+n]n (31/3070)

너북여[廣礁]	서귀 보목	[[너북]ar+[여]n]n
넙빌레[廣巖盤]	제주 용담	[[넙]ar+[빌레]n]n
넙여[廣礁]	제주 건입	[[넙]ar+[여]n]n
움텅밭[凹田]	제주 노형	[[움텅]ar+[밭]n]n
하논[多沓]	서귀 서홍	[[하]ar+[논]n]n

검자리(서귀 대포), 고비여(서귀 보목), 꼬작돌(서귀 대포), 꼬장돌(서귀 색달), 꼬작돌(서귀 대포), 납작여(서귀 보목), 너벽돌(서귀 보목), 넙작지(서귀 동홍), 넙작여(서귀 대포), 돌록밭(서귀 강정), 뽁뽁동산(서귀 호근), 소랑여(서귀 대포), 소랑케(제주 연동), 소름밭(제주 도평/외도), 오막통(서귀 호근), 오목골(제주 이호)……

(2) [[n+ar]ar+n]n (1/3070)

새비여[間空礁]	서귀 보목	[[[새]n+[비]ar]ar+[여]n]n
----------	-------	------------------------

‘새비여’를 보면, ‘새’는 ‘사이[間]’로 명사이고, ‘비-[空]’는 형용사의 어간이다. 여기에 ‘여[礁]’라는 명사가 결합되어 ‘사이가 비어 있는 여’라는 뜻을 갖는다. 일반 국어에서는 용언이 체언을 수식하기 위해서는 관형사형 어미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새비여’에서는 관형형 어미를 취하지 않고 바로 어간에 체언이 결합한 형태이다. 일반 국어와는 다른 점이라 하겠다.

2) 동사 어근 + 명사(vr + n)

(1) [[n+vr]vr+n]n (3/3070)

닥구통[楮炙桶]	서귀 신호	[[[닥]n+[굽]vr]vr+[통]n]n
무남통[水餘桶]	서귀 보복	[[[물]n+[남]vr]vr+[통]n]n
오래물[午來泉]	제주 도두	[[[오]n+[래]vr]vr+[물]n]n

‘닥구통’의 ‘닥’은 ‘닥나무[楮]’로 명사이고, ‘구-’는 동사 ‘굽다[炙]’의 어간 ‘굽-’에서 ‘ㅂ’이 탈락한 형태이다. 여기에 ‘통(桶)’이 결합하여 ‘닥나무를 굽는 통’이라는 뜻을 갖는다. 역시 관형사형 어미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일반 국어와는 다른 점이라 하겠다.

‘무남통’도 ‘닥구통’과 마찬가지로 ‘무’는 ‘물[水]’의 ‘ㄹ’이 탈락한 형태이고, ‘남-’은 ‘남다[餘]’의 어간이며, 여기에 ‘통’이 결합하여 ‘물이 남는 통’이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오래물’의 경우는 좀 다르다. ‘오’는 한자 ‘午’로서 午方, 즉 남쪽을 뜻하고, ‘래’는 역시 한자 ‘來’로서 ‘오다’라는 동사이다. 의미를 보면 ‘남쪽에서 오는 물’이다. 때문에 ‘來’를 동사의 어간으로 보았다.

3) 부사 어근 + 명사(adr + n)

(1) [adr+n]n (2/3070)

골각물[泉]	제주 삼양	[[골각]adr+[물]n]n
굴각물[泉]	제주 아라	[[굴각]adr+[물]n]n

‘골각물’의 ‘골각’은 의성부사 ‘골각골각’에서 온 것이다. 곧 ‘골각골각 물이 나왔다’고 해서 ‘골각물’인 것이다. ‘굴각물’의 ‘굴각’은 ‘골각’의 음상(音相)만 다른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명사는 일반 국어의 합성 명사(풀쳐생각, 살아생전, 나란히풀 등)에서도 드물게 나타나는데, 제주 지명어에서도 ‘골각물, 굴각물’의 경우만 나타난다.

2. 지명어의 파생 구조

가. (접사+)체언(+접사)[(p+)N(+s)]

1) 접두사+체언(p+N)

(1) [p+n]n (13/3070)

강못[渴池]	제주 회천	[[강]p+[못]n]n
구카름[舊洞]	서귀 호근	[[구]p+[카름]n]n
덧여[加礁]	서귀 서귀	[[덧]p+[여]n]n
핀돌[禿石]	서귀 신호	[[핀]p+[돌]n]n
민오름[禿岳]	제주 봉개	[[핀]p+[오름]n]n

구담(서귀 강정), 핀모루(서귀 중문), 핀섬(서귀 서귀), 민동산(서귀 동흥), 한내(제주 용담), 한밭(제주 도평), 한길(서귀 서흥/도평)

(2) [p+[p+n]n]n (1/3070)

구한길[舊大路]	제주 이호	[[구]p+[[한]p+[길]n]n]n
----------	-------	----------------------

2) 체언 + 접미사(N+s)

(1) [n+s]n (2/3070)

드르생이[野生洞]	제주 회천	[[드르]n+[생이]s]n
보루미[岳]	서귀 서흥	[[보름]n+[이]s]n

(2) [[d+n]n+s]n (1/3070)

새베리[新星]	제주 도평	[[[새]d+[벨]n]n+[이]s]n
---------	-------	----------------------

(3) [[n+n]n+s]n (6/3070)

논파니[畚形田]	제주 영평	[[[논]n+[판]n]n+[이]s]n
----------	-------	----------------------

담배목이[煙竹頸(川)]	제주 내도	[[[담배]n+[목]n]+[이]s]n
동착의[(川)東便]	제주 건입	[[[동]n+[착]n]+[의]s]n
배염줄이[蛇索]	서귀 호근	[[[배염]n+[줄]n]+[이]s]n
베두리[星月]	제주 연동	[[[벨]n+[둘]n]+[이]s]n
서착의[(川)西便]	제주 건입	[[[서]n+[착]n]+[의]s]n

(4) [[p+n]n+s]n (1/3070)

한두기[大釜]	제주 용담	[[[한]p+[독]n]+[이]s]n
---------	-------	---------------------

(5) [[vr+n]n+s]n (1/3070)

날용이[飛龍]	제주 용강	[[[날]vr+[용]n]+[이]s]n
---------	-------	----------------------

‘날용이[飛龍]’의 경우도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동사 어간 ‘날[飛]-’이 어미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명사 ‘용(龍)’에 결합되고, 이 구조가 다시 접미사 ‘-이’를 취한 경우이다. 여기에서 ‘날용’은 형태론적 합성어인데 ‘동사의 어간 + 명사(체언)’의 형태는 일반 국어에서도 드물게 나타나는 형태이다(늦더위, 흔들의자).

나. 용언의 어간 + 접미사

(1) [[ar+vr]vr+s]n (1/3070)

넙거리[廣分(礁)]	서귀 호근	[[[넙]ar+[거리]vr]vr+[∅]s]n
------------	-------	--------------------------

‘넙거리’의 ‘넙-’은 ‘넙다(넓다)’의 어간이며, ‘거리-’는 ‘거리다’의 어간인데 ‘길이나, 나뭇가지, 시내 등이 나누어지다’의 의미로 ‘넓고 나누어진’이란 의미의 ‘여’를 가리킨다. 여기에 명사화 영접사³³⁾ ‘-이’가 결합하였다.

일반 국어의 명사에서 [ar+n](묵발)이나 [vr+n](감발)의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ar+vr]vr+s]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의 결합으로 이

33) 이석주(1989), p.149.

루어진 명사는 일반 국어의 합성 명사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이다.

(2) [[n+vr]vr+s]n (1/3070)

골내미[谷越] 제주 해안 [[[골]n+[넘]vr]vr+[이]s]n

‘골내미[谷越]’는 명사 ‘골’에 동사 어간 ‘넘[越]-’이 결합하고 여기에 다시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n+vr]의 형태는 통어론적 합성어인데, 일반 국어에서도 많이 나타난다(김매다, 일하다). 이 [n+vr+s] 형은 제주 지명어에서 ‘골내미’의 한 경우만 나타나고 있다.

다. 용언의 관형형 + 접미사

(1) [[ar+e]ap+s]n (1/3070)

붉은등이[赤岳] 제주 해안 [[[붉]ar+[은]e]ap+[등이]s]n

‘붉은등이[赤岳]’는 형용사의 어가 ‘붉[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결합하고 여기에 접미사 ‘-등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취하는 것은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기 위함인데, ‘붉은등이’의 경우에는 체언이 오지 않고 접미사가 온 것이다. 일반 국어에서도 드물기는 하나 나타나는 형태이다(흰등이). 제주 지명어의 경우는 ‘붉은등이’ 한 경우 밖에 없다.

(2) [[[n+vr]vr+e]ap+s]n (10/3070)

답다니[塔積]

서귀 영천/월평/토평/하예, 제주 도남/봉개/연동/영평/용담

[[[[답]n+[다]vr]vr+[ㄴ]e]ap+[이]s]n

해그른이[日落]

제주 월평

[[[[해]n+[그를]vr]vr+[ㄴ]e]ap+[이]s]n

3. 형태 구조적 특성

가. 제주 지명어의 단어 형태 구조

제주 지명어의 단어 형태 구조는 ‘체언 + 체언(N+N)’의 결합 구조가 64개나 나타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관형어 + 체언(D+N)’의 결합 구조에는 ‘관형사 + 명사(d+n)’의 구조가 3개, ‘형용사의 관형형 어미 + 명사(ar+e+n)’의 구조가 12개, ‘동사의 관형형 어미 + 명사(vr+e+n)’의 구조가 15개가 나타나고 있다.

‘용언의 어근 + 명사(Vr+n)’의 구조에는 ‘형용사 어근 + 명사(ar+n)’의 구조가 2개, ‘동사 어근 + 명사(vr+n)’의 구조가 2개, ‘부사 어근 + 명사(adr+n)’의 구조가 1개 나타난다.

그리고 접사와 결합하는 형태로는 ‘접두사 + 체언(p+N)’의 결합 구조가 2개, ‘체언 + 접미사(N+s)’ 구조가 5개, ‘용언의 어간 + 접미사(Vr+s)’ 구조가 2개, ‘용언의 관형형 + 접미사(Vr+e+s)’의 구조가 2개 나타나고 있다.

나. 구형 합성 지명

제주 지명어의 형태 구조적 특성으로 구형 합성어가 많다는 것이다. 지명어가 형태소의 첨가로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점에서 볼 때, 구형 합성어가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제주 지명어의 경우 [ap+n] 구조형 중에서 형태소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구형 합성어이다.

서귀 대포의 ‘쇄명는물’은 ‘소가 마시는 물’이란 의미의 구형 합성어이다. 서귀 강정의 ‘고냉이머들아즌밭’은 ‘고양이 모양의 큰 돌이 앉아 있는 밭’이라는 의미의 구형 합성어이고, 서귀 월평의 ‘상순이봉근여’는 ‘상순[人名]이 찾아낸(주운) 여(암초)’라는 뜻이다. 이 외에도 서귀 동홍의 ‘버서진임맹이’, 서귀 서홍의 ‘송장사라난빌레’, 서귀 상예의 ‘외소낭아즌밭’, 서귀 강정의 ‘동더레도라아진돌’, 제주 아라의 ‘산태물러진도’, 제주 회천의 ‘흰비석세운밭’ 등은 모두 구형 합성어이다.

Ⅲ. 지명어의 음운론적 고찰

제주 지역어는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특이한 변이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그 결과 음운론적 연구에 관한 범위에서는 많은 연구자가 노작을 남기고 있다.

또 이러한 연구는 제주 지역어에 대한 개별 현상 내지 몇 가지 현상에 대한 것이 주종을 이루어 국어 음운론적 측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개별 현상에 중점을 두던 연구를 탈피하고 제 방언이나 지역어를 포괄하는 국어 음운론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개별 방언에 대한 음운 연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진 뒤에야 가능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한 지역어에 대한 음운 현상이 전반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관점에 따라 제주도 지역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음운 규칙을 세우고 제주 지역어의 특징을 구명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연구는 방언 상호간의 음운론적 비교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고 국어 음운론 체계를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전국적인 방언 지도 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음운변동이란 어간의 기저형과 어미의 기저형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 현상이다. 지명어의 음운도 다른 언어 단위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 현상일 것이다.

음운 변동의 요인은 두 가지의 경우일 것이다. 첫째 발음을 쉽게 하여 조음 작용에 필요한 노력을 적게 들이려는 노력 경제에서 오는 현상일 것이요, 둘째 그와 반대되는 현상으로써, 노력을 약간 더 들이더라도 표현을 강하고 정확하게 하여 말의 청취 효과를 똑똑히 하려는 욕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 지역의 고유지명을 자료로 하여 고유지명에 나타나는 음운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런 변화가 ‘어떤 환경에서 일어났는가? 또 왜 일

어났는가?’를 일반 음운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1. 자음의 음운 현상

가. 된소리와 유기음

이 지역에서는 중부 지역어의 경음이 유기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일어의 어두 유기음화 현상이나 중세 국어의 합용병서가 중부 지역어와는 달리 유기음화로 나타난 것은 제주 지역어의 특이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 지역의 지명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다음에서 볼수 있다.

(1) 도채비동산	서귀 용흥	도깨비>도채비
도채비서들	제주 도남	도깨비>도채비
도채비동산	제주 아라	도깨비>도채비
동착의	제주 건입	쪽>착
똥통/탄통	서귀 월평	똥>툰
물태물	제주 용강	떼>테
물태왓	제주 영평	떼>테
밭태왓	제주 봉개	떼>테
서착의	제주 건입	쪽>착
안태왓	제주 봉개	떼>테
앞툰여	서귀 보목	똥>툰
출왓	서귀 영친	꿀>출
큰출왓	제주 도두	꿀>출
테밭	제주 월평	떼>테
툰돈지	서귀 강정	똥>툰
툰돈지불턱	서귀 강정	똥>툰
툰돈지통	서귀 강정	똥>툰
툰여(1, 2)	서귀 강정	똥>툰
틀낭굴	제주 영평	딸기>탈

튼개머리여	서귀 보목	탄>튼
튼짓우영	제주 화북	탄>튼
흔착밭	서귀 강정	짹>착

중부 지역어의 /t/은 제주 지명어에서는 /th/로, 중부지역어의 /k/은 제주 지명어에서 /kh/로, 중부 지역어의 /ç/가 제주 지명어에서 /čh/로 변하고 있다.

이같이 제주 지명어에 유기음이 많이 잔존함은 어떤 이유일까? 이는 음성학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유기음화된 /th, kh, čh/는 평음에 비하여 [+tense] [+aspirate]의 성질을 가졌으며 경음에 비하면 [+aspirate]의 음성 특질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음성이 [+aspirate]의 특질을 가지게 되면 강한 청각 영상을 띠게 되고 의미 전달이 선명해져 의사 소통의 원활함을 볼 수 있다.

다음의 길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실험은 좋은 근거가 된다.(정인섭,1973:162) 오실로그래프의 실험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2) /p/ : /p ^h / : /p'/	40 : 95 : 10	milli-sec
/k ^h / : /k'/	110 : 15~45	milli-sec
/č ^h / : /č'/	85 : 30~65	milli-sec
/th/ : /t'/	100 : 10	milli-sec

/h/는 140 milli-sec를 나타내고 있으며 된소리는 유성 자음이나 무성 자음과도 다른 특수한 유성 자음인데 날카롭고 또한 지속 시간이 짧은 성질을 갖고 있다. Jakobson은 [+tense]의 음성은 [-tense]의 음성보다 가청도 (audibility)가 높다고 하여 /p^h/ > /p'/ > /p/로 가청도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제주 지명어에서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청각 영상을 강하게 하여 화자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욕구에 의한 하나의 자연 음운적 현상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이 같은 유기음의 적용 환경은 음운론이라기보다 의미론적이기 때문에 규칙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규칙을 설정하더라도 독자적인 타당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나. ㅎ말음 체언의 유기음화

ㅎ말음 체언이란 체언의 말음에 ㅎ을 가진 낱말을 말한다. 과거 우리 문헌의 기록에 ‘짜콰’, ‘돌코’와 같은 예문과 현재 ‘조팍’, ‘수툼’ 등의 어례를 통해 연음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선 전기의 문헌을 보면 ‘ㅎ늘, 짜, 뵈, 내, 나라, 돌’ 등 80여 개가 넘는 어휘가 ㅎ말음을 가진 체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ㅎ말음 체언의 유기음화 현상은 중부방언과 구별됨을 볼 수 있다.

(3) 가멧칫빳	제주 회천	ㅎ+짚>칫
강팍칫동산	제주 아라	ㅎ+짚>칫
구렁팍	제주 삼양	ㅎ+빳>팍
글팍	제주 영평	ㅎ+빳>팍
내팍	서귀 서홍	ㅎ+빳>팍
네커리	서귀 토평	ㅎ+거리>커리
네커리	제주 이호	ㅎ+거리>커리
늑커리왓	제주 연동	ㅎ+거리>늑커리
다끄내동카름	제주 용담	ㅎ+가름>카름
다끄내동카름	제주 용담	ㅎ+가름>카름
당칩물	제주 화북	ㅎ+집>칩
당카름	제주 도련	ㅎ+가름>카름
당팍	서귀 보목/봉개/삼양	ㅎ+빳>팍
당팍골목	서귀 동홍	ㅎ+빳>팍
동네커리	서귀 토평	ㅎ+거리>커리
동카름	제주 도두/도련/삼양/오라	ㅎ+가름>카름
동카름몰가리	제주 용담	ㅎ+가름>카름
동카름빳	제주 회천	ㅎ+가름>카름
동케	제주 도련	ㅎ+개>캐

물카름	제주 삼양	ㅎ+가름>카름
빈네코지	서귀 강정	ㅎ+꽃>코지
빈녀코지소금밭	서귀 강정	ㅎ+꽃>코지
서칩논	서귀 강정	ㅎ+집>칩
서카름	제주 도련	ㅎ+가름>카름
서캐	제주 도련	ㅎ+개>캐
송대장팻	제주 영평	ㅎ+밭>팻
알섯네커리	서귀 토평	ㅎ+거리>커리
어영중카름	제주 용담	ㅎ+가름>카름
영카름	제주 내도	ㅎ+가름>카름
오칫동산	제주 월평	ㅎ+짓>칫
한내동카름	제주 오라	ㅎ+가름>카름
한씨집터/배칩	서귀 호근	ㅎ+집>칩
해사커리	제주 도남	ㅎ+거리>커리
흘캐	제주 도두	ㅎ+개>캐



통시적 음운 현상과 관계된 것이지만 중부 방언에서 비유기음이 제주 지역 어에서는 유기음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다. 즉 체언 발음이 [+voice]이고 후행어의 체언의 초성이 [-son]로 파생어나 합성어를 이룰 때 /h/가 개입되어 [-son]를 유기음화시키고 있다. /h/뒤에 /p, t, k/는 물론 /č/으로 시작되는 명사가 올 때도 유기음화를 일으키고 있다. 육지어에서는 이 경우 /č/의 유기음화는 볼 수 없다.

15세기 중세 국어의 모습이 ‘돌히’, ‘뒤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돌ㅎ’으로 사용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이 같이 15세기에 사용되었던 ㅎ말음 체언의 어휘들이 제주 지역어에서는 100여 개 이상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나타난 유기음화 현상은 ㅎ말음 체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가 유기음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다음은 보여주고 있다.

(4) [č^həgač^{hi}p̚](처가집)

[kijige čhəñək](再昨夜)
 [sant^hot̚](山豚)
 [mɔlk^hwegi](馬肉)
 [mɔlp^haŋe](말 망아)
 [mulk^he](咬犬)
 [mult^hot̚](살찐 洋豚)
 [mult^hosegi](물돼지의 새끼)
 [mulk^hət̚](이, 벼룩, 모기 따위의 총칭)
 [momɔlk^huks'wi](메밀국수)
 [momɔlp^haŋ](메밀말)
 [menal čhəñək](每日 저녁)
 [omɔlč^həñək](오늘저녁)
 [sulp^heŋ](술병)
 [mulp^heŋ](물병)
 [sulč^hip](술집)
 [sulp^hude](술부대)
 [melč^hət̚](멸치젓)
 [mulp^hejəm](물뱀)
 [čimp^he](짐배)
 [sogimk^huŋ](소금국)
 [naŋt^homaŋ](나무도막)
 [naŋč^hil](나무오르기)
 [p'aŋč^hip̚](빵집)

이들은 중세 국어에서 /h/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음화를 일으키고 있어 그 기저형에 /h/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혹시 이들 어휘들이 고대어에서 /h/말음을 가진 체언의 잔영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또 체언과 조사가 연결될 때에도 다음과 같은 유기음화가 표면형에 나타나고 있다.

- (5) [hnat^ho](하나+도)
 [nat^ho](나이+도)
 [ut^həre](우+더레)

이외에도 조사에 /ㅎ/이 개입된 형태는 실제 생활에서 더 나타나리라 보여지며 15C 국어에서 ㅎ말음 체언에 해당된 단어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주 지역어에서는 아직도 유기음화를 나타낼 수 있는 중세 국어의 형태를 기저형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다.

다.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i/나 /j/에 선행하는 비구개음이 전설 고모음성을 가진 /i/나 /j/의 [-back, +high]의 특성의 영향을 받아 [-back, +high]의 특성을 가진 구개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대 국어에서 구개음화의 대상이 되는 자음을 유형으로 나누면 /k/, /k^h/, /k'/가 중심이 되는 k-계 구개음화, /t, t^h, t'/가 중심이 되는 t-계 구개음화, /h/가 중심이 되는 h-계 구개음화, /l/이 중심이 되는 l-계 구개음화, /s/가 중심이 되는 s-계 구개음화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러나 /l/, /n/, /s/계 구개음화는 음성적 실현에 있어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지만 변이음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이 또한 사실이므로 여기서는 표면적 실상을 보여주는 /k/계, /t/계, /h/계에 대해서만 기술하려 한다.

구개음화 현상은 거의 모든 자연 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유형을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으니 치음 구개음화(Dental palatalization)와 연구개음 구개음화(Velar palatalization)이다.

공시적인 음운 현상은 아니지만, 통시적인 입장에서 연구해 온 어두에서의 k-계 구개음화는 /i/나 /j/의 [-back, +high] 자질의 영향을 입어 /k, k^h, k'/가 /č, č^h, č'/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을 말한다.

- | | | |
|----------|-------|--------|
| (6) 가릿당질 | 제주 화북 | 길[路]>질 |
| 거린내질 | 서귀 보목 | 길[路]>질 |

관질	제주 화북	길[路]>질
구린질	서귀 용흥, 제주	도두/삼도/삼양 길[路]>질
구한질	제주 용담	길[路]>질
금성방밭	제주 회천	형방(刑房)>성방
ㄴ는질	제주 삼도	길[路]>질
남문한깃골	제주 삼도	길[路]>질>지
남로질	제주 노형	길[路]>질
남문질	제주 화북	길[路]>질
네성제돌	서귀 서귀	형제(兄弟)>성제
논삿질	제주 내도	길[路]>질
답단이질	서귀 월평	길[路]>질
독지질	서귀 상예	길[路]>질
돛고리섬질	서귀 보목	길[路]>질
동문한질	제주 일도	길[路]>질
동산거릿질	제주 노형	길[路]>질
동진마루	서귀 영천	길다[長]>질다
뒤승물질	서귀 색달	길[路]>질
맹지마르질	제주 삼양	길[路]>질
물질	서귀 강정/색달/서흥/하원	길[路]>질
무근질/무근한질	서귀 용흥	길[路]>질
묵은질	제주 오라	길[路]>질
물질	서귀 색달/회수	길[路]>질
마르왓질	서귀 보목	길[路]>질
버렁질	제주 화북	길[路]>질
상청골[鄉廳洞]	제주 삼도	향청골>상청골
상청못	제주 삼도	향청못>상청못
생곶질	제주 용담	향교>생교
생깃동산	제주 용담	향교>상교>생기

서문한질	제주 삼도	길[路]>질
서접밧	제주 오등	계(契)>접
선대기동산	서귀 보목	현(玄)>선
선반질	제주 도두/도련/삼양	길[路]>질
선호장우영	서귀 보목	현(玄)>선
성제돌	서귀 대포/하효	형제(兄弟)>성제
성제동산	제주 일도	성제(형제)+동산
속질왓	서귀 회수	길[路]>질
수루막질	서귀 보목	길[路]>질
신소	제주 영평	흰>신
심대왓	제주 월평	힘>심
스렛질	서귀 보목	길[路]>질
악근내질	서귀 용흥	길[路]>질
알선반질	제주 화북	길[路]>질
알진동산	서귀 대포	길[長]+니>진
앞한질	서귀 월평	길[路]>질
억셈이지세터	제주 이호	디새[瓦]>지세
연디밧질	서귀 보목	길[路]>질
연지질	제주 도두	길[路]>질
영만이질	제주 삼양	길[路]>질
오갱이왓질	제주 삼양	길[路]>질
오른질	제주 도남	길[路]>질
웃므실질	제주 삼양	길[路]>질
웃선반질	제주 화북	길[路]>질
정맹이므를	제주 용강	맹맹이>정맹이
정드르질	제주 용담	길[路]>질
제맹이동산	제주 외도	계명>제맹
젧밧	제주 아라/영평	계(契)>제
젧새왓	제주 아라	계(契)>제

지름바당	제주 건입	기름[油]>지름
지애집터	제주 도남	기와>지와>지애
지폰드르	제주 월평	깊[深]->짚-
진굴왓	제주 연동	길[長]-+ㄴ>진
진덕	서귀 색달	길[長]-+ㄴ>진
진도루	서귀 강정	길[長]-+ㄴ>진
진돌	서귀 대포	길[長]-+ㄴ>진
진동산	서귀 대포	길[長]-+ㄴ>진
진동산	제주 이도	길[長]-+ㄴ>진
진머흘	서귀 호근	길[長]-+ㄴ>진
진모살	서귀 색달	길[長]-+ㄴ>진
진므루	서귀 보목/상예/중문/하원	길[長]-+ㄴ>진
진밭	제주 도남/봉개/연동/영평/삼양/오라	길[長]-+ㄴ>진
진밭질	제주 삼양	길[長]-+ㄴ>진, 길[路]>질
진밭흙	제주 연동	길[長]-+ㄴ>진
진밭	서귀 서홍	길[長]-+ㄴ>진
진벵디	제주 노형	길[長]-+ㄴ>진
진빌레	제주 노형/도두	길[長]-+ㄴ>진
진소	서귀 강정/색달/중문/회수	길[長]-+ㄴ>진
진소깍	서귀 강정	길[長]-+ㄴ>진
진소또	서귀 도순	길[長]-+ㄴ>진
진술물	제주 이도	길[長]-+ㄴ>진
진여	서귀 서귀/호근	길[長]-+ㄴ>진
진여깍	서귀 서귀	길[長]-+ㄴ>진
진오름밭	제주 연동	길[長]-+ㄴ>진
진올래	서귀 호근	길[長]-+ㄴ>진
진올래안	제주 오라	길[長]-+ㄴ>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진진내	서귀 서홍/호근	길[長]-+ㄴ>진
진진내물	서귀 서홍	길[長]-+ㄴ>진
진질왓	제주 이호	길[長]-+ㄴ>진, 길[路]>질
진테왓	제주 용담	길[長]-+ㄴ>진
질난밭	제주 아라	길[路]>질
질난캐왓	제주 오라	길[路]>질
질매턱	서귀 서홍	길마>질매
질메왓	제주 외도	길마>질메
질메턱동산	서귀 하원	길마>질메
질지슴	서귀 하예	길[路]>질
질진밭	제주 일도	길[長]-+ㄴ>진
짐당장케	서귀 토평	김(金)>짐
짐이방굴	제주 오등	김(金)>짐
즈근갯질	서귀 보목	길[路]>질
체오름	제주 오라	키[箕]>체
치도리동산	서귀 중문	키>치
츄물질	제주 삼도	길[路]>질
큰짐장이집터	서귀 영천	김(金)>짐
하느랭이질	제주 회천	길[路]>질
한질	서귀 서홍	길[路]>질
한질	서귀 토평	길[路]>질
한질긷	제주 도남	길[路]>질
한질동산	서귀 영천	길[路]>질
한질밭	제주 삼양	길[路]>질
한질벼으니	제주 용강	길[路]>질
한질새왓	제주 봉개	길[路]>질
한질새왓	제주 용담	길[路]>질
홍성방드르	제주 연동	형방>성방
혜싼거리	제주 화북	혜->싸-

제주 지명어에서도 체언의 경우 /k/가 어두에서 /ç/으로 변동되는 k-계의 구개음화는 어두에서 아주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슭’이 ‘지슭’, ‘꿀’이 ‘줄’, ‘겨레’가 ‘저레’, ‘겨우’가 ‘제우’, ‘기쁨’이 ‘지쁨’ 등에서 보듯이 중부 방언군, 남부 방언군보다 훨씬 발전적임을 볼 수 있다.

(6)에서 보듯이 하나의 형태소 또는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선행되는 합성어의 경우 후행하는 단어는 그 뒤음 /k/가 구개음화하고 있다. 물론 그 단어는 합성어가 되기 이전에 단일어로서 구개음화를 일으키는 전제조건이 따라야 한다.

k-계 구개음화에서 한자어의 경우 구개음화가 수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자어의 경우 원칙적으로 k-계 및 h-구개음화에서 제외되었으나, 언중의 의식에 한자어라고 인식되지 않았을 경우에 구개음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주 지역어의 구개음화는 어두에서 타방언에 비해 그 현상이 뚜렷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Gilliéron이 말한 언어 발전의 양면성, 즉 그 보수성과 진취성의 양면을 나타내고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는 변방의 언어가 반드시 고대어가 아니요, 때로는 중앙어보다 더 새로운 발달 형태가 있어 한 언어의 미래를 추측할 수 있다고 하겠다.

(7) 금성방밭	제주 회천	형방(刑房)>성방
네성제돌	서귀 서귀	형제(兄弟)>성제
성제돌	서귀 대포	형제(兄弟)>성제
성제돌	서귀 하효	형제(兄弟)>성제
성제동산	제주 일도	형제(兄弟)>성제
신소	제주 영평	훤>신
심대왓	제주 월평	힘>심
홍성방드르	제주 연동	형방>성방

/i/, /j/ 모음 앞에 나타나던 /h/음은 제주 지역어에서도 /ç/로 구개음화 하여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제주 지역어의 특징으로 /i/ 모음 앞의 /h/음이 /ç/로 구개음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i/ 모음이 /i/ 모음으로 전설음화하여 /i/ 구개음화를 일

으키는 결과로 여겨지나 k-계 구개음화와는 달리 순정 모음 /i/가 아니더라도 표층 구조에서 구개음화로 생성되는 것은 h-계의 구개음화의 확대로 보여진다.

‘흰소’가 ‘신소’, ‘흰도미’가 ‘심돔’, ‘희미하다’가 ‘시미허다’, ‘흰새더기’가 ‘신새더기’로 구개음화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구개음화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제주 지역어의 특징이 아닌가 한다.

(7)에서 보듯 이 제주 지역어의 경우 타방언군에 비하여 h-계 한자어의 구개음화가 활발히 생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친숙하다고 느낄 수 없는 어사들조차도 구개음화를 일으키고 있음은 제주 지명어의 특이한 현상이라 하겠다.

라. 자음군단순화

이 지역의 지명어에 나타난 자음군단순화는 두 가지이다.

(8) 독동산	 서귀 하효	닭>독
독통	서귀 하효	닭>독
보그물	제주 해안	불[明]-+은>브근
독동산	서귀 대포	닭>독
독소	서귀 도순	닭>독
흑소	서귀 강정	흑>흑
흑물동산	서귀 중문	흑>흑
흑소	서귀 중문	흑>흑
식궤	서귀 호근	삼>식
넙거리	서귀 호근	넙[廣]->넙-

위에서 보면 /lk/의 경우 체언에서 /k/로 단순화되고 있으며, /lp/도 /p/로 단순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즉 자음군 중에서 뒷자음이 [-cor]이면 체언 경우 앞 자음이 탈락되고 있음을 본다.

자연 음운론에서는 자음이 겹칠 경우 좀더 자음다운 자음이 남고, 자음성이

약한 자음이 탈락한다고 하여 가장 자음다운 자음은 파열음이고 그 다음이 마찰음, 파찰음 순이며 비음과 유음은 모음에 가까운, 즉 자음성이 약한 음이라 말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은 제주 지역어에서도 타당한 이론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 위치동화(변자음화)

국어의 자음 변화 중에서 동화의 경우 상당수가 조음 방법이 같거나 비슷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하나로 변자음화(peripheralization)가 있다. 변자음화란 ‘VC₁ C₂V’의 결합에서 ‘C₂’가 [-cor]인 자음일 경우 유음을 제외한 [+cor]의 ‘C₁’이 [-cor]에 의하여 변자음으로 동화되는 현상으로 순음이 동화주이면 순음으로, 연구개음이 동화주이면 연구개음으로 동화함을 이른다.

(9) 주슴빳	제주 연동	주슴빳>주슴빳
숨굴드르	제주 노형	숨굴>숨굴
징굴동산	제주 노형	진굴>징굴
징굴	제주 노형	진굴>징굴
징군지	제주 노형	진군지>징군지
숨굴왓	제주 해안	숨굴>숨굴
숨굴왓	제주 외도	숨굴>숨굴

‘C₁+C₂’의 연결에서 ‘C₁’이 양순자음이고 ‘C₂’가 연구개음일 때 복합어 경계에서 연구음화가 생성되고 있음을 본다. C₁+C₂의 연결에서 C₂가 /k/계의 연구개음이고 C₁이 /t/계, /s/계, /č/계의 [+cor]과 연결될 때 [+cor]이 연구개음화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또 C₁+C₂의 복합어 경계에서 C₁이 설단음이고 C₂가 양순음이면 [+cor]이 순자음 앞에서 순음화되는 음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은 피동화음(focus)과 동화주(determinant) 사이에 어떤 음운도 개입시키지 않는 직접 동화(contact assimilation)이며, 역행 동화는 가능하여도 순행동화는 불가능한 비가역성(irreversible)의 성격을 가지며 그 동화주의 변별 자질은 오직 [-cor]이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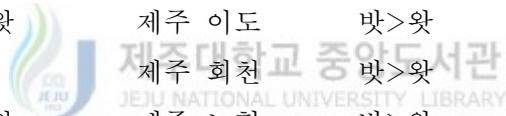
이 같은 음운 교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두 음운이 서로 이어질 때, 한 소리가 다른 소리의 영향을 받아 그 음가를 유지하지 못하는 언어학적 원리가 위치동화의 원리(변자음화 원리)이다. 청각적 효력이 약한 위치의 C₁이 강한 위치의 C₂에 동화됨을 말한다. 조음 위치 강도(청각적 효력의 강도)는 연구개음 5도, 양순음 4도, 경구개음 3도, 설단음 2도이다. 그러므로 양순음, 경구개음, 설단음이 연구개음 앞에서 연구개음으로 동화되는 것이 연구개음화 현상이며 경구개음과 설단음이 양순음 앞에서 양순음화로 교체되어 나타나는 것이 양순음화 현상일 것이다.

바. ㅂ약화 현상

/p/ 변칙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않지만 /p/가 /w/로 변하는 형태소의 결합을 복합어나 파생어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다른 방언군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양상이다.

(10) 가등이왓	제주 노형	맞>왓
거리왓	제주 도남	맞>왓
건승이왓	제주 노형	맞>왓
계새왓	제주 도두	맞>왓
고망괘왓	제주 연동	맞>왓
고모새왓	제주 도두	맞>왓
고주왓	제주 용강	맞>왓
고지왓	제주 삼양	맞>왓
골왓물	제주 봉개	맞>왓
곱은자왓		
	제주 도남/아라/영평/용강/월평/화북/이호/연동	맞>왓
공쟁이왓	제주 오라	맞>왓
구슬왓	제주 용담	맞>왓
굴왓	제주 연동	맞>왓

굴왓가름	제주 노형	맞>왓
내머리왓	제주 오라	맞>왓
내왓당	제주 용담	맞>왓
내왓당물	제주 용담	맞>왓
넷세왓	제주 연동	맞>왓
누운오름	제주 해안	맞>왓
눌왓동산	제주 연동	맞>왓
답왓	제주 연동	맞>왓
대왓	제주 삼양	맞>왓
도고리왓	제주 영평	맞>왓
독수리왓	제주 연동	맞>왓
돈물왓	제주 연동	맞>왓
동테왓	제주 도련	맞>왓
두께비왓	제주 삼도	맞>왓
뒷동산왓	제주 이도	맞>왓
마왓	제주 회천	맞>왓
막산이왓	제주 노형	맞>왓
만근이왓	제주 화북	맞>왓
머흘왓	제주 오라	맞>왓
먹돌왓	제주 오라	맞>왓
모기왓	제주 오라	맞>왓
모살왓	제주 이호	맞>왓
물왓	제주 월평	맞>왓
물터진굴왓	제주 이도	맞>왓
미랭이왓	제주 도련	맞>왓
믄루왓	제주 도두	맞>왓
똥테깅이왓	제주 연동	맞>왓
바지왓	제주 회천	맞>왓
방애왓	제주 오라	맞>왓
방애왓목	제주 용담	맞>왓



백대왓	제주 노형	맞>왓
베쟁이왓	제주 연동	맞>왓
백쟁이왓	제주 연동	맞>왓
벵뒤왓	제주 화북	맞>왓
벵디왓	제주 봉개	맞>왓
벵디왓가름	제주 오라	맞>왓
벽질왓	제주 이도	맞>왓
복도왓	제주 아라	맞>왓
빌레왓	제주 연동	맞>왓
빌레왓	제주 오라/용담	맞>왓
살레왓	제주 연동	맞>왓
새왓동네	제주 용담	맞>왓
솔대왓	제주 삼양	맞>왓
솔대왓	제주 연동	맞>왓
숨굴왓	제주 도련	맞>왓
숨굴왓	제주 연동	맞>왓
숨굴왓	제주 오라	맞>왓
아홉굴왓	제주 오라/용담	맞>왓
야근이왓	제주 해안	맞>왓
양두리왓	제주 노형	맞>왓
영대왓	제주 봉개	맞>왓
오갱이왓	제주 삼양	맞>왓
오중새왓	제주 삼양	맞>왓
절왓	제주 도남	맞>왓
절왓	제주 도남	맞>왓
진굴왓	제주 연동	맞>왓
춤새왓	제주 도남	맞>왓
큰머들왓	제주 도남	맞>왓
큰머들왓	제주 오라	맞>왓
큰출왓	제주 도두	맞>왓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큰티왓	제주 화북	밧>왓
한질새왓	제주 봉개	밧>왓
허갱이왓	제주 노형	밧>왓
홀태왓	제주 노형	밧>왓
흠챙이왓	제주 연동	밧>왓
활대왓	제주 도두/삼양	밧>왓

위에서 보듯이 복합어나 파생어를 이룰 때 중부 방언과는 달리 /p/가 /w/로 변하고 있다.

이 때 나타나는 음성 환경은 [+son]이란 음성 자질 아래에서 /p/가 /w/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범어적(汎語的)인 사실로써 모음 사이의 자음 특히 평장애음이 약화된다는 것은 분절음의 강도 및 sonority의 위계에 의한 음운론적 과정이라고 하겠다. 이는 일종의 노력 경계 본능에서 오는 동화 작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의 약화 현상은 sonority가 큰 [+son]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때 [+son]은 glide(활음) 이상의 sonority를 가진 음이라야 한다.

Hyman(1975:164)은 평장애음이 약화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1) tappu > tapu > tabu > taβu > tawu > tau > toi

모음 사이의 자음 약화 과정을 (1) 모음 사이의 단자음화(intervocalic degemination), (2) 모음 사이의 유성음화(intervocalic voicing), (3) 모음 사이의 마찰음화(intervocalic spirantization), (4) 모음 사이의 활음화(공명음화), (5)모음 사이의 공명음(활음) 삭제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공명도(sonority)가 큰 /l/과 모음 사이에서의 /p/가 /w/로 변하고 있는 자음 약화 현상은 Hyman의 이론과 일치하는 자연스런 음운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부 방언에서는 ‘밭’ ‘보리’ ‘바다’ ‘방’ ‘밥’ 등이 다른 어근과 결합하여 낱말을 형성할 때 그 기저형을 그대로 보전하는데 비하여 제주 지역어

에서는 /w/화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은 무슨 까닭일까?

이는 역사적 변천 과정의 한 단면을 제주 지역어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중세 국어에 나타난 표면형이다.

- (12) 셔불(龍歌·18)
- 대범(龍歌·87)
- 대왓(龍歌·五卷·26)
- 표웁표(豹)(字會)
- 갈웁호(虎)(字會)
- 셔울(杜初·二十四45)

(12)에서 보듯이 기저형 ‘발,’ ‘범,’ ‘셔불’의 /p/가 간극이 큰 [+son] 사이에서 [+son]에 동화되어 양순 마찰 유성음 /β/로 발음되고 있고 또 음소화하여 /β/으로 표기되고 있다. 그 이후 /β/은 /w/로 바뀌었음도 (12)는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간극 0도의 /p/가 간극 3도 이상의 유성음에 동화되어 간극 1도의 유성 마찰음 /β/로 약화된 것(spirantization)이며 또 /β/를 /w/로 변화시켜(sonorization) 발음을 쉽게 하려는 노력 경제의 현상이다.

그러나 ‘왓’과 ‘울,’ ‘범’과 ‘웁’의 두 형태가 공존하게 되어 의미 전달에 지장을 받고 혼란이 초래되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의 낱말이 여러 형태로 쓰이는 것을 피하고 어형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그 낱말의 기저형으로 복귀되어 중부 방언에서는 ‘대범,’ ‘보리발’으로 쓰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 지역어에서는 아직도 [+son] 사이에서 /p/가 약화된 중세 국어의 활음화된 어형이 유지되어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 활음 /h/의 탈락

탈락 현상 중에서 /h/의 탈락은 다른 약화, 탈락 현상과는 달리 매우 활발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음성학적으로 보더라도 /h/는 간극도(aperture)가 낮고, 마찰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유성음이나 모음 사이에서 그 유기성이 거의 식별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낱말의 통

시적 변천을 보더라도 체언이나 용언에서 두 음절 사이에 있던 /h/가 탈락되어 한 음절로 축약될 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3) 구들논동산	제주 영평	농-+ㄴ>논
굴렁밭	제주 건입	굴형>굴렁
퀘여구룽	제주 연동	굴형>구룽
귀머울	제주 도련	머흘[磊]>머울
그렁밭	제주 해안	굴형>구룽
노형구룽	제주 연동	굴형>구룽
논구룽	제주 연동	굴형>구룽
대방구룽질	제주 노형	굴형>구룽
대방구룽	제주 노형	굴형>구룽
드룽구룽	제주 노형	굴형>구룽
머왓	제주 용강	머흘[磊]>머울>머
머을왓	제주 회천	머흘[磊]>머울
멀왓	제주 아라/월평	머흘[磊]>머울>멀
베락구룽	제주 노형	굴형>구룽
삼동이구룽	제주 연동	굴형>구룽
새구룽밭	제주 회천	굴형>구룽
섯구렁물	제주 오라	굴형>구렁
셋치구룽	제주 연동	굴형>구룽
소왕구룽	제주 노형	굴형>구룽
알구룽	제주 연동	굴형>구룽
웃구룽	제주 연동	굴형>구룽
자구리구룽	제주 연동	굴형>구룽
큰구룽	제주 연동	굴형>구룽

(13)은 고유어의 단일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h/ 탈락 현상이다. 고유어의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 /h/는 [+son] 사이에서 그 마찰성을 상실하면서 /h/가 탈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h/의 탈락 원인은 무엇인가? (13)에서 보듯이 모음 앞이나 유성음 사이에서 /h/가 지닌 마찰성을 잃기 때문이다. 즉 간극이 작은 /h/음은 간극이 큰 [+son] 사이에서 그 마찰성을 상실하여 약화 탈락되고 있음을 말한다.

한 걸음 나아가 Pike(허웅 1985:32)는 /h/의 음성 특질을 cavity friction(공동 마찰) 또는 frictionless로 보아 마찰성이 없는 음으로 보았고, Saussure는 모음의 무성음으로까지 보고 있다. 이같이 /h/는 비모음성으로서는 가장 약한 음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h/가 모음성 사이의 위치에서 탈락하는 것은 자연스런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단일 형태소 내부인 (13)과 같은 상황에서 /h/ 탈락을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h \rightarrow \emptyset / [+son] - \left[\begin{array}{l} - cons \\ + son \end{array} \right]$$

아. 어두 경음화 현상

제주 지명어의 어두 경음화 형성은 다른 지방 지명어에 비하여 특이하며 다른 지역어군보다 많은 어사들의 어두 자음이 경음화되고 있음을 본다. 이들의 어두 경음화의 발생은 단순한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형태론 또는 의미론적 측면과도 관련이 있어 일률적으로 규칙화하고 고찰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역사적 변천을 거쳐 표면상으로 정착된 것이고 제주 지역어의 특이한 음운 현상의 하나이므로 그 예를 살펴보겠다.

(14) 뚝들거리	제주 도두	듬[擧]>뚝
쌀쏜장오리	제주 월평	살[矢]>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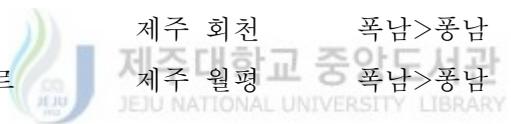
이때 경음화의 대상 음운은 /k/ > /k̥/, /p/ > /p̥/, /t/ > /t̥/, /s/ > /s̥/, /ç/ > /ç̥/ 등 다섯 개의 음운에 한정되어 있으나 그 실현 범위나 환경적 제약에 의한 규칙을 생성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또 이들 음운의 대립이 변별적 기능을 보이

지 않아 제주 지역어에 있어서도 어두 경음화의 실현은 결정 변이라기보다는 수의 변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자. 파열음의 비음화 현상

명사와 동사의 어간말 자음이 /p k t/ 로 끝날 때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그들 자음은 각각 해당 어간말 자음과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변동되는 현상을 말한다.

(15) 누릉낭동산	서귀 하효	느릅>누릅>누릉
당남밭	제주 연동	닥남밭>당남밭
돈내코	서귀 영천	돏+내+코>돈내코
박성내	제주 이도	박석내>박성내
선내골	서귀 토평	서(西)+ㅅ+내+골>선내골
챗망물	제주 연동	막+물>망물
풍남도	제주 회천	폭남>풍남
풍남드르	제주 월평	폭남>풍남



이 지역어의 지명어에도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 국어에서의 두 개의 모음 사이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sonority가 같거나, 또는 큰 순서대로 연결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sonority가 작은 것이 앞서고 큰 것이 뒤에 따를 때는 연결이 허용되지 못하고 동화작용이 일어나며 동화작용이 있는 후에는 두 개의 자음은 sonority가 같아진다는 sonority 동화 원리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즉, $C_1 < C_2$ 에서 $C_1 = C_2$ 가 된다는 음운 이론 일 것이다.

차. 유음탈락

중부 방언에서의 유음 탈락은 체언과 용언에 나타나는데 체언의 경우에는 복합어나 파생어의 경우가 활발하며 용언의 경우에는 종래의 ‘ㄹ’불규칙 용언이라 불리던 어사들에게 나타난 현상이다.

용언의 경우 제주 지역어의 유음 탈락은 중부 방언과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6) 가문다리	서귀 영천	가물[黑]+ㄴ>가문
거스세미	제주 연동	거슬[逆]+ㄴ>거스
공물각면여	서귀 호근	멀[遠]+ㄴ>면
너븐빳	제주 연동/해안	넙+은>넙은
돈물흙	제주 연동	돌[廻]+ㄴ>돈
돈물각	서귀 강정	돌[甘]+ㄴ>돈
돈물각원	서귀 강정	돈[甘]+ㄴ>돈
면내모슬	서귀 중문	멀[遠]+ㄴ>면
면대여	서귀 강정	멀[遠]+ㄴ>면
면모르	서귀 색달	멀[遠]+ㄴ>면
면안강정여	서귀 강정	멀[遠]+ㄴ>면
물각면여	서귀 호근	멀[遠]+ㄴ>면
산물	서귀 하원	살[生]+ㄴ>산
산물남빳	서귀 신호	살[生]+ㄴ>산
산물넷도	서귀 도순	살[生]+ㄴ>산
산물이맹이동산	서귀 하원	살[生]+ㄴ>산
오다리면여	서귀 호근	멀[遠]+ㄴ>면
존골	서귀 도순	줄[麿]+ㄴ>존
진굴왓	제주 연동	질[長]+ㄴ>진
진믄루	서귀 보목	질[長]+ㄴ>진
존작지	서귀 강정	줄[麿]+ㄴ>존

(16)에서 보듯이 /l/로 끝난 어간 말음에 그 기저형이 /n/으로 시작되는 어미 형태소와 직접 결합하면 /l/이 필수적으로 탈락하고 있다.

또한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나 파생어, 단일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l/의 탈락 현상이 보인다.

(17) 므시물	서귀 보목	마소(馬牛)>므쉬(므시)
버드남밭	제주 삼양/회천	버들>버드
버랭이깍물	제주 용담	별랑이>버랭이
베두리	제주 연동	별들이>베두리
보리무굴	제주 용강	물굴>무굴
소남디	서귀 토평	솔>소
소남드르	제주 아라	솔>소
소낭굴	제주 회천	솔>소
소낭목	제주 도두	솔>소
소낭밭	서귀 대포/월평, 제주 도남/이도	솔>소

그러면 /l/이 /n/ 앞에서 탈락된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음운 현상이 음운 체계의 유기적 관계에서 고찰되어야 한다면, /l/의 탈락도 자음 체계의 내부에서 비음과의 관계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어의 자음 체계로 볼 때 /l/은 /n/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l/과 /n/의 두 음운은 비록 위계를 달리하지만 인접적이며 대체로 조음 위치를 같이 하는 동기관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n/에 의한 음운 탈락은 인접한 위계 사이에서 동기관적인 이화 현상으로 보아 음성적 제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모음의 음운 현상

가. 전설고모음화

국어의 음운 현상에서 전설고모음화란 형태소 내부에서나 형태소 경계에서 치찰음 /s, s', č, č', čh/ 아래서 /i/가 /i/로 되는 현상이 있다. 이는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재에도 방언군에 따라 그 양상이 서로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

제주도의 상당한 지역에서 어간 말음 /i/가 마찰음 /s/, /s'/ 다음에서 /i/로

바뀌고 있음을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다.

- (18) a. [kašim/kasim](가슴)
[kɔšil/kɔšil](가을)
[mɔšil/mɔšil](마을)
[pesil/pešil](벼슬)
[kiširəm/kisiem](그을음)
[s'ida/s'ida](쓰다;用, 冠, 書, 苦)
[s'irəjida/s'irəjida](쓰러지다)
[tašiʌʌida/tasiʌʌida](다스리다;글씨를 교정하다)
[s'ilda/s'ilda](쓸다)
[čuŋšiq/čuŋsiŋ](짐승)
[mušin](무슨)
- b. [našimin/nasimin](나으면)
[ušinan/usinan](웃으니까)
[čišinan/čisinan](지으면)
[pušinan/pusinan](부으니까)
[išimin/isimin](이으면)
[pəšimin/pəsimin](벗으면)
[kišimin/kisimin](그으면)
[s'išinan/s'isinan](씻으니까)

같은 치찰음(齒擦音)으로 파찰음(破擦音)인 /č, čʰ, č'/과 /ɕ/가 결합될 때도 /i/가 /i/로 전설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9) a. [šilč'iŋ](실증)
[čiqmeŋ](증명)
[čiKs'i](즉시)
[čiŋin](증인)
[čʰiqŋaŋ](측량)

- [čʰiŋge](층계)
- [čʰiŋdol](층돌)
- [čʰiŋk'an](층간)
- [čilgəpt'a](즐겁다)
- [čiŋs'əhɔda](즉사하다)
- b. [k'oŋinan](꽃으니까)
- [č'očʰinan](꽃으니까)
- [čəjimin](젓으면)
- [niŋimin](늦으면)
- [noŋimin](낮으면)
- [k'oŋimiuk'wa](꽃습니까)

(19 a)는 형태소 내부, (19 b)는 활용의 경우이다. 이때에는 형태소 내부에서나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하고 있는 활용의 경우에는 파찰음 /č, čʰ, č'/ 아래에서 /i/가 /i/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i/ 모음이 [+palatal]의 자질을 갖고 있는 구개 자음에 동화되어 나타난 순행 동화일 것이다.

이는 한 음소 /i/가 동일어 내에서나 형태소 경계에서 다른 음소 /č, čʰ, č'/의 영향을 받아 같은 소리로 변하므로 말의 속도를 빨리 하고 음성 기관의 노력을 경감시키려는 현상일 것이다. 전설 고모음화가 구개자음 /č, čʰ, č'/에 의한 동화 현상이라면 구개음화는 구개모음 'i'에 의한 동화 현상일 것이다.

(20) 가운뎃물	서귀 대포	가운데>가운디
감티동산	서귀 서흥	감투>감티
감티여	서귀 대포	감태>감티
깁베리물	제주 용강	벼루>베리
노리동산	서귀 신호	노루>노리
노리물	서귀 상예	노루>노리
노리물동산	서귀 호근	노루>노리
노리생이	제주 오라	노루>노리+생이
노리오름	제주 봉개	노루>노리

녹디굴칭	제주 연동	녹두>녹디
니커리왓	제주 연동	네커리(거리)>니커리
돛장시므르	제주 영평	장수>장시
드라미	서귀 신호	되>미
맹지므르	제주 삼양	명주>맹지
밤남굴칭	제주 연동	층>층
베리왓	제주 아라	벼루>벼리>베리
베릿내	서귀 중문	벼루>베리
베릿내오름	서귀 중문	벼루>베리
베릿밭	제주 도남	벼루>베리
불미왓	서귀 강정	불무>불미
산썸동산	제주 영평	쓰다[用]>씨다
새비리	제주 노형/도평	새별이>새비리
새빌-동산	제주 도평	새별>새벨>새빌
생깃동산	제주 용담	향교>상교>생기
서연디기	서귀 보목	연대>연디
시리덕	서귀 하예	시루>시리
시리돌	서귀 대포/색달	시루>시리
식퀘	서귀 호근	삼>식
어영연디	제주 용담	연대>연디
연디굴칭	제주 연동	연대>연디, 층>칭
연디동산	서귀 호근	연대>연디(연디)
연디퀘	서귀 대포	연대>연디(연디)
연디기	서귀 보목	연대>연디
연디동산	서귀 정방	연대>연디
연디밋	서귀 대포, 제주 화북	연대(煙臺)>연디(연디)
연디왓	서귀 호근	연대>연디
유지낭밭	제주 영평	유자>유지
장시물	제주 화북	장수>장시

종이빌레	제주 도두	종우>종이
칭계난밭	서귀 호근	층계>칭계
칭계왓	서귀 호근	층계>칭계
칭논	서귀 강정	층>칭

이 지명에에서도 치찰음 다음의 /i/가 /i/로 변하는 전설고모음화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20)에서 보듯이 ‘-아, -어, -오, -우, -애, -에, -외’ 등 단모음과 이들 단모음이 결합된 이중모음이 치찰음 이외의 자음과 연결될 때도 /i/ 모음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李崇寧(1985:12~14)은 ‘-아, -오, -으, -오/우’가 ‘-이’로 변하는 것은 명사 어간 말음에 ‘-i’를 첨가하여 중간기의 이중 모음 형성을 경과하고, 그 선행 모음의 탈락으로 실현된 통시적 변화로 보고 있다.

나. 전설모음화

넓은 의미의 음라우트라 할 수 있는 전설모음화 현상이 이 지역의 지명에서는 활발히 실현되고 있음을 본다. 이를 순행동화에 의한 전설모음화로 보아도 될 것이다.

(21) 가매통	서귀 도순	가마>가매
가매물	제주 회천	가마>가매
가매물내	제주 봉개	가마>가매
가매술각	서귀 대포	가마>가매
가매술각물	서귀 대포	가마>가매
가매왓	서귀 용흥/하원	제주 도련/영평 가마>가매
가매터	제주 영평	가묘>가매
가매통	제주 노형	가마>가매
가멧칫밭	제주 회천	가마>가매
갱베리물	제주 용강	벼루>베리
고벨장-밭	제주 이호	별장>벨장

고씨네물방애	제주 삼도	방아>방애
골목물방애터	제주 용담	방아>방애
구멍-물	제주 이호	구멍>구멍
괘랑	제주 오라	구랑>괘랑
내중난밭	서귀 서홍	나중>내중
들렁귀	제주 오라	들렁구>들렁귀
맹태왓	서귀 회수	명태>맹태
맹지므르	제주 삼양	명주>맹지
모레기도	서귀 영천	모르기>모레기
방애오름	서귀 하원	방아>방애
방애왓	제주 도남/오라	방아>방애
방애왓목	제주 용담	방아>방애
방애터	제주 삼도	방아>방애
방앗동산	제주 용담	방아>방애
방애구릉	제주 노형	방아>방애
방애물	제주 아라	방아>방애
베두리	제주 연동	별두리>베두리
벼락구릉	제주 노형	벼락>벼락
벼락구릉	제주 용담	벼락>벼락
벼락돌	서귀 색달	벼락>벼락
벼락때린그정	서귀 도순	벼락>벼락
벼락마진소	서귀 강정	벼락>벼락
벼락맞은넋창	제주 외도	벼락>벼락
벼락흙	제주 월평	벼락>벼락
베리왓	서귀 서홍	벼루>베리
베릿내	서귀 중문	벼루>베리
베릿내오름	서귀 중문	벼루>베리
백꼭지	서귀 영천	벽>백
벨도내	제주 화북	별도(別刀)>벨도
벨진밭	제주 도남/삼양/회천	

		별>벨
벧대동산	제주 영평	벧>벧(벧)+대
벧풍마위	서귀 중문	벧풍>벧풍
벧풍석	서귀 대포/호근	벧풍>벧풍
벧풍소	제주 오라	벧풍>벧풍
부채새미	서귀 상예	부채>부채
생이동산	서귀 색달	상여>생이
생이집동산	서귀 신호	상여>생이
섯가메술각물	서귀 대포	가마>가매
송편이골	서귀 상예	송편>송편
연티밑질	서귀 보목	연대>연디
왜낭믄루	서귀 보목	와(臥)>왜
자귀영몰방애	서귀 하예	방아>방애(애)
제맹이동산	제주 외도	계명>제맹
조근방에여	서귀 색달	방아>방에
족은드레	제주 오라	드르>드레
췌기물	제주 화북	조개>췌기
췌기벌레	제주 화북	조개>췌기
질매턱	서귀 서홍	길마>질매
질매왓	제주 외도	길마>질매
챗대왓	서귀 영천	초[燭]>체
챗대가름	제주 도두	초>췌
챗대거리	제주 도련	춧대>챗대
챗대굽	제주 도두	춧대>챗대
챗대왓	제주 도남	춧대>챗대
챗대왓동산	제주 회천	춧대>챗대
큰드레	제주 오라	드르>드레
큰방에여	서귀 색달	방아>방에
편안밭	서귀 우남, 제주	도련/월평/회천 편안(便安)>편안

편안신전	제주 용강	편안(便安)>편안
편안오름	제주 삼양	편안>편안
펍풍물	제주 월평	병풍>펍풍
펍풍소	제주 삼도	병풍>벵풍
허멍이	제주 영평	허멍>허멍
횡이문	제주 건입	홍예(무지개)>횡이

(21)에서 보듯이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a>ɛ, ə>e/i, o>e/i, u>i/u, i>e 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다. 즉 [-back]이 단일형태소나 복합어에서 [+back]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 때의 동화주는 /a/ /ə/ /o/ /u/ /i/ 5개의 단 모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지역어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일 것이다.

다. 움라우트

제주 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여러 층위의 조건 중에서도 어휘 형태소(lexical morpheme) 내부에서 가장 강렬하게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2) 가메기동산	제주 도평	가마귀>가메기
갓쟁이밭	제주 오라	갓장이>갓쟁이
강젠이굴	제주 도련	강전이굴>강젠이굴
고메이밭	제주 오라	고명이>고멩이>고메이
골챙이왓	제주 삼양	고랑창+ >골창+이>골챙이
괴기난덕	서귀 대포	고기>괴기
괴기난덕봉오지	서귀 대포	고기>괴기
괴기덕	서귀 서귀	고기>괴기
구렁이왓	서귀 보목	구렁이>구렁이
구멍이왓	제주 도련	구멍이>구멩이
꿍택이왓	제주 아라	꿍덕>꿍택이
너베기왓	제주 연동	너버기>너베기
두꺼비동산	제주 삼도	두꺼비>두께비

물 데깅이왓	제주 연동	물대강이>물 데깅이
버랭이깍물	제주 용담	벌랑이>버랭이
버랭이깍	제주 용담	버렁>버랭이
백쟁이왓	제주 연동	백정+이>백쟁이
안위영	제주 도두	우영>위영
알넉테기	제주 이호	알넉턱이>알넉테기
작대기위영	제주 도두	우영>위영
장님이동산	제주 삼양	장남이>장님이
장새기ㄹ루	제주 도두	서기>새기
장새기빌레	제주 도두	서기>새기
정갱이통	제주 내도	정강이>정갱이
종님이소	제주 아라	족남이>종님이
펼랭이	제주 도두	펼랑이>펼랭이
펼지드르	제주 아라	펼지>펼지
한에기왓	제주 이호	아기>에기
함백이구룡	제주 노형	함박이>함백이
호갱이왓	제주 도두	호강이>호갱이
흙챙이왓	제주 연동	흙창이>흙챙이

위에서 보듯이 첫째, 체언이 단일 형태소로서 /i/나 /j/를 동화주로 하는 모음과 /a, ㅏ, o, u, i/를 피동화음(被同化音)으로 하여 그 사이에 나타나는 [-cor]인 /k/, /kʷ/, /kʰ/, /ŋ/은 움라우트 현상이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에 [-cor]인 /p/, /pʷ/, /pʰ/, /m/이 개재되는 경우 (22)와 같이 그 실현이 촉진된다.

셋째, 문법 형태소 결합에 있어서 명사성 접미사 ‘-i’, ‘-ki’가 일정한 제약 조건에서만 성립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통사론적·형태론적·음운적 제약 조건이 작용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 지명에서도 명사성 접미사 ‘-i’, ‘-ki’는 개재 자음이 [-cor]인 경우 자유롭게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라. 고모음화

제주 지역어에서는 전설 모음화가 아닌 고모음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ə/가 /i/로 변동되는 현상과 /e/가 /i/로 변동되는 현상이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23) a. [kijinmal/kijitk'al](거짓말)

[hilbət't'a](헐벗다)

[tiŋčʰi](딩치)

[niŋkt'we/nəkt'we](넉되)

[it'a/ət'a](없다)

[čijŋsəm/čəŋšim](점심)

[inme](얼마)

[ni](너)

b. [kəŋbenji](거지)

[hənoŋ](헌웃)

[həmhəda](험하다)

[nəl](널;板)

[səkt'we](석되)

[səŋnənda](성낸다)

[ərin](어른)

[əŋčʰi](엥덩이)

[noamč'ə/nwamač'ə](넣는다)

(23)는 /ə/ 앞에 자음이 없거나 자음이 있을 경우 [-labial]인 경우이다. 이 경우 음장이 운소로서 작용하는 중부 방언과 전라도 방언에서 /ə/는 [+long]의 자질을 갖는 모음이다. 이때 (23a)는 /ə/가 /i/로 변하고 있으나 (23b)는 /ə/가 /i/로 변하지 않고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ə/가 [-long]인 경우와 비교해볼 때 /ə/가 [-long]이면 /ə/가 /i/로 변하는 경우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원하였을 것인가?

이는 현재보다 이전의 어느 시기에는 이 지역에도 음장이 변별적 기능을

할 수 있었던 자취가 아닌가 한다. 즉 어느 시기에 제주 지역어에서 음장이 운소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ə/가 /i/로 실현되던 낱말들이 /i/로 발음되지 않고 /ə/로 발음하게 된 결과 (23b)가 나타난 것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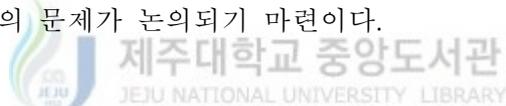
이 지역의 지명에서도 이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24) 은물개 제주 오라 얼[涼]+ㄴ+물>은물

마. 반모음 ‘으’ 탈락

두 개의 모음이 결합하여 연속체를 이룰 때에 어느 한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모음 충돌(hiatus)을 회피하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여겨진다.

이때 탈락되는 모음은 탈락되지 않고 남게된 모음보다 모음의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요소가 결합될 때 한 방향으로 변동될 뿐 그 역은 거의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모음의 강도의 문제가 논의되기 마련이다.



현대 국어의 모음 강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다.(유재원 1985:19)

i	u	ɪ	ü	o	ö	a, ə	ɛ, ɐ
1	2	3	4	5	6	7	8

즉 현대 국어에서는 [-high]인 저모음들이 [+high]인 고모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며 [-back]의 전설 모음이 [+back]의 후설 모음보다 강도가 강함을 볼 수 있다. [+labial]의 자질에 대해서는 [-high]인 경우에는 [-labial]이, [+high]인 경우에는 [+labial]이 더 강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ɛ/모음은 모음 체계에서 [+high]이며, [-labial]로 모음 중에서 가장 강도가 약한 모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ɛ/ 모음이 다른 모음과 만나면 그 위치에 관계없이 탈락됨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지명에서도 /i/ 탈락은 매우 폭넓게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5) 고개동산	서귀 대포/노형/연동	
		가(哥)+의>개
고개드르	서귀 호근	가(哥)+의>개
고개믈	제주 화북	가(哥)+의>개
동웨왓	제주 영평	와(瓦)+의>웨
멀왓	제주 아라	머흘>머을>멀
멀왓	제주 월평	머흘>머을>멀
문개우영	서귀 하원	가(哥)+의>개
문세왓	제주 삼양	문서+의>문세
박개빌레	제주 도남	가(哥)+의>개
백개들레	서귀 보목	가(哥)+의>개
부개집터	제주 이호	가(哥)+의>개
부개굴	제주 용강	가(哥)+의>개
설개	제주 삼양	서흘개>설개
소개왓	제주 화북	가(哥)+의>개
송개의장	제주 도두	가(哥)+의>개
송개집터	제주 회천	가(哥)+의>개
신개동산	서귀 서홍	가(哥)+의>개
여개밭	서귀 하원	가(哥)+의>개
우개왓	제주 도두	가(哥)+의>개
우개왓	제주 화북	가(哥)+의>개
웨왓	서귀 호근	와(瓦)+의>웨
웨왓	제주 영평	와(瓦)+의>웨
웨통	서귀 신희	와(瓦)+의>웨
윤개밭	제주 이호	가(哥)+의>개
이개왓	제주 도남	가(哥)+의>개
정개밭	제주 노형	가(哥)+의>개

조개물	서귀 영천	가(哥)+의>개
조개밭	제주 연동	가(哥)+의>개
조개우영	서귀 보목	가(哥)+의>개
지세오름	제주 삼양	지서+의>지세
허개동산	서귀 신호/하원	가(哥)+의>개
항개동산	제주 삼양/연동	가(哥)+의>개
황개터동산	제주 노형	가(哥)+의>개

반모음 ‘으’가 탈락된 이유는 무엇일까? 모음과 연결된 /i/가 탈락함은 형태소 경계에서 연속되는 두 모음의 개구도의 차이에 의한 음운론적 강도와 관련된 것이다. 즉 모음 /i/는 개구도가 작은 약모음에 의한 탈락을 경험하게 된 결과이다.

바. 이화 현상

한 낱말 안에 같은 또는 비슷한 음운이 둘 이상 있을 때 그 말에 생신(生新)한 맛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또 표현을 명료하게 하려는 작용으로 그 주한 음운을 다른 소리로 바꾸는 일이 있다. 이것은 동화에 반대되는 현상이다.

이화는 자음의 이화와 모음의 이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명어에 나타난 이화 현상은 모음 이화에 해당된 내용들이다.

(26) 도구리물	제주 오등	도고리>도구리
무드내	제주 용강	무두(無頭)>무드
무드리물	제주 용강	무두(無頭)>무드
불미왓	제주 영평/오라	불무>불미
불미툼	제주 영평	불무>불미
웃무드내	제주 용강	무두(無頭)>무드
임주왓	제주 아라	임지>임주

이는 음운 현상의 원리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의 청취 효과나 명료하게 표현하려는 심리적 현상일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지명어의 후부요소 및 형태·음운론적 분석을 하였다. 각 장에서 다루어진 지명어의 후부요소 분석, 형태·음운론적 고찰을 통하여 밝혀진 제주 지명어의 후부요소, 형태·음운론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명어의 후부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분포된 것부터 보면 1) 밧/왓/팻[田] 1376곳 2) 동산[丘] 839곳 3) 물[水] 501곳 4) 여[礁] 381곳 5) 므루/므르[宗] 288곳 등의 순이었다. 이 사실은 제주 지역이 후부요소 분포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 및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육지 지명어와 비교하여 후부요소의 형태가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주 지역이 고어형태의 후부요소를 많이 간직하고 있으며, 생활 환경과 풍토가 육지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후부요소의 형태적 특성 중 하나는 다양한 이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형태는 ‘밧/팻/왓’과 같은 ‘첨가, 교체, 탈락’으로 인한 이형태가 많다. 또한 ‘므슬(므실)/므을/마을’처럼 고어형과 신어 형태가 공존하고 있는 것도 제주 지명어의 특징 중 하나이다.

형태론적 측면에 보면 제주 지명어의 단어 형태 구조는 ‘체언 + 체언(N+N)’의 결합 구조가 64개나 나타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관형어 + 체언(D+N)’의 결합 구조에는 ‘관형사 + 명사(d+n)’의 구조가 3개, ‘형용사의 관형형 어미 + 명사(ar+e+n)’의 구조가 12개, ‘동사의 관형형 어미 + 명사(vr+e+n)’의 구조가 15개가 나타났다.

‘용언의 어근 + 명사(Vr+n)’의 구조에는 ‘형용사 어근 + 명사(ar+n)’의 구조가 2개, ‘동사 어근 + 명사(vr+n)’의 구조가 2개, ‘부사 어근 + 명사(adr+n)’의 구조가 1개 나타났다.

그리고 접사와 결합하는 형태로는 ‘접두사 + 체언(p+N)’의 결합 구조가 2

개, ‘체언 + 접미사(N+s)’ 구조가 5개, ‘용언의 어간 + 접미사(Vr+s)’ 구조가 2개, ‘용언의 관형형 + 접미사(Vr+e+s)’의 구조가 2개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 지명어의 형태 구조적 특성으로 구형 합성어가 많다는 것이다. 지명어가 형태소의 첨가로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점에서 볼 때, 구형 합성어가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제주 지명어의 경우 [ap+n] 구조형 중에서 형태소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구형 합성어이다.

서귀 대포의 ‘췌멍는물’은 ‘소가 마시는 물’이란 의미의 구형 합성어이다. 서귀 강정의 ‘고냉이머들아즌밭’은 ‘고양이 모양의 큰 돌이 앉아 있는 밭’이라는 의미의 구형 합성어이고, 서귀 월평의 ‘상순이봉근여’는 ‘상순[人名]이 찾아낸(주운) 여(암초)’라는 뜻이다.

형태소의 수와 이들의 결합 관계, 각 형태소의 품사 등이 제주 지명어 형성 과정에서 복잡하게 작용하여 제주 지명어의 단어 구조는 일반 어휘의 명사 형성에서 볼 수 없는 구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음운론적 측면에서의 특징 중 자음에 의한 음운 변동 현상으로 제주 지명어에서는 중부 지역어의 경음이 유기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일어의 어두 유기음화 현상이나 중세 국어의 합용병서가 중부 지역어와는 달리 유기음화로 나타난 것은 제주 지역어의 특이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는 유기음의 음성적 특징인 [+aspirate]와 [+tense]의 성질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ㅎ말음 체언의 유기음화 현상은 ‘짜콰’, ‘돌코’와 같은 예문과 현재 ‘조팸’, ‘수툼’ 등의 어예를 통해 연음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15세기 중세 국어의 모습이 ‘돌히’, ‘뒤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돌ㅎ’으로 사용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이 같이 15세기에 사용되었던 ㅎ말음 체언의 어휘들이 제주 지역어에서는 100여 개 이상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이는 유기음화를 나타낼 수 있는 중세 국어와 고대 국어의 형태를 기저형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지명어의 k-계의 구개음화는 어두에서 아주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슭’이 ‘지슭’, ‘굴’이 ‘줄’, ‘겨레’가 ‘저레’, ‘겨우’가 ‘제우’, ‘기쁨’이 ‘지쁨’ 등에서 보듯이 중부 방언군, 남부 방언군보다 훨씬 발전적임을 볼 수 있다. 도 순정모음 /i/가 아니더라도 표층구조에서 구개음화로 생성되는 것은 h-계 구개

음화의 확대로 보이며, 제주 지명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지명어에 나타난 자음군단순화는 두 가지이다. /lk/의 경우 체언에서 /k/로 단순화되고 있으며, /lp/도 /p/로 단순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즉 자음군 중에서 뒷자음이 [-cor]이면 체언 경우 앞 자음이 탈락되고 있음을 본다. 자연 음운론에서는(Shane 1976:11) 자음이 겹칠 경우 좀더 자음다운 자음이 남고, 자음성이 약한 자음이 탈락한다고 하여 가장 자음다운 자음은 파열음이고 그 다음이 마찰음, 파찰음 순이며 비음과 유음은 모음에 가까운, 즉 자음성이 약한 음이라 말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은 제주 지역어에서도 타당한 이론으로 작용하고 있다.

변자음화 현상을 들 수 있는데, 변자음화란 'VC₁ C₂V'의 결합에서 'C₂'가 [-cor]인 자음일 경우 유음을 제외한 [+cor]의 'C₁'이 [-cor]에 의하여 변자음으로 동화되는 현상으로 순음이 동화주이면 순음으로, 연구개음이 동화주이면 연구개음으로 동화함을 이른다. 즉 청각적 효력이 약한 위치의 C₁이 강한 위치의 C₂에 동화됨을 말한다. 조음 위치 강도(청각적 효력의 강도)는 연구개음 5도, 양순음 4도, 경구개음 3도, 설단음 2도이다. 그러므로 양순음, 경구개음, 설단음이 연구개음 앞에서 연구개음으로 동화되는 것이 연구개음화 현상이며 경구개음과 설단음이 양순음 앞에서 양순음화로 교체되어 나타나는 것이 양순음화 현상일 것이다. 이 현상 또한 제주 지명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ㄴ' 약화 현상으로 /p/ 변칙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않지만 /p/가 /w/로 변하는 형태소의 결합을 복합어나 파생어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다른 방언군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양상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복합어나 파생어를 이룰 때 중부 방언과는 달리 /p/가 /w/로 변하고 있다. 이 때 나타나는 음성 환경은 [+son]이란 음성 자질 아래에서 /p/가 /w/화하고 있다.

탈락 현상 중에서 /h/의 탈락은 다른 약화, 탈락 현상과는 달리 매우 활발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음성학적으로 보더라도 /h/는 간극도(aperture)가 낮고, 마찰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유성음이나 모음 사이에서 그 유기성이 거의 식별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낱말

의 통시적 변천을 보더라도 체언이나 용언에서 두 음절 사이에 있던 /h/가 탈락되어 한 음절로 축약될 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주 지명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은 타지역어에 비하여 특이하며 타방어군보다 많은 어사들의 어두 자음이 경음화되고 있음을 본다. 이들의 어두 경음화의 발생은 단순한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형태론 또는 의미론적 측면과도 관련이 있어 일률적으로 규칙화하고 고찰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역사적 변천을 거쳐 표면상으로 정착된 것이고 제주 지명어의 특이한 음운 현상이라 하겠다.

중부 방언에서의 유음 탈락은 체언과 용언에 나타나는데 체언의 경우에는 복합어나 파생어의 경우가 활발하며 용언의 경우에는 종래의 ‘ㄱ’불규칙 용언이라 불리던 어사들에게 나타난 현상이다. 용언의 경우 제주 지명어의 유음 탈락은 중부 방언과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모음에 의한 음운 현상으로 첫째, 국어의 음운 현상에서 전설고모음화란 형태소 내부에서나 형태소 치찰음 /s, s', č, č', čh/ 아래서 /i/가 /i/로 되는 현상이 있다. 이는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재에도 방언군에 따라 그 양상이 서로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 제주도의 상당한 지역에서 어간 말음 /i/가 마찰음 /s/, /s'/ 다음에서 /i/가 /i/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전설모음화 현상이 이 지역의 지명에서는 활발히 실현되고 있음을 본다. 이를 순행동화에 의한 전설모음화로 보아도 될 것이다. 이 때의 동화주는 /a, ə, o, u, i/ 5개의 단모음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제주 지명어의 움라우트 현상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여러 층위의 조건 중에서도 어휘 형태소 (lexical morpheme) 내부에서 가장 강렬하게 실현되고 있다. 또 형태소 결합시 /-i/, /-ki/는 자음이 [-cor]인 경우 자유롭게 실현되고 있다.

제주 지명어에서도 전설 모음화가 아닌 고모음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ə/가 /i/로 변동되는 현상과 /e/가 /i/로 변동되는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모음 ‘으’ 탈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개의 모음이 결합하여 연속체를 이룰 때에 어느 한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모음 충돌(hiatus)을 회피하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여겨진다. 이때 탈락되는 모음은 탈락되지 않고 남게된 모음보다 모음의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두 개

의 요소가 결합될 때 한 방향으로 변동될 뿐 그 역은 거의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 지명어에서도 모음 강도 이론에 따라 반모음 /ɤ/가 탈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낱말 안에 같은 또는 비슷한 음운이 둘 이상 있을 때 그 말에 생신(生新)한 맛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또 표현을 명료하게 하려는 작용으로 그 중 한 음운을 다른 소리로 바꾸는 일이 있다. 이것은 동화에 반대되는 현상이다. 제주 지명어에서는 모음의 이화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제주 지명어의 후부요소 분류 및 형태소 분석을 통하여 국어학적 연구로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지명어를 일반 언어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국어학적 특징들이 지명어에서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지명어에서도 일반 언어에서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현존하는 지명어 중에 고어 형태가 아직까지 오래 보존되고 있다는 특징과 신어가 발생하더라도 고어형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공존하고 있다는 특징이 밝혀졌다.

그리고 지명어의 합성과 파생 구조를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순한 형태에서 앞뒤로 덧붙여 나가는 합성 및 파생어의 형태가 일반 언어보다 매우 많다는 것이다. 특히 구형 합성 지명이 매우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지명어의 어휘, 형태·음운론적 연구는 국어학의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를 병행하여 할 수 있어 국어학을 총체적으로 연구 하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제주 지명어 형성의 구조가 밝혀져 그 형태와 이론이 정립된다면 국어의 단어 형성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며, 제주 지명어가 여러 대에 걸쳐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사용되어 온 만큼 제주 지명어 형성에 나타나는 구조를 이용하여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지명어 자료나 잘못된 지명어 자료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 언어를 위주로 다루어져 왔던 일반 언어학 및 국어학 연구

들이 지명어 연구를 포함함으로써 좀더 국어학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또한 국어학이 지명학이라는 인접학문과 함께 통합적인 연구가 시도됨으로써
학문의 총체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參 考 文 獻

- 서귀포시(1999), 서귀포시지명유래집, 정아기획.
- 남제주군(1996), 남제주군고유지명, 경신인쇄사.
- 제주시·제주문화원(1996), 제주시옛지명, 세림원색인쇄사.
- 朴用厚(1992),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제주문화사.
- 진성기(1960), 남국의 지명유래, 제주민속연구소.
- 한글학회(1984), 한국지명총람 16(제주·전남편), 한글학회.
- 오성찬(1992), 제주 토속지명 사전, 민음사.
-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자료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濟州道(1995), 濟州語辭典, 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방언연구회).
- 南廣祐(1997), 古語辭典, 敎學社.
- 劉昌惇(1964),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출판부.
- 강병륜(1997), 고유지명어 연구, 박이정.
- 姜榮峰(1993), 濟州島方言의 動物 이름 研究, 경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4a), 제주지방의 지명, 『새국어생활』 4-1,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1994b), 제주의 언어(1), 제주문화.
- _____ (1995), 제주도방언의 어휘론적 연구, 『耽羅文化』 15,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1997), 제주의 언어(2), 제주문화.
- 고영근(1973a),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I), 『서울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 제18집, 서울대학교.
- _____ (1973b),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II), 『亞細亞研究』 제48호, 고려대.
- _____ (1973c),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III), 『語學研究』 제9권 1호, 서울대 어학연구소.
- _____ (1973d),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IV), 『학술원논문집 인문과학연구편』 제12집, 대한민국학술원.

- _____ (1983), 국어문법의 연구, 탑출판사.
- 고혜정(1992), 제주도 지명연구, 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金桂坤(1968), 현대국어의 조어법(word formation) 연구, 『인천교대논문집』 제3집, 인천교대.
- _____ (1972), 현대국어의 임자씨의 통사적 합성법, 『인천교대논문집』 제7집, 인천교대.
- _____ (1978),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인천교대논문집』 제13집, 인천교대.
- 金光雄(1982), 濟州南部語의 움라우트에 대한 調査研究, 『北泉沈汝澤先生回甲紀念論叢』, 동 간행위원회.
- _____ (1984), 濟州島南部語의 硬音化에 對한 研究, 『논문집』 17, 제주대.
- _____ (1986), 濟州地域語의 中和現象에 對한 研究, 『논문집』 22, 제주대.
- _____ (1990), 高母音化現象과 音韻規則, 『심전김홍식교수화갑기념논총』, 동 간행위원회.
- _____ (2001), 濟州 地域語의 音韻論,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민수(1960), 국어문법 연구, 통문관.
- 金錫得(1966), 국어형태론, 한신문화사.
- 김영태(1983), 지명연구에 대하여, 『한국어 계통론 훈민정음 연구』, 집문당.
- 김윤학(1980), 강화도 화도면의 땅이름 연구, 『기전문화연구』 11집, 인천교대.
- _____ (1983a), 땅이름 연구방법론, 『국어교육논총』 제2집, 연세대.
- _____ (1983b), 생성과정에서 본 땅이름 연구-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기산리, 대안리, 덕목리, 신왕리-, 『문호』 8집, 건국대.
- _____ (1984), 충북 중원군 엄정면의 땅이름 연구-통일의 대상이 되었던 땅이름을 중심으로-, 『學術誌』 28, 건국대.
- _____ (1986), 한자말로 맞췄던 토박이말 땅이름과 토박이말 땅이름의 짜임새, 『인문과학논총』 제18집, 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 _____ (1987), 땅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부암 김승곤박사 화갑기념논총』, 건국대.
- _____ (1996) 땅이름 연구 -음운·형태-, 박이정.
- 김재학(1984), 경기도 시흥군 소재읍 땅이름 연구-땅이름의 유연성과 짜임새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정호(1994), 古地名의 kVr-系 語形에 對한 研究, 忠南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金鐘埴(1964), 地名의 한글 전용 問題, 『語文論集』 3, 중앙대.
- 김준영(1973), 韓國小地名 後部에 대한 語義上 考察, 『한국언어문학』, 형설출판사.
- _____ (1977), 한국소지명의 어의에 관한 고찰, 야천김교선선생 정년퇴임기념논총, 형설출판사.
- _____ (1985), 전북 소지명의 어원고, 『전라문화논총』 창간호, 전라문화연구소.
- _____ (1986), 전북 소지명의 어원, 『전라문화논총』 제1집, 전라문화연구소.
- 김태곤(2002), 중세국어 다의어와 어휘 변천, 박이정.
- 김택구(1987), 경남 사천군 서포면의 땅이름 연구-땅이름의 조어론적 짜임새 고찰-, 부암 김승곤 박사 화갑기념논총, 건국대.
- 김형규(1962) 국어사 연구, 일조각.
- _____ (1982), 地名形成에 나타난 形態素의 類型放-南海地方을 中心으로-, 『논문집』 제4집, 동아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 金洪植(1978), 濟州島地方의 地名에 대하여, 『논문집』 10, 제주대.
- _____ (1985), 濟州島地方의 地名語彙放(I), 『논문집』 21, 제주대.
- _____ (1986), 濟州島地方의 地名語彙放(II), 『논문집』 22, 제주대.
- 도수회(1994), 지명연구의 새로운 인식, 『새국어생활』 4-1, 국립국어연구원.
- 朴炳采(1968), 古代三國의 地名語彙放 - 三國史記 地理志의 複數地名을 중심으로, 『百山學報』 5, 百山學會.
- 朴相奎(1986), 濟州島地方에 나타난 altai 語彙要素考 : 특히 地名과 馬匹名에 대하여, 『濟州島研究』 3, 제주도연구회.
- _____ (1989), 濟州島 地名에 나타난 한 語學的 要素에 關한 小考, 『濟州島研究』 6, 제주도연구회.
- 박용후(1992), 耽羅 名義放, 『제주도』 34, 제주도청.
- 박종수(1983), 산청지방의 마을 이름에 대하여(I), 『진주문화』 4, 진주교대 진주문화연구소.
- 박태권(1973), 김해지방의 형태-지명의 조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해지방

- 종합학술보고서』, 부산대 한일문화연구소.
- 裴大濶(1979), 自然部落의 命名 有緣性에 關한 研究-尙州郡을 中心으로, 『논문집』 9, 상지실업전문대.
- _____ (1988), 지명 연구 들머리, 『국어학 논총』, 형설출판사.
- 배우리(1994), 우리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1, 토담.
- _____ (1994), 우리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2, 토담.
- 서병국(1975), 현대국어의 語構成 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광수(1980), 영동지방 지명에 대한 어원론적 연구,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송하진(1987), 제주도의 고유지명어의 보편소에 대하여, 『장태진박사회갑기념 國語國文學論叢』, 삼영사.
- _____ (1993), 삼국사기 지리지 지명의 국어학적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申敬淳(1973), 소지명어의 유형분류와 고유지명 대 한자지명의 대응관계 연구-충북일원을 대상으로-, 『청주교대논문』 9집, 청주교대.
- _____ (1975), 소지명어의 명명 유연성의 유형에 관한 연구-제천군 지명을 대상으로-, 『청주교대논문집』 12집, 청주교대.
- _____ (1977), 지명의 유형적 연구-충북지명을 중심으로, 명지대 대학원 석사논문.
- 沈汝澤(1972), 濟州島地名研究, 『논문집』 4, 제주대학.
- _____ (1975), 濟州島地名의 構成, 『國文學報』 7,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 양정식(1999), 제주도 지명어의 형태와 의미소 고찰,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영(1971), 전북지방 전래지명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어문학계 4)』, 문교부.
- _____ (1975), 地名 表記의 한 考察-龍飛御天歌 註解를 中心으로-, 『논문집』 8, 원광대.
- _____ (1979), 전래지명의 연구, 이회문화사.
- 유재원(1985), 현대 국어의 모음 충돌 회피 현상에 대하여, 『한글』 189, 한글학회.

- 俞昌均(1960), 古代 地名 表記의 聲母體系 - 主로 三國史記의 地理志를 中心으로, 『論文集』 3집, 청구대.
- _____ (1960), 日本語와 比較될 수 있는 古地名, 『국어국문학연구』 4집, 청구대.
- 尹平遠(1983), 地名語의 形態·音韻 研究-巨濟郡 地名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84), 지명어의 형태 고찰, 『새결 박태권 선생 회갑기념 논총』, 제일문화사.
- 이근규(1976a), 충남지방 지명의 接尾辭攷, 『한국언어문학』 14, 한국언어문학회.
- _____ (1976b), 충남내 지명고, 『어문론집』 2집, 충남대 국어국문과.
- 李敦柱(1965a), 전남지방의 지명에 관한 고찰, 『국어국문학』 제29호, 국어국문학회.
- _____ (1965b), 地名語辭의 Morpheme alternants에 對하여-全南地方의 地名을 中心으로, 『韓國言語文學』 3, 한국언어문학회.
- _____ (1966a), 莞島 地方 地名攷, 『호남문화연구』 4집, 전남대.
- _____ (1966b), 전남지방의 지명에 사용된 한자어의 분석적 연구 -한국지명연구의 서설로서-, 『국어국문학』 29, 국어국문학회.
- _____ (1968), 한국 지명한자어의 통계와 분석, 『논문집』 제14집, 전남대.
- _____ (1971), 地名語의 소재와 그 유형에 관한 비교 연구-지명의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글학회 50돌기념논문집』, 한글학회.
- _____ (1994), 지명의 전래와 그 유형성, 『새국어생활』 4-1, 국립국어연구원.
- 이석주(1989), 국어 형태론, 한샘출판.
- _____ ·이주행(1994), 국어학개론, 대한교과서(주).
- 이승녕(1985)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이영택(1986), 한국의 지명 -한국지명의 지리·역사적 고찰-, 태평양.
- 李庸周(1969), 한국어 어휘체계의 특징, 『국어교육』 1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_____ (1976), 韓國地名의 意味論的 有緣性에 관한 研究-忠淸北道 山名의 基盤을 中心으로-, 『師大論叢』 14, 서울대.
- _____ (1977), 충청북도 소재 하천명에 대하여, 『국어교육』 30, 한국국어교육

연구회.

- 李翊燮(1965), 국어복합명사의 IC 분석, 『국어국문학』 30, 국어국문학회.
- 李載允(1996), 牙山市 地名에 대한 國語學的 研究,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正龍(2001), 地名借字에 收容된 方位語辭 研究, 창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李周行(1981), 국어의 복합어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86, 국어국문학회.
- 이창섭(1973), 공주군 자연부락 地名考-어구조를 중심으로-, 『공주교대논문집』 10집, 공주교대.
- _____ (1981), 공주군 자연부락의 현대지명을 통한 북방계어와 남방계어 및 기타 고어의 유추분석, 『공주사범대논문집』 19집, 공주사대.
- 李喆洙(1980), 名稱科學의 論理-地名研究의 當面課題-, 『語文研究』 2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_____ (1982), 地名言語學研究序說(Ⅰ)-地名言語學의 研究領域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0권 3호, 一湖閣.
- _____ (1983a), 地名言語學研究序說(Ⅱ)-地名語源論을 중심으로-, 『論文集』 9, 인하대 人文科學研究所.
- _____ (1983b), 한일지명어의 비교 - /morih/ (山) 系 地名語素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44·45, 합병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희승(1932), 地名研究의 必要, 『한글』 1권 2호.
- 鄭 喆(1973a), 地名研究(其一) -의성·예천지구를 중심으로-, 『청계 김사업 박사 송수기념 논총』.
- _____ (1973b), 自然部落名の 形成, 『어문론총』 8, 경북대.
- 정승철(1994),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정인섭(1973), 국어음성학연구, 휘문출판사.
- 崔範勳(1969), 韓國地名學 研究序說, 『국어국문학』 42·43, 국어국문학회.
- _____ (1973), 固有語 地名研究, 『민족문화논총』, 삼중당.
- _____ (1975), 고유어 지명 접미사 연구-경기도 포천군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22·23 합병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_____ (1980), 濟州島地名研究, 『論文集』 8, 경기대.

- _____ (1983), 濟州島 特殊地名에 대하여, 『秋江黃希榮博士頌壽紀念論叢刊行委員會』, 집문당.
- 최현배(1968), 따 이름 연구의 뜻, 『외솔 최현배 박사 고회 기념 논문집』, 정음사.
- 한국지명학회(1998~2003), 지명학 1~9, 이회문화사.
- 허 옹(1985), 국어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 허재영(1989), 국어학적 성과를 중심으로 한 땅이름(지명어) 연구사, 『건국어문학』 제13·14호 합본호, 건국대 국어국문학연구회.
- 玄平孝(1961), 濟州道方言研究 -論考篇-, 精研社.
- _____ (1961), 濟州道方言研究 -第一輯資料篇-, 精研社.
- _____ (1964a), 濟州島方言 ‘ㄱ[ㄷ]’音에 대하여, 『國文學報』 2,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 _____ (1964b), 濟州島方言의 單母音設定, 『韓國言語文學』 2, 한국언어문학회.
- _____ (1966), 濟州島方言 形態素의 異形態에 대하여, 『가람李秉岐博士頌壽紀念論文集』, 동 간행위원회.
- _____ (1970), 濟州島方言의 母音體系, 『國文學報』 3, 제주대국어국문학과.
- _____ (1971), 濟州島方言形態構造의 調査研究, 문교부조사보고서.
- _____ (1990), 지명을 통해서 본 탐라언어의 원류, 『제우문화』 4, 방송대 제주 지역학생회.
- 홍순탁(1969), 전남 도서지방의 지명, 『어문학논집』 제5호,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_____ (1979), 진도의 지명, 『호남문화연구』 제10·11호 합본호,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Aronoff, M.(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I, Cambridge, Mass, Press.
- Jakendof, R.(1975), Morphological and Semantic Regularities in the Lexicon, Language 51, No 3.
- Martin S. E.(1954), Korean Morphonemics, Baltimore,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 Bloomfield, L.(1972), Phonological Theor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Shibatani, M.(1973), The Role of Surface Phonetic Constraints in Generative Phonology, Language 49.
- Sohn, H.(1977), On the regularization of the irregular Verb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13-1.
- Stampe, D.(1973), A dissertation on natural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Chomsky, N. and M. Halle.(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opper and Row.
- Matthews, P. H.(1974), Morphology, Cambridge, etc.,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man, L. M.(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Jakobson, and Halle(1956), Fundamentals of Language, The Hague: Mouton.
- Shane, S. A.(1973), Generative phon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부 록

부록으로 형태소 분석 자료와 그 분석 내용을 실었다. 순서는 ‘지명어, 형태소 분석, 형태소의 품사 및 성분, 결합 순서, 지역’ 순이다. 약호는 다음과 같다. 형태소 : M, 명사 : n, 수사 : 동사 : v, 형용사 : a, 부사 : ad, 관형어 : ap, 관형사 : d, 접두사 : p, 접미사 : s, 어근 : r, 어미 : e, 조사 : aw

가린내	가리+ㄴ+내	[vr+te+n]n	(MM)M	제주아라
가린내왓	가리+ㄴ+내+왓	[vr+te+n+n]n	((MM)M)M	제주아라
가린여	가리+ㄴ+여	[ar+te+n]n	(MM)M	서귀군남
가린여당	가리+ㄴ+여+당	[ar+te+n+n]n	((MM)M)M	서귀하효
가린질	가리+ㄴ+질	[vr+te+n]n	(MM)M	제주노형
가마귀동산	가마귀+동산	[n+n]n		제주영평
가마귀동산	가마귀+동산	[n+n]n		제주용담
가마귀빌레	가마귀+빌레	[n+n]n		제주영평
가마귀왓	가마귀+왓	[n+n]n		서귀수진
가마귀왓	가마귀+왓	[n+n]n		서귀염돈
가마귀창밧	가마귀+창+밧	[n+n+n]n	(MM)M	서귀상예
가메왓	가메+왓	[n+n]n		서귀영천
가막물	가막+물	[d+n]n		제주의도
가막술	가막+술	[n+n]n		제주아라
가막작깃물	가막+작지+물	[d+n+n]n	(MM)M	제주삼양
가막터	가막+터	[n+n]n		제주건입
가메물내	가메+물+내	[n+n+n]n	(MM)M	제주용강
가메왓	가메+왓	[n+n]n		서귀하예
가메통	가메+통	[n+n]n		서귀대포
가메팡	가메+팡	[n+n]n		제주건입
가메기동산	가메기+동산	[n+n]n		제주도평
가메물	가메+물	[n+n]n		제주도련
가메물	가메+물	[n+n]n		제주회천
가메물내	가메+물+내	[n+n+n]n	(MM)M	제주봉개
가메술깍	가메+술+깍	[n+n+n]n	(MM)M	서귀대포
가메술깍물	가메+술+깍+물	[n+n+n+n]n	((MM)M)M	서귀대포
가메왓	가메+왓	[n+n+n]n	(MM)M	제주삼양
가메왓	가메+왓	[n+n]n		제주영평
가메왓	가메+왓	[n+n]n		제주해안
가메터	가메+터	[n+n]n		제주도련
가메통	가메+통	[n+n]n		제주노형
가멧밧	가메+밧(집)+밧	[n+n+n]n	(MM)M	제주회천

가물도레	가물+도레	[n+n]n		제주이호
가문다리	가물+ㄴ+다리	[ar+e+n]n	(MM)M	서귀영천
가물개	가물+개	[d+n]n		제주삼양
가상골물	가상+골+물	[n+n+n]n	(MM)M	서귀하원
가새기드르	가새기+드르	[n+n+n]n	(MM)M	제주연동
가시기동산	가시기+동산	[n+n]n		서귀하원
가시나물동산	가시+남+물+동산	[n+n+n+n]n	((MM)M)M	제주연동
가시나물드르	가시+남+물+드르	[n+n+n+n]n	((MM)M)M	제주연동
가시남못	가시+남+못	[n+n+n]n	(MM)M	서귀영천
가시남밭	가시+남+밭	[n+n+n]n	(MM)M	제주봉개
가시낭물	가시+낭+물	[n+n+n]n	(MM)M	서귀천지
가시머들	가시+머들	[n+n]n		서귀정방
가시머들내	가시+머들+내	[n+n+n]n	(MM)M	서귀호근
가시머리	가시+머리	[n+n]n		서귀도순
가시머리물	가시+머리+물	[n+n+n]n	(MM)M	서귀동홍
가시물	가시+물	[n+n]n		서귀강정
가시물	가시+물	[n+n]n		서귀중문
가시물소	가시+물+소	[n+n+n]n	(MM)M	서귀강정
가시물소깍	가시+물+소+깍	[n+n+n+n]n	((MM)M)M	서귀강정
가시밭케	가시+밭+케	[n+n+n]n	(MM)M	서귀호근
가시왓케	가시+왓+케	[n+n+n]n	(MM)M	제주회천
가운디곤홀	가운디+곱+ㄴ+홀	[n+ar+e+n]n	M((MM)M)	제주화북
가운디몰리	가운디+몰리	[n+n]n		서귀동홍
가운디물	가운디+물	[n+n]n		서귀대포
가지깡이동산	가지깡이+동산	[n+n]n		제주영평
가지깡이동산	가지깡이+동산	[n+n]n		제주용강
가지벙디	가지+벙디	[n+n]n		제주아라
각시물	각시+물	[n+n]n		제주삼양
각시물	각시+물	[n+n]n		제주아라
각시물	각시+물	[n+n]n		제주영평
각시바위	각시+바위	[n+n]n		서귀호근
각시왓	각시+왓	[n+n]n		서귀토평
갈못	갈+못	[n+n]n		제주도련
갈못	갈+못	[vr+n]n		제주회천
갈치바당	갈치+바당	[n+n]n		제주건입
감남밭	감+남+밭	[n+n+n]n	(MM)M	서귀호근
감남밭	감+남+밭	[n+n+n]n	(MM)M	제주연동
감남밭	감+남+밭	[n+n+n]n	(MM)M	제주영평
감남밭	감+남+밭	[n+n+n]n	(MM)M	제주이호
감낭골	감+낭+골	[n+n+n]n	(MM)M	서귀토평
감낭골	감+낭+골	[n+n+n]n	(MM)M	제주아라
감낭동산	감+낭+동산	[n+n+n]n	(MM)M	서귀보목

감낭뱃	감+낭+뱃	[n+n+n]n	(MM)M	서귀 서귀
감낭뱃	감+낭+뱃	[n+n+n]n	(MM)M	서귀 하효
감낭뱃	감+낭+뱃	[n+n+n]n	(MM)M	제주아라
감낭뱃	감+낭+뱃	[n+n+n]n	(MM)M	제주월평
감낭우영	감+낭+우영	[n+n+n]n	(MM)M	제주영평
감낭하르방당	감+낭+하르방+당	[n+n+n]n	(MM)M	제주삼양
감수물	감수+물	[n+n]n		서귀 색달
감수여	감수+여	[n+n]n		서귀 색달
감은모살	감+은+모살	[artetn]n	(MM)M	제주이호
감은모살	감+은+모살	[artetn]n	(MM)M	제주이호
감은이므르	감+은+이+므르	[artets+n]n	((MM)M)M	제주월평
감저골	감저+골	[n+n]n		서귀 호근
감태여	감태+여	[n+n]n		서귀 중문
감태여	감태+여	[n+n]n		제주이호
감티동산	감티+동산	[n+n]n		서귀 서흥
감티동산	감티+동산	[n+n]n		제주영평
감티여	감티+여	[n+n]n		서귀 대포
갑실이동산	갑실+이+동산	[n+s+n]n	(MM)M	서귀 중문
갓머리왓동산	갓+머리+왓+동산	[n+n+n+n]n	((MM)M)M	서귀 강정
갓바치동산	갓+바치+동산	[n+s+n]n	(MM)M	제주봉개
갓쟁이뱃	갓+쟁이+뱃	[n+s+n]n	(MM)M	제주오라
갓쟁이왓	갓+쟁이+왓	[n+s+n]n	(MM)M	서귀 호근
강만이왓	강만+이+왓	[n+s+n]n	(MM)M	제주봉개
강뭇	강+뭇	[p+n]n		제주회천
강벌테왓	강+벌테+왓	[n+n+n]n	(MM)M	제주회천
강사공집터	강+사공+집+터	[n+n+n+n]n	((MM)M)M	제주회천
강생이퀘	강생+이+퀘	[n+n]n		서귀 호근
강서복산전	강서복+산전	[n+n]n		제주봉개
강시기바위	강시기+바위	[n+n]n		서귀 하효
강알왓	강알+왓	[n+n]n		제주노형
강알왓	강알+왓	[n+n]n		제주일도
강정모루	강정+모루	[n+n]n		서귀 월산
강정포구	강정+포구	[n+n]n		서귀 강정
강챙이드르	강챙+드르	[n+n]n		서귀 호근
개경	개+경	[n+n]n		서귀 월평
개경물	개+경+물	[n+n+n]n	(MM)M	서귀 월평
개구릅비당	개+구릅비+당	[n+n+n]n	(MM)M	서귀 강정
개구릅비코지	개+구릅비+코지	[n+n+n]n	(MM)M	서귀 강정
개금	개+금	[n+n]n		서귀 하예
개짱뭇	개짱+뭇	[n+n]n		제주삼양
개남뱃	개+남+뱃	[n+n+n]n	(MM)M	서귀 대포
개낭뱃	개+낭+뱃	[n+n+n]n	(MM)M	서귀 강정

개낭빳	개+낭+빳	[n+n+n]n	(MM)M	서귀 호근
개다리폭포	개+다리	[n+n]n		서귀 색달
개동돌레	개+동+돌레	[n+n+n]n	(MM)M	서귀 보목
개동산	개+동산	[n+n]n		제주오등
개드랏피	개+드라+피	[n+n]n		서귀 색달
개머리	개+머리	[n+n]n		서귀 보목
개머리	개+머리	[n+n]n		서귀 보목
개미목	개미+목	[n+n]n		제주아라
개미목빳	개미+목+빳	[n+n+n]n	(MM)M	제주오라
개밋돌	개미+돌	[n+n]n		서귀 색달
개므르	개+므르	[n+n]n		제주영평
개빌레	개+빌레	[n+n]n		서귀도순
개새기오름	개+새기+오름	[n+n+n]n	(MM)M	제주오라
개새미	개+새미	[n+n]n		서귀 상예
개소	개+소	[n+n]n		서귀도순
개썩구멍	개+썩+구멍	[n+n+n]n	(MM)M	제주용담
개역새미	개역+새미	[n+n]n		제주삼양
개오리오름	개오리+오름	[n+n]n		제주봉개
개올레	개+올레	[n+n]n		제주내도
개왓	개+왓	[n+n]n		서귀 보목
개우지코지	개우지+코지	[n+n]n		서귀 하효
개웃동네	개+웃+동네	[n+n+n]n	(MM)M	서귀 하예
개웃도	개웃+도	[n+n]n		제주해안
개창	개+창	[n+n]n		서귀 강정
개창여	개+창+여	[n+n+n]n	(MM)M	서귀 중문
갯갯지미	개+갯+지미	[n+n+n]n	(MM)M	제주용담
갯각	개+각	[n+n]n		서귀 상예
거리왓	거리+왓	[n+n]n		서귀도순
거리왓	거리+왓	[n+n]n		제주봉개
거린내	거리+ㄴ+내	[ar+te+n]n	(MM)M	서귀도순
거린내	거리+ㄴ+내	[ar+te+n]n	(MM)M	서귀 보목
거린내왓	거리+ㄴ+내+왓	[ar+te+n+n]n	((MM)M)M	서귀 보목
거린내질	거리+ㄴ+내+질	[ar+te+n+n]n	((MM)M)M	서귀 보목
거린돌	거리+ㄴ+돌	[ar+te+n]n	(MM)M	서귀 상예
거린사슴	거리+ㄴ+사슴	[ar+te+n]n	(MM)M	서귀 대포
거린춘남	거리+ㄴ+춘+남	[ar+te+n+n]n	(MM)(MM)	서귀 보목
거픈머들	검+은+머들	[ar+te+n]n	(MM)M	서귀 대포
거픈머들	검+은+머들	[ar+te+n]n	(MM)M	서귀 호근
거북빳	거북+빳	[n+n]n		제주내도
거북이동산	거북이+동산	[n+n]n		제주 화북
거슴물	거스+ㄴ+물	[vr+te+n]n	(MM)M	서귀 대포
거슴물	거스+ㄴ+물	[vr+te+n]n	(MM)M	서귀 상예

거슨새미	거스+ㄴ+새미	[vr+te+n]n	(MM)M	서귀호근
거슨세미	거슬+ㄴ+새미	[vr+te+n]n	(MM)M	제주연동
거육대산밭	거육대+사+ㄴ+밭	[n+vr+te+n]n	((MM)M)M	서귀중문
거육대왓	거육대+왓	[n+n]n		제주아라
거육대왓	거육대+왓	[n+n]n		제주영평
거육대왓	거육대+왓	[n+n]n		제주회천
거친오름	거칠+ㄴ+오름	[ar+te+n]n	(MM)M	제주봉개
거평낭동산	거평+낭+동산	[n+n+n]n	(MM)M	제주용강
격대왓	격대+왓	[n+n]n		서귀서흥
격대왓	격대+왓	[n+n]n		서귀영천
격대왓	격대+왓	[n+n]n		제주월평
건상모루	건상+ㅁ루	[n+n]n		서귀도순
건잣모루	건잣+ㅁ루	[n+n]n		서귀동홍
건저귀왓	건저귀+왓	[n+n]n		서귀영천
건지동산	건지+동산	[n+n]n		제주용강
걸시오름	걸시+오름	[n+n]n		제주연동
검북낭소	검북+낭+소	[n+n+n]n	(MM)M	서귀회수
검북새미	검북+새미	[n+n]n		제주오등
검북낭앞밭	검북+낭+앞+밭	[n+n+n+n]n	((MM)M)M	서귀영천
검시왓	검시+왓	[n+n]n		서귀호근
검은물도	검+은+물+도	[ar+te+n]n	((MM)M)M	제주월평
검은소	검+은+소	[ar+te+n]n	(MM)M	제주도평
검은소	검+은+소	[ar+te+n]n	(MM)M	제주의도
검은숫동산	검+은+소+동산	[ar+te+n+n]n	((MM)M)M	제주도남
검은이ㅁ르	검+은+이+ㅁ르	[ar+te+n+n]n	((MM)M)M	제주회천
검자리	검+자리	[ar+n]n		서귀대포
계여물	계여+물	[n+n]n		서귀색달
갱이돌래	갱이+돌래	[n+n]n		서귀보목
고개동산	고+가(哥)+동산	[n+s+n]n	(MM)M	서귀대포
고개동산	고+가+동산	[n+s+n]n	(MM)M	제주연동
고개드르	고+가(哥)+드르	[n+s+n]n	(MM)M	서귀호근
고갱이왓	고갱이+왓	[n+n]n		서귀중문
고계ㅁ를	고+가+ㅁ를	[n+s+n]n	(MM)M	제주화북
고계집터	고+가+집+터	[n+s+n+n]n	((MM)M)M	제주영평
고남돌	ㄱ남+돌	[n+n]n		서귀대포
고내소	고내+소	[n+n]n		제주의도
고냉이머들아즌밭	고냉이+머들+왓+은+밭	[n+n+vr+te+n]n	((MM)M)M)M	서귀강정
고냉이ㅁ르	고냉이+ㅁ르	[n+n]n		제주아라
고냉이소	고냉이+소	[n+n]n		서귀동홍
고냉이소	고냉이+소	[n+n]n		서귀서흥
고냉이소	고냉이+소	[n+n]n		서귀우남
고냉이소	고냉이+소	[n+n]n		서귀월평

고냉이소	고냉이+소	[n+n]n		서귀하원
고냉이통	고냉이+통	[n+n]n		서귀상예
고낭쾌	고낭+쾌	[n+n]n		제주도두
고냉이동산	고냉이+동산	[n+n]n		제주연동
고냉이동산	고냉이+동산	[n+n]n		제주노형
고냉이바위	고냉이+바위	[n+n]n		제주내도
고냉이왓	고냉이+왓	[n+n]n		제주이호
고냉이왓질	고냉이+왓+질	[n+n+n]n	(MM)M	제주이호
고는목	ㄱ느+ㄴ+목	[ar+et+n]n	(MM)M	서귀강정
고는참	ㄱ늬+참	[n+n]n		서귀호근
고대정논	고대정+논	[n+n]n		서귀강정
고대정밭	고+대정(大靜)+밭	[n+n+n]n	(MM)M	제주아라
고대통	고대+통	[n+n]n		서귀중문
고도리동산	고도리+동산	[n+n]n		제주내도
고도리여	고도리+여	[n+n]n		제주내도
고동장벙딤	고+동장+벙딤	[n+n+n]n	(MM)M	제주도련
고랑밭	고랑+밭	[n+n]n		제주아라
고래왓	고래+왓	[n+n]n		서귀호근
고래왓	ㄱ래+왓	[n+n]n		서귀호근
고레등밭	고레+등+밭	[n+n+n]n	(MM)M	제주이호
고른내	ㄱ르+ㄴ+내	[ar+et+n]n	(MM)M	서귀중문
고른참	ㄱ르+ㄴ+참	[vr+et+n]n	(MM)M	서귀호근
고막곶	고막+곶	[n+n]n		서귀신호
고막곶	고막+곶	[n+n]n		서귀하호
고망쾌	고망+쾌	[n+n]n		서귀중문
고망쾌왓	고망+쾌+왓	[n+n+n]n	(MM)M	제주연동
고망난돌	고망+나+ㄴ+돌	[n+vr+et+n]n	((MM)M)M	서귀보목
고망물	고망+물	[n+n]n		서귀동홍
고망물	고망+물	[n+n]n		제주외도
고망물	고망+물	[n+n]n		제주이호
고망물	고망+물	[n+n]n		제주해안
고벨장밭	고+벨장+밭	[n+n+n]n	(MM)M	제주이호
고복이곶	고복이+곶	[n+n]n		서귀상예
고부장우녕	고부장+우녕	[n+n]n		서귀서홍
고븐밭	곱+은+밭	[ar+et+n]n	(MM)M	서귀색달
고븐산전	곱+은+산전	[ar+et+n]n	(MM)M	서귀보목
고븐왓	곱+은+왓	[ar+et+n]n	(MM)M	서귀서홍
고븐절	곱+은+절	[ar+et+n]n	(MM)M	서귀용홍
고비여	고비+여	[ar+n]n		서귀보목
고사리ㄱ를	고사리+ㄱ를	[n+n]n		제주회천
고사리오름	고사리+오름	[n+n]n		서귀도순
고상머들	고상+머들	[n+n]n		서귀강정

고상여	고상여	[n+n]n		서귀색달
고스믈	고스+믈	[n+n]n		제주노형
고양모루	고양+모루	[n+n]n		서귀강정
고이방동산	고+이방+동산	[n+n+n]n	(MM)M	서귀하호
고장남밭	고장+남+밭	[n+n+n]n	(MM)M	서귀서홍
고장남밭	고장+남+밭	[n+n+n]n	(MM)M	서귀호근
고장남밭	고장+남+밭	[n+n+n]n	(MM)M	제주아라
고장남밭	고장+남+밭	[n+n+n]n	(MM)M	제주화북
고장런터	고+장런+터	[n+n+n]n	(MM)M	제주봉개
고장여	고장여	[n+n]n		서귀강정
고장이물	고+장이+물	[n+n+n]n	(MM)M	서귀용홍
고장이왓	고+장이+왓	[n+n+n]n	(MM)M	서귀보목
고제기터	고제기+터	[n+n]n		제주삼양
고주왓	고주+왓	[n+n]n		제주용강
고지물동산	고지+물+동산	[n+n+n]n	(MM)M	제주도련
고지왓	고지+왓	[n+n]n		제주봉개
고지왓	고지+왓	[n+n]n		제주삼양
고초간덕	고초+가+나+덕	[advr+te+n]n	((MM)M)M	서귀서홍
고풍언동산	고+풍언+동산	[n+n+n]n	(MM)M	서귀동홍
곶머체	곶+나+머체	[ar+te+n]n	(MM)M	서귀토평
곶절이맹이	곶절+이맹이	[n+n]n		서귀서홍
곶지리왓	곶지리+왓	[n+n]n		서귀영천
곶흘성창	곶+나+흘+성창	[ar+te+n+n]n	((MM)M)M	제주화북
곶각물	곶각+물	[adr+n]n		제주삼양
곶내미	곶+남+이	[n+vr+ts]n	(MM)M	제주해안
곶내미동산	곶+남+이+동산	[n+vr+st+n]n	((MM)M)M	제주해안
곶내미통	곶+남+이+통	[n+vr+st+n]n	((MM)M)M	제주해안
곶마금동네	곶+막+음+동네	[n+vr+te+n]n	((MM)M)M	서귀대포
곶목물방애터	곶목+물+방애+터	[n+n+n+n]n	(M(MM))M	제주용담
곶안목	곶+안+목	[n+n+n]n	(MM)M	서귀강정
곶왓	곶+왓	[n+n]n		서귀강정
곶왓	곶+왓	[n+n]n		서귀도순
곶왓	곶+왓	[n+n]n		서귀색달
곶왓	곶+왓	[n+n]n		서귀서홍
곶왓물	곶+왓+물	[n+n+n]n	(MM)M	제주봉개
곶챙이왓	곶챙+이+왓	[n+s+n]n	(MM)M	제주삼양
곶콧도	곶콧+도	[n+n]n		서귀서홍
곶내	곶+내	[n+n]n		서귀서홍
곶내동산	곶+내+동산	[n+n+n]n	(MM)M	서귀서홍
곶베물도	곶베+물+도	[n+n+n]n	(MM)M	제주아라
곶베술	곶베+술	[n+n]n		제주연동
곶베왓	곶베+왓	[n+n]n		제주회천

곶네패	곶+네패+ㄴ+패	[n+vr+e+n]n	((MM)M)M	제주오라
곶은개	곶+은+개	[ar+e+n]n	(MM)M	제주도두
곶은다리	곶+은+다리	[ar+e+n]n	(MM)M	제주도두
곶은성곶	곶+은+성+곶	[ar+e+n+n]n	(MM)(MM)	제주건입
곶은여	곶+은+여	[ar+e+n]n	(MM)M	제주이호
곶은자왓	곶+은+자+왓	[ar+e+n+n]n	((MM)M)M	제주도남
곶은자왓	곶+은+자+왓	[ar+e+n+n]n	((MM)M)M	제주아라
곶은자왓	곶+은+자+왓	[ar+e+n+n]n	((MM)M)M	제주연동
곶은자왓	곶+은+자+왓	[ar+e+n+n]n	((MM)M)M	제주영평
곶은자왓	곶+은+자+왓	[ar+e+n+n]n	((MM)M)M	제주용강
곶은자왓	곶+은+자+왓	[ar+e+n+n]n	((MM)M)M	제주월평
곶은자왓	곶+은+자+왓	[ar+e+n+n]n	((MM)M)M	제주이호
곶은자왓	곶+은+자+왓	[ar+e+n+n]n	((MM)M)M	제주화북
곶은터	곶+은+터	[ar+e+n]n	(MM)M	제주내도
공동뫼	공동+뫼	[n+n]n		서귀서흥
공물각	공+물+각	[n+n+n]n	(MM)M	서귀호근
공물각면여	공+물+각+면+ㄴ+여	[n+n+n+ar+e+n]n	((((MM)M)M)M)M	서귀호근
공새미	공+새+미	[n+n]n		서귀상예
공쟁이왓	공+쟁이+왓	[n+n]n		제주오라
곶드르	곶+드르	[n+n]n		제주아라
과원산진	과원+산진	[n+n]n		서귀서흥
관음굴	관음+굴	[n+n]n		서귀토평
광대물	광대+물	[n+n]n		제주오등
광대코지	광대+코지	[n+n]n		서귀하원
광대코지	광대+코지	[n+n]n		제주건입
광대코지앞석은빌레	광대+코지+앞+석+은+빌레	[n+n+n+vr+e+n]n	((MM)M)((MM)M)	제주건입
광대터	광대+터	[n+n]n		서귀대포
광이오름	광이+오름	[n+n]n		제주연동
괴기난덕	괴기+나+ㄴ+덕	[n+vr+e+n]n	((MM)M)M	서귀대포
괴기난덕봉오지	괴기+나+ㄴ+덕+봉오지	[n+vr+e+n+n]n	((((MM)M)M)M)	서귀대포
괴기덕	괴기+덕	[n+n]n		서귀서귀
구남당	구+남+당	[n+n+n]n	M(MM)	제주아라
구낭케질	구+낭+케+질	[n+n+n+n]n	((MM)M)M	서귀색달
구답	구+답	[p+n]n		서귀강정
구답물	구+답+물	[n+n]n		서귀서흥
구답터	구+답+터	[n+n+n]n	(MM)M	서귀대포
구덕진여	구+덕+지+ㄴ+여	[n+vr+e+n]n	((MM)M)M	서귀서귀
구덕찬돌	구+덕+차+ㄴ+돌	[n+vr+e+n]n	((MM)M)M	서귀신호
구들논동산	구+들+논+ㄴ+동산	[n+vr+e+n]n	((MM)M)M	제주영평
구랭이왓	구+랭이+왓	[n+n]n		서귀보목
구렁팻	구+렁+팻	[n+n]n		제주삼양
구렁곶	구+렁+곶	[n+n]n		제주건입

구릉동네	구릉+동네	[n+n]n		제주아라
구릉밭	구릉+밭	[n+n]n		제주월평
구릉앞밭	구릉+앞+밭	[n+n+n]n	(MM)M	제주아라
구린물	구리+ㄴ+물	[ar+e+n]n	(MM)M	서귀강정
구린질	구리+ㄴ+질	[ar+e+n]n	(MM)M	서귀대포
구린질	구리+ㄴ+질	[ar+e+n]n	(MM)M	서귀용흥
구린질	구리+ㄴ+질	[ar+e+n]n	(MM)M	서귀하원
구린질	구리+ㄴ+질	[ar+e+n]n	(MM)M	제주삼양
구린질	구리+ㄴ+질	[ar+e+n]n	(MM)M	제주외도
구멍이왓	구멍+이+왓	[n+n+n]n	(MM)M	제주도련
구멍이왓	구멍+이+왓	[n+s+n]n	(MM)M	제주영평
구멍골	구멍+골	[n+n]n		제주도평
구멍골	구멍+골	[n+n]n		제주일도
구멍굴	구멍+굴	[n+n]n		제주외도
구멍물	구멍+물	[n+n]n		서귀대포
구멍물	구멍+물	[n+n]n		서귀도순
구멍물	구멍+물	[n+n]n		서귀영천
구멍물	구멍+물	[n+n]n		제주외도
구멍물	구멍+물	[n+n]n		제주이호
구멍물내	구멍+물+내	[n+n+n]n	(MM)M	서귀색달
구몰래물	구+몰래+물	[d+n+n]n	M(MM)	제주도두
구븐돌	굽+은+돌	[ar+e+n]n	(MM)M	서귀강정
구상물	구+상+물	[n+n+n]n	(MM)M	서귀영천
구석다리	구석+다리	[n+n]n		제주삼양
구석질	구석+질	[n+n]n		서귀중문
구성ㄹ슬	구성(舊成)+ㄹ슬	[n+n]n		서귀신호
구슬왓	구슬+왓	[n+n]n		제주용담
구시논	구시+논	[n+n]n		서귀강정
구시목	구시+목	[n+n]n		서귀대포
구시물	구시+물	[n+n]n		서귀상예
구시물	구시+물	[n+n]n		서귀서흥
구시물	구시+물	[n+n]n		서귀호근
구시물	구시+물	[n+n]n		제주내도
구시물	구시+물	[n+n]n		제주연동
구시물	구시+물	[n+n]n		제주해안
구시물	구시+물	[n+n]n		제주회천
구시왓	구시+왓	[n+n]n		제주영평
구시흙	구시+흙	[n+n]n		서귀회수
구시흙통	구시+흙+통	[n+n+n]n	(MM)M	서귀강정
구재기돌	구재기+돌	[n+n]n		서귀대포
구재기돌	구재기+돌	[n+n]n		서귀대포
구쟁기잡는여	구쟁기+잡+는+여	[n+vr+e+n]n	((MM)M)M	서귀색달

구제기왓	구제기+왓	[n+n]n		제주아라
구제기왓	구제기+왓	[n+n]n		제주월평
구쟁이왓	구쟁이+왓	[n+n]n		제주내도
구진내도	궂+인+내+도	[ar+te+n+n]n	((MM)M)M	서귀영천
구진도	궂+인+도	[ar+te+n]n	(MM)M	서귀색달
구카름	구+카름	[p+n]n		서귀호근
구한질	구+한+질	[p+p+n]n	M(MM)	제주이호
국드르왓	국(菊)+드르+왓	[n+n+n]n	(MM)M	서귀보목
군두물	군두+물	[n+n]n		서귀보목
군물동산	군+물+동산	[p+n+n]n	(MM)M	서귀중문
굴가름	굴+가름	[n+n]n		서귀중문
굴계낭동산	굴계+낭+동산	[n+n+n]n	(MM)M	서귀대포
굴동산	굴+동산	[n+n]n		제주삼양
굴동산	굴+동산	[n+n]n		제주회천
굴렁밭	굴렁+밭	[n+n]n		제주건입
굴메소	굴메+소	[n+n]n		서귀영천
굴묵당밭	굴묵+당+밭	[n+n+n]n	(MM)M	제주봉개
굴왓	굴+왓	[n+n]n		서귀동홍
굴왓	굴+왓	[n+n]n		서귀하예
굴왓	굴+왓	[n+n]n		서귀하효
굴왓	굴+왓	[n+n]n		제주아라
굴왓	굴+왓	[n+n]n		제주아라
굴왓	굴+왓	[n+n]n		제주아라
굴왓	굴+왓	[n+n]n		제주연동
굴왓	굴+왓	[n+n]n		제주용담
굴왓	굴+왓	[n+n]n		제주월평
굴왓	굴+왓	[n+n]n		제주회천
굴왓가름	굴+왓+가름	[n+n+n]n	(MM)M	제주노형
굴왓동산	굴+왓+동산	[n+n+n]n	(MM)M	서귀강정
굽부리	굽+부리	[n+n]n		제주이호
굽드러진여	굽+들+어+지+ㄴ+여	[n+vr+e+vr+e+n]n	((((MM)M)M)M)M	서귀중문
굽은동산	굽+은+동산	[ar+te+n]n	(MM)M	제주해안
굽은여	굽+은+여	[ar+te+n]n	(MM)M	제주용담
궂밭거리	궂+밭+거리	[n+n+n]n	(MM)M	서귀호근
퀘기올레	퀘기+올레	[n+n]n		제주도두
퀘당	퀘+당	[n+n]n		제주용강
퀘도	퀘+도	[n+n]n		제주월평
퀘동산	퀘+동산	[n+n]n		서귀회수
퀘동산	퀘+동산	[n+n]n		제주도두
퀘동산	퀘+동산	[n+n]n		제주도평
퀘물	퀘+물	[n+n]n		제주연동
퀘물동산	퀘+물+동산	[n+n+n]n	(MM)M	제주연동

퀘에물	퀘에+물	[n+n]n		제주연동
퀘왓	퀘+왓	[n+n]n		제주영평
퀘왓	퀘+왓	[n+n]n		제주월평
퀘왓물	퀘+왓+물	[n+n+n]n	(MM)M	제주영평
퀘동산	퀘+동산	[n+n]n		제주삼양
퀘동산	퀘+동산	[n+n]n		제주아라
퀘동산	퀘+동산	[n+n]n		제주영평
퀘물	퀘+물	[n+n]n		제주삼양
퀘물밭	퀘+물+밭	[n+n+n]n	(MM)M	제주삼양
귀동산	귀+동산	[n+n]n		서귀하예
귀영여	귀영+여	[n+n]n		서귀보목
그릉밭	그릉+밭	[n+n]n		제주해안
글팻	글+팻	[n+n]n		제주영평
금성방밭	금+성방(刑房)+밭	[n+n+n]n	(MM)M	제주회천
기구렁	기+구렁	[n+n]n		제주이호
기동산	기+동산	[n+n]n		제주이호
기물	기+물	[n+n]n		제주해안
기정목	기정+목	[n+n]n		서귀대포
기진믄루	기+지+ㄴ+믄루	[n+vr+e+n]n	((MM)M)M	서귀영천
깡이바득	깡이+바득	[n+n]n		제주내도
ㄴ는새머채	ㄴ늘+ㄴ+새+머채	[ar+e+n+n]n	((MM)M)M	제주삼양
ㄴ는질	ㄴ늘+ㄴ+질	[ar+e+n]n	(MM)M	제주삼도
ㄴ래물	ㄴ래+물	[n+n]n		제주화북
ㄴ래소	ㄴ래+소	[n+n]n		서귀중문
ㄴ래머채	ㄴ래+머채	[n+n]n		제주화북
ㄴ래믄르	ㄴ래+믄르	[n+n]n		제주도련
ㄴ래믄르	ㄴ래+믄르	[n+n]n		제주삼양
ㄴ래소	ㄴ래+소	[n+n]n		제주도평
ㄴ래소동산	ㄴ래+소+동산	[n+n+n]n	(MM)M	제주도평
ㄴ막곶	ㄴ막+곶	[n+n]n		서귀보목
근자릿내	근자리+내	[n+n]n		제주노형
근자릿케왓	근자리+케+왓	[n+n+n]n	(MM)M	제주노형
근저리왓	근저리+왓	[n+n]n		제주해안
근저리케왓	근저리+케+왓	[n+n+n]n	(MM)M	제주연동
굴각물	굴각+물	[adr+n]n		제주아라
굴왓	굴+왓	[n+n]n		제주이호
굴체에움	굴체+에우+口	[n+vr+e]n	M(MM)	서귀보목
굴체에움여	굴체+에우+口+여	[n+vr+e+n]n	((MM)M)M	서귀보목
굴체웅텡이	굴체+웅텡이	[n+n]n		제주도두
꺫물	꺫+물	[n+n]n		서귀강정
꼬장돌	꼬장+돌	[ar+n]n		서귀색달
꼬짜돌(1)	꼬짜+돌	[ar+n]n		서귀대포

꼬작돌(2)	꼬작+돌	[ar+n]n		서귀대포
굉나뭇	굉+나(남)+뭇	[n+n+n]n	(MM)M	제주오등
굉택이왓	굉+택이+왓	[n+n+n]n	(MM)M	제주아라
굉동산	굉+동산	[n+n]n		제주오등
굉드르	굉+드르	[n+n]n		제주삼양
굉망동산	굉+망+동산	[n+n+n]n	(MM)M	서귀강정
굉망동산	굉+망+동산	[n+n+n]n	(MM)M	서귀색달
굉망동산	굉+망+동산	[n+n+n]n	(MM)M	서귀중문
굉망동산	굉+망+동산	[n+n+n]n	(MM)M	서귀하원
굉망동산	굉+망+동산	[n+n+n]n	(MM)M	제주영평
굉망동산	굉+망+동산	[n+n+n]n	(MM)M	제주회천
꼭오름	꼭+오름	[n+n]n		서귀영천
꼭드르	꼭+드르	[n+n]n		제주월평
기· ㅁ 아진여	기· ㅁ +아+지+ㄴ+여	[vr+te+vr+te+n]n	((MM)M)M	두제주도
나그네왓	나그네+왓	[n+n]n		서귀중문
나그네왓구명물	나그네+왓+구명+물	[n+n+n+n]n	(MM)(MM)	서귀중문
나는여	나+는+여	[ar+te+n]n	(MM)M	서귀강정
나니모들	나+니+모들	[n+n]n		서귀상예
나븐드리	납+은+드리	[ar+te+n]n	(MM)M	제주삼양
낙근소	낙+은+소	[vr+te+n]n	(MM)M	서귀천서
난드르	나+나+드르	[ar+te+n]n	(MM)M	서귀호근
난드르	나+나+드르	[vr+te+n]n	(MM)M	서귀하예
난보리즈베기	나+나+보리+즈베기	[vr+te+n+n]n	(MM)(MM)	제주도두
난생이왓	난생이+왓	[n+n]n		제주회천
난쟁이도	난쟁이+도	[n+n]n		서귀강정
남다리왓	남+다리+왓	[n+n+n]n	(MM)M	서귀영천
남당드르	남+당+드르	[n+n+n]n	(MM)M	제주화북
남문동산	남+문+동산	[n+n+n]n	(MM)M	제주삼양
남바치	남+바치	[n+n]n		서귀송산
남산동산	남+사+ㄴ+동산	[n+vr+te+n]n	((MM)M)M	서귀신호
남선밭	남+서+ㄴ+밭	[n+vr+te+n]n	((MM)M)M	제주회천
남조순오름	남+죇+은+오름	[n+vr+te+n]n	((MM)M)M	제주오라
남짓은오름	남+짓+은+오름	[n+ar+te+n]n	((MM)M)M	제주연동
남넨동산	남+내+ㄴ+동산	[n+vr+te+n]n	((MM)M)M	서귀회수
납작(납죽)이내	납작/납죽+이+내	[ar+s+n]n	(MM)M	제주삼양
납작여	납작+여	[ar+n]n		서귀보목
낭굴왓	낭+굴+왓	[n+n+n]n	(MM)M	서귀하효
내중난밭	내중+나+ㄴ+밭	[n+vr+te+n]n	((MM)M)M	서귀서흥
내창밭	내창+밭	[n+n]n		제주삼양
내팻	내+팻	[n+n]n		서귀서흥
내팻굴	내+팻+굴	[n+n+n]n	(MM)M	제주일도
넷깅	내+깅	[n+n]n		서귀강정

넷각	내+각	[n+n]n		제주건입
넷각	내+각	[n+n]n		제주용담
넷동네	내+동네	[n+n]n		제주내도
넷밭	내+밭	[n+n]n		제주아라
넷밭	내+밭	[n+n]n		제주아라
넷새왓	내+새+왓	[n+n+n]n	M(MM)	서귀서홍
넷서왓	내+서+왓	[n+n+n]n	M(MM)	서귀중문
넷세왓	내+세+왓	[n+n+n]n	(MM)M	제주연동
너른걸	너르+니+걸	[ar+te+n]n	(MM)M	서귀강정
너른넷도	너르+니+내+도	[ar+te+n+n]n	((MM)M)M	서귀중문
너른넷도	너르+니+내+도	[ar+te+n+n]n	((MM)M)M	서귀하원
너른도	너르+니+도	[ar+te+n]n	(MM)M	서귀하원
너른도	너르+니+도	[ar+te+n]n	(MM)M	제주봉개
너른도	너르+니+도	[ar+te+n]n	(MM)M	제주오등
너른머흘	너르+니+머흘	[ar+te+n]n	(MM)M	서귀강정
너른여	너르+니+여	[ar+te+n]n	(MM)M	서귀강정
너른여	너르+니+여	[ar+te+n]n	(MM)M	서귀대포
너른여	너르+니+여	[ar+te+n]n	(MM)M	제주내도
너른여	너르+니+여	[ar+te+n]n	(MM)M	제주의도
너벅돌	너벅+돌	[ar+n]n		서귀보목
너벅빌레	너벅+빌레	[n+n]n		서귀강정
너벅빌레	너벅+빌레	[n+n]n		서귀호근
너벅빌레	넙+억+빌레	[ar+s+n]n	(MM)M	제주화북
너벅술	너벅+술	[n+n]n		서귀서홍
너벅털	너벅+털	[n+n]n		서귀회수
너베기왓	넙+어+기+왓	[ar+s+n]n	(MM)M	제주연동
너베기케	너베+기+케	[n+n]n		서귀중문
너북여	너북+여	[ar+n]n		서귀보목
너분터	넙+은+터	[ar+te+n]n	(MM)M	서귀호근
너븐내	넙+은+내	[ar+te+n]n	(MM)M	서귀하예
너븐덕	넙+은+덕	[ar+te+n]n	(MM)M	서귀강정
너븐덕	넙+은+덕	[ar+te+n]n	(MM)M	서귀서귀
너븐물	넙+은+물	[ar+te+n]n	(MM)M	서귀강정
너븐물불턱	넙+은+물+불턱	[ar+te+n+n]n	((MM)M)M	서귀강정
너븐물원	넙+은+물+원	[ar+te+n+n]n	((MM)M)M	서귀강정
너븐밭	넙+은+밭	[ar+te+n]n	(MM)M	서귀강정
너븐밭	넙+은+밭	[ar+te+n]n	(MM)M	서귀대포
너븐밭	넙+은+왓	[ar+te+n]n	(MM)M	서귀중문
너븐여	넙+은+여	[ar+te+n]n	(MM)M	서귀서귀
너븐왓	넙+은+왓	[ar+te+n]n	(MM)M	서귀호근
너븐왕돌	넙+은+왕+돌	[ar+te+n+n]n	((MM)M)M	서귀상예
너븐왕돌	넙+은+왕+돌	[ar+te+n+n]n	((MM)M)M	서귀중문

너븐자리	넙+은+자리	[ar+te+n]n	(MM)M	제주용담
너븐길왓	넙+은+길+왓	[ar+te+n+n]n	((MM)M)M	서귀중문
너븐테역	넙+은+테역	[ar+te+n]n	(MM)M	제주도련
너븐팡	넙+은+팡	[ar+te+n]n	(MM)M	서귀동홍
너븐팡	넙+은+팡	[ar+te+n]n	(MM)M	서귀서홍
넉동짜리왓	넉+동+짜리+왓	[d+n+st+n]n	((MM)M)M	제주의도
넙거리	넙+거리	[ar+vr+s]n	(MM)M	서귀호근
넙거리안통	넙+거리+안+통	[ar+vr+n+n]n	((MM)M)M	서귀호근
넙빌레	넙+빌레	[ar+n]n		제주용담
넙여	넙+여	[ar+n]n		제주건입
넙은드르	넙+은+드르	[ar+te+n]n	(MM)M	제주노형
넙은밭	넙+은+밭	[ar+te+n]n	(MM)M	제주도두
넙은밭	넙+은+밭	[ar+te+n]n	(MM)M	제주연동
넙은밭	넙+은+밭	[ar+te+n]n	(MM)M	제주영평
넙은밭	넙+은+밭	[ar+te+n]n	(MM)M	제주오등
넙은밭	넙+은+밭	[ar+te+n]n	(MM)M	제주해안
넙은밭	넙+은+밭	[ar+te+n]n	(MM)M	제주화북
넙은술	넙+은+술	[ar+te+n]n	(MM)M	제주노형
넙은케	넙+은+케	[ar+te+n]n	(MM)M	제주봉개
넙은팡	넙+은+팡	[ar+te+n]n	(MM)M	제주삼양
넙은팡	넙+은+팡	[ar+te+n]n	(MM)M	제주아라
넙은팡	넙+은+팡	[ar+te+n]n	(MM)M	제주의호
넙작지	넙+작지	[ar+n]n		서귀동홍
넙짝여	넙+짝여	[ar+n]n		서귀대포
네나는돌	네+나+는+돌	[n+vr+te+n]n	((MM)M)M	제주영평
네성제돌	네+성제[兄弟]+돌	[d+n+n]n	(MM)M	서귀서귀
네커리	네+거리	[nu+n]n		서귀토평
네커리	네+거리	[nu+n]n		제주의호
노루오름	노루+오름	[n+n]n		서귀하원
노른빌레	노르+니+빌레	[ar+te+n]n	(MM)M	서귀월평
노리동산	노리+동산	[n+n]n		서귀신호
노리물	노리+물	[n+n]n		서귀상예
노리물동산	노리+물+동산	[n+n+n]n	(MM)M	서귀호근
노리오름	노리+오름	[n+n]n		제주봉개
노린빌레	노리+니+빌레	[ar+te+n]n	(MM)M	서귀호근
노무리왓	노무리+왓	[n+n]n		서귀호근
노뜰여	높+은+여	[ar+te+n]n	(MM)M	서귀서귀
녹남밭	녹+남+밭	[n+n+n]n	(MM)M	서귀보목
녹남굴	녹+남+굴	[n+n+n]n	(MM)M	제주화북
녹이드르	녹+이+드르	[n+st+n]n	(MM)M	제주회천
논골	논+골	[n+n]n		서귀용홍
논구석	논+구석	[n+n+n]n	(MM)M	서귀강정

논드르	논+드르	[n+n]n		제주해안
논밭	논+밭	[n+n]n		제주삼양
논빌레	논+빌레	[n+n]n		제주삼양
논쫓곳	논+쫓+곳	[n+n+n]n	(MM)M	제주내도
논쌈시물	논+쌈시+물	[n+n+n]n	(MM)M	제주내도
논쌈질	논+쌈+질	[n+n+n]n	(MM)M	제주내도
논앞밭	논+앞+밭	[n+n+n]n	(MM)M	서귀동홍
논파니	논+판+이	[n+n+s]n	(MM)M	제주영평
높은믄를	높+은+믄를	[ar+et+n]n	(MM)M	제주용강
누릉낭동산	누릉+낭+동산	[n+n+n]n	(MM)M	서귀하효
누알/니알	누+알	[n+n]n		서귀보목
누에여	누+에+여	[n+n]n		제주용담
누에여양탱이	누+에+여+양탱이	[n+n+n]n	(MM)M	제주용담
누운오름	눅+은+오름	[ar+et+n]n	(MM)M	제주해안
눈마진여	눈+맛+인+여	[n+vr+et+n]n	((MM)M)M	서귀서귀
눌덕	눌+덕	[n+n]n		서귀강정
눌동산	눌+동산	[n+n]n		제주해안
눌여	눌+여	[n+n]n		서귀대포
눌왓동산	눌+왓+동산	[n+n+n]n	(MM)M	서귀서홍
눌왓동산	눌+왓+동산	[n+n+n]n	(MM)M	제주연동
늣은이터	늣+은+이+터	[ar+et+s+n]n	((MM)M)M	제주아라
늣은이터	늣+은+이+터	[ar+et+s+n]n	((MM)M)M	제주화북
능화오름	능화+오름	[n+n]n		제주오라
늣커리왓	늣+거리+왓	[nu+n+n]n	(MM)M	제주연동
눌용이	눌+용+이	[vr+n+s]n	(MM)M	제주용강
다끄내	다끄+ㄴ+내	[ar+et+n]n	(MM)M	제주용담
다끄내동카름	다끄+ㄴ+내+동+카름	[ar+et+n+n+n]n	((MM)M)M)M	제주용담
다끄내물	다끄+ㄴ+내+물	[ar+et+n+n]n	((MM)M)M	제주용담
다끈개	다끄+ㄴ+개	[ar+et+n]n	(MM)M	제주용담
다람쥐께	다람쥐+께	[n+n]n		서귀중문
다래기동산	다래기+동산	[n+n]n		서귀보목
다린목	다리+목	[n+n]n		서귀강정
닥구통	닥+굽+통	[n+vr+n]n	(MM)M	서귀신호
닥굴동산	닥+굽+ㄹ+동산	[n+vr+et+n]n	((MM)M)M	서귀하효
닥남므르	닥+남+므르	[n+n+n]n	(MM)M	제주월평
닥남밭	닥+남+밭	[n+n+n]n	(MM)M	제주연동
닥돌래	닥+돌래	[n+n]n		서귀신호
닥돌래	닥+돌래	[n+n]n		서귀영천
닥돌래	닥+돌래	[n+n]n		서귀보목
닥밭	닥+밭	[ar+n]n		서귀서홍
단지므르	단지+므르	[n+n]n		제주화북
담내친밭	담+내+치+ㄴ+밭	[n+vr+et+n]n	((MM)M)M	제주영평

담넛밭	담+내+ㄴ+밭	[n+vr+te+n]n	((MM)M)M	제주 회천
담도루	담+드루	[n+n]n		서귀강정
담드린밭	담+들+인+밭	[n+vr+te+n]n	((MM)M)M	서귀중문
담머리코지	담+머리+코지	[n+n+n]n	(MM)M	서귀서귀
담밭	담+밭	[n+n]n		서귀서흥
담베목이	담+베+목+이	[n+n+ts]n	(MM)M	제주내도
담안논	담+안+논	[n+n]n		서귀강정
담층밭	담+층+밭	[n+n+n]n	(MM)M	제주봉개
담논물	담+논+물	[n+n+n]n	(MM)M	서귀서흥
답다니	답+다+ㄴ+이	[n+vr+ets]n	((MM)M)M	서귀영천
답다니	답+다+ㄴ+이	[n+vr+ets]n	((MM)M)M	서귀월평
답다니	답+다+ㄴ+이	[n+vr+ets]n	((MM)M)M	서귀토평
답다니	답+다+ㄴ+이	[n+vr+ets]n	((MM)M)M	서귀하예
답다니	답+다+ㄴ+이	[n+vr+ets]n	((MM)M)M	제주도남
답다니	답+다+ㄴ+이	[n+vr+ets]n	((MM)M)M	제주봉개
답다니	답+다+ㄴ+이	[n+vr+ets]n	((MM)M)M	제주연동
답다니	답+다+ㄴ+이	[n+vr+ets]n	((MM)M)M	제주영평
답다니	답+다+ㄴ+이	[n+vr+ets]n	((MM)M)M	제주용담
답단이질	답+다+ㄴ+이+질	[n+vr+ets+n]n	((MM)M)M)M	서귀월평
답밭	답+밭	[n+n]n		제주삼양
답아진밭	답+앗+인+밭	[n+vr+te+n]n	((MM)M)M	제주회천
닷밭	닷+밭	[n+n]n		제주외도
당가름	당+가름	[n+n]n		서귀서흥
당가름	당+가름	[n+n]n		제주봉개
당구리당	당+구리+당	[n+n]n		서귀보목
당남머채	당+남+머+채	[n+n+n]n	(MM)M	서귀동흥
당남새미	당+남+새+미	[n+n+n]n	(MM)M	서귀상예
당동물	당+동+물	[n+n]n		서귀중문
당동밭	당+동+밭	[n+n]n		서귀중문
당동산	당+동+산	[n+n]n		서귀서흥
당동산	당+동+산	[n+n]n		제주내도
당동산	당+동+산	[n+n]n		제주아라
당동산	당+동+산	[n+n]n		제주연동
당동산	당+동+산	[n+n]n		제주오라
당동산	당+동+산	[n+n]n		제주용담
당동산	당+동+산	[n+n]n		제주해안
당뒤	당+뒤	[n+n]n		서귀하예
당물	당+물	[n+n]n		제주연동
당밭	당+밭	[n+n]n		서귀도순
당밭	당+밭	[n+n]n		서귀서흥
당밭	당+밭	[n+n]n		서귀하원
당밭	당+밭	[n+n]n		제주내도

당빳	당+빳	[n+n]n		제주노형
당빳	당+빳	[n+n]n		제주노형
당빳	당+빳	[n+n]n		제주도평
당빳	당+빳	[n+n]n		제주봉개
당빳	당+빳	[n+n]n		제주아라
당빳	당+빳	[n+n]n		제주오등
당빳	당+빳	[n+n]n		제주의도
당빳	당+빳	[n+n]n		제주이호
당빳	당+빳	[n+n]n		제주회천
당빳므르	당+빳+므르	[n+n+n]n	(MM)M	제주삼양
당벵디	당+벵디	[n+n]n		제주영평
당불턱	당+불턱	[n+n]n		서귀대포
당술	당+술	[n+n]n		제주오등
당아진빳	당+앗+인+빳	[n+vr+e+n]n	((MM)M)M	서귀용흥
당앞	당+앞	[n+n]n		서귀호근
당앞개	당+앞+개	[n+n+n]n	(MM)M	서귀대포
당칩골목	당+칩+골목	[n+n+n]n	(MM)M	제주화북
당칩물	당+칩+물	[n+n+n]n	(MM)M	제주화북
당카름	당+카름	[n+n]n		제주삼양
당팻	당+팻	[n+n]n		서귀보목
당팻	당+팻	[n+n]n		제주봉개
당팻	당+팻	[n+n]n		제주삼양
당팻골목	당+팻+골목	[n+n+n]n	(MM)M	서귀동흥
당팻케	당+팻+케	[n+n+n]n	(MM)M	서귀도순
닷빳	닷+빳	[n+n]n		서귀중문
대궐터	대궐+터	[n+n]n		서귀강정
대궐터	대궐+터	[n+n]n		서귀서흥
대궐터골목	대궐+터+골목	[n+n+n]n	(MM)M	서귀서흥
대병빳	대+병+빳	[n+n+n]n	(MM)M	서귀보목
대서물	대+서+물	[n+n]n		서귀호근
대섬굴여	대+섬+굴+여	[n+n+n+n]n	((MM)M)M	서귀보목
대쇳빳	대+쇳+빳	[n+n+n]n	(MM)M	서귀보목
대쇳빳	대+쇳+빳	[n+n+n]n	(MM)M	서귀서흥
대영빳	대+영+빳	[n+n]n		제주도련
대영빳	대+영+빳	[n+n]n		제주용강
대왓	대+왓	[n+n]n		제주삼양
대왓	대+왓	[n+n]n		제주영평
대정질	대+정+질	[n+n]n		서귀호근
대추남빳	대+추+남+빳	[n+n+n]n	(MM)M	제주의도
대추남빳	대+추+남+빳	[n+n+n]n	(MM)M	제주이호
대추낭머세	대+추+낭+머+세	[n+n+n]n	(MM)M	제주오라
대추낭빳	대+추+낭+빳	[n+n+n]n	(MM)M	서귀강정

댓밭	대+밭	[n+n]n		제주삼양
덕굴	덕+굴	[n+n]n		서귀보목
덕대동산	덕대+동산	[n+n]n		제주영평
덕더리왓	덕+더리+왓	[n+n+n]n	(MM)M	서귀강정
덕덜이왓	덕덜+이+왓	[n+s+n]n	(MM)M	서귀도순
덕산이머새	덕+산+이+머새	[n+n+st+n]n	((MM)M)M	제주영평
덕지논	덕+지+논	[n+n+n]n	(MM)M	제주이호
덕지물	덕+지+물	[n+n+n]n	(MM)M	제주이호
덕지물동산	덕지+물+동산	[n+n+n+n]n	((MM)M)M	제주이호
던덕므르	던덕+므르	[n+n]n		제주월평
던득므르	던득+므르	[n+n]n		제주영평
덤벌왓	덤벌+왓	[n+n]n		서귀보목
덤베기소	덤베기+소	[n+n]n		서귀동홍
덧남도	덧+남+도	[n+n+n]n	(MM)M	제주아라
덧남밭	덧+남(낭)+밭	[n+n+n]n	(MM)M	제주도련
덧남밭	덧+남+밭	[n+n+n]n	(MM)M	서귀가가
덧여	덧+여	[p+n]n		서귀서귀
덩더렁우영	덩더렁+우영	[n+n]n		서귀서홍
도가터	도가+터	[n+n]n		제주이호
도갓터	도갓+터	[n+n]n		제주연동
도고리물	도고리+물	[n+n]n		제주오등
도고리소	도고리+소	[n+n]n		서귀서홍
도고리여	도고리+여	[n+n]n		제주용담
도고리왓	도고리+왓	[n+n]n		서귀영천
도고리왓	도고리+왓	[n+n]n		제주영평
도고리왓	도고리+왓	[n+n]n		제주월평
도고리원	도고리+원	[n+n]n		제주삼양
도그리물	도그리+물	[n+n]n		제주아라
도깨비서덕	도깨비+서덕	[n+n]n		제주오라
도깨밭	도깨+밭	[n+n]n		제주아라
도꼬남드르	도꼬+남+드르	[n+n+n]n	(MM)M	제주영평
도끼드르	도끼+드르	[n+n]n		서귀용홍
도끼질	도끼+질	[n+n]n		제주회천
도틀왓	도+트+르+왓	[n+vr+te+n]n	((MM)M)M	서귀신효
도라간덕	돌+아+가+르+덕	[vr+te+vr+te+n]n	((MM)M)M	서귀호근
도래오름	드래+오름	[n+n]n		서귀중문
도랭이왓	도랭이+왓	[n+n]n		서귀강정
도련동산	도련+동산	[n+n]n		서귀중문
도령므루	도령+므루	[n+n]n		제주용담
도롱골왓	도롱+골+왓	[n+n+n]n	(MM)M	서귀회수
도리물	돌[廻]+이+물	[vr+st+n]n	(MM)M	제주외도
도리소	도리+소	[n+n]n		제주용담

도리통(1)	도리+통	[n+n]n		서귀보목
도리통(2)	도리+통	[n+n]n		서귀보목
도릿발	드리+발	[n+n]n		서귀대포
도릿발개	드리+발+개	[n+n+n]n	(MM)M	서귀대포
도릿발엮댕이	드리+발+엮댕이	[n+n+n]n	(MM)M	서귀대포
도빌레	도+빌레	[n+n]n		서귀대포
도산오름	돛+안+오름	[ar+e+n]n	(MM)M	제주삼양
도새기므르	도새기+므르	[n+n]n		제주영평
도욕남모루	도욕+남+모루	[n+n+n]n	(MM)M	서귀도순
도욕남밭	도욕+남+밭	[n+n+n]n	(MM)M	서귀신효
도욕샘	도욕+샘	[n+n]n		서귀대포
도욕새미	도욕+새미	[n+n]n		서귀상예
도채비골	도채비+골	[n+n]n		서귀강정
도채비동산	도채비+동산	[n+n]n		서귀용흥
도채비서들	도채비+서들	[n+n]n		제주도남
도채비동산	도채비+동산	[n+n]n		제주아라
독동산	독+동산	[n+n]n		서귀대포
독소	독+소	[n+n]n		서귀도순
독수	독+수	[n+n]n		제주의도
독수리왓	독수리+왓	[n+n]n		제주연동
독송물	독+송+물	[n+n+n]n	(MM)M	제주해안
독지질	독+지+질	[n+n]n		서귀상예
돈내코	돛+내+코	[n+n+n]n	(MM)M	서귀영천
돌논케	돌+논+ㄱ+케	[n+vr+e+n]n	((MM)M)M	서귀하원
돌동산	돌+동산	[n+n]n		서귀월산
돌동산	돌+동산	[n+n]n		제주화북
돌드리	돌+드리	[n+n]n		제주삼양
돌룩밭	돌룩+밭	[ar+n]n		서귀강정
돌리왓	돌리+왓	[n+n]n		서귀강정
돌선밭	돌+서+ㄴ+밭	[n+vr+e+n]n	((MM)M)M	제주화북
돌송이	돌+송이	[n+n]n		서귀도순
돌좨인밭	돌+좨+인+밭	[n+ar+e+n]n	((MM)M)M	제주해안
돌코지	돌+코지	[n+n]n		제주도련
돌혹	돌+혹	[n+n]n		서귀호근
돛박곶흙	돛박+곶+흙	[n+n+n]n	(MM)M	제주도두
돛박남밭	돛박+남+밭	[n+n+n]n	(MM)M	서귀신효
돛박남우영	돛박+남+우영	[n+n+n]n	(MM)M	제주영평
돛박남수덕	돛박+남+수덕	[n+n+n]n	(MM)M	제주회천
돛박내	돛박+내	[n+n]n		제주회천
돛방+므루	돛박+므루	[n+n]n		서귀용흥
돛베낭골	돛베+낭+골	[n+n+n]n	(MM)M	서귀호근
돛베낭골여	돛베+낭+골+여	[n+n+n+n]n	((MM)M)M	서귀호근

뚝뚝이물	뚝뚝이+물	[n+n]n		서귀하에
뚝고리쌈	뚝고리+쌈	[n+n]n		서귀보목
뚝고리쌈깍	뚝고리+쌈+깍	[n+n+n]n	(MM)M	서귀보목
뚝고리쌈질	뚝고리+쌈+질	[n+n+n]n	(MM)M	서귀보목
뚝굽는엉	뚝+굽+는+엉	[n+vr+e+n]n	((MM)M)M	제주용강
뚝드르	뚝+드르	[n+n]n		서귀토평
뚝물동산	뚝+물+동산	[n+n+n]n	(MM)M	제주해안
뚝보랭이동산	뚝+보랭이+동산	[n+n+n]n	(MM)M	서귀보목
뚝소	뚝+소	[n+n]n		서귀호근
뚝오름	뚝+오름	[n+n]n		서귀하원
뚝장시믄르	뚝+장시+믄르	[n+n+n]n	(MM)M	제주영평
뚝트명	뚝+트명	[n+n]n		제주아라
둥가름	둥+가름	[n+n]n		서귀서흥
둥가름물	둥+가름+물	[n+n+n]n	(MM)M	서귀호근
둥가름세거리	둥+가름+세+거리	[n+n+d+n]n	(MM)(MM)	서귀서흥
둥개	둥+개	[n+n]n		서귀호근
둥개	둥+개	[n+n]n		제주이호
둥개알물	둥+개+알+물	[n+n+n+n]n	M((MM)M)	서귀대포
둥개지물	둥+개+지+물	[n+n+n]n	M(MM)	제주화북
둥갯굿	둥+갯+굿	[n+n+n]n	M(MM)	제주내도
둥걸	둥+걸	[n+n]n		제주삼양
둥검은덕	둥+검+은+덕	[n+ar+e+n]n	M((MM)M)	제주이호
둥검은드리	둥+검+은+드리	[n+ar+e+n]n	M((MM)M)	제주봉개
둥고대밭	둥+고대+밭	[n+n+n]n	(MM)M	서귀강정
둥고랑개왓	둥+고랑+개+왓	[n+n+vr+n]n	M(M(MM))	제주오라
둥곤홀	둥+곱+니+홀	[n+ar+e+n]n	M((MM)M)	제주화북
둥구쟁이여	둥+구쟁이+여	[n+n+n]n	M(MM)	제주삼양
둥근동산	둥+글+니+동산	[ar+e+n]n	(MM)M	서귀보목
둥글치	둥+글+치	[n+n]n		제주아라
둥꼐왓	둥+꼐+왓	[n+n+n]n	(MM)M	서귀대포
둥내	둥+내	[n+n]n		제주아라
둥너븐덕	둥+넙+은+덕	[n+ar+e+n]n	M((MM)M)	서귀서흥
둥너븐밭	둥+넙+은+밭	[n+ar+e+n]n	M((MM)M)	서귀강정
둥네커리	둥+네+거리	[n+nu+n]n	M(MM)	서귀토평
둥넉새집	둥+넉+새+집	[n+d+n]n	M(MM)	서귀토평
둥넉논	둥+넉+논	[n+n]n		서귀월평
둥더레도라아진덕	둥+더레+돌+아+왓+인+덕	[n+aw+vr+te+vr+te+n]n	(((((MM)M)M)M)M)M)	서귀대포
둥동네	둥+동+네	[n+n]n		서귀강정
둥동네	둥+동+네	[n+n]n		서귀호근
둥들낙개	둥+들+락+개	[n+vr+n]n	M(MM)	서귀대포
둥문터	둥+문+터	[n+n+n]n	(MM)M	서귀호근
둥문한질	둥+문+한+질	[n+n+p+n]n	(MM)(MM)	제주일도

동물	동+물	[n+n]n		제주용담
동물	동+물	[n+n]n		제주이호
동물개	동+물+개	[n+n+n]n	(MM)M	서귀강정
동물개	동+물+개	[n+n+n]n	(MM)M	서귀월평
동물원	동+물+원	[n+n+n]n	(MM)M	제주용담
동물작지	동+물+작지	[n+n+n]n	(MM)M	서귀강정
동+루여	동+루+여	[n+n+n]n	M(MM)	제주이호
동바위	동+바위	[n+n]n		서귀색달
동박남술	동박+남+술	[n+n+n]n	(MM)M	제주도평
동박낭모생이	동박+낭+모생이	[n+n+n]n	(MM)M	서귀서홍
동박낭모생이물	동박+낭+모생이+물	[n+n+n+n]n	((MM)M)M	서귀서홍
동방낭드르	동박+낭+드르	[n+n+n]n	(MM)M	서귀호근
동배우못	동+배우+못	[n+n+n]n	M(MM)	서귀우남
동벙디	동+벙디	[n+n]n		제주도두
동벙디	동+벙디	[n+n]n		제주도련
동벙디	동+벙디	[n+n]n		제주연동
동벙디	동+벙디	[n+n]n		제주해안
동병디	동+병디	[n+n]n		서귀동홍
동병디	동+병디	[n+n]n		서귀월평
동빌레	동+빌레	[n+n]n		제주도두
동빌레	동+빌레	[n+n]n		제주연동
동산가름	동산+가름	[n+n]n		제주봉개
동산가름	동산+가름	[n+n]n		제주외도
동산케	동산+케	[n+n]n		서귀토평
동산논	동산+논	[n+n]n		서귀강정
동산드리	동산+드리	[n+n]n		제주오라
동산물	동산+물	[n+n]n		제주용담
동산밭	동산+밭	[n+n]n		서귀상예
동산밭	동산+밭	[n+n]n		서귀용홍
동산밭	동산+밭	[n+n]n		제주삼양
동산밭	동산+밭	[n+n]n		제주아라
동산밭	동산+밭	[n+n]n		제주용담
동산밭	동산+밭	[n+n]n		제주회천
동산밭	동산+밭	[n+n]n		제주회천
동산여	동산+여	[n+n]n		제주삼양
동산털	동산+털	[n+n]n		서귀도순
동상장+드르	동+상장+드르	[n+n+n]n	M(MM)	제주삼양
동새미	동+새미	[n+n]n		제주월평
동수	동+수	[n+n]n		서귀대포
동수동네	동+수+동네	[n+n+n]n	(MM)M	서귀대포
동애기	동+애기	[n+n]n		서귀보목

동언새미	동+얼+ㄴ+새미	[n+ar+e+n]n	M((MM)M)	서귀호근
동우영	동+우영	[n+n]n		서귀강정
동우영	동+우영	[n+n]n		제주삼양
동이물	동+이+물	[n+n]n		제주오라
동이물	동+이+물	[n+n]n		제주월평
동이왓	동+이+왓	[n+n]n		제주회천
동접밭	동+접[契]+밭	[n+n+n]n	M(MM)	제주오등
동정도	동+정+도	[n+n+n]n	M(MM)	서귀강정
동지겹	동+지겹	[n+n]n		서귀강정
동진ㄹ루	동+질+ㄴ+ㄹ루	[n+ar+e+n]n	M((MM)M)	서귀영천
동착원	동+착+원	[n+n+n]n	M(MM)	제주용담
동착의	동+착+의	[n+n+s]n	(MM)M	제주건입
동착할망여	동+착(쪽)+할망+여	[n+n+n+n]n	(MM)(MM)	제주외도
동칩	동+칩	[n+n]n		서귀신희
동카름	동+카름	[n+n]n		제주내도
동카름	동+카름	[n+n]n		제주내도
동카름	동+카름	[n+n]n		제주도두
동카름	동+카름	[n+n]n		제주도두
동카름	동+카름	[n+n]n		제주도두
동카름	동+카름	[n+n]n		제주삼양
동카름	동+카름	[n+n]n		제주삼양
동카름	동+카름	[n+n]n		제주삼양
동카름	동+카름	[n+n]n		제주오라
동카름	동+카름	[n+n]n		제주해안
동카름밭	동+카름+밭	[n+n+n]n	(MM)M	제주회천
동카름성창	동+카름+성창	[n+n+n]n	(MM)M	제주삼양
동카름질	동+카름+질	[n+n+n]n	(MM)M	제주내도
동케	동+케	[n+n]n		제주도련
동코지	동+코지	[n+n]n		서귀대포
동큰굴	동+크+ㄴ+굴	[n+ar+e+n]n	M((MM)M)	서귀신희
동테왓	동+테+왓	[n+n+n]n	M(MM)	제주도련
동한두기	동+한+독+이	[n+p+n+s]n	M((MM)M)	제주용담
동한ㄹ루	동+한+ㄹ루	[n+p+n]n	M(MM)	제주월평
동한질	동+한+질	[n+p+n]n	M(MM)	제주삼양
두계물	두+계+물	[n+n]n		서귀중문
두계비동산	두+계비+동산	[n+n]n		제주삼도
두계비왓	두+계비+왓	[n+n]n		제주삼도
두내뜸	두+내+뜸	[d+n+n]n	(MM)M	서귀호근
두돌왓	두+돌+왓	[d+n+n]n	(MM)M	서귀상예
두리여	두+리+여	[n+n]n		서귀대포
뚝부소	뚝+부+소	[n+n]n		서귀보목
둥돌왓흙	둥+돌+왓+흙	[ar+n+n]n	(MM)M	서귀도순

뒤곶동산	뒤+곶+동산	[n+n+n]n	(MM)M	제주 화북
뒤원	뒤+원	[n+n]n		제주도두
뒤원빌레	뒤+원+빌레	[n+n+n]n	(MM)M	제주도두
뒷가름못	뒤+가름+못	[n+n+n]n	(MM)M	서귀가가
뒷곶	뒤+곶	[n+n]n		제주 화북
뒷동산	뒤+동산	[n+n]n		서귀서흥
뒷동산	뒤+동산	[n+n]n		서귀신호
뒷동산	뒤+동산	[n+n]n		서귀호근
뒷동산	뒤+동산	[n+n]n		제주도련
뒷동산	뒤+동산	[n+n]n		제주아라
뒷동산	뒤+동산	[n+n]n		제주영평
뒷동산	뒤+동산	[n+n]n		제주영평
뒷동산	뒤+동산	[n+n]n		제주이호
뒷동산	뒤+동산	[n+n]n		제주삼양
뒷머흘	뒤+머흘	[n+n]n		서귀강정
뒷밭	뒤+밭	[n+n]n		제주회천
뒷밭	뒤+밭	[n+n]n		제주오라
뒷병디	뒤+병디	[n+n]n		서귀색달
뒷병디	뒤+병디	[n+n]n		서귀서흥
뒷병디	뒤+병디	[n+n]n		서귀천지
뒷빌레	뒤+빌레	[n+n]n		제주외도
뒷새왓	뒤+새+왓	[n+n+n]n	M(MM)	제주아라
뒷술	뒤+술	[n+n]n		제주봉개
뒷술머세	뒤+술+머세	[n+n+n]n	(MM)M	제주도남
뒷코지	뒤+코지	[n+n]n		제주 화북
드르생이	드르+생이	[n+ts]n		제주회천
드르세미	드르+세미	[n+n]n		제주연동
드룻구룽	드르+구룽	[n+n]n		제주노형
든드르	들+ㄴ+드르	[vr+te+n]n	(MM)M	서귀하예
든물건지	들+ㄴ+물+건지	[vr+te+n+n]n	((MM)M)M	제주 화북
든몰여	들+ㄴ+몰+여	[vr+te+n+n]n	((MM)M)M	제주이호
들굽낭동산	들굽+낭+동산	[n+n+n]n	(MM)M	제주아라
들렁께	들르+엇+께	[vr+te+n]n	(MM)M	서귀색달
들렁귀	들르+엇+귀	[vr+te+n]n	(MM)M	제주오등
들렁모루	들렁+모루	[n+n]n		서귀서흥
들물꼭지	들+물+꼭지	[vr+n+n]n	(MM)M	서귀보목
들쇠우녕	들+쇠+우녕	[n+n+n]n	(MM)M	서귀상예
들은돌	들+은+돌	[vr+te+n]n	(MM)M	제주삼양
듬북개	듬북+개	[n+n]n		제주외도
듬북께	듬북+께	[n+n]n		제주외도
등경소	등경+소	[n+n]n		제주노형
등대알석은빌레	등대+알+석+은+빌레	[n+n+vr+te+n]n	(MM)((MM)M)	제주건입

등돌거리	들+ㅁ+돌+거리	[vr+te+n+n]n	((MM)M)M	제주용담
등돌거리	들+ㅁ+돌+거리	[vr+te+n+n]n	((MM)M)M	제주화북
등므르왓	등+므르+왓	[n+n+n]n	(MM)M	제주이호
등지모루	등지+므루	[n+n]n		서귀중문
드라미	드라+미	[n+n]n		서귀신호
드리코지	드리+코지	[n+n]n		제주내도
드신목	드시+ㄴ+목	[ar+te+n]n	(MM)M	제주화북
득계통	득계+통	[n+n]n		서귀보목
득동산	득+동산	[n+n]n		서귀하효
득통	득+통	[n+n]n		서귀하효
득통우영	득+통+우영	[n+n+n]n	(MM)M	제주회천
든물각	들+ㄴ+물+각	[ar+te+n+n]n	((MM)M)M	서귀강정
든물각원	들+ㄴ+물+각+원	[ar+te+n+n+n]n	((MM)M)M)M	서귀강정
든물내	들+ㄴ+물+내	[ar+te+n+n]n	((MM)M)M	제주회천
든물동산	들+ㄴ+물+동산	[ar+te+n+n]n	((MM)M)M	제주월평
든물왓	들+ㄴ+물+왓	[ar+te+n+n]n	((MM)M)M	제주월평
든물통	들+ㄴ+물+통	[ar+te+n+n]n	((MM)M)M	제주아라
들레새미	들레+새미	[n+n]n		제주월평
들랭이왓	들랭이+왓	[n+n]n		제주이호
떡빋돌	떡+빋+돌	[n+n+n]n	(MM)M	서귀대포
떼무소	떼+물+소	[n+n+n]n	(MM)M	제주아라
똥통	똥+통	[d+n]n		서귀월평
똥낭물	똥+낭+물	[n+n+n]n	(MM)M	서귀대포
뜸돌거리	들+ㅁ+돌+거리	[vr+te+n+n]n	((MM)M)M	제주도두
마구리물	마구리+물	[n+n]n		제주도두
마근골	막+은+골	[ar+te+n]n	(MM)M	서귀색달
마근골동네	막+은+골+동네	[vr+te+n+n]n	((MM)M)M	서귀도순
마근물	막+은+물	[vr+te+n]n	(MM)M	서귀영천
마근소	막+은+소	[vr+te+n]n	(MM)M	서귀서흥
마근창	막+은+창	[vr+te+n]n	(MM)M	서귀도순
마계낭밭	마계+낭+밭	[n+n+n]n	(MM)M	제주영평
마계코지	마계+코지	[n+n]n		제주내도
마세기왓	마세기+왓	[n+n]n		제주외도
마왓	마+왓	[n+n]n		제주회천
마장밭	마장+밭	[n+n]n		서귀호근
마풀림동산	마+풀+리+ㅁ+동산	[n+vr+ste+n]n	((MM)M)M)M	서귀호근
막개남산밭	막개+남+사+ㄴ+밭	[n+n+vr+te+n]n	((MM)M)M)M	서귀중문
막개남통	막개+남+통	[n+n+n]n	(MM)M	서귀호근
막개낭밭	막개+낭+밭	[n+n+n]n	(MM)M	서귀서흥
막동산	망+동산	[n+n]n		서귀호근
막바우	막+바우	[n+n]n		제주도두
막바위	막+바위	[n+n]n		제주이호

막바위여	막+바위+여	[n+n+n]n	(MM)M	제주이호
막봉우지	막+봉우지	[n+n]n		서귀강정
막산이왓	막산+이+왓	[n+s+n]n	(MM)M	제주노형
막쉬드르	막+쉬+드르	[vr+s+n]n	(MM)M	제주봉개
막은골	막+은+골	[vr+e+n]n	(MM)M	제주일도
막은다리	막+은+다리	[ar+e+n]n	(MM)M	서귀색달
막은이굴	막+은+이+굴	[vr+e+s+n]n	((MM)M)M	제주연동
만근이왓	만근+이+왓	[n+s+n]n	(MM)M	제주화북
말물	말+물	[n+n]n		제주용담
말물[斗水]	말+물	[n+n]n		제주도두
말죽밭	말죽+밭	[n+n]n		서귀보목
말축밭	말축+밭	[n+n]n		서귀신호
망골	망+골	[n+n]n		서귀하원
망녕이왓	망녕+이+왓	[n+n]n		서귀서흥
망다리	망+다리	[n+n]n		서귀호근
망다리	망+다리	[n+n]n		서귀호근
망다리알여	망+다리+알+여	[n+n+n+n]n	((MM)M)M	서귀호근
망동산	망+동산	[n+n]n		제주삼양
망동산	망+동산	[n+n]n		서귀서흥
망동산	망+동산	[n+n]n		서귀하호
망동산	망+동산	[n+n]n		제주용강
망동산	망+동산	[n+n]n		제주화북
망므르	망+므르	[n+n]n		제주오등
망밭	망+밭	[n+n]n		서귀호근
망보논돌	망보+논+돌	[vr+e+n]n	(MM)M	서귀보목
망새모루	망새+모루	[n+n]n		서귀하원
망알여	망+알+여	[n+n+n]n	(MM)M	제주의도
망알원	망+알+원	[n+n+n]n	(MM)M	제주의도
망앞	망+앞	[n+n]n		서귀서흥
망여	망+여	[n+n]n		서귀서귀
망오름	망+오름	[n+n]n		제주삼양
망팻	망+팻	[n+n]n		서귀강정
망팻	망+팻	[n+n]n		서귀호근
망팻동네	망+팻+동네	[n+n+n]n	(MM)M	서귀하예
매남빌레	매+남+빌레	[n+n+n]n	(MM)M	서귀영천
매동산	매+동산	[n+n]n		제주용담
매동산	매+동산	[n+n]n		제주도남
매모루	매+모루	[n+n]n		서귀강정
매모루	매+모루	[n+n]n		서귀서흥
매모루	매+모루	[n+n]n		서귀하예
매모루	매+모루	[n+n]n		서귀호근
매므르동산	매+므르+동산	[n+n+n]n	(MM)M	제주회천

매밭	매+밭	[n+n]n		제주아라
매부리여	매부리+여	[n+n]n		제주도두
매아진들	매+앗+인+들	[n+vr+e+n]n	((MM)M)M	서귀 호근
매아진밭	매+앗+인+밭	[n+vr+e+n]n	((MM)M)M	제주 회천
매화골	매화+골	[n+n]n		제주의도
맥수물	맥+수+물	[n+n+n]n	(MM)M	서귀 서흥
맨막바위	맨+막+바위	[d+n+n]n	(MM)M	제주 이호
맹꽁물	맹꽁+물	[n+n]n		제주 건입
맹태왓	맹태+왓	[n+n]n		서귀 회수
머구남드로	머구+남+드로	[n+n+n]n	(MM)M	제주 해안
머구남드르	머구+남+드르	[n+n+n]n	(MM)M	제주 월평
머구남밭	머구+남+밭	[n+n+n]n	(MM)M	제주 노형
머구남밭	머구+남+밭	[n+n+n]n	(MM)M	제주 영평
머구낭동산	머구+낭+동산	[n+n+n]n	(MM)M	서귀 색달
머구낭물	머구+낭+물	[n+n+n]n	(MM)M	제주 용담
머귀낭동산	머귀+낭+동산	[n+n+n]n	(MM)M	서귀 월평
머들왓	머들+왓	[n+n]n		제주 회천
머들좃인밭	머들+좃+인+밭	[n+art+e+n]n	((MM)M)M	제주 회천
머들툼	머들+툼	[n+n]n		서귀 강정
머레기동산	머레기+동산	[n+n]n		서귀 토평
머리한밭	머리+하+나+밭	[n+art+e+n]n	((MM)M)M	제주 용강
머생이왓	머생이+왓	[n+n]n		서귀 강정
머세왓	머채+왓	[n+n]n		제주 연동
머왓	머을+왓	[n+n]n		제주 용강
머을동산	머을+동산	[n+n]n		서귀 보목
머을왓	머을+왓	[n+n]n		서귀 회수
머을왓	머을+왓	[n+n]n		제주 아라
머을왓	머을+왓	[n+n]n		제주 회천
머채왓	머채+왓	[n+n]n		서귀 동흥
머채동산	머채+동산	[n+n]n		서귀 토평
머흔저리	머흔+저리	[n+n]n		서귀 호근
머흘동산	머흘+동산	[n+n]n		서귀 보목
머흘팻	머흘+밭	[n+n]n		서귀 강정
머구슬동산	머구슬+동산	[n+n]n		서귀 용흥
머는물도	머+는+물+도	[vr+e+n+n]n	((MM)M)M	서귀 도순
머돌개	머돌+개	[n+n]n		제주 건입
머돌개	머돌+개	[n+n]n		제주 화북
머돌왓	머돌+왓	[n+n]n		제주 오라
머돌왓동산	머+돌+왓+동산	[n+n+n+n]n	((MM)M)M	서귀 상예
먼남소	먼+남+소	[n+n+n]n	(MM)M	서귀 동흥
먼내모슬	먼+내+모+슬	[art+e+n+n]n	((MM)M)M	서귀 중문
먼대여	먼+내+대+여	[art+e+n+n]n	((MM)M)M	서귀 강정

면모루	면+모루	[n+n]n		서귀우남
면모르	면+나+모루	[ar+te+n]n	(MM)M	서귀색달
면모르	면+나+모르	[ar+te+n]n	(MM)M	제주삼양
면모르동산	면+나+모르+동산	[ar+te+n+n]n	((MM)M)M	제주삼양
면모를	면+나+모를	[ar+te+n]n	(MM)M	제주해안
면안강정여	면+나+안+강정+여	[ar+te+n+n+n]n	(MM)(M(MM))	서귀강정
면앞밭	면+나+앞+밭	[ar+te+n+n]n	((MM)M)M	제주연동
면여	면+나+여	[ar+te+n]n	(MM)M	서귀서귀
면동산	면+동산	[n+n]n		서귀보목
면왓	면+왓	[n+n]n		서귀서흥
면왓	면+왓	[n+n]n		제주아라
면왓	면+왓	[n+n]n		제주월평
면왓모루	면+왓[火田]+모루	[n+n]n		서귀서흥
면모르	면+모르	[n+n]n		제주회천
면역새동산	면+역새+동산	[n+n]n		제주삼양
면뜰통	면+뜰+나+동	[n+vr+te+n]n	((MM)M)M	서귀서흥
면케원	면+케+원	[n+n+n]n	(MM)M	제주외도
면마구리왓	면+마구리+왓	[n+n]n		제주회천
면이모루	면+이+모루	[n+n]n		서귀호근
면지모르	면+지+모르	[n+n]n		제주삼양
면지모르질	면+지+모르+질	[n+n+n]n	(MM)M	제주삼양
면도리코지	면+도리+코지	[n+n]n		서귀서귀
면라리오름	면+라리+오름	[n+n]n		서귀색달
면래왓	면+래+왓	[n+n]n		제주건입
면레기도	면+레+기+도	[vr+st+n]n	(MM)M	서귀영천
면로기터	면+로+기+터	[vr+st+n]n	(MM)M	제주영평
면롬터	면+롬+터	[n+n]n		서귀중문
면루왓	면+루+왓	[n+n]n		서귀도순
면살뽑지	면+살+뽑지	[n+n]n		서귀호근
면살덕	면+살+덕	[n+n]n		서귀강정
면살도	면+살+도	[n+n]n		서귀도순
면살밭	면+살+밭	[n+n]n		제주노형
면살밭	면+살+밭	[n+n]n		제주삼양
면살왓	면+살+왓	[n+n]n		서귀영천
면살왓	면+살+왓	[n+n]n		제주아라
면살왓	면+살+왓	[n+n]n		제주월평
면살왓	면+살+왓	[n+n]n		제주이호
면살원	면+살+원	[n+n]n		서귀강정
면살원	면+살+원	[n+n]n		제주용담
면슬논	면+슬+논	[n+n]n		서귀호근
면시기정	면+시+기+정	[n+n]n		서귀중문
면시모루	면+시+모루	[n+n]n		서귀도평

모광	모+광	[n+n]n		서귀영천
목지동산	목지+동산	[n+n]n		서귀월평
몰똥여	몰+똥+여	[n+n+n]n	(MM)M	서귀강정
몰래물	몰래+물	[n+n]n		제주도두
몰래왓	몰래+왓	[n+n]n		제주이호
몰래왓	몰래+왓	[n+n]n		제주이호
몰망올리는디	몰망+올리+는+디	[n+vr+e+n]n	((MM)M)M	서귀서흥
몰물도	몰+물+도	[n+n+n]n	(MM)M	서귀서흥
몰소낭빳	몰+솔+낭+빳	[n+n+n+n]n	M((MM)M)	서귀하예
몰질	몰+질	[n+n]n		서귀강정
몰질	몰+질	[n+n]n		서귀색달
몰질	몰+질	[n+n]n		서귀서흥
몰질	몰+질	[n+n]n		서귀하원
못가름	못+가름	[n+n]n		제주노형
못거리	못+거리	[n+n]n		서귀호근
못동산	못+동산	[n+n]n		서귀중문
못동산	못+동산	[n+n]n		제주해안
못빳	못+빳	[n+n]n		제주회천
못버득	못+버득	[n+n]n		서귀영천
못병디	못+병디	[n+n]n		서귀강정
못새왓	못+새+왓	[n+n+n]n	M(MM)	제주아라
못안네	못+안네	[n+n]n		서귀강정
몽데기터	몽+데+이+터	[n+s+n]n	(MM)M	서귀호근
몽생이돌	몽+생+이+돌	[n+n]n		서귀중문
무근가름	무+근+은+가름	[ar+e+n]n	(MM)M	서귀보목
무근가름	무+근+은+가름	[ar+e+n]n	(MM)M	서귀토평
무근개	무+근+은+개	[ar+e+n]n	(MM)M	서귀대포
무근덕	무+근+은+덕	[ar+e+n]n	(MM)M	서귀서흥
무근성	무+근+은+성	[ar+e+n]n	(MM)M	제주삼도
무근질	무+근+은+질	[ar+e+n]n	(MM)M	서귀용흥
무근집터	무+근+은+집+터	[ar+e+n+n]n	((MM)M)M	서귀강정
무근한질	무+근+은+한+질	[ar+e+p+n]n	(MM)(MM)	서귀용흥
무기한질	무+기+한+질	[n+p+n]n	M(MM)	서귀호근
무남통	물+남[餘]+통	[n+vr+n]n	(MM)M	서귀보목
무낭골	무+낭+골	[n+n]n		서귀서흥
무덤사리	무+덤+사리	[n+n]n		제주삼양
무드내	무+드+내	[ar+n+n]n	(MM)M	제주용강
무릇동산	무+릇+동산	[n+n]n		제주회천
무선무루	무선(舞仙)+무루	[n+n]n		서귀보목
무주왓	무(無)+주(主)+왓	[ar+n+n]n	(MM)M	서귀토평
묵골	묵+골	[n+n]n		서귀호근
묵은가름	묵+은+가름	[ar+e+n]n	(MM)M	제주해안

묵은바령밭	묵+은+바령+밭	[art+et+n]n	(MM)(MM)	제주이호
묵은길	묵+은+길	[art+et+n]	(MM)M	제주오라
묵은터	묵+은+터	[art+et+n]	(MM)M	제주삼양
묵은터	묵+은+터	[art+et+n]	(MM)M	제주용담
묵은털곡지	묵+은+털+곡지	[art+et+n]n	((MM)M)M	제주아라
문개우영	문+개+우영	[n+s+t]n	(MM)M	서귀하원
문다두리코지	문+다+두리+코지	[n+n]n		서귀서흥
문드린돌	문+드리+ㄴ+돌	[vr+et+n]	(MM)M	서귀보목
문돈돌	문+돈+ㄴ+돌	[n+vr+et+n]	((MM)M)M	서귀보목
문섬새끼섬	문+섬+새+끼+섬	[n+n+n]n	((MM)M)M	서귀서귀
문세왓	문+세+왓	[n+n]n		제주삼양
문안이왓	문+안+이+왓	[n+s+t]n	(MM)M	서귀중문
문힌굴	문+히+ㄴ+굴	[vr+st+et+n]	((MM)M)M	제주오등
물가는코지	물+가+는+코지	[n+vr+et+n]	((MM)M)M	서귀서귀
물갈린밭	물+갈리+ㄴ+밭	[n+vr+et+n]	((MM)M)M	제주회천
물골왓	물+골+왓	[n+n]n	(MM)M	서귀중문
물곱는밭	물+곱+는+밭	[n+vr+et+n]	((MM)M)M	서귀서흥
물권밭	물+권+ㄴ+밭	[n+vr+et+n]	((MM)M)M	서귀서흥
물굼는밭	물+굼+는+밭	[n+vr+et+n]	((MM)M)M	제주이호
물각	물+각	[n+n]n		서귀호근
물각면여	물+각+면+ㄴ+여	[n+n+ar+et+n]	(MM)((MM)M)	서귀호근
물꾸럭동산	물+꾸럭+동산	[n+n]n		서귀회수
물나는굴	물+나+는+굴	[n+vr+et+n]	((MM)M)M	제주건입
물나는여	물+나+는+여	[n+vr+et+n]	((MM)M)M	제주외도
물도왓	물+도+왓	[n+n]n	(MM)M	서귀서흥
물동산	물+동산	[n+n]n		서귀정방
물동산	물+동산	[n+n]n		서귀하원
물동산	물+동산	[n+n]n		제주삼양
물동산	물+동산	[n+n]n		제주연동
물루기왓	물+루+기+왓	[n+n]n		제주회천
물마근밭	물+막+은+밭	[n+vr+et+n]	((MM)M)M	서귀영천
물맞는디	물+맞+는+디	[n+vr+et+n]	((MM)M)M	제주내도
물뜨르동산	물+뜨르+동산	[n+n]n	(MM)M	제주아라
물새우영	물+새+우영	[n+n]n	(MM)M	제주삼양
물소	물+소	[n+n]n		서귀색달
물소	물+소	[n+n]n		서귀회수
물왓	물+왓	[n+n]n		서귀용흥
물왓	물+왓	[n+n]n		제주월평
물주왓	물+주+왓	[n+n]n		서귀영천
물진밭	물+진+ㄴ+밭	[n+vr+et+n]	((MM)M)M	서귀신호
물질	물+질	[n+n]n		서귀색달
물질	물+질	[n+n]n		서귀회수

물짚은원	물+짚+은+원	[n+ar+e+n]n	((MM)M)M	제주이호
물카름/가름	물+카름/가름	[n+n]n		제주삼양
물코왓	물+코+왓	[n+n+n]n	(MM)M	서귀강정
물터진개	물+터지+ㄴ+개	[n+vr+e+n]n	((MM)M)M	서귀강정
물터진골	물+터지+ㄴ+골	[n+vr+e+n]n	((MM)M)M	서귀보목
물터진굴왓	물+트+어+지+ㄴ+굴+왓	[n+vr+e+vr+e+n+n]n	(((((MM)M)M)M)M)M	제주이도
물통	물+통	[n+n]n		서귀토평
물통동산	물+통+동산	[n+n+n]n	(MM)M	서귀보목
물통밭	물+통+밭	[n+n+n]n	(MM)M	서귀서흥
물통밭	물+통+밭	[n+n+n]n	(MM)M	제주삼양
물폐기왓	물+폐기+왓	[n+n]n		제주연동
물한드르	물+하+ㄴ+드르	[n+ar+e+n]n	((MM)M)M	제주내도
핀돌	핀+돌	[p+n]n		서귀신호
핀모루	핀+모루	[p+n]n		서귀중문
핀섬	핀+섬	[p+n]n		서귀서귀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지+는+여	[vr+e+n]n	(MM)M	제주용담
미내기흙	미내기+흙	[n+n]n		제주용강
미통각	미+통+각	[n+n+n]n	(MM)M	서귀강정
민동산	민+동산	[p+n]n		서귀동흥
민오름	민+오름	[p+n]n		제주봉개
모로왓	모+로+왓	[n+n]n		제주일도
모루왓	모+루+왓	[n+n]n		서귀보목
모루왓	모+루+왓	[n+n]n		제주도두
모루왓질	모+루+왓+질	[n+n+n]n	(MM)M	서귀보목
모르왓	모+르+왓	[n+n]n		제주봉개
모르왓	모+르+왓	[n+n]n		제주이호
모름테	모+름+테	[n+n]n		서귀영천
모르왓	모+르+왓	[n+n]n		제주외도
모쉬물	모+쉬+물	[n+n]n		서귀보목
모쉬왓	모+쉬+왓	[n+n]n		서귀보목
모실거리	모+실(마을)+거리	[n+n]n		제주도평
물고래동산	물+ㄱ래+동산	[n+n+n]n	(MM)M	서귀영천
물근이왓	물+근+이+왓	[n+vr+s+n]n	((MM)M)M	제주영평
물담은여	물+담+은+여	[n+ar+e+n]n	((MM)M)M	제주내도
물대가리	물+대+가리	[n+n]n		제주삼양
물들인머세	물+들+이+ㄴ+머+세	[n+vr+s+e+n]n	(((((MM)M)M)M)M	제주도두
물마농골	물+마+농+골	[n+n+n]n	(MM)M	서귀상예
물마농드르	물+마+농+드르	[n+n+n]n	(MM)M	제주도두
물먹는소	물+먹+는+소	[n+vr+e+n]n	((MM)M)M	서귀상예
물밭	물+밭	[n+n]n		제주아라
물씻원	물+씻+원	[n+n+n]n	(MM)M	서귀보목
물조개왓	물+조개+왓	[n+n+n]n	(MM)M	제주화북

물죽은동산	물+죽+은+동산	[n+vr+e+n]n	((MM)M)M	제주회천
물죽은드르	물+죽+은+드르	[n+vr+e+n]n	((MM)M)M	제주영평
물죽은밭	물+죽+은+밭	[n+vr+e+n]n	((MM)M)M	제주해안
물진밭	물+진+밭	[n+n+n]n	(MM)M	서귀영천
물태왓	물+태+왓	[n+n+n]n	(MM)M	제주영평
물테물	물+테+물	[n+n+n]n	(MM)M	제주용강
바가жат도	박+가+жат+도	[n+s+n+n]n	(MM)(MM)	서귀호근
바놓오름난여	바놓+오름+나+ㄴ+여	[n+n+vr+e+n]n	((MM)(MM))M	제주건입
바닥여	바닥+여	[n+n]n		서귀대포
바닥여	바닥+여	[n+n]n		서귀호근
바당당	바당+당	[n+n]n		서귀서귀
바령밭	바령+밭	[n+n]n		제주연동
바리물	바리+물	[n+n]n		제주해안
바짓가달	바지+가달	[n+n]n		제주노형
박가밭	박+가+밭	[n+s+n]n	(MM)M	서귀중문
박개빌레	박+가+빌레	[n+s+n]n	(MM)M	제주도남
박서방밭	박+서방+밭	[n+n+n]n	(MM)M	제주이호
박선달밭	박+선달+밭	[n+n+n]n	(MM)M	제주이호
박초관동산	박+초관+동산	[n+n+n]n	(MM)M	서귀도순
밤남굴칭	밤+남+굴+칭	[n+n+n+n]n	((MM)M)M	제주연동
밤낭굴	밤+낭+굴	[n+n+n]n	(MM)M	제주삼양
밤낭밭	밤+낭+밭	[n+n+n]n	(MM)M	제주화북
밤밭골	밤+밭+골	[n+n+n]n	(MM)M	서귀상예
밧고랑논고랑	밧+고랑+논+고랑	[n+n+n+n]n	(MM)(MM)	서귀강정
밧곤홀	밧+곶+ㄴ+홀	[n+ar+e+n]n	M((MM)M)	제주화북
밧번지	밧+번지	[n+n]n		서귀강정
밧불낙여	밧+불+낙+여	[n+n+n]n	M(MM)	제주도두
밧새미오름	밧+새미+오름	[n+n+n]n	M(MM)	제주봉개
밧새왓	밧+새+왓	[n+n+n]n	M(MM)	제주봉개
밧여	밧+여	[n+n]n		서귀대포
밧여	밧+여	[n+n]n		제주삼도
밧주여	밧+주+여	[n+n+n]n	M(MM)	제주도두
밧태왓	밧+태+왓	[n+n+n]n	M(MM)	제주봉개
밧통	밧+통	[n+n]n		서귀강정
밧튼여부리	밧+튼+여+부리	[n+d+n+n]n	M((MM)M)	제주도두
방석덕	방석+덕	[n+n]n		서귀보목
방석돌	방석+돌	[n+n]n		서귀하원
방애여	방애+여	[n+n]n		제주내도
방애여	방애+여	[n+n]n		제주이호
방애오름	방애+오름	[n+n]n		서귀하원
방애왓	방애+왓	[n+n]n		제주일도
방애왓	방애+왓	[n+n]n		제주오라

방앗동산	방애+동산	[n+n]n		제주용담
방에구룡	방애+구룡	[n+n]n		제주노형
방에물	방애+물	[n+n]n		제주아라
배개	배+개	[n+n]n		서귀보목
배개머리	배+개+머리	[n+n+n]n	(MM)M	서귀보목
배고픈다리	배+고프+ㄴ+다리	[n+ar+e+n]n	((MM)M)M	제주용담
배나므르	배+남+므르	[n+n+n]n	(MM)M	제주아라
배낭밭	배+낭+밭	[n+n+n]n	(MM)M	제주용강
배낭터	배+낭+터	[n+n+n]n	(MM)M	제주영평
배드린개	배+들+이+ㄴ+개	[n+vr+e+n]n	((MM)M)M	서귀보목
배못	배+못	[n+n]n		서귀강정
배부른동산	배+부르+ㄴ+동산	[n+vr+e+n]n	((MM)M)M	제주삼도
배부른동산	배+부르+ㄴ+동산	[n+vr+e+n]n	((MM)M)M	제주일도
배부른밭	배+부르+ㄴ+밭	[n+ar+e+n]n	((MM)M)M	서귀강정
배엮줄이	배엮+줄+이	[n+n+s]n	(MM)M	서귀호근
배왓	배+왓	[n+n]n		서귀강정
배왓	배+왓	[n+n]n		제주아라
배칩	배+칩	[n+n]n		서귀호근
백개	백+개	[n+n]n		제주이호
백개동마을	백+개+동+마을	[n+n+n+n]n	(MM)(MM)	제주이호
백개들레	백+가(哥)+들레	[n+s+n]n	(MM)M	서귀보목
백개서마을	백+개+서+마을	[n+n+n+n]n	(MM)(MM)	제주이호
백개원	백+개+원	[n+n+n]n	(MM)M	제주이호
백개중마을	백+개+중+마을	[n+n+n+n]n	(MM)(MM)	제주이호
배꼽물	배+꼽+물	[n+n+n]n	(MM)M	서귀중문
백모래통	백+모래+통	[p+n+n]n	(MM)M	서귀하효
백밭	백+밭	[n+n]n		서귀보목
백서원터	백+서원+터	[n+n+n]n	(MM)M	제주이호
백여	백(白)+여	[n+n]n		서귀서귀
뱀당굴	뱀+당+굴	[n+n+n]n	(MM)M	제주오등
뱀동산	뱀+동산	[n+n]n		제주화북
뱀머리	뱀+머리	[n+n]n		제주내도
버드남밭	버드+남+밭	[n+n+n]n	(MM)M	제주회천
버드남밭	버들+남+밭	[n+n+n]n	(MM)M	제주삼양
버드남샘	버들+남+샘	[n+n+n]n	(MM)M	서귀강정
버드리못	버들+이+못	[n+s+n]n	(MM)M	제주용강
버들이못	버들+이+못	[n+s+n]n	(MM)M	제주회천
버리왓	버리+왓	[n+n]n		서귀중문
버서진임댕이	벗+어+지+ㄴ+임댕이	[vr+e+vr+e+n]n	((MM)M)M	서귀동홍
번제드르	번제+드르	[n+n]n		서귀호근
벌리진밭	벌르+어+지+ㄴ+밭	[vr+e+vr+e+n]n	((MM)M)M	서귀서홍
벌리진여	벌리지+ㄴ+여	[vr+e+n]n	(MM)M	제주삼양

범섬	범+섬	[n+n]n		서귀호근
벗깁이왓	벗깁이+왓	[n+n]n		제주회천
멍깃여	멍깃+여	[n+n]n		제주의도
베깃여	베깃+여	[n+n]n		제주이호
베깃여	베깃+여	[n+n]n		제주화북
베깃원	베깃+원	[n+n]n		제주의도
베깃팽상여	베깃+팽상+여	[n+n+n]n	(MM)M	제주이호
베두리	벨+둘+이	[n+n+s]n	(MM)M	제주연동
베두리동산	벨+둘+이+동산	[n+n+stn]n	((MM)M)M	제주연동
베두리오름	벨+둘+이+오름	[n+n+stn]n	((MM)M)M	제주연동
베락구릉	베락+구릉	[n+n]n		제주노형
베락돌	베락+돌	[n+n]n		서귀색달
베락때린그정	베락+때리+ㄴ+그정	[n+vr+te+n]n	((MM)M)M	서귀도순
베락마진소	베락+맞+인+소	[n+vr+te+n]n	((MM)M)M	서귀강정
베락맞은내	베락+맞+은+내	[n+vr+te+n]n	((MM)M)M	제주의도
베락맞인돌	베락+맞+인+돌	[n+vr+te+n]n	((MM)M)M	제주삼양
베락흙	베락+흙	[n+n]n		제주월평
베리왓	베리+왓	[n+n]n		서귀서흥
베리왓	베리+왓	[n+n]n		제주아라
베릿내	베리+내	[n+n]n		서귀중문
베릿내오름	베리+내+오름	[n+n+n]n	(MM)M	서귀중문
베릿밭	베리+밭	[n+n]n		제주도남
베메는여	베+메+는+여	[n+vr+te+n]n	((MM)M)M	서귀호근
베물동산	베물+동산	[n+n]n		서귀호근
베염나리	베염+나리	[n+n]n		제주노형
베염동산	베염+동산	[n+n]n		제주아라
베염동산	베염+동산	[n+n]n		제주이호
베염드르	베염+드르	[n+n]n		제주회천
베염머들	베염+머들	[n+n]n		제주연동
베염주리물	베염+줄+이+물	[n+n+stn]n	((MM)M)M	서귀호근
베체기왓	베체기+왓	[n+n]n		제주용강
베튼개	베+트+ㄴ+개	[n+vr+te+n]n	((MM)M)M	서귀대포
백계왓	백+가+왓	[n+s+n]n	(MM)M	제주아라
백꼭지	백+꼭지	[n+n]n		서귀영천
벤돌	베+ㄴ+돌	[ar+te+n]n	(MM)M	서귀호근
벨진모루	벨+진+모루	[d+n+n]n	(MM)M	서귀호근
벨진밭	벨+지+ㄴ+밭	[n+vr+te+n]n	((MM)M)M	제주도남
벨진밭	벨+지+ㄴ+밭	[n+vr+te+n]n	((MM)M)M	제주삼양
벨진밭	벨+지+ㄴ+밭	[n+vr+te+n]n	((MM)M)M	제주회천
벙뒤왓	벙뒤+왓	[n+n]n		제주화북
벙뒤소	벙뒤+소	[n+n]n		제주월평
벙뒤왓	벙뒤+왓	[n+n]n		제주봉개

벵디왓	벵디+왓	[n+n]n		제주월평
벵디왓	벵디+왓	[n+n]n		제주회천
벵디왓가름	벵디+왓+가름	[n+n+n]n	(MM)M	제주오라
벵딛내	벵디+내	[n+n]n		제주회천
벵디왓	벵디+왓	[n+n]n		서귀호근
벵이퀘	벵이+퀘	[n+n]n		서귀대포
벵풍바위	벵풍+바위	[n+n]n		서귀중문
벵풍석	벵풍+석	[n+n]n		서귀대포
벵풍석	벵풍+석	[n+n]n		서귀호근
벵풍소	벵풍+소	[n+n]n		제주오라
벵풍소	벵풍+소	[n+n]n		제주화북
벼락밭동네	벼락+밭+동네	[n+n+n]n	(MM)M	서귀상예
병디왓	병디+왓	[n+n]n		서귀도순
병디왓	병디+왓	[n+n]n		서귀하원
보디왓	보디+왓	[n+n]n		서귀강정
보름이땅	보름+이+땅	[n+s+n]n	(MM)M	서귀하원
보루미	보름+이	[n+s]n		서귀서흥
보리믄르	보리+믄르	[n+n]n		제주봉개
보리솔	보리+솔	[n+n]n		서귀상예
보섭밭	보섭+밭	[n+n]n		서귀강정
보섭왓	보섭+왓	[n+n]n		서귀강정
보섭코지	보섭+코지	[n+n]n		서귀하원
보섭코지	보섭+코지	[n+n]n		제주아라
보섭코지	보섭+코지	[n+n]n		제주영평
보섭코지	보섭+코지	[n+n]n		제주화북
보재기다루	보재기+다루	[n+n]n		서귀강정
복도왓	복+도+왓	[n+n+n]n	(MM)M	제주아라
복돌이밭	복돌+이+밭	[n+s+n]n	(MM)M	서귀중문
복룡동산	복룡+동산	[n+n]n		서귀용흥
복쟁이덕	복쟁이+덕	[n+n]n		서귀중문
복쟁이믄루	복쟁이+믄루	[n+n]n		서귀상예
불근모루	불+은+믄루	[ar+e+n]n	(MM)M	서귀호근
불래남동산	불래+남+동산	[n+n+n]n	(MM)M	서귀회수
불래남도령이	불래+남+도령이	[n+n+n]n	(MM)M	서귀월평
불래당산전	불래+당+산전	[n+n+n]n	(MM)M	서귀서흥
불래오름	불래+오름	[n+n]n		서귀하원
불레골	불레+골	[n+n]n		서귀토평
불레남개	불레+남+개	[n+n+n]n	(MM)M	서귀보목
불레남동산	불레+남+동산	[n+n+n]n	(MM)M	제주노형
봉고물	봉고+물	[n+n]n		서귀서흥
봉근여	봉그+ㄴ+여	[vr+e+n]n	(MM)M	제주삼도
봉덕이소	봉덕이+소	[n+n]n		서귀하원

붕개오름	붕+개+오름	[vr+t+n]n	(MM)M	제주붕개
붕태물	붕태+물	[n+n]n		서귀동홍
붕태물	붕태+물	[n+n]n		서귀토평
부개물	부+가+물	[n+s+t]n	(MM)M	제주도평
부개집터	부+가+집+터	[n+s+t+n]n	((MM)M)M	제주이호
부개굴	부+가+굴	[n+s+t]n	(MM)M	제주용강
부개동산	부개+동산	[n+n]n		서귀보목
부개여	부개+여	[n+n]n		서귀서홍
부돌동산	부돌+동산	[n+n]n		서귀신호
부채새미	부채+새미	[n+n]n		서귀상예
북도름동산	북+돌+음+동산	[n+vr+e+t]n	((MM)M)M	서귀상예
북돌	북+돌	[n+n]n		서귀보목
분토왓	분토+왓	[n+n]n		서귀서홍
불근덕기정	붉+은+덕+기정	[ar+e+t+n]n	((MM)M)M	서귀중문
불근모루	붉+은+모루	[ar+e+t]n	(MM)M	서귀호근
불근밭	붉+은+밭	[ar+e+t]n	(MM)M	서귀호근
불근오름	붉+은+오름	[ar+e+t]n	(MM)M	서귀용홍
불근오름	붉+은+오름	[ar+e+t]n	(MM)M	서귀호근
불맞인동산	불+맞+인+동산	[n+vr+e+t]n	((MM)M)M	제주화북
불목캐	불목+캐	[n+n]n		서귀중문
불미당밭	불미+당+밭	[n+n]n	(MM)M	제주붕개
불미동산	불미+동산	[n+n]n		제주회천
불미왓	불미+왓	[n+n]n		서귀강정
불미왓	불미+왓	[n+n]n		제주삼양
불미왓	불미+왓	[n+n]n		제주영평
불미왓	불미+왓	[n+n]n		제주오라
불미툼	불미+툼	[n+n]n		제주영평
불칸동산	불+카+나+동산	[n+vr+e+t]n	((MM)M)M	서귀호근
불칸디	불+카+나+디	[n+vr+e+t]n	((MM)M)M	제주도두
불칸디오름	불+카+나+디+오름	[n+vr+e+t+n]n	((MM)M)M)M	제주월평
불칸터	불+카+나+터	[n+vr+e+t]n	((MM)M)M	제주삼양
불칸터	불+카+나+터	[n+vr+e+t]n	((MM)M)M	제주아라
불칸터	불+카+나+터	[n+vr+e+t]n	((MM)M)M	제주영평
불칸터	불+카+나+터	[n+vr+e+t]n	((MM)M)M	제주이호
불턱	불+턱	[n+n]n		제주도두
불턱	불+턱	[n+n]n		제주삼양
불턱	불+턱	[n+n]n		제주외도
불턱	불+턱	[n+n]n		제주외도
붉은도	붉+은+도	[ar+e+t]n	(MM)M	제주삼양
붉은둥이	붉+은+둥이	[ar+e+t+s]n	(MM)M	제주해안
붉은드르	붉+은+드르	[ar+e+t]n	(MM)M	제주영평
붉은밭	붉+은+밭	[ar+e+t]n	(MM)M	제주해안

붕에덕	붕에+덕	[n+n]n		서귀 월평
비곡담동산	비곡+담+동산	[n+n+n]n	(MM)M	제주봉개
비늘쩍	비늘+쩍	[n+n]n		서귀 중문
비석거리	비석+거리	[n+n]n		서귀 영천
비석거리	비석+거리	[n+n]n		서귀 하호
비석거리	비석+거리	[n+n]n		서귀 호근
비석거리	비석+거리	[n+n]n		제주일도
비석거리	비석+거리	[n+n]n		제주 화북
비석동산	비석+동산	[n+n]n		제주용담
비자낭동산	비자+낭+동산	[n+n+n]n	(MM)M	제주용강
비케왓	비케+왓	[n+n]n		제주 월평
비크릭밖	비크리+ㄱ+밖	[ar+te+n]n	(MM)M	제주도두
빅계통	빅계+통	[n+n]n		서귀 강정
빅계통	빅계+통	[n+n]n		서귀 대포
빈네코지	빈네+코지	[n+n]n		서귀 강정
빈너코지소금밭	빈너+코지+소금+밭	[n+n+n+n]n	(MM)(MM)	서귀 강정
빈동남머체	빈동+남+머체	[n+n+n+n]n	((MM)M)M	서귀 보목
빈지동산	비+ㄴ+지+동산	[ar+te+n+n]n	((MM)M)M	서귀 중문
빌레각	빌레+각	[n+n]n		제주용담
빌레내	빌레+내	[n+n]n		제주해안
빌레넷도	빌레+내+도	[n+n+n]n	(MM)M	서귀 월산
빌레넷도	빌레+내+도	[n+n+n]n	(MM)M	서귀 호근
빌레도루	빌레+드루	[n+n]n		서귀 강정
빌레드르	빌레+드르	[n+n]n		제주아라
빌레또	빌레+도	[n+n]n		서귀 회수
빌레못	빌레+못	[n+n]n		서귀 신호
빌레물	빌레+물	[n+n]n		제주삼양
빌레물	빌레+물	[n+n]n		제주연동
빌레물	빌레+물	[n+n]n		제주오라
빌레물	빌레+물	[n+n]n		제주 월평
빌레앞	빌레+앞	[n+n]n		서귀 강정
빌레왓	빌레+왓	[n+n]n		서귀 하원
빌레왓	빌레+왓	[n+n]n		제주연동
빌레왓	빌레+왓	[n+n]n		제주외도
빌레왓	빌레+왓	[n+n]n		제주용담
빌레왓	빌레+왓	[n+n]n		제주이호
빌레왓	빌레+왓	[n+n]n		제주회천
빌레통	빌레+통	[n+n]n		서귀 보목
빌레통	빌레+통	[n+n]n		서귀 중문
빌렛거리	빌레+거리	[n+n]n		서귀 상예
빌렛도	빌레+도	[n+n]n		서귀 중문
빌렛동네	빌레+동네	[n+n]n		서귀 호근

빌렛동네	빌레+동네	[n+n]n		서귀용홍
빌룩밭	빌룩+밭	[n+n]n		서귀강정
빌채기왓	빌채+이+왓	[ar+ts+n]n	(MM)M	제주영평
빗개덕	빗개+덕	[n+n]n		서귀월평
빗개왓	빗개+왓	[n+n]n		서귀하예
브들락통	브들락+통	[n+n]n		제주용담
불근물	불+은+물	[ar+te+n]n	(MM)M	서귀영천
불낙여	불낙+여	[n+n]n		제주삼양
불낙여	불낙+여	[n+n]n		제주용담
불낙여	불낙+여	[n+n]n		제주화북
불낙여코지	불낙+여+코지	[n+n+n]n	(MM)M	제주삼양
불낙여코지	불낙+여+코지	[n+n+n]n	(MM)M	제주용담
붉은오름	붉+은+오름	[ar+te+n]n	(MM)M	제주해안
붉은이내	붉+은+이내	[ar+te+st+n]n	((MM)M)M	제주도련
뽕뽕동산	뽕뽕+동산	[ar+n]n		서귀호근
뽕낭밭	뽕+낭+밭	[n+n+n]n	(MM)M	서귀영천
사기왓	사기+왓	[n+n]n		제주삼양
사농동산	사농(사냥)+동산	[n+n]n		제주회천
사농친밭	사농치+ㄴ+밭	[vr+te+n]n	(MM)M	제주월평
사단동산	사+단+동산	[vr+te+n]n	(MM)M	서귀중문
사당므르	사당+므르	[n+n]n		제주봉개
사당므르	사당+므르	[n+n]n		제주화북
사당터	사당+터	[n+n]n		제주도련
사망므루	사망+므루	[n+n]n		서귀토평
사오기구석	사오기+구석	[n+n]n		서귀동홍
사장밭	사장+밭	[n+n]n		서귀영천
사장밭	사장+밭	[n+n]n		서귀토평
사장밭	사장+밭	[n+n]n		제주내도
사장밭	사장+밭	[n+n]n		제주노형
사장밭	사장+밭	[n+n]n		제주삼양
사장밭	사장+밭	[n+n]n		제주연동
사장밭	사장+밭	[n+n]n		제주외도
사장밭	사장+밭	[n+n]n		제주해안
사장밭	사장+밭	[n+n]n		제주회천
사장질	사장+질	[n+n]n		제주회천
삭은여	삭+은+여	[ar+te+n]n	(MM)M	제주삼양
산내물	산+내+물	[n+n+n]n	(MM)M	서귀회수
산물	살+ㄴ+물	[ar+te+n]n	(MM)M	서귀하원
산물각	살+ㄴ+물+각	[ar+te+n+n]n	((MM)M)M	제주월평
산물낭우영	산+물+낭+우영	[n+n+n]n	(MM)M	제주연동
산물낭우영	산+물+낭+우영	[n+n+n]n	(MM)M	제주회천
산물넷도	살+ㄴ+물+내+도	[ar+te+n+n+n]n	((((MM)M)M)M)	서귀도순

산물어위	살+ㄴ+물+어위	[vr+te+n+n]n	((MM)M)M	서귀 동홍
산물어위내	살+ㄴ+물+어위+내	[vr+te+n+n+n]n	((((MM)M)M)M)M	서귀 동홍
산물이맹이동산	살+ㄴ+물+이+맹이+동산	[ar+te+n+n+n]n	((((MM)M)M)M)M	서귀 하원
산썬동산	산+썬+ㄴ+동산	[n+vr+te+n]n	((MM)M)M	제주 영평
산아진밭	산+앗+인+밭	[n+vr+te+n]n	((MM)M)M	서귀 월평
산쟁이모들	산+쟁이+모들	[n+s+n]n	(MM)M	서귀 하예
산지목골	산+지+목+골	[n+n+n+n]n	((MM)M)M	제주 일도
산지물	산+지+물	[n+n+n]n	(MM)M	제주 건입
산지물	산+지+물	[n+n]n		서귀 동홍
산깃내	산+지+내	[n+n+n]n	(MM)M	제주 건입
산태물러진도	산+태+물+르+어+지+ㄴ+도	[n+n+vr+te+vr+te+n]n	(((((MM)M)M)M)M)M)M	제주 아라
살레덕	살레+덕	[n+n]n		서귀 하원
살레왓	살레+왓	[n+n]n		제주 연동
살썬디왓	살+썬+ㄴ+디+왓	[n+vr+te+n+n]n	((((MM)M)M)M)M	제주 화북
살체기도	살체기+도	[n+n]n		서귀 토평
살피왓	살피+왓	[n+n]n		서귀 보목
삼동낭목지	삼동+낭+목지	[n+n+n]n	(MM)M	서귀 하예
삼동못	삼동+못	[n+n]n		제주 화북
삼동물	삼동+물	[n+n]n		서귀 상예
삼밭구석	삼+밭+구석	[n+n+n]n	(MM)M	서귀 상예
삼밭톨	삼+밭+톨	[n+n+n]n	(MM)M	서귀 우남
삼싱물	삼싱+물	[n+n]n		서귀 호근
삼양난걸	삼양+나+ㄴ+걸	[n+vr+te+n]n	((MM)M)M	제주 화북
삿갓여	삿갓+여	[n+n]n		제주 이호
상남이왓	상남+이+왓	[n+s+n]n	(MM)M	서귀 서홍
상낭거리	삼+낭+거리	[n+n+n]n	(MM)M	제주 봉개
상낭소	상+낭+소	[n+n+n]n	(MM)M	제주 월평
상동낭술	상동+낭+술	[n+n+n]n	(MM)M	서귀 강정
상두낭술코지	상두+낭+술+코지	[n+n+n+n]n	((MM)M)M	서귀 강정
상두동산	상두+동산	[n+n]n		서귀 중문
상뒤틀동산	상뒤틀+동산	[n+n]n		서귀 상예
상뒤틀동산	상뒤틀+동산	[n+n]n		서귀 보목
상뒤틀동산	상뒤틀+동산	[n+n]n		서귀 호근
상뒤틀동산	상뒤틀+동산	[n+n]n		서귀 호근
상순이봉근여	상순+이+봉+근+ㄴ+여	[n+s+vr+te+n]n	((((MM)M)M)M)M	제주 용담
상양동산	상양+동산	[n+n]n		서귀 색달
상여동산	상여+동산	[n+n]n		제주 월평
상여모루	상여+모루	[n+n]n		서귀 도순
상이여	상이+여	[n+n]n		서귀 대포
상жат	상+жат	[n+n]n		서귀 토평
상жат	상+жат	[n+n]n		서귀 호근
상장므르	상장+므르	[n+n]n		제주 도련

상장므르	상장+므르	[n+n]n		제주삼양
상청밧케	상청+밧+케	[n+n+n]n	(MM)M	서귀월평
상한케	상하+ㄴ+케	[vr+te+n]n	(MM)M	서귀보목
새가름	새+가름	[d+n]n		서귀영천
새가름	새+가름	[d+n]n		제주내도
새가름	새+가름	[d+n]n		제주해안
새구릉	새+구릉	[d+n]n		제주도두
새구릉밧	새+구릉+밧	[d+n+n]n	M(MM)	제주회천
새구릉팻	새+구릉+팻	[d+n+n]n	M(MM)	제주영평
새금여	새금+여	[n+n]n		서귀보목
새끼덕	새끼+덕	[n+n]n		서귀월평
새끼섬	새끼+섬	[n+n]n		서귀호근
새끼섬섯발	새끼+섬+서+발	[n+n+n+n]n	((MM)M)M	서귀호근
새끼섬알발	새끼+섬+알+발	[n+n+n+n]n	((MM)M)M	서귀호근
새끼오름	새끼+오름	[n+n]n		서귀보목
새담넌밧	새+담+내+ㄴ+밧	[d+n+vr+te+n]n	M((MM)M)M	제주영평
새동네	새+동네	[d+n]n		제주도두
새동네	새+동네	[d+n]n		제주용담
새뭇	새+뭇	[d+n]n		제주도련
새물	새+물	[d+n]n		서귀서홍
새미동산	새미+동산	[n+n]n		제주오등
새미물	새미+물	[n+n]n		제주회천
새미오름	새미+오름	[n+n]n		제주아라
새미털	새미+털	[n+n]n		제주아라
새방밧	새방+밧	[n+n]n		서귀강정
새베리	새+벨+이	[d+n+ts]n	(MM)M	제주도평
새벨동산	새+벨+동산	[d+n+n]n	(MM)M	제주도평
새비남동산	새비+남+동산	[n+n+n]n	(MM)M	제주영평
새비여	새+비+여	[n+ar+n]n	(MM)M	서귀보목
새산전내	새+산+전+내	[d+n+n+n]n	M(MM)M	제주아라
새새미	새+새미	[d+n]n		제주아라
새새미	새+새미	[d+n]n		제주회천
새새미머채	새+새미+머채	[d+n+n]n	(MM)M	제주아라
새새미왓	새+새미+왓	[d+n+n]n	(MM)M	제주회천
새새미질	새+새미+질	[d+n+n]n	(MM)M	제주회천
새섬	새+섬	[n+n]n		서귀서귀
새섬뒤	새+섬+뒤	[n+n+n]n	(MM)M	서귀서귀
새섬목	새+섬+목	[n+n+n]n	(MM)M	서귀서귀
새성안	새+성+안	[d+n+n]n	M(MM)	제주삼도
새소왓	새+소+왓	[d+n+n]n	(MM)M	제주용강
새췌돈	새+췌+돈	[d+n+n]n	(MM)M	서귀신호
새여	새+여	[d+n]n		서귀대포

새여	새+여	[d+n]n		제주건입
새여	새+여	[d+n]n		제주도두
새여	새+여	[d+n]n		제주의도
새여	새+여	[d+n]n		제주이호
새여	새+여	[d+n]n		제주화북
새여(1)	새+여	[d+n]n		서귀강정
새여(2)	새+여	[d+n]n		서귀강정
새여통	새+여+통	[d+n+n]n	(MM)M	서귀강정
새왓	새+왓	[n+n]n		서귀강정
새왓동네	새+왓+동네	[n+n+n]n	(MM)M	제주용담
새원	새+원	[d+n]n		제주이호
새칭케	새+칭+케	[d+n+n]n	(MM)M	서귀강정
새출왓	새+출+왓	[d+n+n]n	M(MM)	제주삼양
새통	새+통	[d+n]n		서귀신호
새통물	새+물+통	[d+n+n]n	(MM)M	서귀도순
새가름동네	새+가름+동네	[n+n+n]n	(MM)M	서귀중문
새개오리	새+개오리	[n+n]n		제주봉개
새거리	새+거리	[n+n]n		제주용담
새거른녀	새+검+은+여	[n+ar+e+n]n	M((MM)M)	서귀색달
새기정	새+기정	[n+n]n		서귀정방
새넷도	새+내+도	[n+n+n]n	M(MM)	서귀도순
새녀	새+여	[n+n]n		서귀색달
새도	새+도	[n+n]n		서귀대포
새도	새+도	[n+n]n		서귀보목
새도	새+도	[n+n]n		제주오등
새머흘	새+머흘	[n+n]n		제주용강
새목	새+목	[n+n]n		서귀월평
새물골	새+물+골	[n+n+n]n	(MM)M	제주일도
새앞여	새+앞+여	[n+n+n]n	M(MM)	서귀보목
새여	새+여	[n+n]n		서귀중문
새여	새+여	[n+n]n		제주삼도
새케	새+케	[n+n]n		제주봉개
새괭이덕	새+괭이+덕	[n+n]n		서귀강정
새곶질	새+곶+질	[n+n]n		제주용담
새구릉	새+구릉	[ar+n]n		제주삼양
새깃동산	새+기+동산	[n+n]n		제주용담
새돌이왓	새+돌+이+왓	[p+n+s+n]n	((MM)M)M	제주영평
새수왓	새+수+왓	[n+n]n		서귀하예
새이퀘	새+이+퀘	[n+n]n		서귀중문
새이퀘	새+이+퀘	[n+n]n		서귀중문
새이돌	새+이+돌	[n+n]n		서귀하효
새이동산	새+이+동산	[n+n]n		서귀색달

생이동산	생이+동산	[n+n]n		제주오등
생이물	생이[鳥]+물	[n+n]n		서귀용흥
생이물	생이+물	[n+n]n		제주도남
생이물	생이+물	[n+n]n		제주용담
생이빌레	생이+빌레	[n+n]n		제주봉개
생이빌레	생이+빌레	[n+n]n		제주영평
생이왓	생이+왓	[n+n]n		제주해안
생이집동산	생이+집+동산	[n+n+n]n	(MM)M	서귀신호
생이집터	생이+집+터	[n+n+n]n	(MM)M	제주봉개
서가름물	서+가름+물	[n+n+n]n	(MM)M	서귀호근
서가름앞	서+가름+앞	[n+n+n]n	(MM)M	서귀보목
서개곶지	서개+곶지	[n+n]n		서귀동홍
서검은드리	서+검+은+드리	[n+ar+e+n]n	M((MM)M)	제주봉개
서고대밭	서+고대+밭	[n+n+n]n	(MM)M	서귀강정
서근바우	석+은+바우	[ar+e+n]n	(MM)M	제주도두
서낭당모루	서낭당+모루	[n+n]n		서귀상예
서넉방골목	서넉+방+골목	[n+n+n]n	(MM)M	서귀서흥
서당가름	서당+가름	[n+n]n		서귀강정
서당모루	서당+모루	[n+n]n		서귀보목
서당밭	서당+밭	[n+n]n		서귀강정
서드럭케	서드럭+케	[n+n]n		서귀중문
서드럭동산	서드럭+동산	[n+n]n		서귀중문
서막은굴	서+막+은+굴	[n+vr+e+n]n	M((MM)M)	제주영평
서배우못	서+배우+못	[n+n+n]n	M(MM)	서귀우남
서상장모루	서+상장+모루	[n+n+n]n	M(MM)	제주삼양
서집밭	서+집[契]+밭	[n+n+n]n	M(MM)	제주오등
서착원	서+착+원	[n+n+n]n	(MM)M	제주용담
서착의	서+착+의	[n+n+s]n	(MM)M	제주건입
서착코지	서+착+코지	[n+n+n]n	(MM)M	제주외도
서치모루	서치+모루	[n+n]n		서귀도순
서칩논	서+칩+논	[n+n+n]n	(MM)M	서귀강정
서카름	서+카름	[n+n]n		제주삼양
서카름	서+카름	[n+n]n		제주외도
서케	서+케	[n+n]n		제주도련
서큰굴	서+크+ㄴ+굴	[n+ar+e+n]n	M((MM)M)	서귀신호
서펜물	서+펜+물	[n+n+n]n	(MM)M	제주삼양
서한두기	서+한+독+이	[n+p+n+ts]n	M((MM)M)	제주용담
서한두깃물	서+한+독+이+물	[n+p+n+ts+n]n	M((MM)M)M	제주용담
석굴	석+굴	[n+n]n		제주봉개
석굴왓	석+굴+왓	[n+n+n]n	(MM)M	제주회천
석근동산	석근+동산	[n+n]n		서귀영천
선케	서+ㄴ+케	[ar+e+n]n	(MM)M	서귀대포

선내골	서+내+골	[n+n+n]n	(MM)M	서귀토평
선닐	서+ㄴ+닐	[ar+te+n]n	(MM)M	서귀강정
선대기동산	선+दै+이+동산	[n+n+s+n]n	((MM)M)M	서귀보목
선돌동산	서+ㄴ+돌+동산	[vr+te+n+n]n	((MM)M)M	서귀대포
선돌목	서+ㄴ+돌+목	[ar+te+n+n]n	((MM)M)M	제주오등
선돌선밭	서+ㄴ+돌+서+ㄴ+밭	[vr+te+n+vr+te+n]n	((((MM)M)M)M)M	제주월평
선돌왓	서+ㄴ+돌+왓	[vr+te+n+n]n	((MM)M)M	제주오등
선돌왓	서+ㄴ+돌+왓	[vr+te+n+n]n	((MM)M)M	제주이호
선돌굴	서+ㄴ+돌+굴	[vr+te+n+n]n	((MM)M)M	제주삼양
선독굴	서+ㄴ+돌+굴	[vr+te+n+n]n	((MM)M)M	제주도련
선ㄹ르왓	서+ㄴ+ㄹ르+왓	[vr+te+n+n]n	((MM)M)M	제주회천
선반드루	선반+드루	[n+n]n		제주삼도
선반물	선반+물	[n+n]n		제주아라
선반밭	선반+밭	[n+n]n		서귀영천
선반밭	선반+밭	[n+n]n		제주회천
선반여	선반+여	[n+n]n		서귀강정
선반질	선반+질	[n+n]n		제주삼양
선반질	선반+질	[n+n]n		제주삼양
선반질	선반+질	[n+n]n		제주삼양
선반질왓	선반+질+왓	[n+n+n]n	(MM)M	제주삼양
선반질왓	선반+질+왓	[n+n+n]n	(MM)M	제주아라
선반케	선반+케	[n+n]n		제주회천
선호장우영	선[호]+호장+우영	[n+n+n]n	(MM)M	서귀보목
설랑앞	설랑+앞	[n+n]n		서귀보목
설랑앞막여	설랑+앞+막+여	[n+n+n+n]n	((MM)M)M	서귀보목
설영	설+영	[n+n]n		서귀보목
설피섬	설피+섬	[n+n]n		서귀보목
섬도코지	섬+도+코지	[n+n+n]n	(MM)M	서귀보목
섬들이왓	섬+들+이+왓	[n+vr+s+n]n	((MM)M)M	서귀하호
섬등얼	섬+등얼	[n+n]n		서귀보목
섬목	섬+목	[n+n]n		서귀보목
섬여	섬+여	[n+n]n		제주삼양
섯가름앞밭	서+가름+앞+밭	[n+n+n+n]n	((MM)M)M	제주회천
섯가름우영	서+가름+우영	[n+n+n]n	(MM)M	제주도남
섯가메숫각물	서+가메+숫+각+물	[n+n+n+n+n]n	M((MM)M)M	서귀대포
섯거지	서+거지	[n+n]n		서귀호근
섯걸	서+걸	[n+n]n		제주화북
섯검은덕	서+검+은+덕	[n+ar+te+n]n	M((MM)M)	제주이호
섯골	서+골	[n+n]n		서귀하예
섯구렁물	서+구렁+물	[n+n+n]n	M(MM)	제주오라
섯굴치	서+굴치	[n+n]n		제주아라
섯내	서+내	[n+n]n		제주봉개

첫내	서+내	[n+n]n		제주삼양
첫내	서+내	[n+n]n		제주아라
첫내	서+내	[n+n]n		제주화북
첫당밭	서+당+밭	[n+n+n]n	M(MM)	제주화북
첫동네	서+동네	[n+n]n		서귀강정
첫동네	서+동네	[n+n]n		제주삼양
첫동산	서+동산	[n+n]n		제주이호
첫동산	서(西)+동산	[n+n]n		제주노형
첫떡밭돌	서+떡+밭+돌	[n+n+n+n]n	M((MM)M)	서귀대포
첫모	서+모	[n+n]n		서귀서귀
첫못	서+못	[n+n]n		서귀회수
첫물	서+물	[n+n]n		제주용담
첫물원	서+물+원	[n+n+n]n	(MM)M	제주용담
첫믄루여	서+믄루+여	[n+n+n]n	M(MM)	제주이호
첫바르	서+바르	[n+n]n		서귀색달
첫밭동산	서+밭+동산	[n+n+n]n	(MM)M	제주도두
첫벵디	서+벵디	[n+n]n		제주오등
첫벵디	서+벵디	[n+n]n		제주해안
첫빌레	서+빌레	[n+n]n		제주도두
첫빌레	서+빌레	[n+n]n		제주도두
첫빌레	서+빌레	[n+n]n		제주도두
첫상통여	서+상통+여	[n+n+n]n	M(MM)	제주도두
첫새미	서+새미	[n+n]n		제주오등
첫새여	서+새+여	[n+d+n]n	M(MM)	제주외도
첫어위	서+어위	[n+n]n		제주연동
첫언새미	서+얼+ㄴ+새미	[n+ar+e+n]n	M((MM)M)	서귀호근
첫자릿여	서+자리+여	[n+n+n]n	M(MM)	서귀서귀
첫정도	서+정+도	[n+n+n]n	M(MM)	서귀강정
첫지겹	서+지겹	[n+n]n		서귀강정
첫집터	서+집+터	[n+n+n]n	(MM)M	제주도남
첫코지	서+코지	[n+n]n		서귀대포
첫한믄르	서+한+믄르	[n+p+n]n	M(MM)	제주월평
성굽	성+굽	[n+n]n		제주일도
성곶내깎	성곶내+깎	[n+n]n		서귀대포
성담	성+담	[n+n]n		서귀대포
성또	성+도	[n+n]n		서귀동홍
성또	성+도	[n+n]n		서귀서홍
성또길	성+도+길	[n+n+n]n	(MM)M	서귀서홍
성모기왓	성+목+이+왓	[n+n+s+n]n	((MM)M)M	서귀보목
성바곶디밭	성+바곶+디+밭	[n+n+s+n]n	((MM)M)M	제주삼양
성산땡벵디	성+사+ㄴ+땡+벵디	[n+vr+e+n+n]n	((((MM)M)M)M)	제주도평
성아진밭	성+앗+인+밭	[n+vr+e+n]n	((MM)M)M	제주연동

성안밭	성+안+밭	[n+n+n]n	(MM)M	제주삼양
성안집	성+안+집	[n+n+n]n	(MM)M	서귀토평
성알	성+알	[n+n]n		서귀보목
성알	성+알	[n+n]n		제주화북
성알동네	성+알+동네	[n+n+n]n	(MM)M	서귀하예
성제돌	성제[兄弟]+돌	[n+n]n		서귀대포
성제돌	성제[兄弟]+돌	[n+n]n		서귀하효
성제동산	성제[兄弟]+동산	[n+n]n		제주일도
성찾논	성+찾+논	[n+n+n]n	(MM)M	서귀강정
성창굴	성창+굴	[n+n]n		서귀월평
성창굴왓	성창+굴+왓	[n+n+n]n	(MM)M	서귀월평
성항굴	성항+굴	[n+n]n		서귀동홍
세가름	세+가름	[d+n]n		제주회천
세경물	세경+물	[n+n]n		서귀보목
세기남도내	세기+남+도+내	[n+n+n+n]n	((MM)M)M	서귀서홍
세기남도질	세기+남+도+질	[n+n+n+n]n	((MM)M)M	서귀서홍
세밋도	세미+도	[n+n]n		서귀영천
세방동산	세+방+동산	[d+n+n]n	(MM)M	서귀호근
세벨논	세벨+논	[n+n]n		서귀강정
세갓꼭지	세+갓+꼭지	[d+n+n]n	(MM)M	서귀가가
세치방목	세+치+방+목	[d+n+n+n]n	((MM)M)M	서귀신호
세칠목	새+질+목	[n+n+n]n	(MM)M	서귀보목
세카름질	새+카름+질	[n+n+n]n	(MM)M	서귀호근
세커리(식커리)	세(식)+거리	[nu+n]n		제주해안
셋드리통	새+드리+통	[n+n+n]n	(MM)M	서귀토평
셋깃우녕	새+집+우녕	[n+n+n]n	(MM)M	서귀서홍
셋치구릉	새+치+구릉	[n+n+n]n	(MM)M	제주연동
셋한질	새+한+질	[n+p+n]n	M(MM)	서귀서홍
소계밭	소계+밭	[n+n]n		제주노형
소계왓	소+가+왓	[n+s+n]n	(MM)M	제주화북
소괘왓	소+괘+왓	[n+n+n]n	(MM)M	제주봉개
소귀동산	소귀+동산	[n+n]n		서귀동홍
소곶내	소귀+내	[n+n]n		서귀동홍
소금막	소금+막	[n+n]n		서귀하효
소금밭	소금+밭	[n+n]n		서귀강정
소금밭	속+은+밭	[vr+e+n]n	(MM)M	서귀영천
소금빌레	소금+빌레	[n+n]n		제주외도
소금빌레	소금+빌레	[n+n]n		제주용담
소금통	소금+통	[n+n]n		서귀보목
소난밭	솔+난(낭)+밭	[n+n+n]n	(MM)M	제주삼양
소남동산	솔+남+동산	[n+n+n]n	(MM)M	서귀회수
소남동산	솔+남+동산	[n+n+n]n	(MM)M	제주영평

소남동산	솔+남+동산	[n+n+n]n	(MM)M	제주오등
소남디	솔+남+디	[n+n+n]n	(MM)M	서귀토평
소남드로	솔+남+드로	[n+n+n]n	(MM)M	제주이호
소남드르	솔+남+드르	[n+n+n]n	(MM)M	제주아라
소남머리	솔+남+머리	[n+n+n]n	(MM)M	서귀서흥
소남머리물	솔+남+머리+물	[n+n+n+n]n	((MM)M)M	제주화북
소남밭	솔+남+밭	[n+n+n]n	(MM)M	제주이호
소낭골	솔+낭+골	[n+n+n]n	(MM)M	서귀강정
소낭굴	소+낭+굴	[n+n+n]n	(MM)M	제주회천
소낭목	솔+낭+목	[n+n+n]n	(MM)M	제주도두
소낭밭	솔+낭+밭	[n+n+n]n	(MM)M	서귀강정
소낭밭	솔+낭+밭	[n+n+n]n	(MM)M	서귀대포
소낭밭	솔+낭+밭	[n+n+n]n	(MM)M	서귀월평
소낭밭	솔+낭+밭	[n+n+n]n	(MM)M	제주아라
소도릿도	소(小)+드리+도	[ar+n+n]n	(MM)M	서귀강정
소동(少童)이터	소동+이+터	[n+s+n]n	(MM)M	서귀대포
소랑여	소랑+여	[ar+n]n		서귀대포
소랑케	소랑+케	[ar+n]n		제주연동
소래기골	소래기+골	[n+n]n		서귀강정
소래기동산	소래기+동산	[n+n]n		제주건입
소로기동산	소로기+동산	[n+n]n		제주노형
소로기동산	소로기+동산	[n+n]n		제주의도
소로기동산	소로기+동산	[n+n]n		제주용담
소로기동산	소로기+동산	[n+n]n		제주이호
소로기동산	소로기+동산	[n+n]n		제주일도
소로기동산	소로기+동산	[n+n]n		제주화북
소록돌	소록+돌	[n+n]n		서귀대포
소롬밭	소롬+밭	[ar+n]n		제주도평
소롬밭	소롬+밭	[ar+n]n		제주의도
소르기동산	소르기+동산	[n+n]n		서귀대포
소리기돌	소리기+돌	[n+n]n		서귀하예
소벙디	소+벙디	[n+n]n		서귀호근
소산오름	숫+안+오름	[vr+te+n]n	(MM)M	제주아라
소선달밭	소+선달+밭	[n+n+n]n	(MM)M	제주회천
소악낭골	송악+낭+골	[n+n+n]n	(MM)M	서귀호근
소왕남므르질	소왕+남+므르+질	[n+n+n+n]n	((MM)M)M	서귀보목
소왕낭거리	소왕+낭+거리	[n+n+n]n	(MM)M	서귀하예
소왕물	소왕+물	[n+n]n		서귀강정
소왕밭	소+왕+밭	[n+n+n]n	(MM)M	서귀영천
속골	속+골	[n+n]n		서귀호근
속당모루	속당+므루	[n+n]n		서귀호근
속밭	속+밭	[n+n]n		제주용강

속질왓	속+질+왓	[n+n+n]n	(MM)M	서귀 회수
솔대왓	소+리+대+왓	[vr+te+n+n]n	((MM)M)M	제주삼양
솔대왓	소+리+대+왓	[vr+te+n+n]n	((MM)M)M	제주아라
솔대왓	소+리+대+왓	[vr+te+n+n]n	((MM)M)M	제주월평
솔대왓	솔대+왓	[n+n]n		서귀강정
솔대왓	솔대+왓	[n+n]n		서귀서흥
솔대왓	솔대+왓	[n+n]n		서귀영천
솔대왓	솔대+왓	[n+n]n		서귀하원
솔대왓	솔대+왓	[n+n]n		서귀호근
솔대왓	솔대+왓	[n+n]n		제주도두
솔대왓	솔대+왓	[n+n]n		제주연동
솔동산	솔+동산	[n+n]n		서귀송산
솔박여	솔박+여	[n+n]n		서귀강정
솔박여	솔박+여	[n+n]n		제주삼양
솔박통	솔박+통	[n+n]n		서귀보목
솔오름	쏘+리+오름	[vr+te+n]n	(MM)M	서귀동홍
솔왓	솔+왓	[n+n]n		서귀호근
솔왓동산	솔+왓+동산	[n+n+n]n	(MM)M	서귀호근
솔태왓	솔태+왓	[n+n]n		서귀호근
솔피난머덕	솔피+납+머덕	[n+n+n]n	(MM)M	서귀회수
솜통물	솜+통+물	[n+n+n]n	(MM)M	서귀월평
송개왓	송+가+왓	[n+s+n]n	(MM)M	제주영평
송게집터	송+가+집+터	[n+s+n+n]n	((MM)M)M	제주회천
송곳여	송곳+여	[n+n]n		제주내도
송곳여	송곳+여	[n+n]n		제주도두
송연쾌	송연+쾌	[n+n]n		서귀용홍
송장사라난빌레	송장+스르+아+나+나+빌레	[n+vr+te+vr+te+n]n	((((MM)M)M)M)M	서귀서흥
송펜이골	송펜+이+골	[n+s+n]n	(MM)M	서귀상예
쇠돌이맹이	쉐+돌+이+맹이	[n+n+n]n	(MM)M	서귀호근
쇠머리여	쉐+머리+여	[n+n+n]n	(MM)M	서귀호근
쇠머리코지	쉐+머리+코지	[n+n+n]n	(MM)M	서귀호근
쇠먹는물	쉐+먹+는+물	[n+vr+te+n]n	((MM)M)M	서귀색달
쇠명는물	쉐+먹+는+물	[n+vr+te+n]n	((MM)M)M	서귀대포
쇠명는물여	쉐+먹+는+물+여	[n+vr+te+n+n]n	((((MM)M)M)M)M	서귀대포
쇠소각	쉐+소+각	[n+n+n]n	(MM)M	서귀하호
쇠에움빳	쉐+에+움+빳	[n+n+n]n	(MM)M	서귀호근
쇠우리동산	쇠+우리+동산	[n+n+n]n	(MM)M	서귀영천
쇠저리는자리	쉐+저리+는+자리	[n+vr+te+n]n	((MM)M)M	서귀호근
쇠코	쉐+코	[n+n]n		서귀색달
쇠코	쉐+코	[n+n]n		서귀월평
쇠테왓	쉐테+왓	[n+n]n		서귀도순
수덕동산	수덕+동산	[n+n]n		제주노형

수덕동산	수덕+동산	[n+n]n		제주외도
수두리늪	수두리+늪	[n+n]n		서귀하원
수루막동산	수루+막+동산	[n+n+n]n	(MM)M	서귀보목
수루막질	수루+막+질	[n+n+n]n	(MM)M	서귀보목
수리덕	수리+덕	[n+n]n		서귀강정
수모루	수+모루	[n+n]n		서귀호근
수믄여	습+은+여	[vr+e+n]n	(MM)M	서귀대포
수울앞	수울+앞	[n+n]n		서귀호근
숙물	숙+물	[n+n]n		서귀서흥
술아진밭	술+앗+인+밭	[n+vr+e+n]n	((MM)M)M	서귀용흥
술왓	술+왓	[n+n]n		제주월평
습골왓	습+골+왓	[n+n+n]n	(MM)M	서귀상예
습골드로	습+골+드+로	[n+n+n]n	(MM)M	제주노형
습골왓	습+골+왓	[n+n+n]n	(MM)M	제주도련
습골왓	습+골+왓	[n+n+n]n	(MM)M	제주노형
습골왓	습+골+왓	[n+n+n]n	(MM)M	제주노형
습골왓	습+골+왓	[n+n+n]n	(MM)M	제주연동
습골왓	습+골+왓	[n+n+n]n	(MM)M	제주오라
습골왓	습+골+왓	[n+n+n]n	(MM)M	제주외도
습골왓	습+골+왓	[n+n+n]n	(MM)M	제주해안
습은보리즈베기	습+은+보리+즈베기	[vr+e+n+n]n	(MM)(MM)	제주도두
습은여	습+은+여	[vr+e+n]n	(MM)M	제주용담
숫굴이멩이	숫+굴+이+멩이	[n+n+n]n	(MM)M	서귀호근
숫므르동산	숫+므르+동산	[n+n+n]n	(MM)M	제주용강
숫오름	숫+오름	[n+n]n		서귀호근
숭에원	숭+에+원	[n+n]n		제주삼양
쉐드르	쉐+드르	[n+n]n		제주영평
쉐머리코	쉐+머리+코	[n+n+n]n	(MM)M	제주내도
쉐물	쉐+물	[n+n]n		제주화북
쉐죽은드르	쉐+죽+은+드르	[n+vr+e+n]n	((MM)M)M	제주화북
쉐죽은밭	쉐+죽+은+밭	[n+vr+e+n]n	((MM)M)M	제주영평
쉐통	쉐+통	[n+n]n		제주영평
쉬는동산	쉬+는+동산	[vr+e+n]n	(MM)M	서귀도순
쉬는산	쉬+는+산	[vr+e+n]n	(MM)M	서귀토평
쉬는팡	쉬+는+팡	[vr+e+n]n	(MM)M	서귀우남
쉬어모루	쉬+어+모루	[vr+e+n]n	(MM)M	서귀호근
시리덕/시리돌	시리+덕	[n+n]n		서귀하예
시리돌	시리+돌	[n+n]n		서귀대포
시리돌	시리+돌	[n+n]n		서귀색달
식궤	식+궤	[n+n]n		서귀호근
신개동산	신+가(哥)+동산	[n+s+n]n	(MM)M	서귀서흥
신남골	신+남+골	[n+n+n]n	(MM)M	서귀중문

신남동산	산+남+동산	[n+n+n]n	(MM)M	제주도평
신남밭당	신(神)+남+밭+당	[n+n+n+n]n	((MM)M)M	서귀보목
신산므루	신신+므루	[n+n]n		제주일도
신산므르	신산(신선)+므르	[n+n]n		제주도련
심방소	심방+소	[n+n]n		서귀용흥
싱피왓	싱피+왓	[n+n]n		서귀용흥
스레개	스레+개	[n+n]n		서귀보목
스렛질	스레+질	[n+n]n		서귀보목
쌍몰뱅이	쌍+몰+뱅이	[n+n+n]n	(MM)M	서귀하원
썩근빌레	썩+은+빌레	[ar+e+n]n	(MM)M	서귀대포
썩근섬	썩+은+섬	[ar+e+n]n	(MM)M	서귀강정
썩금바령	썩+은+바령	[vr+e+n]n	(MM)M	서귀신호
아끈내	아끈+내	[n+n]n		서귀강정
아랫물	아래+물	[n+n]n		제주삼양
아랫사장	아래+사장	[n+n]n		서귀하호
아웨낭목	아웨+낭+목	[n+n+n]n	(MM)M	서귀도순
아웨낭목	아웨+낭+목	[n+n+n]n	(MM)M	서귀월평
아웨낭밭	아웨+낭+밭	[n+n+n]n	(MM)M	제주도련
아즌덕	앗+은+덕	[vr+e+n]n	(MM)M	서귀중문
아홉굴왓	아홉+굴+왓	[d+n+n]n	(MM)M	제주오라
아홉선반양탱이	아홉+선반+양탱이	[d+n+n]n	(MM)M	제주용담
아홉선반여	아홉+선반+여	[d+n+n]n	(MM)M	제주용담
약근내질	아끈+내+질	[n+n+n]n	(MM)M	서귀용흥
안가름	안+가름	[n+n]n		서귀서흥
안가름세거리	안+가름+세+거리	[n+n+d+n]n	(MM)(MM)	서귀서흥
안가막술	안+가막+술	[n+n+n]n	M(MM)	제주아라
안강정	안+강정	[n+n]n		서귀강정
안강정개	안+강정+개	[n+n+n]n	(MM)M	서귀강정
안강정원	안+강정+원	[n+n+n]n	(MM)M	서귀강정
안거리왓	안+거리+왓	[n+n+n]n	(MM)M	서귀서흥
안고상여	안+고상+여	[n+n+n]n	M(MM)	서귀서귀
안곤홀	밭+곶+ㄴ+홀	[n+ar+e+n]n	M((MM)M)	제주화북
안골목	안+골목	[n+n]n		제주삼양
안늪	안+늪	[n+n]n		서귀대포
안마께코지	안+마께+코지	[n+n+n]n	M(MM)	제주이호
안목	안+목	[n+n]n		제주아라
안보물	안+보+물	[n+n+n]n	(MM)M	제주도련
안불낙여	안+불+낙+여	[n+n+n]n	M(MM)	제주도두
안새미오름	안+새+미+오름	[n+n+n]n	M(MM)	제주봉개
안우녕	안+우녕	[n+n]n		서귀서흥
안우녕골목	안+우녕+골목	[n+n+n]n	(MM)M	서귀서흥
안우영	안+우영	[n+n]n		제주영평

안원	안+원	[n+n]n		제주외도
안주여	안+주+여	[n+n+n]n	M(MM)	제주이호
안진므루	안+진+므+루	[n+n+n]n	(MM)M	서귀영천
안케	안+케	[n+n]n		제주회천
안큰집	안+크+ㄴ+집	[n+ar+e+n]n	M((MM)M)	서귀동홍
안태왓	안+태+왓	[n+n+n]n	M(MM)	제주봉개
안통	안+통	[n+n]n		서귀강정
안팍구석	안+팍+구석	[n+n+n]n	(MM)M	서귀영천
안팽상여	안+팽+상+여	[n+n+n]n	M(MM)	제주이호
알가매왓	알+가매+왓	[n+n+n]n	M(MM)	제주월평
알골논	알+골+논	[n+n+n]n	(MM)M	서귀강정
알구멍	알+구멍	[n+n]n		서귀영천
알궂물	알+궂+물	[n+n+n]n	M(MM)	서귀강정
알난여	알+나+ㄴ+여	[n+ar+e+n]n	M((MM)M)	서귀호근
알너리	알+너리	[n+n]n		서귀강정
알당밭	알+당+밭	[n+n+n]n	(MM)M	서귀하원
알택	알+택	[n+n]n		서귀토평
알동네	알+동네	[n+n]n		서귀강정
알동네	알+동네	[n+n]n		서귀호근
알동네	알+동네	[n+n]n		제주내도
알동네	알+동네	[n+n]n		제주도두
알동네	알+동네	[n+n]n		제주용강
알동네[下洞]	알+동네	[n+n]n		제주도평
알동산	알+동산	[n+n]n		제주노형
알동산	알+동산	[n+n]n		제주아라
알막은굴	알+막+은+굴	[n+ar+e+n]n	M((MM)M)	제주용강
알막은굴	알+막+은+굴	[n+ar+e+n]n	M((MM)M)	제주해안
알머왓	알+머+왓	[n+n+n]n	M(MM)	제주용강
알목	알+목	[n+n]n		서귀월평
알목	알+목	[n+n]n		제주용담
알목고망	알+목+고망	[n+n+n]n	(MM)M	서귀대포
알물	알+물	[n+n]n		제주연동
알물	알+물	[n+n]n		제주연동
알물통	알+물+통	[n+n+n]n	(MM)M	제주외도
알벵디	알+벵디	[n+n]n		제주삼양
알병디	알+병디	[n+n]n		서귀월평
알빌레	알+빌레	[n+n]n		제주노형
알산천밭	알+산+천+밭	[n+n+n]n	(MM)M	서귀용홍
알새미	알+새미	[n+n]n		제주아라
알새미왓	알+새미+왓	[n+n+n]n	(MM)M	제주아라
알생기골	알+생기+골	[n+n+n]n	M(MM)	제주일도
알선반질	알+선반+질	[n+n+n]n	M(MM)	제주화북

알선반질	알+선반+질	[n+n+n]n	M(MM)	제주회천
알섯네거리	알+서+네+거리	[n+n+nu+n]n	M(M(MM))	서귀토평
알성텨이	알+성텨이	[n+n]n		제주의도
알쇄돈	알+쇄+돈	[n+n]n		서귀하효
알오름	알+오름	[n+n]n		서귀대포
알오름	알+오름	[n+n]n		서귀중문
알오름	알+오름	[n+n]n		제주연동
알오름	알+오름	[n+n]n		제주화북
알진동산	알+질+ㄴ+동산	[n+ar+te+n]n	M((MM)M)	서귀대포
알카름	알+카름	[n+n]n		제주삼양
알통물	알+통+물	[n+n+n]n	M(MM)	서귀동홍
알흠밭	알+흠+밭	[n+n+n]n	M(MM)	제주아라
압피여	압+피+여	[n+n]n		서귀보목
압내	압+내	[n+n]n		제주이도
앞개	앞+개	[n+n]n		서귀보목
앞개	앞+개	[n+n]n		서귀송산
앞거리	앞+거리	[n+n]n		서귀중문
앞걸	앞+걸	[n+n]n		서귀보목
앞구릉밭	앞+구릉+밭	[n+n+n]n	M(MM)	제주영평
앞내	앞+내	[n+n]n		서귀서홍
앞내	앞+내	[n+n]n		서귀회수
앞내	앞+내	[n+n]n		제주도평
앞내골챙이	앞+내+골챙이	[n+n+n]n	(MM)M	서귀대포
앞동산	앞+동산	[n+n]n		서귀신효
앞동산	앞+동산	[n+n]n		서귀토평
앞동산	앞+동산	[n+n]n		제주도남
앞동산	앞+동산	[n+n]n		제주삼양
앞동산	앞+동산	[n+n]n		제주삼양
앞뒤틀레	앞+뒤틀레	[n+n+n]n	M(MM)	서귀토평
앞물	앞+물	[n+n]n		서귀강정
앞므루	앞+므루	[n+n]n		제주건입
앞므르	앞+므르	[n+n]n		제주아라
앞므를	앞+므를	[n+n]n		제주오라
앞바르	앞+바르	[n+n]n		서귀호근
앞밭	앞+밭	[n+n]n		서귀강정
앞밭	앞+밭	[n+n]n		서귀서홍
앞밭	앞+밭	[n+n]n		제주삼양
앞밭	앞+밭	[n+n]n		제주월평
앞밭	앞+밭	[n+n]n		제주이호
앞밭동네	앞+밭+동네	[n+n+n]n	(MM)M	서귀강정
앞벵디	앞+벵디	[n+n]n		제주아라
앞병디	앞+병디	[n+n]n		서귀서홍

앞빌레	앞+빌레	[n+n]n		서귀색달
앞빌레	앞+빌레	[n+n]n		제주삼양
앞여	앞+여	[n+n]n		서귀보목
앞오름	앞+오름	[n+n]n		제주삼양
앞오름	앞+오름	[n+n]n		제주화북
앞통	앞+통	[n+n]n		서귀색달
앞튼여	앞+튼+여	[n+d+n]n	M(MM)	서귀보목
앞한질	앞+한+질	[n+p+n]n	M(MM)	서귀월평
애기까달	애기+가달	[n+n]n		서귀서홍
애기난갓도	애기+나+ㄴ+개+도	[n+vr+e+n]n	((MM)M)M	서귀영천
애기물은밭	애기+물+은+밭	[n+vr+e+n]n	((MM)M)M	제주영평
애기물	애기+물	[n+n]n		서귀호근
애기엿게들	애기+엿+개+들	[n+vr+st+n]n	((MM)M)M	서귀상예
애기엿게들	애기+엿+개+들	[n+vr+st+n]n	((MM)M)M	서귀신호
애기엿은돌	애기+엿+은+돌	[n+vr+e+n]n	((MM)M)M	제주화북
야게술	야+게+술	[n+n]n		제주해안
양가왓	양+가+왓	[n+n+n]n	(MM)M	서귀서홍
양근동산	양+근+동산	[n+n]n		서귀영천
양다리왓	양+다리+왓	[d+n+n]n	(MM)M	제주영평
양에왓	양+에(양하)+왓	[n+n]n		제주아라
양제못	양+제+못	[d+n+n]n	(MM)M	서귀하호
양지모루	양+지+모루	[n+n]n		서귀호근
어두모루	어+두+모루	[n+n]n		서귀회수
어랭이갓도	어+랭이+개+도	[n+n+n]n	(MM)M	서귀보목
어랭이개튼여	어+랭이+개+튼+여	[n+n+d+n]n	(MM)(MM)	서귀보목
어육동산	어+육+동산	[n+n]n		제주용담
어육트명	어+육+트명	[n+n]n		제주이호
어음케	어+음+케	[n+n]n		서귀상예
얼레기터	얼+레기+터	[n+n]n		제주오라
엄남골	엄+남+골	[n+n+n]n	(MM)M	서귀회수
엄남밭	엄+남+밭	[n+n+n]n	(MM)M	제주영평
영내	영+내	[n+n]n		제주연동
영내왓	영+내+왓	[n+n+n]n	(MM)M	제주연동
영덕물	영+덕+물	[n+n]n		제주삼양
영또	영+도	[n+n]n		서귀월산
영또폭포	영+도+폭포	[n+n+n]n	(MM)M	서귀월산
영물	영+물	[n+n]n		제주내도
영물	영+물	[n+n]n		제주도두
영물	영+물	[n+n]n		제주도두
영물	영+물	[n+n]n		제주삼양
영물	영+물	[n+n]n		제주외도
영물각코지	영+물+각+코지	[n+n+n+n]n	((MM)M)M	제주외도

영물당	영+물+당	[n+n+n]n	(MM)M	제주도두
영물동산	영+물+동산	[n+n+n]n	(MM)M	제주도두
영물머리개	영+물+머리+개	[n+n+n+n]n	((MM)M)M	제주화북
영물머리당	영+물+머리+당	[n+n+n+n]n	((MM)M)M	제주화북
영물원	영+물+원	[n+n+n]n	(MM)M	제주도두
영물코지	영+물+코지	[n+n+n]n	(MM)M	제주삼양
영밭케	영+밭+케	[n+n+n]n	(MM)M	서귀중문
영알	영+알	[n+n]n		서귀월산
영카름	영+카름	[n+n]n		제주내도
영캐물	영+캐+물	[n+n+n]n	(MM)M	서귀보목
영코지	영+코지	[n+n]n		제주용담
여개밭	여+가+밭	[n+s+n]n	(MM)M	서귀하원
여개비동산	여개비+동산	[n+n]n		서귀월산
여근이골	여근이+골	[n+n]n		서귀서흥
여드렛당	으드레+당	[n+n]n		서귀동흥
여드렛당	으드레+당	[n+n]n		서귀호근
여마진터	여마진+터	[n+n]n		서귀하원
여무덤	여[古]+무덤	[d+n]n		서귀강정
여시동산	여시+동산	[n+n]n		제주노형
여이물	여이+물	[n+n]n		서귀호근
역기왓	역기+왓	[n+n]n		서귀월평
역적수울	역적+수울	[n+n]n		제주회천
연기믄루동산	연기+믄루+동산	[n+n+n]n	(MM)M	서귀영천
연대모루	연대+믄루	[n+n]n		서귀중문
연대왓	연대+왓	[n+n]n		서귀하예
연대코지소금빌레	연대+코지+소금+빌레	[n+n+n+n]n	(MM)(MM)	제주외도
연동산	연+동산	[n+n]n		서귀용흥
연든모루	연든+믄루	[n+n]n		서귀월평
연든모르	연든+믄르	[n+n]n		서귀색달
연되동산	연되+동산	[n+n]n		서귀호근
연되밑질	연되+밑+질	[n+n+n]n	(MM)M	서귀보목
연디케	연디+케	[n+n]n		서귀대포
연디동산	연디+동산	[n+n]n		서귀정방
연디동산	연디+동산	[n+n]n		제주화북
연디밋	연디+밋	[n+n]n		제주화북
연디밋코지	연디+밋+코지	[n+n+n]n	(MM)M	제주화북
연디밑	연디+밑	[n+n]n		서귀대포
연디왓	연디+왓	[n+n]n		서귀호근
연못벵되	연못+벵되	[n+n]n		제주봉개
연못터	연못+터	[n+n]n		서귀용흥
연자벵되	연자+벵되	[n+n]n		제주회천
연재골	연+자+골	[n+n+n]n	(MM)M	서귀서흥

연재골물	연+자+골+물	[n+n+n+n]n	((MM)M)M	서귀서홍
연지골	연+즈+골	[n+n]n		서귀동홍
열려문동산	열려문+동산	[n+n]n		서귀중문
염돈뒋동산	염돈+뒋+동산	[n+n+n]n	(MM)M	서귀염돈
염생이털	염생+이+털	[n+n]n		제주오라
염수굴동산	염수+굴+동산	[n+n+n]n	(MM)M	서귀중문
염통피	염통+피	[n+n]n		제주연동
영등밭	영등+밭	[n+n]n		서귀하원
영수모루	영수+모루	[n+n]n		서귀서홍
영수물	영수+물	[n+n]n		서귀서홍
옛날원	옛날+원	[n+n]n		제주의도
오녀돌	오녀+돌	[n+n]n		제주도두
오니돌	오니+돌	[n+n]n		제주이호
오도리	오+도리	[n+n]n		서귀호근
오랑캐골	오랑캐+골	[n+n]n		서귀동홍
오래물	오+래+물	[n+vr+n]n	(MM)M	제주도두
오래물동산	오+래+물+동산	[n+vr+n+n]n	((MM)M)M	제주도두
오로콰	오로+콰	[n+n]n		제주월평
오로콰	오로+콰	[n+n]n		제주이호
오로콰	오로+콰	[n+n]n		제주화북
오로콰밭	오로+콰+밭	[n+n+n]n	(MM)M	제주해안
오로흙	오로+흙	[n+n]n		서귀회수
오름골	오름+골	[n+n]n		서귀하원
오른길	오르+ㄴ+길	[vr+e+n]n	(MM)M	제주도남
오름가름	오름+가름	[n+n]n		제주오라
오름골	오름+골	[n+n]n		서귀중문
오름물통	오름+물+통	[n+n+n]n	(MM)M	서귀보목
오막통	오막+통	[ar+n]n		서귀호근
오목골	오목+골	[ar+n]n		제주이호
오죽께	오죽+께	[n+n]n		서귀하원
오죽돌	오죽+돌	[n+n]n		서귀동홍
오죽돌	오죽+돌	[n+n]n		서귀하예
오죽돌	오죽+돌	[n+n]n		서귀하원
오죽돌	오죽+돌	[n+n]n		서귀회수
오죽돌동산	오죽+돌+동산	[n+n+n]n	(MM)M	서귀중문
오죽흙	오죽+흙	[n+n]n		서귀중문
오즈미골물	오줌+이+골+물	[n+s+n+n]n	((MM)M)M	서귀색달
오지똥	오지+똥	[n+n]n		제주내도
오징애왓	오징애+왓	[n+n]n		제주도두
옥도루	옥+도루	[n+n]n		서귀강정
옥뻘미물	옥뻘미+물	[n+n]n		제주노형
옥생이올래	옥생이+올래	[n+n]n		서귀하예

옥하골	옥+하+골	[n+n+n]n	(MM)M	서귀 동홍
옥환이왓	옥환+이+왓	[n+st+n]n	(MM)M	서귀 영천
올래동산	올래+동산	[n+n]n		서귀 토평
올래왓	올래+왓	[n+n]n		제주도두
올래왓	올래+왓	[n+n]n		제주시호
올랭이동산	올랭이+동산	[n+n]n		제주시호
올리소	올리+소	[n+n]n		서귀 월산
올리소	올리+소	[n+n]n		서귀 중문
올리소	올리+소	[n+n]n		서귀 호근
올리소	올리+소	[n+n]n		제주해안
올리소내	올리+소+내	[n+n+n]n	(MM)M	제주해안
올림은어통	올리+口+은어+통	[vr+te+n+n]n	((MM)M)M	서귀 강정
옴막밭	옴막+밭	[ar+n]n		서귀 호근
옴탕밭	옴탕+밭	[ar+n]n		제주삼양
옷똥얏	옷+똥+얏	[n+n+n]n	(MM)M	서귀 하원
옷아즌돌	옷+얏+은+돌	[n+vr+te+n]n	((MM)M)M	서귀 색달
옷아즌돌	옷+얏+은+돌	[n+vr+te+n]n	((MM)M)M	서귀 하예
옷아진돌	옷+얏+인+돌	[n+vr+te+n]n	((MM)M)M	서귀 대포
옷코지	옷+코지	[n+n]n		서귀 강정
옷아진여	옷+얏+인+여	[n+vr+te+n]n	((MM)M)M	제주삼양
왓새도르	왓새+드루	[n+n]n		서귀 하원
왕개여	왕+개+여	[n+n+n]n	(MM)M	서귀 호근
왕대무덤	왕+대+무덤	[n+n+n]n	(MM)M	서귀 월산
왕대왓	왕+대+왓	[n+n+n]n	(MM)M	서귀 강정
왕대왓	왕+대+왓	[n+n+n]n	(MM)M	서귀 서흥
왕대칩	왕+대+칩	[n+n+n]n	(MM)M	서귀 신호
왕대코지	왕+대+코지	[n+n+n]n	(MM)M	서귀 신호
왕돌거리	왕+돌+거리	[n+n+n]n	(MM)M	제주도평
왕돌거리	왕+돌+거리	[n+n+n]n	(MM)M	제주해안
왕돌우영	왕+돌+우영	[n+n+n]n	(MM)M	제주연동
왕동산	왕+동산	[n+n]n		서귀 서흥
왕졸드르	왕+졸+드르	[n+n]n		제주의도
왜낭믄루	왜+낭+믄루	[n+n+n]n	(MM)M	서귀 보목
왜왓	왜+의+왓	[n+n]n		서귀 동홍
왜통	왜+통	[n+n]n		서귀 신호
외돌개	외+돌+개	[p+n+n]n	(MM)M	서귀 서흥
외소낭아즌밭	외+솔+낭+얏+은+밭	[p+n+n+vr+te+n]n	((((MM)M)M)M)M	서귀 상예
외왓	왜+왓	[n+n]n		서귀 호근
외진믄루	외+진+믄루	[n+n+n]n	(MM)M	서귀 영천
요드랫당	으드레+당	[n+n]n		서귀 보목
요드랫당	으드레+당	[n+n]n		서귀 서흥
요드랫당	으드레+당	[n+n]n		서귀 호근

육은이므르	으+은+이+므르	[art+et+st+n]n	((MM)M)M	제주영평
용다리왓	용+다리+왓	[n+n+n]n	(MM)M	제주아라
용당	용+당	[n+n]n		서귀서흥
용돌	용+돌	[n+n]n		서귀토평
용두골	용+두+골	[n+n+n]n	(MM)M	서귀영천
용지동산	용지+동산	[n+n]n		서귀하호
우게왓	우+가+왓	[n+s+n]n	(MM)M	제주화북
우게집터	우+가+집+터	[n+s+n+n]n	((MM)M)M	제주아라
우럭골	우럭+골	[n+n]n		서귀호근
우럭밭	우럭+밭	[n+n]n		서귀용흥
우럭통	우럭+통	[n+n]n		서귀강정
우목동산	우목+동산	[n+n]n		서귀서흥
우미통	우미+통	[n+n]n		서귀호근
우영팻	우영+팻	[n+n]n		제주삼양
운선이모루	운선이+므루	[n+n]n		서귀서흥
울렁동산	울렁+동산	[n+n]n		서귀신호
울막은밭	울+막+은+밭	[n+vr+et+n]n	((MM)M)M	제주해안
울음동산	울음+동산	[n+n]n		서귀신호
움부리므르	움부리+므르	[n+n]n		제주아라
움텅밭	움텅+밭	[ar+n]n		서귀중문
움텅밭	움텅+밭	[ar+n]n		제주노형
움텅이굴	움텅이+굴	[n+n]n		제주월평
움통밭	움통+밭	[n+n]n		서귀토평
웃가매왓	우+가매+왓	[n+n+n]n	M(MM)	제주월평
웃거지	우+거지	[n+n]n		서귀호근
웃골	우+골	[n+n]n		서귀하원
웃골논	우+골+논	[n+n+n]n	(MM)M	서귀강정
웃굴왓	우+굴+왓	[n+n+n]n	M(MM)	제주월평
웃난여	우+나+ㄴ+여	[n+ar+et+n]n	M((MM)M)	서귀호근
웃넛도	우+내+도	[n+n+n]n	M(MM)	서귀중문
웃너리	우+너리	[n+n]n		서귀강정
웃동네	우+동네	[n+n]n		제주도두
웃동네	우+동네	[n+n]n		제주용강
웃동네[上洞]	우+동네	[n+n]n		제주도평
웃동네	우+동네	[n+n]n		제주도두
웃뒷빌레	우+뒷+빌레	[n+n+n]n	M(MM)	서귀토평
웃뒷빌레못	우+뒷+빌레+못	[n+n+n+n]n	M((MM)M)	서귀토평
웃막은굴	우+막+은+굴	[n+vr+et+n]n	M((MM)M)	제주용강
웃머채	우+머채	[n+n]n		서귀동흥
웃목	우+목	[n+n]n		서귀월평
웃무드내	우+무+두(無頭)+내	[n+ar+n+n]n	M((MM)M)	제주용강
웃물	우+물	[n+n]n		서귀서흥

옷물거리	우+물+거리	[n+n+n]n	(MM)M	제주해안
옷물동산	우+물+동산	[n+n+n]n	(MM)M	제주해안
옷물질	우+물+질	[n+n+n]n	M(MM)	제주월평
옷막실질	우+막실+질	[n+n+n]n	M(MM)	제주삼양
옷벙디	우+벙디	[n+n]n		제주삼양
옷병디	우+병디	[n+n]n		서귀월평
옷산천밭	우+산천+밭	[n+n+n]n	(MM)M	서귀월산
옷상장막르	우+상장+막르	[n+n+n]n	(MM)M	제주회천
옷새동네	우+새+동네	[n+n+n]n	M(MM)	서귀동홍
옷새물	우+새+물	[n+d+t]n	M(MM)	서귀서홍
옷새미	우+새미	[n+n]n		제주아라
옷생기골	우+생기+골	[n+n+n]n	M(MM)	제주일도
옷선반질	우+선반+질	[n+n+n]n	M(MM)	제주화북
옷성골목	우+성+골목	[n+n+n]n	M(MM)	서귀서홍
옷수월당	우+수월+당	[n+n+n]n	M(MM)	제주봉개
옷술	우+술	[n+n]n		제주노형
옷여	우+여	[n+n]n		서귀대포
옷올리소	우+올리+소	[n+n+n]n	M(MM)	제주월평
옷종남소	우+종+남+소	[n+n+n+n]n	M((MM)M)	제주월평
옷터	우+터	[n+n]n		서귀중문
원동산	원+동산	[n+n]n		서귀중문
원삼봉이논	원삼봉+이+논	[n+s+n]n	(MM)M	서귀강정
원아랫물	원+아래+물	[n+n+n]n	(MM)M	제주삼양
웨소남밭	웨+소+남+밭	[d+n+n+n]n	(M(MM))M	제주아라
웨왓	웨+왓	[n+n]n		제주연동
웨왓	웨+왓	[n+n]n		제주영평
웨벙디	웨+벙디	[n+n]n		제주도평
헝이동산	헝이+동산	[n+n]n		제주영평
헝이동산	헝이+동산	[n+n]n		제주화북
윗사장	위+사장	[n+n]n		서귀하효
유래동산	유래+동산	[n+n]n		서귀호근
유지남밭	유지+남+밭	[n+n+n]n	(MM)M	제주연동
유지남밭	유지+남+밭	[n+n+n]n	(MM)M	제주영평
윤개밭	윤+가+밭	[n+s+n]n	(MM)M	제주의호
은릉막르	은릉+막르	[n+n]n		제주도련
은물개	얼+ㄴ+물+개	[vr+e+n+n]n	((MM)M)M	제주오라
이개왓	이+가+왓	[n+s+n]n	(MM)M	제주도남
이리방밭	이+이방+밭	[n+n+n]n	(MM)M	제주의호
이문집	이문+집	[n+n]n		서귀토평
이침장물	이+침장+물	[n+n+n]n	(MM)M	서귀강정
이침장물	이+침장+물	[n+n+n]n	(MM)M	서귀월평
인정오름	인정+오름	[n+n]n		서귀영천

일렛당	일레+당	[n+n]n		서귀하호
일뢰쌌	일뢰+쌌	[n+n]n		서귀회수
일산동산	일산+동산	[n+n]n		제주영평
일산여	일산+여	[n+n]n		제주내도
임지왓	임지+왓	[n+n]n		제주노형
임지왓	임지+왓	[n+n]n		제주영평
임천총밭	임+천총+밭	[n+n+n]n	(MM)M	제주이호
으드레동산	으드레+동산	[n+n]n		제주봉개
자구남머치	자구+남+머치	[n+n+n]n	(MM)M	제주회천
자구남통	자구+남+통	[n+n+n]n	(MM)M	제주회천
자구릿물	자구리+물	[n+n]n		서귀서귀
자굴왓	자굴+왓	[n+n]n		제주도남
자굴왓	자굴+왓	[n+n]n		제주회천
자굴왓케	자굴+왓+케	[n+n+n]n	(MM)M	제주회천
자귀남밭	자귀+남+밭	[n+n+n]n	(MM)M	서귀증문
자귀남통	자귀+남+통	[n+n+n]n	(MM)M	제주영평
자리거리논셋여	자리+거리+논+새+여	[n+vr+te+n]n	((MM)M)M	서귀대포
자리덕	자리+덕	[n+n]n		서귀서흥
자리여	자리+여	[n+n]n		서귀보목
자릿여	자리+여	[n+n]n		서귀서귀
자왓못	자왓+못	[n+n]n		제주해안
자장코지	자장+코지	[n+n]n		서귀대포
자필막거리	자필+막+거리	[n+n+n]n	M(MM)	서귀상예
작멸왓	작멸(작지)+왓	[n+n]n		제주회천
작벽거리	작벽(작백)+거리	[n+n]n		제주삼양
작벽두둑	작벽+두둑	[n+n]n		제주오등
작서왓	작서+왓	[n+n]n		제주의도
작쉬왓	작쉬+왓	[n+n]n		제주연동
작왓	작+왓	[n+n]n		서귀수전
작은드리통	죽+은+드리+통	[ar+te+n]n	((MM)M)M	서귀토평
작지왓	작지+왓	[n+n]n		서귀천지
작지줄	작지+줄	[n+n]n		제주용담
잔목동산	жат+목+동산	[n+n+n]n	(MM)M	서귀동흥
잘리케	잘리(자루)+케	[n+n]n		제주연동
жат곽	жат+곽	[n+n]n		서귀수전
жат담	жат+담	[n+n]n		서귀토평
жат오름	жат+오름	[n+n]n		서귀상예
장골	장+골	[n+n]n		서귀월평
장구드르	장구+드르	[n+n]n		제주아라
장구드르	장구+드르	[n+n]n		제주월평
장구목	장구+목	[n+n]n		제주아라
장구목	장구+목	[n+n]n		제주오라

장구물동산	장구+물+동산	[n+n+n]n	(MM)M	서귀서흥
장구왓	장구+왓	[n+n]n		서귀강정
장구왓	장구+왓	[n+n]n		제주아라
장구왓	장구+왓	[n+n]n		제주영평
장군물	장군+물	[n+n]n		제주용강
장귀왓	장귀+왓	[n+n]n		서귀보목
장기도루	장기+드루	[n+n]n		서귀중문
장냄이동산	장냄+이+동산	[n+s+n]n	(MM)M	제주삼양
장막믄루	장막+믄루	[n+n]n		서귀토평
장밭	장+밭	[n+n]n		서귀송산
장산이왓	장산+이+왓	[n+s+n]n	(MM)M	서귀호근
장여	장(長)+여	[ar+n]n		서귀하원
장우기동산	장우+이+동산	[n+s+n]n	(MM)M	서귀월평
장이소	장이+소	[n+n]n		서귀용흥
장이여	장이+여	[n+n]n		서귀대포
장자굴왓동산	장+자굴+왓+동산	[ar+n+n+n]n	(M(MM))M	제주오등
장태왓	장태+왓	[n+n]n		제주봉개
장태코	장태+코	[n+n]n		서귀도순
장태구릉	장태+구릉	[n+n]n		제주영평
장태왓	장태+왓	[n+n]n		서귀보목
장태왓	장태+왓	[n+n]n		제주연동
장태코	장태+코	[n+n]n		서귀회수
장태코	장태+코	[n+n]n		제주용강
재통	재+통	[n+n]n		서귀하효
재필이우영	재필+이+우영	[n+s+n]n	(MM)M	제주회천
쟁반여	쟁반+여	[n+n]n		제주삼양
저배낭목	저배+낭+목	[n+n+n]n	(MM)M	서귀도순
저배낭밭	저배+낭+밭	[n+n+n]n	(MM)M	서귀서흥
저승문구멍	저승+문+구멍	[n+n+n]n	(MM)M	서귀월평
저성문	저성+문	[n+n]n		제주삼양
저성물	저성+물	[n+n]n		제주삼양
전복통	전복+통	[n+n]n		서귀강정
전복통	전복+통	[n+n]n		제주외도
절간질	절+간+질	[n+n]n		제주삼양
절꼭지	절+꼭지	[n+n]n		서귀호근
절동산	절+동산	[n+n]n		제주회천
절뒤	절+뒤	[n+n]n		제주외도
절드르	절+드르	[n+n]n		제주봉개
절모루	절+믄루	[n+n]n		서귀대포
절물	절+물	[n+n]n		제주봉개
절물	절+물	[n+n]n		제주외도
절물동산	절+물+동산	[n+n+n]n	(MM)M	제주해안

절물오름	절+물+오름	[n+n+n]n	(MM)M	제주붕개
절새미	절+새미	[n+n]n		제주화북
절새미동산	절+새미+동산	[n+n+n]n	(MM)M	제주화북
절터왓	절+터+왓	[n+n+n]n	(MM)M	서귀대포
점방빌레	점방+빌레	[n+n]n		서귀대포
점새기왓	점새기+왓	[n+n]n		서귀호근
정개밭	정+가+밭	[n+s+n]n	(MM)M	제주노형
정갱이통	정갱이+통	[n+n]n		제주내도
정대물	정+대+물	[n+n+n]n	(MM)M	서귀호근
정맹이믈	정맹이+믈	[n+n]n		제주용강
정도	정+도	[n+n]n		서귀용흥
정동골	정동+골	[n+n]n		제주삼양
정또	정+도	[n+n]n		서귀서흥
정또왓길	정+도+왓+길	[n+n+n+n]n	((MM)M)M	서귀월평
정모시내	정모시+내	[n+n]n		서귀동흥
정모시동산	정모시+동산	[n+n]n		서귀정방
정반여	정반+여	[n+n]n		서귀하원
정술내	정술+내	[n+n]n		서귀보목
정술내물	정술+내+물	[n+n+n]n	(MM)M	서귀보목
정시터	정시+터	[n+n]n		서귀색달
정유리못	정유+리+못	[n+s+n]n	(MM)M	서귀월평
정의논	정의+논	[n+n]n		서귀강정
정의논각	정의+논+각	[n+n+n]n	(MM)M	서귀강정
정의질	정의+질	[n+n]n		서귀호근
정자남밭	정자+남+밭	[n+n+n]n	(MM)M	서귀상예
정자동산	정자+동산	[n+n]n		제주용강
정집이네앞밭디	정+집+이+네+앞+밭디	[n+n+s+s+n+n]n	((((MM)M)M)M)M	서귀토평
정터	정+터	[n+n]n		서귀토평
정포제동산	정+포제+동산	[n+n+n]n	(MM)M	서귀보목
제낭코지	제+낭+코지	[n+n+n]n	(MM)M	서귀토평
제단아진밭	제단+앗+인+밭	[n+vr+e+n]n	((MM)M)M	서귀염돈
제돌레	제+돌레	[n+n]n		서귀영천
제민당	제민+당	[n+n]n		서귀영천
제배낭알	제+배+낭+알	[n+n+n+n]n	((MM)M)M	서귀영천
제배낭퀘	즈배+낭+퀘	[n+n+n]n	(MM)M	서귀대포
제배낭소	제배+낭+소	[n+n+n]n	(MM)M	서귀강정
제비든밭	제비+들+ㄴ+밭	[n+vr+e+n]n	((MM)M)M	서귀중문
제석동산	제석+동산	[n+n]n		서귀서흥
제석동산	제석+동산	[n+n]n		서귀정방
제석동산	제석+동산	[n+n]n		서귀호근
제석동산	제석+동산	[n+n]n		제주회천
제지기오름	제지기+오름	[n+n]n		서귀보목

제터	제+터	[n+n]n		제주도두
제터	제+터	[n+n]n		제주삼양
제한지흙	제한지+흙	[n+n]n		제주월평
젯밭	제[契]+밭	[n+n]n		제주아라
젯새왓	제[契]+새+왓	[n+n+n]n	M(MM)	제주아라
조개동산	조+가+동산	[n+s+n]n	(MM)M	제주이호
조개물	조+가+물	[n+s+n]n	(MM)M	서귀영천
조개밭	조+가+밭	[n+s+n]n	(MM)M	제주연동
조개왓	조개+왓	[n+n]n		제주이호
조개우영	조+가(哥)+우영	[n+s+n]n	(MM)M	서귀보목
조갱이물	조갱이+물	[n+n]n		제주연동
조근거른여	죽+은+검+은+여	[ar+te+ar+e+n]n	(MM)((MM)M)	서귀색달
조근구럼비	죽+은+구럼비	[ar+te+n]n	(MM)M	서귀강정
조근동산	죽+은+동산	[ar+te+n]n	(MM)M	서귀중문
조근방에여	죽+은+방에+여	[ar+te+n+n]n	((MM)M)M	서귀색달
조근오름	죽+은+오름	[ar+te+n]n	(MM)M	서귀보목
조근주외	죽+은+주외	[ar+te+n]n	(MM)M	서귀색달
조근코지	죽+은+코지	[ar+te+n]n	(MM)M	서귀하예
조근항문이도	죽+은+항문+이+도	[ar+te+n+s+n]n	(MM)((MM)M)	서귀호근
조대왓	조대(조릿대)+왓	[n+n]n		제주노형
조른모살	즈르+니+모살	[ar+te+n]n	(MM)M	서귀색달
조른제목	즈르+니+제+목	[ar+te+n+n]n	(MM)(MM)	서귀호근
조름지	조름+지	[n+n]n		서귀서흥
조리물	조리+물	[n+n]n		제주해안
조방장동산	조방장+동산	[n+n]n		서귀영천
조죽돌래	조+죽+돌래	[n+n+n]n	(MM)M	서귀신호
조짜여	조짜+여	[ar+n]n		서귀보목
죽드리괘	죽드리+괘	[n+n]n		서귀호근
죽바디	죽+바디	[ar+n]n		서귀월평
죽은개오리	죽+은+개오리	[ar+te+n]n	(MM)M	제주봉개
죽은갱이돌래	죽+은+갱이+돌래	[ar+te+n+n]n	(MM)(MM)	서귀보목
죽은고지기	죽+은+고지기	[ar+te+n]n	(MM)M	제주삼양
죽은세미	죽+은+세미	[ar+te+n]n	(MM)M	제주외도
죽은소로기동산	죽+은+소로기+동산	[ar+te+n+n]n	(MM)(MM)	제주용담
죽은송곳여	죽+은+송곳+여	[ar+te+n+n]n	(MM)(MM)	제주용담
죽은연디	죽+은+연디	[ar+te+n]n	(MM)M	제주용담
죽은원	죽+은+원	[ar+te+n]n	(MM)M	제주외도
죽은원	죽+은+원	[ar+te+n]n	(MM)M	제주이호
죽은이빌레	죽+은+이+빌레	[ar+te+s+n]n	((MM)M)M	제주화북
죽은튼여	죽+은+튼+여	[ar+te+d+n]n	(MM)(MM)	제주화북
죽제비곰괘	죽제비+곰+괘	[n+n+n]n	(MM)M	서귀하원
죽쟁이여	죽쟁이+여	[n+n]n		서귀서귀

죽쟁이터	죽+쟁이+터	[n+s+n]n	(MM)M	제주영평
죽제비곰오름	죽제비+곰+오름	[n+n+n]n	(MM)M	서귀하원
존골	줄+ㄴ+골	[ar+te+n]n	(MM)M	서귀도순
존내툼	줄+ㄴ+내+툼	[ar+te+n+n]n	((MM)M)M	서귀토평
존무덤	줄+ㄴ+무덤	[ar+te+n]n	(MM)M	서귀호근
존자병디	존자+병디	[n+n]n		서귀상예
존작지	줄+ㄴ+작지	[ar+te+n]n	(MM)M	서귀서흥
줄락코지	줄락+코지	[n+n]n		제주건입
줄레마근목	줄레+막+은+목	[n+vr+te+n]n	((MM)M)M	서귀대포
줄레왓	줄레+왓	[n+n]n		서귀호근
좁너당	좁너+당	[n+n]n		서귀대포
좁너동산	좁너+동산	[n+n]n		서귀하원
중거리왓	중+거리+왓	[n+n+n]n	(MM)M	서귀중문
중나물	중+남+물	[n+n+n]n	(MM)M	서귀호근
중남케	중+남+케	[n+n+n]n	(MM)M	서귀하원
중남물	중+남+물	[n+n+n]n	(MM)M	제주노형
중남쌈	중+남+쌈	[n+n+n]n	(MM)M	서귀하원
중남소	중+남+소	[n+n+n]n	(MM)M	서귀서흥
중남통	중+남+통	[n+n+n]n	(MM)M	제주용강
중낭굴	중+낭+굴	[n+n+n]n	(MM)M	서귀토평
중낭굴	중+낭+굴	[n+n+n]n	(MM)M	제주월평
중냄이소	죽+냄(남)+이+소	[n+n+s+n]n	((MM)M)M	제주아라
중복이왓	중복+이+왓	[n+s+n]n	(MM)M	서귀월산
중이통	중+이+통	[n+n]n		서귀동흥
중장물	중+장+물	[n+n]n		서귀대포
중재기동산	중+재+기+동산	[n+n]n		서귀서흥
중지왓	중+지+왓	[n+n]n		제주노형
주거물	주+거+물	[vr+n+n]n	(MM)M	서귀호근
주거물깎	주+거+물+깎	[vr+n+n+n]n	((MM)M)M	서귀호근
주검밭	주+검+밭	[n+n]n		제주연동
주계동산	주+계+동산	[n+n]n		서귀색달
주구리동산	주+구리+동산	[n+n]n		제주도련
주기남빛테기	주+기+남+빛+테기	[n+n+n]n	(MM)M	제주봉개
주막동산	주+막+동산	[n+n]n		서귀토평
주승가름	주+승+가름	[n+n]n		제주용강
주여	주+여	[n+n]n		제주도두
죽쟁이구석	죽+쟁이+구석	[n+n]n		서귀가가
줄여	줄+여	[n+n]n		제주이호
줄왓	줄+왓	[n+n]n		서귀강정
중어니케	중+언+이+케	[n+s+n]n	(MM)M	서귀호근
중언이케	중+언+이+케	[n+s+n]n	(MM)M	서귀호근
중이동산	중+이+동산	[n+n]n		제주영평

중이동산	중이+동산	[n+n]n		제주월평
중жат	중+жат	[n+n]n		서귀서흥
중жат	중+жат	[n+n]n		서귀토평
중жат	중+жат	[n+n]n		서귀호근
중케왓	중+케+왓	[n+n+n]n	M(MM)	제주오등
중통	중+통	[n+n]n		서귀보목
취꼬리드르	취+꼬리+드르	[n+n+n]n	(MM)M	제주월평
취빌레	취+빌레	[n+n]n		제주아라
지계동산	지+가+동산	[n+s+n]n	(MM)M	서귀중문
지끈드로	지끈+드로	[ar+te+n]n	(MM)M	제주도두
지끈드로못	지끈+드로+못	[ar+te+n+n]n	((MM)M)M	제주도두
지끈밭	지끈+나+밭	[ar+te+n]n	(MM)M	제주연동
지름쟁이왓	지름+쟁이+왓	[n+s+n]n	(MM)M	서귀보목
지미여	지미+여	[n+n]n		서귀색달
지미여	지미+여	[n+n]n		제주삼도
지방돌	지방+돌	[n+n]n		제주외도
지방여	지방+여	[n+n]n		제주화북
지방턱	지방+턱	[n+n]n		서귀대포
지서여	지서+여	[n+n]n		서귀강정
지세/지서오름	지세/지서+오름	[n+n]n		제주삼양
지세모루	지세+모루	[n+n]n		서귀동홍
지세못	지세+못	[n+n]n		서귀하원
지세오름	지세+오름	[n+n]n		제주삼양
지세짓밭	지세+짓+왓	[n+n+n]n	(MM)M	제주이호
지애집터	지애+집+터	[n+n+n]n	(MM)M	제주도남
지장쌔세거리	지장+쌔+세+거리	[n+n+d+n]n	(MM)(MM)	서귀서흥
지층나는여	지층+나+는+여	[n+vr+te+n]n	((MM)M)M	서귀보목
지폰드르	질+은+드르	[ar+te+n]n	(MM)M	제주월평
진굴	질+나+굴	[ar+te+n]n	(MM)M	제주노형
진굴	질+나+굴	[ar+te+n]n	(MM)M	제주영평
진굽밭	진+굽+밭	[n+n+n]n	(MM)M	서귀동홍
진덕	질+나+덕	[ar+te+n]n	(MM)M	서귀색달
진도루	질+나+도루	[ar+te+n]n	(MM)M	서귀강정
진돌(1)	질+나+돌	[ar+te+n]n	(MM)M	서귀대포
진돌(2)	질+나+돌	[ar+te+n]n	(MM)M	서귀대포
진동산	질+나+동산	[ar+te+n]n	(MM)M	서귀대포
진동산	질+나+동산	[ar+te+n]n	(MM)M	서귀보목
진동산	질+나+동산	[ar+te+n]n	(MM)M	제주월평
진동산	질+나+동산	[ar+te+n]n	(MM)M	제주이도
진드루	질+나+드루	[ar+te+n]n	(MM)M	서귀보목
진드르	질+나+드르	[ar+te+n]n	(MM)M	제주영평
진드르	질+나+드르	[ar+te+n]n	(MM)M	제주오등

진머흠	질+나+머흠	[ar+te+n]n	(MM)M	서귀호근
진모루	질+나+모루	[ar+te+n]n	(MM)M	서귀중문
진모루	질+나+모루	[ar+te+n]n	(MM)M	서귀하원
진모살	질+나+모살	[ar+te+n]n	(MM)M	서귀색달
진모루	질+나+모루	[ar+te+n]n	(MM)M	서귀상예
진모르	질+나+모르	[ar+te+n]n	(MM)M	제주봉개
진밭	진+밭	[n+n]n		서귀영천
진밭	질+나+밭	[ar+te+n]n	(MM)M	제주내도
진밭	질+나+밭	[ar+te+n]n	(MM)M	제주도남
진밭	질+나+밭	[ar+te+n]n	(MM)M	제주봉개
진밭	질+나+밭	[ar+te+n]n	(MM)M	제주삼양
진밭	질+나+밭	[ar+te+n]n	(MM)M	제주아라
진밭	질+나+밭	[ar+te+n]n	(MM)M	제주연동
진밭	질+나+밭	[ar+te+n]n	(MM)M	제주영평
진밭	질+나+밭	[ar+te+n]n	(MM)M	제주오라
진밭	질+나+밭	[ar+te+n]n	(MM)M	제주이호
진밭도레	질+나+밭+도레	[ar+te+n+n]n	((MM)M)M	제주내도
진밭질	질+나+밭+질	[ar+te+n+n]n	((MM)M)M	제주내도
진밭질	질+나+밭+질	[ar+te+n+n]n	((MM)M)M	제주삼양
진밭흠	질+나+밭+흠	[ar+te+n+n]n	((MM)M)M	제주연동
진밭	질+나+밭	[ar+te+n]n	(MM)M	서귀서홍
진벵디	질+나+벵디	[ar+te+n]n	(MM)M	제주노형
진벵디	질+나+벵디	[ar+te+n]n	(MM)M	제주월평
진빌레	질+나+빌레	[ar+te+n]n	(MM)M	제주노형
진빌레	질+나+빌레	[ar+te+n]n	(MM)M	제주도두
진빌레	질+나+빌레	[ar+te+n]n	(MM)M	제주도두
진빌레원	질+나+빌레+원	[ar+te+n+n]n	((MM)M)M	제주도두
진소	질+나+소	[ar+te+n]n	(MM)M	서귀강정
진소	질+나+소	[ar+te+n]n	(MM)M	서귀색달
진소	질+나+소	[ar+te+n]n	(MM)M	서귀중문
진소	질+나+소	[ar+te+n]n	(MM)M	서귀회수
진소	질+나+소	[ar+te+n]n	(MM)M	제주외도
진소	질+나+소	[ar+te+n]n	(MM)M	제주해안
진소각	질+나+소+각	[ar+te+n+n]n	((MM)M)M	서귀강정
진소또	질+나+소+도	[ar+te+n+n]n	((MM)M)M	서귀도순
진숫도	질+나+소+도	[ar+te+n+n]n	((MM)M)M	제주해안
진술	질+나+술	[ar+te+n]n	(MM)M	제주월평
진술물	질+나+술+물	[ar+te+n+n]n	((MM)M)M	제주이도
진여	질+나+여	[ar+te+n]n	(MM)M	서귀서귀
진여	질+나+여	[ar+te+n]n	(MM)M	서귀호근
진여	질+나+여	[ar+te+n]n	(MM)M	제주외도
진여	질+나+여	[ar+te+n]n	(MM)M	제주용담

진여	질+ㄴ+여	[ar+te+n]n	(MM)M	제주용담
진여	질+ㄴ+여	[ar+te+n]n	(MM)M	제주이호
진여각	질+ㄴ+여+각	[ar+te+n+n]n	((MM)M)M	서귀서귀
진여양탱이	질+ㄴ+여+양탱이	[ar+te+n+n]n	((MM)M)M	제주용담
진오름밭	질+ㄴ+오름+밭	[ar+te+n+n]n	((MM)M)M	제주연동
진올래	질+ㄴ+올래	[ar+te+n]n	(MM)M	서귀호근
진작지	질+ㄴ+작지	[ar+te+n]n	(MM)M	제주삼양
진진내	질+ㄴ+질+ㄴ+내	[ar+te+ar+te+n]n	((MM)(MM))M	서귀서홍
진진내	질+ㄴ+질+ㄴ+내	[ar+te+ar+te+n]n	((MM)(MM))M	서귀호근
진진내물	질+ㄴ+질+ㄴ+내+물	[ar+te+ar+te+n+n]n	((MM)(MM))M)M	서귀서홍
진질왓	질+ㄴ+질+왓	[ar+te+n+n]n	((MM)M)M	제주이호
진테왓	질+ㄴ+테+왓	[ar+te+n+n]n	((MM)M)M	제주해안
질난밭	질+ㄴ+ㄴ+밭	[n+vr+te+n]n	((MM)M)M	제주아라
질매턱	질매+턱	[n+n]n		서귀서홍
질매왓	질매+왓	[n+n]n		제주의도
질메턱동산	질매+턱+동산	[n+n+n]n	(MM)M	서귀하원
질아랫물	질+아래+물	[n+vr+te+n]n	((MM)M)M	제주삼도
질지슴	질+짓+슴	[n+ar+s]n	M(MM)	서귀하예
질진밭	질+질+ㄴ+밭	[ad+ar+te+n]n	((MM)M)M	제주일도
짐꾼내	짐꾸+ㄴ+내	[vr+te+n]n	(MM)M	서귀월평
짐당장케	짐[金]+당장+케	[n+n+n]n	(MM)M	서귀토평
짐동산	짐+동산	[n+n]n		제주의도
짐이방굴	짐+이방+굴	[n+n+n]n	(MM)M	제주오등
집새터	집+새+터	[n+n+n]n	(MM)M	제주회천
징바위넷도	징+바위+내+도	[n+n+n+n]n	((MM)M)M	서귀도순
징줄논	징줄+논	[n+n]n		서귀강정
짚은굴	짚+은+굴	[ar+te+n]n	(MM)M	제주화북
즌근개	즌+은+개	[ar+te+n]n	(MM)M	서귀보목
즌근개동산	즌+은+개+동산	[ar+te+n+n]n	((MM)M)M	서귀보목
즌근갯질	즌+은+개+질	[ar+te+n+n]n	((MM)M)M	서귀보목
즌근굴	즌+은+굴	[ar+te+n]n	(MM)M	서귀보목
즌근대여	즌+은+대+여	[ar+te+n+n]n	(MM)(MM)	서귀강정
즌근속동개	즌+은+속동+개	[ar+te+n+n]n	(MM)(MM)	서귀강정
즌인여	즌+인+여	[ar+te+n]n	(MM)M	제주이호
즌진여	즌+인+여	[ar+te+n]n	(MM)M	서귀강정
즌진여	즌+인+여	[ar+te+n]n	(MM)M	제주의도
즌소남밭	즌+ㄴ+술+남+밭	[ar+te+n+n+n]n	((MM)(MM))M	제주아라
즌작지	즌+ㄴ+작지	[ar+te+n]n	(MM)M	서귀강정
좁복통	좁복+통	[n+n]n		제주삼양
좁지동산	좁+지+동산	[n+n+n]n	(MM)M	제주연동
죋인여왓	죋+인+여+왓	[ar+te+n+n]n	((MM)M)M	제주이호
찍여	찍+여	[n+n]n		서귀강정

차롱케동산	차롱+케+동산	[n+n+n]n	(MM)M	제주노형
참남골	참+남+골	[n+n+n]n	(MM)M	서귀중문
참남동산	참+남+동산	[n+n+n]n	(MM)M	서귀중문
참남동산	참+남+동산	[n+n+n]n	(MM)M	서귀회수
참남밭	참+남+밭	[n+n+n]n	(MM)M	서귀상예
창뒷골	창+뒤+골	[n+n+n]n	(MM)M	제주삼도
창터진물	창+터지+ㄴ+물	[n+vr+e+n]n	((MM)M)M	제주봉개
채물	채+물	[n+n]n		서귀강정
천제연구명	천제연+구명	[n+n]n		서귀중문
청갱이골	청+갱이+골	[n+n+n]n	(MM)M	서귀강정
청등머들	청등+머들	[n+n]n		서귀도순
체오름	체+오름	[n+n]n		제주오라
챗대왓	채+대+왓	[n+n+n]n	(MM)M	서귀영천
챗망물	채+막+물	[n+n+n]n	(MM)M	제주연동
초낭골	초+낭+골	[n+n+n]n	(MM)M	서귀월평
초낭밭	초+낭+밭	[n+n+n]n	(MM)M	서귀호근
초산동산	초+사+ㄴ+동산	[n+vr+e+n]n	((MM)M)M	제주회천
초석여	초석+여	[n+n]n		서귀색달
출왓	출+왓	[n+n]n		서귀영천
춤생이케	춤생이+케	[n+n]n		서귀월산
춧대이맹이	춧+대+이+맹이	[n+n+n]n	(MM)M	서귀서홍
총쟁이머들	총+쟁이+머들	[n+s+n]n	(MM)M	서귀중문
최비장우영	최+비장+우영	[n+n+n]n	(MM)M	제주도남
추갓가름	추자+가름	[n+n]n		서귀강정
챗대가름	채+대+가름	[n+n+n]n	(MM)M	제주도두
챗대거리	채+대+거리	[n+n+n]n	(MM)M	제주삼양
챗대굽	채+대+굽	[n+n+n]n	(MM)M	제주도두
챗대왓	채(초)+대+왓	[n+n+n]n	(MM)M	제주해안
챗대왓	채+대+왓	[n+n+n]n	(MM)M	제주도남
챗대왓	채+대+왓	[n+n+n]n	(MM)M	제주영평
챗대왓	채+대+왓	[n+n+n]n	(MM)M	제주월평
챗대왓동산	채+대+왓+동산	[n+n+n+n]n	((MM)M)M	제주회천
측골	측+골	[n+n]n		서귀토평
층밭	층+밭	[n+n]n		제주회천
치도리동산	치+도리+동산	[n+n+n]n	(MM)M	서귀중문
척동산	척+동산	[n+n]n		제주아라
친밭당	치+ㄴ+밭+당	[vr+e+n+n]n	((MM)M)M	서귀가가
칠남밭	칠+남+밭	[n+n+n]n	(MM)M	서귀영천
칠오름	칠+오름	[nu+n]n		제주봉개
칭계난밭	칭계+나+ㄴ+밭	[n+vr+e+n]n	((MM)M)M	서귀호근
칭계왓	칭계+왓	[n+n]n		서귀호근
칭논	칭+논	[n+n]n		서귀강정

칭득르	칭+득르	[n+n]n		제주붕개
츠남동산	츠+남+동산	[n+n+n]n	(MM)M	제주노형
츠남동산	츠+남+동산	[n+n+n]n	(MM)M	제주삼양
츠남동산	츠+남+동산	[n+n+n]n	(MM)M	제주아라
츠낭가름	츠+낭+가름	[n+n+n]n	(MM)M	제주붕개
츠낭동산	츠+낭+동산	[n+n+n]n	(MM)M	제주붕개
츠낭동산	츠+낭+동산	[n+n+n]n	(MM)M	제주회천
촌물질	츠+ㄴ+물+질	[ar+te+n+n]n	((MM)M)M	제주삼도
츨남밭	츨+남+밭	[n+n+n]n	(MM)M	제주삼양
칼도리	칼+드리	[n+n]n		서귀대포
칼드리	칼+드리	[n+n]n		서귀신호
켓담	케+담	[n+n]n		서귀천지
켓담	케+담	[n+n]n		서귀강정
켓담	케+담	[n+n]n		서귀서흥
켓담	케+담	[n+n]n		서귀토평
코텡이모루	코+텡이+모루	[n+n+n]n	(MM)M	서귀대포
코석은여	코+석+은+여	[n+ar+te+n]n	((MM)M)M	제주이호
코시물	코+시+물	[n+n]n		서귀호근
코지불턱	코+지+불턱	[n+n]n		서귀강정
콧등므르	콧+등+므르	[n+n+n]n	(MM)M	제주도평
콧콧	콧+콧	[n+n]n		서귀호근
콩큰물	콩+크+ㄴ+물	[n+vr+te+n]n	((MM)M)M	제주용담
쿤낭케	쿤+낭+케	[n+n+n]n	(MM)M	서귀강정
쿣나못	쿣+나(남)+못	[n+n+n]n	(MM)M	제주오등
쿣남밭	쿣+남+밭	[n+n+n]n	(MM)M	제주도남
쿣남새미	쿣+남+새미	[n+n+n]n	(MM)M	제주이도
퀵남못	퀵+남+못	[n+n+n]n	(MM)M	서귀호근
퀵남새미	퀵+남+새미	[n+n+n]n	(MM)M	제주아라
큰가름	크+ㄴ+가름	[ar+te+n]n	(MM)M	서귀신호
큰가름	크+ㄴ+가름	[ar+te+n]n	(MM)M	서귀호근
큰가름	크+ㄴ+가름	[ar+te+n]n	(MM)M	제주붕개
큰가름	크+ㄴ+가름	[ar+te+n]n	(MM)M	제주오등
큰강정물	크+ㄴ+강정+물	[ar+te+n+n]n	(MM)(MM)	서귀강정
큰강정물동산	크+ㄴ+강정+물+동산	[ar+te+n+n+n]n	(MM)((MM)M)	서귀강정
큰개	크+ㄴ+개	[ar+te+n]n	(MM)M	서귀대포
큰개머리	크+ㄴ+개+머리	[ar+te+n+n]n	((MM)M)M	서귀보목
큰갯당	크+ㄴ+개+당	[ar+te+n+n]n	((MM)M)M	서귀대포
큰갯물	크+ㄴ+개+물	[ar+te+n+n]n	((MM)M)M	서귀대포
큰겨른녀	크+ㄴ+겨+은+여	[ar+te+ar+te+n]n	(MM)((MM)M)	서귀색달
큰쟁이들래	크+ㄴ+쟁이+들래	[ar+te+n+n]n	(MM)(MM)	서귀보목
큰고지기	크+ㄴ+고지기	[ar+te+n]n	(MM)M	제주삼양
큰골	크+ㄴ+골	[ar+te+n]n	(MM)M	서귀상예

큰구릉	크+나+구릉	[ar+te+n]n	(MM)M	제주삼양
큰구릉	크+나+구릉	[ar+te+n]n	(MM)M	제주월평
큰구석	크+나+구석	[ar+te+n]n	(MM)M	서귀가가
큰굴왓	크+나+굴+왓	[ar+te+n+n]n	((MM)M)M	서귀호근
큰굴왓	크+나+굴+왓	[ar+te+n+n]n	((MM)M)M	제주영평
큰굴왓	크+나+굴+왓	[ar+te+n+n]n	((MM)M)M	제주해안
큰기정	크+나+기정	[ar+te+n]n	(MM)M	서귀월평
큰남밭	크+나+남+밭	[ar+te+n+n]n	((MM)M)M	제주아라
큰남밭	크+나+남+밭	[ar+te+n+n]n	((MM)M)M	제주영평
큰낭구릉길	크+나+낭+구릉+길	[ar+te+n+n+n]n	((MM)M)M)M	제주회천
큰낭동산	크+나+낭+동산	[ar+te+n+n]n	((MM)M)M	서귀토평
큰낭동산	크+나+낭+동산	[ar+te+n+n]n	((MM)M)M	서귀호근
큰넷도	크+나+내+도	[ar+te+n+n]n	((MM)M)M	서귀도순
큰넷도	크+나+내+도	[ar+te+n+n]n	((MM)M)M	제주노형
큰담밭	크+나+담+밭	[ar+te+n+n]n	((MM)M)M	제주아라
큰당	크+나+당	[ar+te+n]n	(MM)M	서귀강정
큰당	크+나+당	[ar+te+n]n	(MM)M	서귀하호
큰당밭	크+나+당+밭	[ar+te+n+n]n	((MM)M)M	서귀강정
큰당밭	크+나+당+밭	[ar+te+n+n]n	(MM)(MM)	제주삼양
큰당밭	크+나+당+밭	[ar+te+n+n]n	(MM)(MM)	제주화북
큰대여	크+나+대+여	[ar+te+n+n]n	((MM)M)M	서귀강정
큰도	크+나+도	[ar+te+n]n	(MM)M	서귀도순
큰동산	크+나+동산	[ar+te+n]n	(MM)M	서귀대포
큰동산	크+나+동산	[ar+te+n]n	(MM)M	서귀보목
큰동산	크+나+동산	[ar+te+n]n	(MM)M	서귀상예
큰동산	크+나+동산	[ar+te+n]n	(MM)M	서귀중문
큰동산	크+나+동산	[ar+te+n]n	(MM)M	제주오등
큰동산왓	크+나+동산+왓	[ar+te+n+n]n	((MM)M)M	제주회천
큰드레	크+나+드레	[ar+te+n]n	(MM)M	제주오라
큰드리통	크+나+드리+통	[ar+te+n+n]n	((MM)M)M	서귀토평
큰망동산	크+나+망+동산	[ar+te+n+n]n	(MM)(MM)	제주아라
큰머들왓	크+나+머들+왓	[ar+te+n+n]n	((MM)M)M	서귀중문
큰머들왓	크+나+머들+왓	[ar+te+n+n]n	((MM)M)M	제주도남
큰머들왓	크+나+머들+왓	[ar+te+n+n]n	(MM)(MM)	제주오라
큰몰밭	크+나+몰+밭	[ar+te+n+n]n	((MM)M)M	제주삼양
큰믄르	크+나+믄르	[ar+te+n]n	(MM)M	제주아라
큰믄르왓	크+나+믄르+왓	[ar+te+n+n]n	((MM)M)M	제주회천
큰바랑	크+나+바랑	[ar+te+n]n	(MM)M	서귀강정
큰바렁밭	크+나+바렁+밭	[ar+te+n+n]n	(MM)(MM)	제주노형
큰바렁밭	크+나+바렁+밭	[ar+te+n+n]n	(MM)(MM)	제주이호
큰밭	크+나+밭	[ar+te+n]n	(MM)M	서귀서흥
큰밭	크+나+밭	[ar+te+n]n	(MM)M	제주영평

큰방에여	크+나+방+에+여	[ar+e+n+n]n	((MM)M)M	서귀색달
큰벙티왓	크+나+벙티+왓	[ar+e+n+n]n	((MM)M)M	제주아라
큰벙티	크+나+벙티	[ar+e+n]n	(MM)M	서귀색달
큰불턱	크+나+불턱	[ar+e+n]n	(MM)M	서귀대포
큰상통여	크+나+상통+여	[ar+e+n+n]n	(MM)(MM)	제주도두
큰새왓	크+나+새+왓	[ar+e+n+n]n	(MM)(MM)	서귀동홍
큰새왓	크+나+새+왓	[ar+e+n+n]n	(MM)(MM)	서귀서홍
큰새왓	크+나+새+왓	[ar+e+n+n]n	(MM)(MM)	제주아라
큰새왓	크+나+새+왓	[ar+e+n+n]n	(MM)(MM)	제주이호
큰솔동산	크+나+솔+동산	[ar+e+n+n]n	((MM)M)M	서귀대포
큰송곳여	크+나+송곳+여	[ar+e+n+n]n	(MM)(MM)	제주용담
큰앞밭	크+나+앞+밭	[ar+e+n+n]n	(MM)(MM)	제주노형
큰여	크+나+여	[ar+e+n]n	(MM)M	서귀강정
큰여	크+나+여	[ar+e+n]n	(MM)M	서귀색달
큰여	크+나+여	[ar+e+n]n	(MM)M	서귀중문
큰여	크+나+여	[ar+e+n]n	(MM)M	제주내도
큰옛도	크+나+여+도	[ar+e+n+n]n	((MM)M)M	서귀대포
큰오름것	크+나+오름+것	[ar+e+n+n]n	((MM)M)M	제주도두
큰우영	크+나+우영	[ar+e+n]n	(MM)M	서귀보목
큰우영	크+나+우영	[ar+e+n]n	(MM)M	제주아라
큰원	크+나+원	[ar+e+n]n	(MM)M	제주외도
큰원	크+나+원	[ar+e+n]n	(MM)M	제주용담
큰원	크+나+원	[ar+e+n]n	(MM)M	제주이호
큰주	크+나+주	[ar+e+n]n	(MM)M	서귀중문
큰집장이집터	크+나+집+장+이+집+터	[ar+e+n+n+n+n]n	((MM)(MM))M)M	서귀영천
큰초낭밭	크+나+초+낭+밭	[ar+e+n+n+n]n	((MM)M)M)M	서귀용홍
큰출왓	크+나+출+왓	[ar+e+n+n]n	(MM)(MM)	제주도두
큰케	크+나+케	[ar+e+n]n	(MM)M	서귀월산
큰케	크+나+케	[ar+e+n]n	(MM)M	제주연동
큰코지	크+나+코지	[ar+e+n]n	(MM)M	서귀하예
큰태왓	크+나+태+왓	[ar+e+n+n]n	(MM)(MM)	서귀호근
큰티왓	크+나+티+왓	[ar+e+n+n]n	((MM)M)M	제주화북
큰테역밭	크+나+테역+밭	[ar+e+n+n]n	(MM)(MM)	서귀용홍
큰튼여	크+나+튼+여	[ar+e+d+n]n	(MM)(MM)	제주화북
큰풍낭밭	크+나+풍+낭+밭	[ar+e+n+n+n]n	((MM)(MM))M	제주봉개
큰항문이도	크+나+항문+이+도	[ar+e+n+s+n]n	(MM)((MM)M)	서귀호근
답단밭	답+다+나+밭	[n+vr+e+n]n	((MM)M)M	서귀도순
답아진밭	답+앗+인+밭	[n+vr+e+n]n	((MM)M)M	서귀용홍
탕근돌	탕+근+돌	[n+n]n		서귀상예
태역동산	태+역+동산	[n+n]n		서귀동홍
태우리동산	태+우리+동산	[n+n]n		서귀도순
탱지낭뭇	탱+지+낭+뭇	[n+n+n]n	(MM)M	서귀강정

터우매어난디	터우+매+어+나+ㄴ+디	[n+vr+te+vr+te+n]n	(((MM)M)M)M	제주이호
터관가름	터+괘+ㄴ+가름	[n+vr+te+n]n	((MM)M)M	제주도련
테역통	테역+통	[n+n]n		서귀보목
테우리동산	테우리+동산	[n+n]n		제주도평
테우리통	테우리+통	[n+n]n		서귀천지
테우리통	테우리+통	[n+n]n		서귀하효
토물	토+물	[n+n]n		서귀영천
토산당	토산+당	[n+n]n		서귀월평
튼돈지	튼+돈지	[d+n]n		서귀강정
튼돈지불턱	튼+돈지+불턱	[d+n+n]n	(MM)M	서귀강정
튼돈지통	튼+돈지+통	[d+n+n]n	(MM)M	서귀강정
튼여(1)	튼+여	[d+n]n		서귀강정
튼여(2)	튼+여	[d+n]n		서귀강정
통곳	통+곳	[n+n]n		서귀영천
통머들	통+머들	[n+n]n		서귀호근
통물	통+물	[n+n]n		서귀강정
통물	통+물	[n+n]n		서귀도순
통물	통+물	[n+n]n		서귀월평
통물	통+물	[n+n]n		서귀하원
통물	통+물	[n+n]n		서귀호근
통물	통+물	[n+n]n		제주외도
통물아진밭	통+물+앗+인+밭	[n+n+vr+te+n]n	((MM)M)M)M	제주삼도
통물질	통+물+질	[n+n+n]n	(MM)M	제주외도
통시원	통시+원	[n+n]n		제주도두
튀는여	튀+는+여	[vr+te+n]n	(MM)M	제주삼양
틀남밭	틀+남+밭	[n+n+n]n	(MM)M	서귀월산
틀남굴	틀+남+굴	[n+n+n]n	(MM)M	제주영평
특진밭	특+지+ㄴ+밭	[n+vr+te+n]n	((MM)M)M	제주영평
튼개머리여	튼+개+머리+여	[d+n+n+n]n	((MM)M)M	서귀보목
튼동산	튼+동산	[d+n]n		제주오등
튼여	튼+여	[d+n]n		제주도두
튼여	튼+여	[d+n]n		제주외도
튼여부리	튼+여+부리	[d+n+n]n	(MM)M	제주도두
튼이성이	튼+이+성+이	[d+n+ts]n	M(MM)	제주용담
튼깃우영	튼+깃+우+영	[d+n+n]n	(MM)M	제주화북
팡달른여	팡+달+은+여	[n+vr+te+n]n	((MM)M)M	서귀서귀
팡돌왓	팡+돌+왓	[n+n+n]n	(MM)M	서귀영천
펜안밭	펜안(편안)+밭	[n+n]n		제주회천
펜안밭	펜안+밭	[n+n]n		서귀우남
펜안밭	펜안+밭	[n+n]n		제주도련
펜안오름	펜안+오름	[n+n]n		제주삼양
팽풍물	팽+풍+물	[n+n]n		제주월평

팽풍바위	팽풍+바위	[n+n]n		제주외도
팽풍소	팽풍+소	[n+n]n		제주삼도
팽풍지경	팽풍+지경	[n+n]n		제주외도
팽풍지경소금빌레	팽풍+지경+소금+빌레	[n+n+n+n]n	(MM)(MM)	제주외도
포제동산	포제+동산	[n+n]n		서귀신희
포제동산	포제+동산	[n+n]n		서귀하예
포제동산	포제+동산	[n+n]n		제주용강
포젯동산	포제+동산	[n+n]n		서귀서흥
포젯동산	포제+동산	[n+n]n		서귀회수
포젯동산	포제+동산	[n+n]n		제주영평
폭남도	폭+남+도	[n+n+n]n	(MM)M	서귀호근
폭남밭	폭+남+밭	[n+n+n]n	(MM)M	제주연동
폭남구릉	폭+남+구릉	[n+n+n]n	(MM)M	제주연동
폭남곶	폭+남+곶	[n+n+n]n	(MM)M	서귀호근
폭남당	폭+남+당	[n+n+n]n	(MM)M	서귀도순
폭남동산	폭+남+동산	[n+n+n]n	(MM)M	서귀용흥
폭남모루	폭+남+모루	[n+n+n]n	(MM)M	서귀하원
풍남도	풍+남+도	[n+n+n]n	(MM)M	제주회천
풍남드르	풍+남+드르	[n+n+n]n	(MM)M	제주월평
풍남물	풍+남+물	[n+n+n]n	(MM)M	서귀군남
풍남밭	풍+남+밭	[n+n+n]n	(MM)M	서귀강정
풍남통	풍+남+통	[n+n+n]n	(MM)M	서귀토평
푼채샘	푼+채+샘	[vr+n+n]n	((MM)M)M	서귀서흥
푼채마을동산	푼+채+마을+동산	[n+n+n]n	(MM)M	제주회천
풍덩이소	풍+덩이+소	[n+n]n		서귀서흥
피양애밭	피+양+애+밭	[n+n+n]n	(MM)M	서귀영천
하논	하+논	[ar+n]n		서귀서흥
하논거제	하+논+거제	[ar+n+n]n	(MM)M	서귀호근
하논동거제	하+논+동+거제	[ar+n+n+n]n	(MM)(MM)	서귀서흥
하논곶	하+논+곶	[ar+n+n]n	(MM)M	서귀서흥
하늬동산	하늬+동산	[n+n]n		서귀영천
하모골	하모[火木]+골	[n+n]n		서귀토평
하원골생이	하원+골생이	[n+n]n		서귀호근
하жат	하+жат	[n+n]n		서귀동흥
하жат	하+жат	[n+n]n		서귀서흥
하жат	하+жат	[n+n]n		서귀호근
하жат성	하+жат+성	[n+n+n]n	(MM)M	제주노형
하жат성	하+жат+성	[n+n+n]n	(MM)M	제주연동
하жат성	하+жат+성	[n+n+n]n	(MM)M	제주해안
학빼기도	학+빼기+도	[n+n]n		서귀동흥
한내	한+내	[p+n]n		제주용담
한내동카름	한+내+동+카름	[p+n+n+n]n	((MM)M)M	제주오라

한내서카름	한+내+서+카름	[p+n+n+n]n	((MM)M)M	제주오라
한넛동네	한+내+동네	[d+n+n]n	(MM)M	제주용담
한두기	한+독+이	[p+n+s]n	(MM)M	제주용담
한두깃물	한+독+이+물	[p+n+s+n]n	((MM)M)M	제주용담
한무덤골	하+ㄴ+무덤+골	[a+r+t+n+n]n	((MM)M)M	서귀보목
한밭	한+밭	[p+n]n		제주도평
한수소	한+수+소	[d+n+n]n	(MM)M	제주아라
한이방통	한+이방+통	[n+n+n]n	(MM)M	제주내도
한질	한+질	[p+n]n		서귀서흥
한질	한+질	[p+n]n		서귀토평
한질긷	한+질+긷	[d+n+n]n	(MM)M	제주도남
한질동산	한+질+동산	[d+n+n]n	(MM)M	서귀영천
한질밭	한+질+밭	[d+n+n]n	(MM)M	제주삼양
한질새왓	한+질+새+왓	[p+n+n+n]n	(MM)(MM)	제주봉개
한질새왓	한+질+새+왓	[p+n+n+n]n	(MM)(MM)	제주용담
할망당	할망+당	[n+n]n		서귀대포
할망당	할망+당	[n+n]n		서귀도순
할망당	할망+당	[n+n]n		서귀하원
할망물	할망+물	[n+n]n		서귀강정
할망물	할망+물	[n+n]n		서귀강정
할망물	할망+물	[n+n]n		서귀대포
할미개	할미+개	[n+n]n		서귀서흥
할애비소	할애비+소	[n+n]n		서귀강정
함내	함+내	[vr+n]n		서귀서흥
함내골	함+내+골	[vr+n+n]n	(MM)M	서귀서흥
함박이굴	함박+이+굴	[n+s+n]n	(MM)M	제주노형
함백이물	함백+이+물	[n+n]n		서귀강정
함내골	함+내+골	[vr+n+n]n	(MM)M	서귀호근
함순밭	함순+밭	[n+n]n		서귀호근
항골	항+골	[n+n]n		제주삼양
항골	항+골	[n+n]n		제주월평
항골왓	항+골+왓	[n+n+n]n	(MM)M	제주이호
항괘밭	항+괘+밭	[n+n+n]n	(MM)M	서귀도순
항벌르동산	항+벌르+ㄴ+동산	[n+vr+e+n]n	((MM)M)M	제주회천
항통	항+통	[n+n]n		서귀하효
해그른이	해+그물+ㄴ+이	[n+vr+e+s]n	((MM)M)M	제주월평
해맞이동산	해+맞+이+동산	[n+vr+s+n]n	((MM)M)M	제주노형
향교가름	향교+가름	[n+n]n		서귀서흥
허개동산	허+가(哥)+동산	[n+s+n]n	(MM)M	서귀신호
허개동산	허+가+동산	[n+s+n]n	(MM)M	서귀하원
허계굴	허+가+굴	[n+s+n]n	(MM)M	제주영평
허문도	허물+ㄴ+도	[vr+e+n]n	(MM)M	제주노형

허문도	허물+ㄴ+도	[vr+te+n]n	(MM)M	제주연동
허문도	허물+ㄴ+도	[vr+te+n]n	(MM)M	제주해안
허벅두드리는디	허벅+두드리+는+디	[n+vr+e+n]n	((MM)M)M	제주내도
호갱이왓	호갱이+왓	[n+n]n		제주도두
호미동산	호미+동산	[n+n]n		제주이호
흑담밭	흑+담+밭	[n+n+n]n	(MM)M	서귀강정
흑물동산	흑+물+동산	[n+n+n]n	(MM)M	서귀중문
흑불근동산	흑+불그+ㄴ+동산	[n+ar+e+n]n	((MM)M)M	서귀호근
흑통	흑+통	[n+n]n		제주화북
흔착밭	흔+착+밭	[d+n+n]n	(MM)M	서귀강정
흙도	흙+도	[n+n]n		서귀중문
흙밭	흙+밭	[n+n]n		서귀용흥
흙밭	흙+밭	[n+n]n		제주아라
흙밭	흙+밭	[n+n]n		제주아라
흙밭	흙+밭	[n+n]n		제주의도
홍굴왓	홍굴+왓	[n+n]n		서귀중문
홍기올래	홍+가+올래	[n+s+n]n	(MM)M	서귀회수
홍성방드르	홍+성방+드르	[n+n+n]n	(MM)M	제주연동
홍웁이동산	홍+웁이+동산	[n+n+n]n	(MM)M	제주영평
홍젓물	홍제+물	[n+n]n		서귀호근
홍합붕우지	홍합+붕우지	[n+n]n		서귀강정
홍합여	홍합+여	[n+n]n		서귀호근
홍합여/추진여	홍합+여	[n+n]n		서귀대포
화생이터	화생+이+터	[n+s+n]n	(MM)M	제주봉개
화터	화+터	[n+n]n		제주삼양
활대왓	활+대+왓	[n+n+n]n	(MM)M	제주도두
활대왓	활+대+왓	[n+n+n]n	(MM)M	제주삼양
활대왓	활+대+왓	[n+n+n]n	(MM)M	제주삼양
활대왓	활+대+왓	[n+n+n]n	(MM)M	제주영평
활망당못	활망+당+못	[n+n+n]n	(MM)M	제주삼양
활손동산	활+손+ㄴ+동산	[n+vr+e+n]n	((MM)M)M	제주의도
활손동산	활+손+ㄴ+동산	[n+vr+e+n]n	((MM)M)M	제주이호
활손밭	활+손+ㄴ+밭	[n+vr+e+n]n	((MM)M)M	서귀대포
활손터	활+손+ㄴ+터	[n+vr+e+n]n	((MM)M)M	제주건입
활오름	활+오름	[n+n]n		서귀용흥
활오름동산길	활+오름+동산	[n+n+n]n	(MM)M	서귀용흥
활오름뒷동산	활+오름+뒤+동산	[n+n+n+n]n	((MM)M)M	서귀용흥
황개	황+개	[n+n]n		서귀보목
황개동산	황+개+동산	[n+n+n]n	(MM)M	제주연동
황개창	황(黃)+개창	[n+n]n		서귀서귀
황개터동산	황+가+터+동산	[n+s+n+n]n	((MM)M)M	제주노형
황개동산	황+가+동산	[n+s+n]n	(MM)M	제주삼양

황계동산	황+가+동산	[n+s+n]n	(MM)M	제주 회천
황고지왓	황고지+왓	[n+n]n		제주아라
황구물	황구+물	[n+n]n		제주 회천
황구물동산	황구+물+동산	[n+n+n]n	(MM)M	제주 회천
황우지굴	황우지+굴	[n+n]n		서귀서흥
황우지목	황우지+목	[n+n]n		서귀서흥
햇대왓	햇+대+왓	[n+n+n]n	(MM)M	서귀중문
회구미동산	회+굽+ㅁ+이+동산	[n+vr+ets+n]n	((MM)M)M)M	서귀신호
훈장하르방여	훈장+하르방+여	[n+n+n]n	(MM)M	제주내도
흙근머흘	흙+은+머흘	[ar+e+n]n	(MM)M	서귀색달
혜싼거리	혜+싸+ㄴ+거리	[n+vr+e+n]n	((MM)M)M	제주 화북
행이문	행+이+문	[n+n]n		제주건입
흐렁논	흐렁+논	[ar+n]n		서귀월평
흑괘	흑+괘	[n+n]n		서귀호근
흑소	흑+소	[n+n]n		서귀강정
흘번지	흘+번지	[n+n]n		제주월평
흙담	흙+담	[n+n]n		서귀서흥
흙담	흙+담	[n+n]n		서귀호근
흙소	흙+소	[n+n]n		서귀중문
흰돌	희+ㄴ+돌	[ar+e+n]n	(MM)M	서귀호근
흰돌	희+ㄴ+돌	[ar+e+n]n	(MM)M	서귀회수
흰돌밑	희+ㄴ+돌+밑	[ar+e+n+n]n	((MM)M)M	서귀호근
흰돌앞밭	희+ㄴ+돌+앞+밭	[ar+e+n+n+n]n	((MM)M)M)M	서귀호근
흰동산	희+ㄴ+동산	[ar+e+n]n	(MM)M	서귀토평
흰비석세운밭	희+ㄴ+비석+서+이+우+ㄴ+밭	[ar+e+n+vr+st+st+n]n	((MM)M)((MM)M)M	제주회천
흰빛돌왓	희+ㄴ+비+돌+왓	[ar+e+n+n+n]n	((MM)M)M)M	제주회천
흑담밭물	흑+담+밭+물	[n+n+n+n]n	((MM)M)M	제주오라
흑담밭캐	흑+담+밭+캐	[n+n+n+n]n	((MM)M)M	제주오라
흙내	흙+내	[n+n]n		제주오라
흙통	흙+통	[n+n]n		서귀토평

<Abstract>

A Study on Morphology and Phonology of Jeju Place Name Words

Moon Deok-chan

Jejudo has various and specific old place names in comparison with other different places in main land of Korea. And it has mostly used words of its own as place names except for the administrative one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t may be because Jejudo maintained proper place names except the case that words of Chinese characters was used as place names to record the partial documents of Jejudo history and compile a genealogy, while the parts of the main land changed their proper place names to words of Chinese characters to record documentary literatures in Choseon dynasty. The proper place names are still shown up in hills and valleys, forests and plains, fields and villages, pools and streams, seas and the their bottoms, even each stone. It can be considered that Jeju's place names are worth studying from the viewpoint that they has various and specific forms as well as many archaic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and systematize the Jeju's place name words through analyzing the form of their back parts according to their meanings, to disclose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ir words through the analysis of their morpheme, and to look into their morphological and phonological distinction through the phoneme phenomenon. This study classified and analyzed the back elements of about 8,000 place names mainly written in 『Jejushi's old place names』, 『Namjejugun's proper place names』 and 『the source book of Seogwipo's

place names. This also cleared the meanings of the back elements and systematized them according to the similarity of them.

The criteria of the classification is whether or not the meanings of the words themselves are similar or related together, and whether they are related to the regional places and the geographical features. According to the criteria, this study has shown the meaning and distinction of each back part of the place names, sorted by related meanings among themselves. In the morphological research, the data of Jejushi and Seogwiposhi except Namjejugun of the abstracted 7,830 data have been used in analyzing the morpheme, and the 3,070 data of the abstracted 5,000 that could discriminate the morpheme among Jejushi and Seogwiposhi's place names have been used to examine the word structure.

Therefore, this study has seized the structures of the Jeju's place names and examined their structural and morphological features by analyz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structural pattern of the Korean language. The structure of the place names has been analyzed and abstracted by the type of the immediate constituent(IC) or the each part of speech. And more than three morphemes in one word have been classified with the order of the combination and used to abstract the word structure according to their parts of speech.

The result of the structure analysis is as follows;

- 64 words that are combined as the structure of substantive and substantive(N+N)

- Words that are combined as the structure of adnominal phrase and substantive(D+N);

- 3 words formed as the structure of adnominal phrase and noun(d+n)

-12 words made up as the structure of adnominal ending of adjective and noun(ar+e+n)

-15 words joined together as the structure of adnominal ending of verb and noun(vr+e+n)

· Words that are combined as the structure of root of a declinable word and noun;

-2 words combined as the structure of adjective root and noun(ar+n)

-2 words joined together as the structure of verb root and noun(vr+n)

-1 word made up as the structure of adverb root and noun(adr+n)

· Words that are combined with an affix;

-2 words combined as the structure of prefix and substantive(p+N)

-5 words formed as the structure of substantive and suffix(N+s)

-2 words joined as the structure of word stem of a declinable word and suffix(Vr+s)

-2 words made up as the structure of definitive form of a declinable word and suffix(Vr+e+s)

With 7,800 Jeju's place names, this paper has shown the patterns of the phonemic alteration and examined by looking into the process of the phoneme in which environment the phonemic phenomena of the proper ones took place and why they happened. This has disclosed how the linguistic distinction of the Korean language appeared in the place names by comparing them with the common language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their back parts and the analysis of the morpheme with the objective and scientific approach.

As a result, we can see that the place name words largely has the same phenomena in phoneme as common language, but has often the ones

to still keep the archaic appearance, and even new words exist together with the archaic forms. We can recognize there are much more the compound and derivative words in the place names than in common language from the pure forms to ones added to before or behind. Therefore, I think this study on words, morphology and phonology of Jeju place name words will have a great effect on the whole research for Korean language because we can study the Koreanology synchronically and synthetically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research of the place name words. In other words, this study will be able to help not only grasp the process of Korean word formation if ascertaining the process and the structure of Jeju's place name words, but also correct the data of new place name words or wrong place name ones. Also this study will contribute the overall advance in the Korean studies by adding the study on the place name words, Toponymy, to the study on general linguistics and Koreanology.

